

2011년 소요산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상 작품집



2011년 소요산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상 작품집



동두천시



동두천문화원

소요산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상 작품집

■ 발간사	원장 안민규 · 3
■ 축사	시장 오세창 · 4
■ 축사	시의장 임상오 · 5
■ 심사위원 소개	6
■ 심사평	7
■ 입상작품집	
자재암해골	김성준 · 9
우당탕탕 소요패밀리!	문코인 S · 33
잃어버린 가을을 찾아서	이유성 외 · 75
설총의 편지	이유성 외 · 95
요석공주의 연리지를 구하라	최지훈 외 · 113
소요산의 꿈	윤성제 · 137
소요정언록의 예언	이슬비 · 159
해갈	노두리 외 · 185
붉은 별	홍민기 외 · 207
금송 굴	황장섭 · 231
단풍 수호대	조경희 외 · 267
두드림패밀리	문준일 외 · 295



동두천문화원장 안민규

제26회 소요단풍문화제를 기념하여 2011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당선된作品集이 발간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소요산과 관련된 유·무형 자원을 소재로 동두천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창작 테마스토리라는 주제로 공모하였으며 전국에서 총 31편이 접수되어 그 중 “자재암 해골”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12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미래학자 롤프 안센은 그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에서 정보화사회의 태양이 지고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10여년전에 예견한바 있습니다. 즉 이야기와 꿈이 부가가치를 만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행위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명산 소요산에는 예로부터 많은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요산 스토리텔링공모전을 한 것도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 향토문화유산, 설화(신화, 전설, 민담), 자연생태자원 등을 스토리화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동두천시 고유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에서는 입상作品集 발간을 기점으로 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스토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리며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작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노수민, 이병헌, 김정자, 황영경 심사위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요산스토리텔링공모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동두천시장님과 임상오 동두천시의회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장 오세창

우리시에는 천년고찰인 자재암과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이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소요산에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삼고자 이번에 ‘소요산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 수상작품’을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은 미래산업이고 전략산업입니다. 요즘은 ‘문화’와 ‘상품’이라는 ‘컬덕트’(cul-duct)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문화의 힘은 점점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융합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문화 산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문화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축적되는 것이며, 문화예술은 이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특정인이 즐기는 문화가 아닌 보편적인 문화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인 소요산을 주제로 한 “입상 작품집”발간은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입상 작품집”이 발간되기까지 공모심사 등에 수고하여주신 안민규 문화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곁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의회장 임 상 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제26회 소요산 풍문화제 기념 2011 소요산 스토리 텔링 공모전 입상 작품집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안민규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토리텔링이란 기법으로 이번에 처음 개최된 공모전에 전국적으로 31편의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그중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이번에 작품집으로 발간된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시의 명산인 소요산을 스토리화하여 공모하였지만 다음 공모전에는 조선시대 충신인 어유소 장군 등 유명한 역사 인물 및 우리시를 둘러싼 6산, 동두내옛소리 및 하봉암도당굿 등 무형 문화재등 여러 소재로 확대하여 전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스토리텔링에 공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느끼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시민의식의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문화가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번영도 좌우할 것이며, 또한 문화산업의 시대에 문화예술이 추구하는 무한한 사고력과 창조력이 국가발전의 밑거름이자 세계 인류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첫 번째로 발간하는 『2011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상 작품집』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올 한해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위원

김정자

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동두천시 시의원(전)
의정대상 수상.
여성문학단체 '소요문학' 전) 회장. 현)'동두천 문인협회' 감사
<한국작가>, <문학과 현실> 신인문학상 수필. 시부문 당선
한국문인협회 회원
'극단 동두천' 대표
동두천 예총 상임이사
이 호왕 박사 기념관 프로젝트 개발 및 유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문화복지과)

노수민

한국문예산업연구원
대표작가, 소설가

경희대 국문과 졸업
중앙일보, 동양방송 제1회 문예대상 장편소설부문 수상, 등단
한국문인협회 감사
한국소설가협회 윤리위원장/이사
안동시 스토리텔링 개발 및 소설화
이천 스토리 개발 및 소설화(천년의 만남)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텔러 양성 프로젝트 참여
장편소설 : 고독한 파수꾼, 첫남자의 마지막여자, 그네위의 방,
위험한 연가, 먼훗 날의 그대 등 20여편 집필

이병헌

대진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문학박사학위 취득
저서 : 한국현대비평의 문체

황영경

신흥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 문학박사학위 취득
2000년 신흥대학신문 100호 기념 문예공모 대상 수상(소설)
2002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당선(소설)
2008년 포토시집 출간 <파티에 못 간 신데렐라>
단편소설 <노루궁뎅이> <녹천> <중향> <황색바람>
<잠에서 깨어난 몸타즈마할> 등 발표

※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금년이 제 1회인 소요산 스토리텔링공모전에 총 31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다.

스토리텔링을 가르치는 교수, 스토리텔링 작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31편의 응모작을 1차로 16편을 추려내었다. 16편을 놓고 다시 한 번 돌려가며 읽었고 4명의 심사위원들은 작품마다 각각 점수를 산정하였다. 4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제일 높은 총점을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차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으로 분류하고 12편을 선정했다.

첫 공모전이었음에도 응모작의 수준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구성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다만, 응모작의 반 이상의 작품이 모두 원효대사와 요석 공주에 맞추어졌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지 못함이 아쉬웠다.

1차에서 탈락된 작품들의 대부분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글을 쓴 경우가 많았다. 스토리텔링은 소설, 시나리오, 희곡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 그야말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소재’를 의미하지만 고중에 의거하거나 설화, 전설에 흥미있는 창작적인 이야기가 가미되어야 한다.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소요산, 동두천이라는 무대만 가져다 놓고 그곳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전개한 수준 미달의 작품들은 1차에서 탈락시켰다.

대상인 ‘자재암 해골’은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과 원효대사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를 멋지게 접목시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작품성이 부족한 반면 창작성이 뛰어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우당탕탕 소요패밀리’는 소요산에 있는 모든 장소의 수호신들을 만들어 이야기를 끝어 나가는 경쾌한 작품이었다. 현대적인 젊은 감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최우수상으로 결정을 보았다.

금년이 1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나름대로 괜찮은 수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좀 더 착실하게 준비된 ‘스토리텔링’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 노수민, 이병헌, 김정자, 황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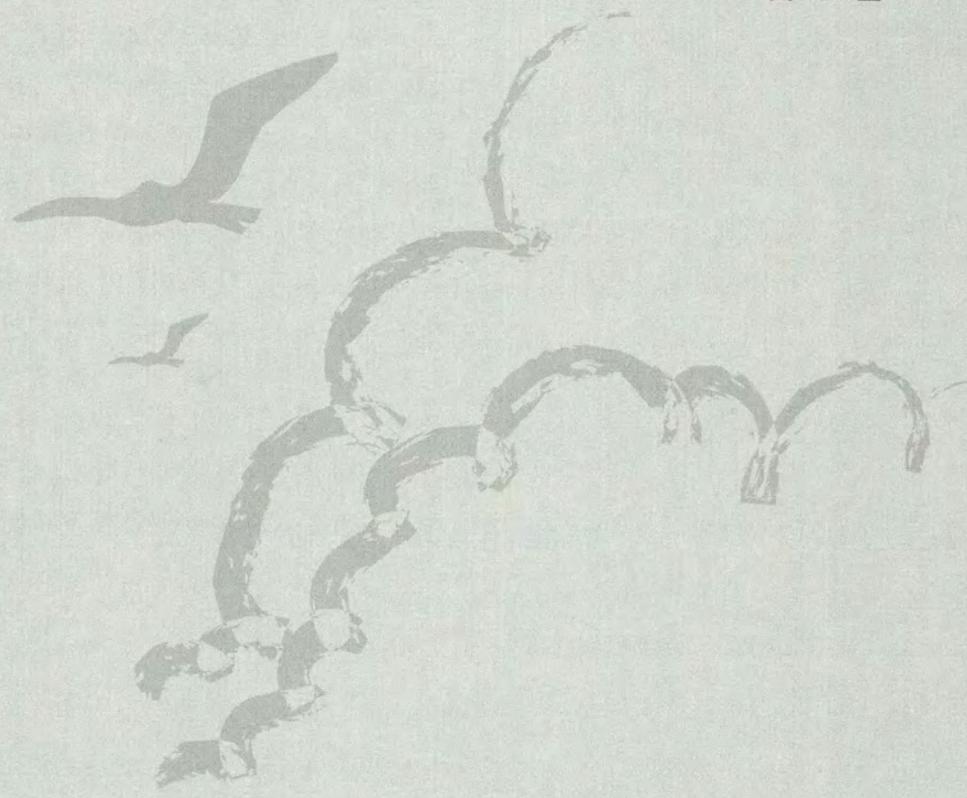


여 백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자재암 해골

김성준



당선소감

저의 고향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가릴 줄 모릅니다. 횡으로 펼쳐져 있기에 우리의 시야가 닿는 한까지 바다는 모든 걸 드러냅니다. 그러나 산은 횡의 바다와 달리 종(縱)의 압축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것의 진면목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바다가 단순함의 미(美)를 가진다면, 산은 종합을 완성합니다. 평범한 풀, 나무, 바위조차 산에 머뭇으로써 산을 이루고, 산과 조화되어 하나의 풍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통해 초목처럼, 바위처럼 소요산에 안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재미난 이야기일 수 있는지, 남들에게 읽힐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기에 쑥스러운 손으로 내민 이 작품이 대상에 당선됨을 알았을 땐, 기쁨 못지않게 부끄러움도 느껴야 했습니다. 대상이 될 줄 알았더라면 또 보고, 다시 고치는 노력을 가열히 했을 텐데,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4년 전 이맘때, 소요산에 처음 가봤습니다. 소요산역에서 자재암에 이르는 길은 평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늦가을이 바람에 실려 청량히 단풍을 스치고, 숲의 새가 푸드덕거리려 낙엽을 냇물 위로 떨어뜨리자 저는 감각의 구획을 상실했습니다. 시각이 곧 청각이었고, 청각은 곧 촉각이었습니다. 산의 매력이 저의 감각을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경기소금강이라는 이름이 허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산에 저의 이야기를 입히는 것은 더없는 영광입니다. 졸작을 너그러이 봐주신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 그리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빼어난 실력을 지녔음에도 아쉽게 수상권에 들지 못한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요산 자재암과 원효대사의 인연 2.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다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크게 깨우쳤다는 일화 3.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1, 2차 왕자의 난을 겪은 후 소요산 행궁에 머물렀던 사건 4. 마필수와 오장곤이라는 가상의 인물들 간의 지략대결
<p>스토리 구성 (Plo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단 : 오장곤이 중병에 걸려 앓는다는 소문이 돌자 마필수가 오장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 2. 전개 : 마필수는 노래를 퍼트려 소요산 자재암에 원효가 마셨다는 해골이 있다는 소문을 만들어낸다. 소문의 골자는 해골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아 불로장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시주승으로 둔갑하여 오장곤 앞에 등장한다. 오장곤은 그를 철썩 같이 믿고 해골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해골만 구해주면 큰 절을 짓도록 거금을 시주하겠노라 약속한다. 3. 위기 : 의상대에서 고초를 겪은 마필수는 해골을 가지고 한성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해골 물을 마신 오장곤은 졸도를 해버린다. 마필수는 사기꾼으로 몰려 내쳐진다. 그는 약속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4. 절정 :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은 모두 오장곤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장곤은 죽는 시늉을 하다가 해골 물을 마시고 별땀 일어섰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사람들은 그 해골을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다.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서 거금을 거머쥐게 된다. 5. 결말 : 마필수는 오장곤에게 복수하고자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오장곤은 더욱 부를 쌓아갔고, 백성들 사이에는 소요산에 원효대사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이 두루 전파된다. 이성계는 백성들 등살에 못 이겨 소요산을 떠나 함흥으로 떠나버린다.

구 분	내 용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마필수 : 파락호에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인간. 오장곤을 등쳐먹으려고 하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는다.</p> <p>오장곤 : 농민 출신의 졸부. 하지만 피가 많아 돈을 모으는 재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p> <p>천병달 : 오장곤의 아랫사람. 순박하고 어리석은 데가 있다. 그의 꿈은 시전의 어물전 하나를 꿰차고 호의호식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단숨함이 마필수의 목을 죄게 된다.</p> <p>오명산 : 오장곤의 아들. 겉으로는 효성이 지극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장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고승인 척하는 마필수를 경계하는 인물.</p> <p>그 외 : 자재암 동자승, 동자승인 척하는 동네 아이, 이성계, 주막집 손님 등.</p>

시놉시스

1. 테마스토리 발굴배경 및 의의

스토리텔링의 궁극적 목표는 제재(題材)에 재미난 이야기를 입힘으로써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대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명산인 소요산에 새로운 이야기를 붙여넣음으로써 소요산을 흥미로운 장소로 만들어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자재암에 비해 덜 유명한 태조 행궁지를 이야기 속에 넣음으로써 향후 태조 행궁지도 각광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바로 이러한 점에 본 작품작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 스토리 관련 기초 정보

원효대사와 자재암 전설, 원효대사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 이성계가 소요산에 행궁을 마련하여 머물렀던 사건.

3. 스토리보드의 매력 포인트

소요산과 무관한 이야기를 중심사건으로 전개하면서도 늘 사건의 중심에는 소요산과 자재암이 놓인다는 점. 바로 이를 통해 독자(관객)들은 소요산에 대해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효대사가 해골 물을 어디에서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헌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소요산을 그 장소로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

4. 줄거리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오장곤은 오래 살 욕심을 부려 이 약, 저 약을 아무렇게나 주워 먹다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걸린다.

용한 의원들도 포기를 하자 오기가 생긴 오장곤은 전 재산의 반을 내걸고 자신의 병을 치유할 사람을 찾는다.

오장곤이 산송장이 다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필수가 오장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 아이들을 시켜 해괴한 노래를 유행시키는 것으로 계획은 착수된다. 노래의 주된 내용은 원효가 냉수 고인

물을 달게 마셨다는 그 해골이 다름 아닌 소요산 자재암에 있다는 것이었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결별한 후 실제로 자재암에 머물렀기에 허풍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마필수는 자신하였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마필수는 오장곤의 집을 찾는다.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 시주승으로 변장한 그는 물이 흐르듯 거짓말을 잘도 지어내 오장곤을 현혹한다.

마필수에게 깜빡 속은 오장곤은 천병달과 함께 소요산으로 가 해골을 찾아달라고 매달린다. 마필수는 거찰 건립 비용을 시주 받는다는 조건으로 거래에 응한다.

해골을 미리 준비한 마필수는 다행히 상왕 이성계의 행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검문을 통과한다.

소요산에 도착한 마필수는 천병달을 속일 궁리를 하였으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꿈에서 받은 계시에 확신을 가지게 된 마필수는 의상대에 올라 해골을 파묻어둔다. 그리고는 천병달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해골을 끄집어냄으로써 천병달을 감쪽같이 속인다.

순진한 천병달은 오장곤에게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 오장곤은 천병달과 마필수를 믿고 새벽에 받은 이슬을 해골에 담아 들이킨다. 그 물을 마신 오장곤은 혼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사기꾼임이 들통난 마필수는 오장곤의 집에서 쫓겨나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된다.

마필수가 사라지자 오장곤은 슬며시 눈을 뜬다. 그가 소생하자 아들 오명산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오장곤은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자신이 꾸민 일임을 밝힌다. 처음부터 그는 마필수의 사기를 역이용할 속셈이었음을 아들에게 설명해준다.

마필수를 거꾸로 이용한 오장곤은 해골 물을 마시고 소생하였다는 소문을 퍼트린다. 그가 산송장이라는 것은 장안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에 한성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해골을 사고자 찾아온다.

오장곤은 해골을 절대 팔지 않았으며, 그럴싸한 사람들에게만 한 모금씩 마시게 해주었다. 그런 식으로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수 만 냥을 버는 거부가 될 수 있었다.

오장곤이 해골 물을 마시고 기적처럼 소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소요산을 찾기 시작했다. 원효대사의 기운을 받아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다.

소요산 행궁에 머물던 이성계는 밀려드는 백성들이 부담스러워 행궁을 함흥으로 옮겨버린다.

다대암 해골

1. 부자 오장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그 여파는 민간에까지 미쳤다. 고려조에 행세하던 귀족·부자는 한순간에 망해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흩어진 부(富)는 새로운 임자를 만나기 마련이다. 오장곤도 그 순풍을 타고 팔자를 고친 신흥부자 중의 하나였다.

오장곤은 대대로 한성에서 농사짓던 농민에 불과했다. 물려받은 땅은 제법 많아서 남산 북쪽에서는 땅 꽤나 가진 농군으로 통했다. 그러다가 태조가 도읍을 한성으로 옮기고부터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다. 한산하던 한성에 궁궐이 세워지고, 관청이 들어서고, 문무백관들이 몰려들자 자연스레 그가 가진 땅의 가치가 올라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입이 귀에 걸린 그였지만, 선불리 전답을 처분하는 대신 가만히 추세를 지켜보았다. 사람이 많아지면 시장부터 들어설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도왔는지 광화문 앞에 시전이 생겨나자 그는 쾌재를 불렀다. 힘들여 농사를 지어봐야 세금으로 다 뜯기던 땅마지기였다. 그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답이 금덩어리가 되어 돌아오자 오장곤은 일약 한성에서 몇 째 가는 부자가 된 것이다.

오장곤은 주로 비단과 서책, 약재 등 귀족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다루었다. 이 점은 평민에 불과한 오장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비록 진짜 양반은 될 수 없지만, 지체 높은 양반들을 상대하다보니 자신도 상류층이라도 된 양 어깨가 으쓱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는 법인지,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의 팔자가 한탄스러워졌다. “이 놈의 팔자는 어떻게 된 게 이제 좀 살 만해지니 죽을 날을 받아놓게 생겼군. 고려가 진작 망해서 조선이 몇 십 년 더 빨리 건국 됐으면 한 평생 후련하게 누려 볼 일이었는데!”

그는 입버릇처럼 이런 한탄을 자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장곤의 나이 어느덧 환갑, 남들보다 장수를 했다고 하나 이제 갓 부자가 된 그로서는 방금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을 원 없이 살아보고도 싶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래서인지 곳간 가득한 곡식에 금은보화에 고래등짝 같은 집채를 보고 있노라면 자긍심보다는 아쉬움만 묻어 나왔다.

“여봐라, 몸에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내게 먼저 대령하라! 그걸 먹고 천수를 누릴 터!”

오장곤은 아랫사람들이 채집해오거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의 약재를 입에 욱여넣곤 하였다. 산삼, 녹용, 웅담에 이르기까지 그가 취하지 않은 약재가 없다 할 정도였다. 창자로 들어가는 약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도 그만큼 늘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 때문이었다.

얼마나 이 약재, 저 약재를 입에다 아무렇게나 털어 넣었는지 그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쫓쫓, 당신 병은 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섭취하였기 때문이오. 이제는 병을 치유하고자 약을 쓰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일 거요. 게다가 노환까지 겹쳤으니 죽은 화타가 벌떡 일어난들 당신의 병만큼

은 어찌지 못할 게요.”

진맥을 하던 의원은 혀를 끌끌 차며 오장곤의 무식을 탓하였다. 오장곤은 떠나려는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보쇼, 의원 영감! 나 좀 살려주소. 목숨만 살려주면 뭐든 다 드리겠소. 어떤 약이 묘약인지 말만 하면 아랫것들이 모조리 구해올 것이니!”

의원은 그런 오장곤이 답답하였던지 또 다시 혀를 차며 대꾸한다.

“이것 보시오. 내가 뭐라고 했소. 이제 어떤 약이든 쓸모가 없다니까. 당신이 이미 약을 원체 많이 먹어서 이제 더 먹으면 바로 독약으로 작용하고 말 거요! 그러지 말고 마음이나 잘 추스르시구라.”

의원은 돈도 마다하고 떠나버렸다. 오장곤은 허탈한 심사에 사랑방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하인 중 누군가 그의 표정을 봤더라면, 산송장이 바깥주인 사랑방에 누워 있다고 난리법석을 피워대고도 남음이였다.

한참을 맥 빠진 사람처럼 앓는 소리만 내던 오장곤은 무슨 결심이 섰는지 젓 먹던 힘을 짜내 하인을 불렀다.

“내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전 재산의 반을 줄 터이니, 너는 장안 구석구석에 방(榜)을 붙이도록 하여라.”

2. 소문

한성 곳곳에 방문(榜文)이 붙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돈이 눈이 먼 의원들이 실력도 없이 오장곤 집을 방문하였다가 된서리만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제법 용하다는 의원들도 몇몇 오장곤을 진맥 하였으나 다들 소득 없이 돌아가야만 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은 하늘에 매인 것인데 의원인들 어쩔 도리가 있겠나. 그저 때 되면 저승 갈 차비를 해야 하는 게 순리지.”

“그거야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 얘기고, 오 부자처럼 평평거리는 부자가 어디 황천길이 달갑기야 하겠어?”

“달갑든 안 달갑든 염라대왕이 부르면 가야지. 부처님이라면 모를까, 사람이 어떻게 저승사자 성화를 버틸꼬!”

방문(榜文) 앞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며 오장곤을 비웃었다. 옆에 있던 어느 사내가 그들의 말을 듣다가 무릎을 쳤다.

“맞아!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가 부처님을 외치며 혼자서 킁킁거리자 사람들은 그를 실성한 작자라 하여 멀찌감치 물러섰다. 사내는 계속 묘한 웃음을 띠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사내의 이름은 마필수. 고려조에는 개경에서 행세 꽤나 하던 집 자제였으나 위낙에 파락호에 오입쟁이인지라 그 많던 재산을 몽땅 잃고서 한성 바닥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돈 되는 거라면 뭐든지 일단 덤비고 보는 자였으므로 오장곤이 내다붙인 방문에 구미가 당기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꽤 많은 마필수도 사람 살려내는 데에는 재주가 없었기에 공을 치나 싶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피를 하나 일

러준 셈이 되었다.

마필수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 엿을 사주며 말했다.

“너희들, 내가 재밌는 노래를 하나 가르쳐줄까?”

아이들은 엿을 쪽쪽 빨면서 마필수의 입만 쳐다보았다.

하늘의 기등을 받친다던 도끼자루
서라벌 야합에 요석공주 태몽 꾸네.
아비가 누군들 알아서 무엇 할까.
해골 물 달게 마신 원효대사 아닌가.
아아, 그 물 한 바가지 내게도 주소.
진시황 못 구한 불로초가 아닐쏘냐.

마필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도 재미있었던지 곧잘 따라 불러댔다. 그때부터 노래는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 가사가 음란한 데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혼을 내며 금지했다. 그러나 막으면 막을 수록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더 널리 퍼트려댔다. 굳이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古事)를 끌어들일 것도 없이, 말이란 것은 참 묘한 힘이 있는데, 처음에는 얼토당토않게 여겨지던 것이 자주 반복되면 참인 듯 여겨질 때가 있기 마련이다. 마필수가 퍼트린 노래도 점점 생명력을 얻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실체 있는 소문이 되기에 이르렀다.

“원효대사가 마신 그 해골 물을 한 바가지 마시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구먼.”

“예끼,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될 성싶은가? 설사 그렇다 해도 몇 백 년 전에 대사가 바가지로 썼다는 그 해골을 어디 가서 구하겠나? 벌써 흙이 되어 흠어졌겠지.”

주막에서 두 사내가 해골 물 이야기를 하고 있자, 이때다 싶어 마필수가 끼어들었다.

“저 모르는 소리 하지마쇼. 부처님 진신사리가 먼지가 되어 허공에 붕 뜬답디까? 흙이 되어 사라진답디까? 모름지기 묘한 힘이 있는 것은 부시고자 해도 부서지지 않는 법이요. 대사께서 마시고 득도한 그 해골바가지가 세월에 녹는다면 그거야말로 허풍인 게지! 저 인왕산 꼭대기의 바위조차 수 천 년을 너끈히 버티는데, 불법을 완성시킨 해골이라면 두말하면 잔소리이지!”

재주 좋은 마필수가 걸쭉하게 말솜씨를 뽑아내자 사람들은 옳다구나 싶어 입을 헤 벌린 채 고개만 끄덕 거렸다. 누군가 호기심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는 오장곤의 집에서 약재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름은 천병달이라 하였다.

“이보슈, 그렇게 잘 알면 그 좋다는 해골이 어디에 있는지 맥은 아슈?”

마필수는 시치미를 푹 떼며 입을 열었다.

“그걸 알면 여기에 있게? 벌써 내가 한 바가지 마시고선 임금님께 진상하여 현감 자리 하나 꿰찼지!”

그러자 좌중이 ‘옳거니!’, ‘그 양반 재밌구만!’ 하며 왁자지껄 웃어댔다. 그러나 마필수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지나가는 말로 슬쩍 흘려보았다.

“저 어디더라. 이담(伊潭, 동두천의 옛 지명) 어딘가에 있다는 소릴 들었소만, 에이, 뜬소문이겠지. 설마 그런 게 정말 있을까.”

마필수는 자신도 못 믿겠다는 시늉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뒷일은 상대방이 알아서 풀어주었다.
“가만 있자……. 이답이라……. 이답……. 아! 거기 소요산이 있지 않소!”

천병달은 난데없이 소요산 얘기를 꺼냈다. 마필수는 이 양반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리를 하나 싶어 천병달이 지껄이는 대로 뇌뒤편을 보았다. 천병달은 수수께끼의 아귀라도 맞춘 것처럼 갑자기 신이 나 호들갑을 떨며 이야기했다.

“이답에 소요산이 있잖소. 그러니까 그 소요산이 어디냐! 원효대사께서 요석공주와 야합을 하여 설총을 낳으신 후 숨어 들어간 명산이 아니냐 이 말이외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요?”

옆에 있던 어떤 사내는 아직도 말뜻을 모르겠다는 듯 천병달에게 되물었다. 천병달은 답답하다는 듯 그를 일깨웠다.

“허허, 이런 답답한 사람 봤나! 서라벌에서 야합한 원효대사가 왜 굳이 천 육백 리 길이나 걸어서 소요산까지 가셨겠느냐 이 말씀이지!”

마필수는 일이 잘 풀리겠구나 싶어 입이 금세라도 벌어질 것 같았으나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도리어 자신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깨우쳤다는 듯 천병달에게 맞장구를 쳤다.

“오호라! 형씨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하군. 그러니까 대사께서 의상과 함께 중국 유학길에 오르다가 해골 물을 마신 곳이 바로 소요산이라는 게요? 그래서 크게 깨우친 그곳을 중생 구제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자재무애(自在無碍)의 호방한 기상으로 자재암을 세우셨다 이 말씀인가? 그렇다면 해골은 바로 소요산 어느 곳에 있음이 틀림이 없으려다! 암, 암! 그렇고말고! 제 아무리 소요산이 경기 소금강이라 한들 설마 하니 대사께서 단풍구경이나 하러 그곳까지 가셨을 리 만무하지! 암! 그렇고말고!”

마필수가 이렇게 정리를 하자 천병달도 더 많은 걸 알게 됐다는 듯 흡족하였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꿈틀거리는 꼴이 지금에라도 당장 소요산으로 달음질할 기세 같았다.

‘이거 잘만 하면 주인 나리한테 제대로 공을 세우겠는걸! 어디, 팔자 제대로 한번 고쳐볼까.’

천병달은 이런 꿈꿨던 속을 간직한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는 오장곤의 집으로 곧장 갔다. 마필수는 녀석 좋은 미소 뒤에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서 천병달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리! 나리!”

집에 돌아온 천병달은 야심한 시각이었으나 오장곤의 사랑방 앞에서 주인을 애타게 불렀다.

“무슨 일인가!”

오장곤의 아들이 천병달을 꾸짖으며 말했다. 천병달은 반드시 오장곤을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성화를 부렸다. 그의 말투에 거짓이 없어 보였으므로 오장곤의 아들은 천병달을 막아서지 않았다.

“어쩐 일로 이 시간에 그리 호들갑을 떨어대는 게냐!”

오장곤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지만, 주인다운 서릿발은 아직 잃지 않은 듯했다. 천병달은 오장곤 쪽으로 바짝 다가갔더니 그간의 소문과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했다. 말을 다 들은 오장곤은 더 듣기도 귀찮다는 투로 그를 물리치고자 했다.

“이 놈이 실성을 한 모양이로구나. 그래, 네 놈 눈에는 내가 산송장이 다 되니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삼정승 육판서까지 상대하던 오장곤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헛소리를 지금 내게 믿으라는 게냐!”

오장곤의 목소리에 노기가 실리자 오장곤의 아들은 천병달을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천병달은 억울한지 어이구, 어이구 하며 제발 믿어달라고 읊소하듯 간청했다.

“뭘하느냐! 어서 이 미친놈을 끌어내지 않고!”

제 판에는 공을 세워 시전 행수 자리라도 얻어 볼 요량이었던 천병달은 마당 한 구석에 내팽개쳐졌다. 그는 끝내 아쉬웠던지 믿어달라는 말을 연발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얼굴에 끼얹어진 찬물밖에 없었다. 천병달은 자신에게 냉수를 퍼붓는 바가지를 보자니,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실성한 듯 제 주인을 애타게 불러대는 것이었다.

‘하이고, 저 바가지를 보자니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생각밖에 안 나는구나!’

천병달은 이렇게 속이 타들어갔으나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3. 대면

날이 밝자마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대문 밖에서는 반야심경 읊는 소리가 씨암탉 꼬꼬댁 울음과 뒤엉켜 있었다. 하인 한 명이 나가보니 시주승 한 명이 동자승 하나를 데리고 서 있었다.

“스님, 죄송하지만 시주는 못하겠습니다요.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서 원!”

그 말을 들은 시주승은 주저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는 왔던 길로 발길을 잡아 몇 걸음을 걷더니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탄식했다.

“허허,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던가. 보름달이 속을 비워내면 불법(佛法)으로 채워 넣으면 될 것을! 허허!”

시주승은 알듯 모를 듯 하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불심이 깊던 하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시주승을 불러 세워 그 말뜻을 물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달도 차면 기울고, 보름달의 속이 비면 불법으로 채우라니요?”

“자네 주인을 두고 한 말일세. 집착에서 고통이 생기는 법! 텅 빈 욕신을 붙잡고자 약재로 탐심 가득한 배를 채우니 부처님 주신 생명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갈꼬, 약재에 밀려 보름달이 텅 비었구나! 초승달이 되었구나! 그름이 머지않았구나!”

하인은 무식했기에 선문답 같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주승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냅다 달려 오장곤의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가 오장곤의 아들을 데리고 대문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시주승은 웬일인지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이 스님이십니다요. 스님께서 하도 비범한 말씀을 하셔서 나리를 모셔온 것입니다요.”

하인의 말을 들은 오장곤은 시주승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느 시주승들처럼 삿갓을 깊숙이 눌러 썼기에 그 용모를 살필 수는 없으나, 당당한 행색으로 보아 평범한 시주승 같아 보이진 않았다. 오장곤의 아들은 합장을 하며 시주승을 공손히 대했다.

“저는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오명산이라 합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여쭙고자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명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주승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발길을 돌렸다. 그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그름이 되면 다음 번 달이 태어나는 법, 자연의 순환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오.”

평민 신분이라 하나 하인보다는 배움이 깊었던 오명산인지라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름이라 하면 아버님을 뜻하는 것이고, 다음 번 달이라고 하면 나를 일컫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아버님의 대를 이어 이 집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되는데……. 아뿔싸! 그럼 정말 아버님이 이대로 돌아가신다는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친 오명산은 시주승을 붙잡고 늘어졌다.

“아까 스님께서 보름달의 속이 비면 불법으로 채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으로 저희 아버님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뜻인지요? 스님, 부디 이 불쌍한 중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주승은 끝내 뿌리치고 갈 모양새였다. 오명산은 그런 시주승을 결단코 놓아주지 않을 작정인 듯 더 애타게 매달렸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불러본 그였다. 이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주승에게 희망을 걸어야 했다. 들어서 간다, 못 간다 하며 옥신각신하기를 여러 차례, 시주승은 못 이기는 듯 집 안에 들어섰다.

“허허, 막상 발을 들여놓으니 기운이 더 험하군요. 아무래도 속세의 약으로는 주인의 병환을 고치기 힘들 듯하오.”

시주승은 낙담어린 말부터 늘어놓았다.

“자자, 마당에서 이리저 마시고, 일단 저희 아버님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시주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오명산은 끌고 들어가다시피 하여 시주승을 오달곤의 사랑방에 앉혔다.

“늬시냐, 이 스님께서서는?”

실눈을 뜨고 누워 있던 오장곤은 시주승을 발견하고서 아들에게 물었다.

“고명하신 스님이신데, 아버님께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은 몸인데, 네가 괜한 일을 또 했구나. 부처님 앞으로 시주나 듬뿍하여 이 애비 극락왕생하는 데 노자나 보태도록 하여라.”

오장곤은 이렇듯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시주승은 염주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니 안타깝다는 투로 말을 꺼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할 일이나 불심이 깊은듯하니 한 가지 방도를 일러드리겠소.”

방도라는 말에 오장곤의 축 늘어진 귀가 번쩍 뜨였다. 세속의 온갖 이욕은 다 부렸으나 승려에 대한 숭앙심만큼은 아직 남아 있던 그였다. 스님이 무슨 돈 욕심을 부려 자신에게 허튼 수작을 부릴 것이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장곤은 당장에라도 벌떡 일어설 사람처럼 잠시 활기를 되찾아 물었다.

“스님! 그 방도란 게 무엇인지요? 늙은 몸이나마 천수를 누리게 해주신다면 스님께 시주하여 큰 절을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허! 불심에는 재물이 오가지 않는 법이오!”

시주승은 절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는 투로 오장곤을 나무랐다. 그러자 오장곤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더욱더 시주승을 공경히 대했다.

“당신의 병은 보름달처럼 넘쳐서 생긴 것이오. 무슨 뜻인지 알겠소? 내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필시 당신은 몸에 좋다는 약재는 모조리 섭취한 게지. 아니 그렇소?”

시주승이 소상한 내막을 꿰뚫자 오장곤은 두려운 한편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배운 게 없어 그리도 미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요. 아이고, 스님! 이제 좀 살 만하니 저승에서 손짓합니다. 20년, 아니 딱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스님!”

오장곤은 아들 앞에서 체통도 잃은 채 거의 울먹이듯 매달렸다. 시주승은 이미 속세에 초탈하였으나 중생구제의 마음으로 그를 돕겠다고 말했다.

“소요산에 가면 원효대사께서 머무르시던 자재암이 있소. 거기 부근에 해골이 하나 묻어져 있는데…….”

시주승은 여기까지만 말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오장곤은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간밤에 천병달도 소요산과 원효대사 얘기를 꺼냈음을 상기해낸 것이다. 오장곤은 순간 오싹해짐을 느끼며 침을 꿀꺽 삼켰다. 시주승은 잠시 뜬 눈을 들은 뒤 주위를 물리고선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 해골은 보통 해골이 아니요, 바로 원효대사께서 대각하신 그 해골이지. 그러니까 중이 그 물을 마시면 해탈하여 부처가 되고, 중생이 마시면 불로장생을 누린다 이 말이오.”

“아이쿠! 어젯밤에는 천가 놈에게 괜한 짓을 했구나! 스님, 그러면 그 해골이 자재암 어디쯤에 묻혀 있는지요? 그걸 찾아내서 스님께선 부처가 되시고, 저는 불로장생을 누림이 어떠할까요? 필요한 모든 경비와 인력은 제가 충당하겠습니다요.”

오장곤은 이 와중에도 장사치 버릇이 스멀스멀 나와 협상을 하려 했다. 시주승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니었다.

“좋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해골을 찾아낸다면 커다란 절을 시주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하오. 내 소요산에 거찰을 건립하여 불국을 만들어볼 터이니!”

“암요! 암요! 해골을 찾아만 주신다면야 대찰이든 거찰이든 스님 원하는 대로 지으십시오! 그때까지 제 명줄은 단단히 동여매고 있겠습니다요!”

오장곤은 정말 생기가 돌아보였다. 시주승은 다음날 다시 찾아오기로 하고 대문을 나섰다. 오장곤의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이르자 마필수는 샷갓을 벗어던지며 동자승을 놓아주었다.

“옛다, 가서 옛이나 사먹어라.”

동자승 행세를 했던 아이의 손에는 엽전이 두둑이 쥐여져 있었다.

4. 임금의 뒤를 쫓다

다음날이 되자, 마필수는 다시 샷갓을 눌러쓰고는 오장곤의 집을 찾았다. 그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스님 오셨습니까요?”

하인들은 제 주인에게 그리하듯 마필수를 깎듯이 모셨다. 그가 왔다는 전갈을 받자 오장곤이 부축까지 받아가며 몸소 마루에 나왔다.

“스님, 모든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이제 소요산으로 떠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당에는 그저께 주막에서 났던 천병달이 등짐을 메고 있었다. 마필수는 행여나 천병달에게 얼굴이 들

킬까 싶어 샷갓을 더 깊게 눌렀다. 천병달 주위로 여러 명의 장정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험상궂게 보이는 것이 딱 봐도 시전 왈패임이 분명했다.

마필수는 아차 싶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정도의 가산을 일군 오장곤이 아니던가. 그런 그가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리 없다. 왈패들은 자신을 도와 해골을 찾는 한편, 자신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만약 소요산에 해골이 없다면 저 왈패들에게 끌려 이 마당에 내동댕이쳐질 것이고, 해골이 발견된다면 혼자 독차지하여 줄행랑치지 못하도록 자신을 이곳까지 모셔올 것이다. 하지만 소요산에 그따위 해골이 어디 있던가. 원효가 바가지 삼아 냉수를 들이켰다는 해골은 애초에 없다. 마필수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은밀히 진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면 관가에서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필수는 이렇게 말하며 어떻게든 왈패들을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오장곤은 빙그레 웃으며 마필수를 안심시켜주었다.

“괜찮습니다. 왈패들은 가마꾼 행색을 할 것이고, 스님은 여염집 아낙처럼 가마에 태워져 갈 것입니다. 천가는 스님의 집사 노릇을 할 것이고 말입니다. 어느 관가에서 지체 높으신 덕의 마나님 가마를 들춰본 답디까?”

오장곤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계획까지 세우자 마필수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하는 수없이 오장곤의 요구에 응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어쩐다. 가짜 해골을 가져올 계획이었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군. 왈패 놈들 때문에 도망치기도 글러먹었어.’

마필수는 이렇게 고심하였지만 순순히 가마에 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마필수를 태운 일행이 막 대문을 나서려던 때에 저자거리에서 요란스런 행렬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물렀거라! 상왕 전하 납신다! 물렀거라!”

상왕이 행차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왈패들은 가마를 도로 마당에 놓았다. 행렬이 지나가고 난 뒤에 대문을 나서야 했다. 다들 멍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장곤은 장사꾼답게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상왕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신다는 거야? 지금 왕자의 난 때문에 정국이 어수선한데……. 여봐라, 행차가 지나가거든 누가 나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잠시 후, 밖으로 나갔던 하인이 돌아왔다.

“상왕 전하께서는 소요산에 행궁을 지어 당분간 그곳에 머무르신다 합니다.”

오장곤은 아차 싶었다. 이미 원효대사의 해골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지고도 남았다. 그 소문이 상왕이 계신 구궁궁궐이라 하여 피해갈 리는 없다. 자신에게 소요산 얘기를 고했던 천병달 같은 자가 궁궐이라고 해서 없겠는가. 오장곤은 입이 바짝 탔다. 자신은 죽어가고, 태조도 늙기는 매 한가지였다. 둘 중에 먼저 그 해골을 찾는 자는 살고, 그러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 생과 사의 냉혹함 앞에서 신분의 법도 따위를 따질 여유가 없다. 이걸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태조까지 소요산으로 향하자 마필수에게 가지고 있던 약간의 의심이 모조리 풀려버렸다. 이제는 오장곤도 해골 이야기를 확신하게 된 것이다.

계산이 빠른 마필수가 오장곤의 표정을 놓칠 리가 없다. 마필수는 자신의 마음도 급하다는 듯 시늉하며 오장곤을 재촉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소!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하질 않았소! 아까 진작 떠났어야 했는데……. 이제 상왕께서 먼저 소요산으로 발길을 잡으셨소. 감히 상왕의 행렬을 추월하여 앞장 설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거 원!”

오장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모든 걸 마필수에게 맡겨버렸다. 마필수는 노잣돈을 두둑이 받은 후에 혼자 떠나려고 하였으나, 오장곤이 한사코 붙여주는 천병달 만큼은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 작자처럼 순진한 사람이라면 다루기도 용이하다 싶어 달려든 채 길을 나섰다.

저 멀찌감치 이성계의 긴 행차를 바라보고서 쫓듯이 그 뒤를 따라갔다. 천병달은 이번 큰일을 자신에게 맡긴 주인에게 감사라도 하는 듯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는 역시 순박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 일만 성사시키면 시전의 어물전 정도는 자신에게 떨어질 거라 기대하는 듯 꿈길을 걷는 사람처럼 출렁출렁 걸음을 재촉했다.

‘이 치는 꽤나 순진하군. 그나저나 이 사람을 따돌리고 자재암 부근에 이 해골을 묻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림자처럼 쫓아오니 원! 차라리 노잣돈만 챙겨서 개경으로 달아날까. 아니지, 일을 여기까지 벌여놓았는데 그깟 노잣돈 300냥으로 만족해선 안 되지. 파락호 인생 40년이 아니던가. 강태공은 궁팔십달팔십 하였다는데, 이 마필수는 공사십달사십 하고야 말리라!’

마필수의 붓짐에는 간밤에 묘지에서 파낸 해골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는 이걸 자재암에 묻고서는 천병달이 보는 앞에서 다시 파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숙정문을 통과할 때의 검문이었다. 관졸이 붓짐을 뒤져보기라고 한다면 말짱 도루묵은 물론이고 옥에 갇힐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돕는지 마침 태조가 소요산으로 행차를 가신다 하니 그 뒤만 쫓으면 될 게 아닌가. 감히 태조의 행렬을 막을 나졸은 없다. 마필수는 자신의 역센 운도 이제는 풀리는가 보다 하고 안도하였다.

5. 산중소요(山中逍遙)

과연 태조 덕분에 해골을 들키지 않고 소요산에 도착한 마필수 일행은 산 초입에 앉아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아침 일찍 출발하였으나 어느새 해가 산마루 뒤로 넘어갔다.

소요산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가히 그 풍광이 경기 소금강이라 할만 했다. 때는 늦가을이라 온 산 천지가 단풍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해가 졌지만 산마루로부터 미끄러져 나온 햇살이 단풍나무에 스며들었다. 낮에 와본 사람은 반드시 산의 밤풍경을 보고자 할 것이고, 밤에만 와본 이는 낮까지 머무르고자 할 정도로 산에는 오묘한 아름다움이 깊이 배여 있었다.

주먹밥을 다 먹은 일행은 얇은 계곡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물가의 작은 바위를 돌다리 삼아 걸던 돌의 시선 안에서 세상이 온통 누렇게 보였다. 광원이 꺼진 후에도 빛의 잔상이 남듯이 계곡에는 누리끼리한 잔광이 남아 계곡물에 적셔진 채 반사되고 있었다. 이따금 싸늘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으면 때가 된 단풍은 낙엽이 되어 계곡물 위로 떨어졌다. 그것들은 갈 곳을 정해두지도 않은 채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마침 작은 물고기 다섯 마리가 줄을 지어 여기저기 쏘다니는 게 보였다. 마필수는 그것이 원효가 운제산 자락의 오어지(五魚池)에서 똥을 누워 방생했다는 다섯 물고기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서는 그 물고기조차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

“경치 한번 좋구만!”

안 그래도 유쾌해하던 천병달이었다. 산중의 명화(名畵)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없었으리라. 마필수도 일이 술술 풀렸기에 긴장이 많이 느슨해진 터였다. 그도 소요산을 두 눈에 새기면서 길을 재촉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자재암에 도착해야 했다.

“광명스님, 계십니까?”

자재암에 도착하자 마필수는 광명스님을 불렀다. 누가 보든 간에 정말로 광명스님이란 사람이 자재암에 머물고 있고, 마필수는 그와 막역한 사이로 여겨질 법했다. 그만큼 마필수는 능청떠는 데에는 선수였다. 밖이 소란스럽자 한 동자승이 나와 마필수를 응대했다.

“누구신지요?”

“나는 한성에서 왔느니라. 광명스님 계시느냐?”

광명스님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스님은 이곳에 안 계십니다.”

“허허! 그 사람 어느새 바람처럼, 물결처럼 떠나버렸군 그래! 하긴, 이 세상 어딘들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도 계신 법이지. 역시 그 사람다워. 산사(山寺)를 버리고 시전바닥에서 중생을 교화하러 갔나 보군.”

어린 동자승으로서는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광명스님이란 분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해볼 따름이었다.

“그럼 다른 스님들은 어디 계시느냐? 어쩌서 너 혼자 있는고?”

동자승은 다른 스님들은 상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법회에 가셨고, 이를 후애나 돌아올 것이라 말해주었다. 마필수는 또 다시 쾌재를 불렀다. 정말 부처님이 자신을 돕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지금 마음 같아선 오장군에게서 뜯어낼 거금으로 작은 암자 하나쯤은 시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동자승은 손님들을 안으로 모셔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가뜩이나 미련한 천병달이었기에 동자승의 안내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거처에 짐을 풀자마자 천병달은 자리에 누워 흥얼거렸다. 마필수는 그런 천병달이 알뜰기도 하여 채근했다.

“자네는 세안도 하지 않는가? 냄새 나니 냉큼 가서 좀 씻고 오게.”

마필수는 천병달을 따돌리고서 해골을 묻으러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련한 천병달은 주인의 엄명을 곧이곧대로 따르기만 했다.

“스님, 냄새가 나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주인 나리께서 절대 스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 당부 하셨습니다요. 그나저나 스님께서는 방 안에서도 샷갓을 쓰고 계십니까요?”

샷갓을 벗으면 천병달이 자신을 알아볼 게 분명했다. 가뜩이나 왼쪽 눈썹 위에 새끼손톱만 한 점이 있어 눈에 잘 띄는 인상이었다.

“이런 미련한 중생을 봤나! 내 전생에 하늘에 지은 죄가 커 속죄하는 심정으로 샷갓을 눌러쓰고 다닌다네.”

“여긴 방 안이라서 하늘이 안 보이는댐쇼.”

“거참, 무식한 작자 같으니라고! 시방세계 어디든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던가. 부처님이 내려다보고 계

신데, 저까짓 지붕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방 밖이든 안이든 매 한가지일세.”

마필수가 능청을 떨자 천병달도 더는 토를 달지 못했다. 그래도 마필수에게서 일초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오줌보가 터지려고 해도 마필수가 뒷간을 갈 때에만 같이 가곤 했다. 오장곤은 천병달의 이런 미련스러움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 싶어 마필수와 동행토록 했던 것이다. 천병달은 오줌 몇 번 참으면 시전 행수가 되겠구나 싶어 웬 떡이냐 하는 표정으로 싱글벙글거리기만 하였다.

‘아무래도 저 치가 꼴아떨어져야 해골을 묻을 수 있겠군.’

6. 만석꾼의 꿈

동자승이 밀어다준 사찰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천병달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다가도 정신을 번뜩 차리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마필수가 잠자코 옆에 있음을 확인하고서는 안심하였다.

“스님, 저 몰래 어디 가실 생각일랑 일절 마슈. 우리 주인 나리께서…….”

“알았네, 알았어. 그 놈의 주인 타령 좀 그만하게!”

천병달을 한 번 꾸짖은 마필수는 속이 후련했던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웠다. 마필수도 노곤하였던지 옆에 앉은 채로 까무룩 잠이 든 듯했다.

천병달이 드르렁드르렁 코까지 골자 마필수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싶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해골을 품에 안고 가만히 방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다. 의상대에 휘영청 보름달이 걸려 속세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마필수는 해골을 어디쯤에 감춰드는 게 더 그럴싸할까 싶어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런데 대웅전으로 가는 좁은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난데없이 육조거리만큼이나 넓은 대로가 나오는 게 아닌가! 분명 자신의 거처와 대웅전은 삼십 보 가량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수백 보도 더 걸었던 것이다.

‘요상한 노릇이로군. 원효가 지내던 곳에서 원효 이름을 팔아 수작을 부리니 벌이 떨어지기가라도 한 겹가. 그럴 리가 있나.’

마필수는 잠시 해괴한 생각에 잠겼던 자신이 우스웠던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은 끝없이 쪽 뻗어 있었고, 아무리 걸어도 대웅전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작은 절 안에서 길이라도 잃은 걸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미 절 밖을 헤매고 있는 걸까.’

마필수는 귀신이라도 홀린 듯하여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별안간 의상대 꼭대기에 매달려 있던 보름달이 산산이 조각나더니 집채만 한 돌무더기로 변하는 게 아닌가! 돌덩어리는 옆으로 새지도 않고 곧장 마필수 쪽을 향해 떨어졌다. 마필수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싶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돌 하나가 그의 가슴팍에 박히자 그는 ‘억’하고 비명을 질렀다.

눈을 떠보니 그게 꿈이었구나 싶었다. 천병달의 육중한 넓적다리가 마필수의 가슴에 올려져 있었다.

“이런 몸쓸 잠버릇 같으니라고!”

마필수는 신경질이 났으나 천병달이 깰까 싶어 조심스레 다리를 치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대웅전 앞에 해골을 묻어 두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꿈이 심상치 않았다. 이것을 흥몽으로 볼 것이냐,

길몽으로 볼 것이냐. 해몽하는 요령을 배운 바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아! 달이 조각나서 수만 조각의 돌무더기가 내 품으로 떨어졌어. 만 개의 돌이면 만석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필시 내가 만석꾼이 된다는 길조가 아닌가! 넓은 길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데 달은 의상대 위에서 부서졌다. 그렇다면 대웅전이 아니라 의상대에 해골을 묻어야 한다는 말이군. 제기랄!’

꿈을 철썩 같이 믿은 마필수는 하는 수없이 도로 밖으로 나왔다. 마침 절에 동자승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대웅전에 가서 땅을 파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는 기어이 대웅전 계단 옆에 무릎을 꿇고서 해골을 끄집어내 의상대로 향했다.

보름달이 흰하게 밝다고는 하나 야심한 시각에 산중에서 해골을 들고 다닌다는 게 결코 흥겨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필수는 원효가 깨달았다는 ‘일체유심조’를 뇌까리며 두려움을 물리쳤다.

‘어차피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걸 해골일 뿐이다. 원효는 해골 물을 달게 마셔 득도를 했다. 나는 해골을 파묻어 만석꾼이 되면 그만인 게지.’

그는 보름달에 의지해 의상대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꼭대기에 해골을 파묻었다. 누군가 그런 그의 모습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결코 사람이라고 보진 못할 것이다. 그만큼 그는 사람보다는 귀신에 가까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필수는 마필수대로 두려워 덜덜 떨었다. 산짐승이 낙엽이라도 밟아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는 소스라쳐 놀라곤 했던 것이다.

‘바스락’

어디선가 또 낙엽 밟히는 소리가 들린다.

‘바스락’

이번엔 더 가까운 데서 들린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온다.

“거기 누구요!”

이 시각 산중에 자신 외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공포에 몸서리치던 마필수는 땅을 도로 묻다 말고 소리를 질렀다. 대꾸는 없었다.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소리는 이제 거의 등 뒤에서 들리는 듯했다. 마필수는 얼굴 가죽이 곤두서 수염이 하늘을 향해 뻗을 것만 같았다.

“누구냐니까!”

그는 또 다시 어둠을 향해 고함쳤다. 야차의 아가리 속처럼 시커먼 야산(夜山)을 겁에 질린 울먹거림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7. 해골바가지로 돈을 푸다

“접니다, 스님.”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당신 누구요? 밝은 데로 나와 보시오.”

“저라니까요, 스님.”

달빛에 비친 사람은 천병달이었다. 이건 무슨 사람을 아예 잡을 작정을 하나.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할 일이지.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슬며시 다가오면 간 떨어지라는 말밖에 더 되나. 마필수는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자신이 해골 묻는 꼴을 행여 들킨 게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언제부터 와 있었던 게요?”

“방금 왔습니다요.”

“왜 온 거요?”

“스님도 참, 주인 나리께서 스님한테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요. 자 다 깨 보니 스님이 안 보여서 동자승에게 물어보니 이곳 의상대 쪽으로 갔다고 합디다.”

동자승이 자신을 봤다는 말에 마필수는 적잖이 불안해졌다. 혹시 대웅전에 해골을 묻었다가 다시 파낸 것까지 봤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대웅전 처마는 넓어서 달빛을 가려주기에 적당했다. 동자승이 대웅전에서 자신을 봤다손 치더라도 해골까진 못 봤으리라.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자 마필수는 비로소 안도했다.

“여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천병달은 마필수의 어깨 너머를 힐끗 보며 상황을 살폈다. 안정을 찾은 마필수는 다시 허풍을 떨어대기 시작했다.

“내가 꿈을 꾸는데 의상대 꼭대기에서 달이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겠소. 그런데 그 달 모양이란 게 보름달도 아니고, 반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승달도 아니었소. 원뿔처럼 아래는 둥글고 넓은데, 끝은 뾰족했다 이 말이오. 나는 꿈속에서도 그것을 참 기이하게 여기다가 불현듯 잠에서 깬소. 가부좌를 틀고 자리에 앉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보니 그것은 달이 아니라 필시 원효대사의 삿갓이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소. 대사께서 평생 쓰고 다니시던 그 삿갓 말이오. 나는 옳다구나 싶어 그 삿갓이 내걸려 있던 이 의상대에까지 오게 된 것이오. 그런데 이게 웬일! 여기저기 땅을 파다보니 정말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겠소!”

마필수는 정말 방금 발견하기라도 한 듯 두 손으로 조심스레 잡은 해골을 내보였다. 천병달은 깜짝 놀라 해골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제 우리 주인 살았구나! 내 어물전의 마른 오징어 냄새가 산중에까지 진동을 하는구나! 아이고,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이 의상대에 내걸렸구려!”

마필수는 그런 천병달을 속으로 비웃으며 히죽거렸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은 ‘저치는 참말로 바보에 천치구나!’하는 확신에 찬 것이었다.

해골을 사이에 두고 들어서 감격에 겨워하던 차에 산 아래가 울긋불긋해져오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었다. 들은 지체 없이 하산하여 한성으로 발길을 잡았다. 마필수로서도, 천병달로서도 돌아가는 길은 더 없이 가벼웠다. 마필수는 문득 저고리 안의 두툼한 계약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해골을 무사히 가져 오기만 하면 대찰을 세울 거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조가 적힌 증서였다. 말하자면 조선에서 가장 값비싼 종이였던 셈이다.

“스님, 이제 그 증서만 있으면 소요산에 큰 절을 지어 불법을 설파하실 수 있겠습니까요.”

어물전이 눈에 어른거리는지 천병달의 입가에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날 저녁 오장곤의 집에 도착하자, 오장곤은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었다.
 ‘아직 살아있군. 오늘내일하는 영감이 그새 송장이 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야. 하마터면 그 짓을 하고서 돈 한 푼 못 받았을 뻔했구나!’
 마필수는 오장곤의 숨이 아직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서 안심했다. 오장곤은 마필수를 보자 기다시피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오장곤은 손짓을 하여 주위를 물렸다.
 “스님, 약조하셨던 그 물건은 가져오셨습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설마 허언을 하겠습니까? 여기 그 물건 대령했습니다.”
 마필수는 해골 하나를 내놓았다. 모양새로 보면 여느 해골과 다를 바 없었으니 오장곤으로서는 적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수족처럼 부리는 천병달이 마필수의 꿈과 의상대에서의 일을 모조리 보고 하자 마침내 오장곤의 얼굴이 생기가 퍼졌다.
 “제가 봤습니다요! 이 두 눈으로 푹푹히 봤습니다요! 여기 계신 이 선사께서 원효대사의 해골을 파내는 걸 분명히 봤습죠, 예, 예.”
 천병달은 다시금 확인하다시피 같은 보고를 반복했다. 오장곤은 망설일 것도 없이 새벽이슬 받은 물을 대령케 하여 해골에 부었다. 그리고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해골에 입술을 대 별척별척 마셨다. 한 몇 분쯤 흘렸을까. 오장곤은 갑자기 기도가 막힌 듯 제 손으로 목을 조이는 시늉을 하더니 졸도를 해버렸다. 그러자 오장곤의 식솔들과 하인들은 난리가 나 어쩔 줄 몰라 했다. 성질 급한 집사는 당장 저 땡중을 잡으라고 성화를 부렸다.
 당황하긴 마필수 쪽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을 원효의 해골이었다. 그냥 아무 해골에 이슬을 담아 마신다한들 사람이 갑자기 졸도하리라곤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혹시 해골에 남아 있는 원혼이 오장곤에게 해를 끼친 것일까.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본들 오장곤이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마필수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도무지 영문을 몰라 했다.
 “너 이 땡중아! 다시는 이 부근에 얼씬거리지 말거라! 또 다시 눈에 띄었다가는 곧장 관아로 넘겨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대문 밖에 내동댕이쳐진 마필수 앞에 ‘튀이’ 하고 빨은 침이 떨어졌다.
 “재수가 옴 붙은 게로군! 하필 저 영감탱이가 이때 졸도를 할 줄이야!”
 어차피 생사가 불분명하던 오장곤이었다. 마필수로서는 돈을 지불 받을 때까지만 오장곤의 숨이 붙어 있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운도 여기까지인지 오장곤은 하필 해골 물을 마시자마자 혼절해버렸던 것이다. 그래도 두둑이 받은 노잣돈 300냥 중에 아직 280냥이 남아 있었다. 마필수는 이걸로 어디 가서 장사나 해볼 작정을 세웠다. 그는 오장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주막에 거처를 잡았다.
 한편, 마필수가 쫓겨나자 오명산은 분에 겨워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속은 것도 분하지만 이대로 부친 오장곤이 죽을까 염려됐던 것이다. 그는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아버님’, ‘아버님’ 하며 오장곤을 흔들어들었다. 하인들은 그런 오명산의 효성이 지극하다며 그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오명산의 효심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는 내심 오장곤이 하루속히 죽어 가산을 물려받을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필수가 시주승으로 둔갑하여 찾아왔을 때에도 심사 같아선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어 했다. 혹시나 고승이 오장곤의 병을 치유할까 염려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인들 여럿이 마필수를 본 터라 마지못해 오

장곤 앞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해골 물 타령도 끝이 났고, 오장곤도 정신을 잃고 혼절하였으니 오늘밤만 버티면 된다 싶었다. 그는 애써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눈물만큼은 흐르지 않았다.

“아버님! 제발 눈 좀 떠보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시면 이 많은 가산은 저 혼자 어찌 감당합니까! 아버님!”

오명산은 간절한 척 오장곤을 불렀다. 하늘도 그 거짓 효심에 감동하였는지 오장곤이 난데없이 눈을 번쩍 떴다.

“애비야, 날 불렀느냐?”

오명산은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자신이 졸도할 뻔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놀란 표정을 감추고서 기쁜 미소를 얼굴에 이식했다.

“아버님!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이대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끼, 이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죽긴 왜 죽어!”

“아니, 그럼 그 해골 물이 정말 효험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명산은 불심이 약했던 자였으나 눈앞에서 기적을 보자 새삼 부처의 위력에 놀라워했다. 오장곤이 아둔한 아들을 일깨웠다.

“그렇게 순진해서야 어디 가업을 물려받겠느냐! 이 애비는 이미 오래 전에 이미 다 나왔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다 나오셨다니요?”

오장곤은 오명산에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말해주었다. 오장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지어낸 얘기에 불과했다. 오장곤이 이것저것 약을 주워 먹다가 탈이 난 건 사실이었다. 그도 처음엔 자신이 중병에 걸린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구해주면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방문(榜文)까지 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중병이 아니었다. 오장곤은 한 보름을 시름시름 앓다가 푹 나아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 앞에서는 곧 죽을 사람처럼 시늉을 하였다. 그건 오장곤만의 속셈에 따른 연기에 불과했다. 방문이 붙고부터 여기저기서 사기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실은 오장곤은 누군가를 기다렸었다. 원효의 해골바가지에 물을 떠 마시면 불로장생한다는 소문을 만들어낸 자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는 한편, 영리하지는 않지만 충직한 천병달에게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주막에서 원효대사와 소요산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라는 게 그 내용이였다. 그 외의 전체적인 계획은 천병달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 천병달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막에서 원효와 해골 그리고 소요산 이야기를 던지시 했고, 마필수가 그걸 납죽 물었던 것이다. 애초에 소문을 퍼트린 자도 마필수였다. 그는 천병달을 통해 일이 성사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시주승이 된 채 오장곤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이다. 물론 오장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척해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상에, 몇 백 년 전의 해골이 여태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오장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피가 용했던지 껄껄 웃어 젖혔다. 오명산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오장곤에게 물었다.

“아버님, 그럼 대체 왜 그런 일을 꾸미신 겁니까? 왜 그 가짜 시주승에게 소요산까지 다녀오도록 시키신 겁니까? 소요산에 가 봐야 원효가 마셨다는 그 해골바가지가 없다는 건 진작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아둔한 놈! 그런 해골 얘기 따위는 애초에 믿지도 않았더니까. 사람들은 모두 내가 죽을병에 걸려 오늘내일하는 줄로 알고 있지?”

“예.”

“죽어가던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주승에게 영험한 해골을 구해오라고 부탁한 소문도 이미 자자하게 퍼졌지?”

“예, 그렇지요.”

“자, 보아라. 난 그 해골 물을 마시고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지 않았느냐!”

오장곤은 아차 싶어 무릎을 탁 쳤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부친의 꾀를 못 따라갈 듯싶어 새삼 오장곤이 두렵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럼 이제 그 해골을 파시겠다는 말입니까? 해골바가지로 냉수 퍼 담듯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버님!”

오장곤은 대꾸 대신 흐흐흐 하며 음흉한 웃음만 흘렸다.

8. 야단법석

오장곤이 해골 물을 마시고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돌아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때부터 장안엔 난리가 났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푼 꽤나 주무른다는 자는 오장곤 대문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전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그 해골을 사고자 했다. 어차피 한 번 물을 떠 마시고는 되팔면 되기 때문이다. 오장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는 해골을 절대 팔 수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아니, 글썸, 우리 주인 나리께서는 해골을 안 판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됩니까. 이만 돌아가슈!”

하인들이 이렇게 대문 앞에서 쫓아내도 사람들은 더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애간장을 적당히 태우고서야 오장곤은 해골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해골은 절대 팔 수 없으나 천 냥씩 받고 해골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겠노라 말했다.

“어차피 평생 먹을 보약 한 번에 먹는다 생각하고 천 냥 쥐버리지 뭐!”

“까짓 거 나도 주겠네! 여보게, 오 부자! 내게도 꼭 좀 한 모금 주시게!”

그러나 오장곤은 사람을 가려서 해골 물을 허락했다. 나이가 젊은 사람, 혈색이 좋은 사람, 어디 아파 보여도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였다. 젊은 사람과 혈색 좋은 사람은 어차피 해골 물을 마시거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니 그대로 쪽 건강하면 그만이다. 어디 아파 보여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몸에 좋다는 약과 명의를 두루 거쳤을 것이다. 굳이 이 해골 물을 안 마셔도 이미 몸이 거의 다 나은 자들인 셈이다. 나아가는 차에 해골 물로써 점 하나를 찍어버리면, 쾌차의 공은 모조리 해골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돌아간 후에 알아서 소문을 퍼트려줄 것이다. 더러 병약한 자가 해골물을 마시고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이 따지며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오장곤은 불심이 모자라 약발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며 도리어 면박을 주곤 했다.

이런 식으로 오장곤은 가만히 앉아 하루에 수 만 냥을 벌었다. 그에게는 이제 시전의 장사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정승판서까지 그에게 줄을 서야 했으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조롱한다는 말은 있어도 죽은 백골이 산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는 말은 없었다. 오장곤은 그 묘한 조화를 부려대고 있는 것이다.

주막에서 오장곤의 소식을 들은 마필수는 울화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는 노잣돈 300냥에 해골을 들고 의상대에 오르지 않았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장곤에게 농락되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나마 장사나 해볼까 싶어 남겨두었던 200냥 남짓도 술판에 다 써버린 터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한 백성들은 오장곤의 해골 물을 감히 마셔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요산에 원효대사의 신통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소문이 돌고부터 백성들은 소요산을 찾기 시작했다. 그 기운을 받으려는 자들 때문에 한적했던 이담(伊潭)은 소란스런 고을로 변해갔다. 얼마나 사람들이 뺨질나게 산을 오르내렸던지 산 초입에서 자재암에 이르는 길이 산길답지 않게 평탄하게 매끈하게 깔여버렸다. 자연스레 산길도 넓어졌음은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음이다. 그 길은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도 소요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 사건 덕분에 숨 한 번 헐떡이지 않고 자재암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소요산 행궁에 머물던 상황 이성계는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찾아오는 백성들을 쫓아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두고 볼 수만도 없었다. 자신은 이미 왕권을 던지고 한성을 떠난 몸이었다. 백성들이 자신을 보러 소요산에 오는 것은 아니었으나 태종 이방원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허허, 그 산 참 소란스럽고도 요란하기도 하구나!”

이성계는 이렇게 한탄하고서 함흥으로 행궁을 옮겼다.

소요산(逍遙山). 원효대사가 자재무애(自在無礙)하며 자유로이 노닐어서 소요산이라 불리게 된 것일까. 아니면 태조가 소란스럽고 요란하다고 한탄한 앞말을 따서 소요라고 이름 붙여진 것일까. 해골바가지가 실제로 있든 없든 간에 이 산이 한반도의 한복판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음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음이다. 춘하추동 언제 찾아가든 고요하고 넉넉한 산, 아담하나 골짜기가 깊은 산, 계절에 따라 둔갑술을 부리는 산, 그런 산에서 가만히 소요(逍遙)하는 낙을 즐겨봄이 어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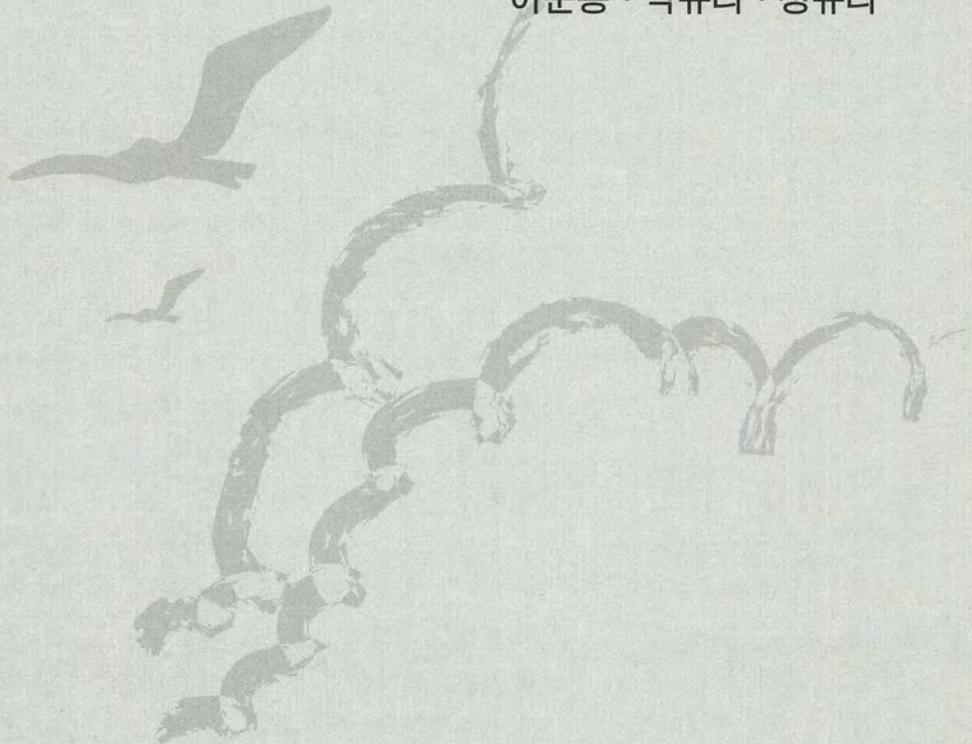
여 백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

우당탕탕 소요패밀리!

팀명 : 문코인S

이준용 · 박유리 · 정유리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호신[守護神] :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는데, 보통 수호신은 나무나 바위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애니미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구려 수호 사방신(현무, 백호, 청룡, 주작), 마을을 지키는 장승과 서낭신 (혹은 골매신), 집을 지키는 가택신 등이 있다. ■ 소요산 및 주요 명소 동두천에 위치한 수도권 최고의 단풍 명산. 단풍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소금강(금강산)이라 불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주문 : 소요산의 입구. 2. 자재암 : 신라 선덕여왕 1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 3. 원효폭포 : 하백운대에 계곡을 오르면 나타나는 폭포. 4. 공주봉 : 원효가 요석공주를 위해 이름 지은 봉우리. 5. 선녀탕 : 천연적으로 오목하게 생긴 곳으로, 선녀가 목욕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6. 상·중·하백운대 : 소요산 일주문에서 오르는 왼편 등산로를 백운대라 부르며, 그 위치에 따라 하백운대, 중백운대, 상백운대로 나뉨. 태조가 자주 올라 경치를 즐기면서 자신의 회환을 달랐다고 함. 7. 의상대 : 소요산의 주봉. 의상대사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
<p>스토리 구성 (Plo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단 : 과거, 산신세계에서 소요산의 경치는 질투의 대상. 소요산신은 수호신들을 만들고 강제 영면 당함. ■ 전개 : 평화협정으로 임무를 잊은 수호신들이 현재 소요산에 살고 있음. 우연히 동동과 인간 태양을 만나게 되면서 수호신들과 인간이 친구가 됨. ■ 위기 : 소요산을 탐낸 떠돌이신은 계락을 펼쳐 수호신들에게 타격을 입힘. 태양을 구하려던 백운대 수호신이 죽음. ■ 절정 : 떠돌이신의 두 번째 공격을 막지만, 수호신들은 모두 죽게 되어 구슬로 변함. 결국 의상대에 태양은 혼자 남게 됨. ■ 결말 : 수호신들의 죽음으로 남은 구슬들은 곧 소요산신을 깨우게 되고 떠돌이신을 수호신으로 바꾸면서 평화가 찾아 옴.

구 분	내 용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 : 우연히 수호신과 만나 수호신과 떠돌이신의 결투에 끼게 된 주인공. 활발한 성격에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선다. ■ 일주장군(일주문) : 말이 없고 강인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용감무쌍하다. ■ 동동(자재암) : 몸집과 키가 작으며 겁이 많지만 적과의 싸움에는 숨어서 재빨리 전략을 짜는 전략가. ■ 순덕(원호폭포) : 평상시 조용하고 푹푹하지만 선녀탕을 좋아하며 예쁜 여자앞에선 귀여운 변태로 돌변한다. ■ 공주(공주봉) : 도끼병 공주. 시시때때로 거울을 본다. 알밋기도 하지만 귀여워 미워할 수 없다. ■ 선녀(선녀탕) : 도도한 선녀. 매혹적인 미모와 섹시한 모습을 겸비했다. 털털하고 당당하나 잘생긴 남자를 무척 밝힌다. ■ 백운상/백운중/백운하 (상·중·하백운대) : 모두 모이면 백운대라고 부르며, 항상 시끄럽고 수다를 떠는 세쌍둥이. 몹시 장난꾸러기이다. ■ 떠돌이신 : 평생을 돌아다니는 신. 산신이 되어 한 곳에만 정착하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으며 고집이 세다. ■ 몽룡이 : 떠돌이신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낸 명칭이 말. 떠돌이신이 소요산을 차지하도록 조력하지만, 그 행동이 어설피고 실수투성이다.

시놉시스

소요산을 지키기 위한 여섯 수호신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몇 천 년 전부터 산신들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소요산의 경치를 훔쳐가기 위한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그래서 어떤 신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강한 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소요산신은 언제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신들로부터 소요산을 힘겹게 지켜냈다. 소요산을 사이에 둔 싸움으로 산신 세계가 어지러워지자, 산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합쳐 소요산신을 강제로 영면시키기로 한다. 하지만 친구인 마차산신의 귀뜸으로 비밀을 알게 된 소요산신은 강제 영면에 처해지기 직전, 자신의 힘을 조각내어 소요산을 지켜낼 여섯 명의 수호신을 만들고 산의 정상인 의상대에 잠든다.

그로부터 소요산에는 그곳을 지키는 여섯 수호신이 산 깊숙이 숨어살게 된다. 소요산의 경치를 차지하기 위한 산신들의 싸움은 갈수록 심해지지만 한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여섯 수호신의 존재와 그들의 활약으로 산신들은 지쳐버렸고, 결국 산신세계는 소요산 수호신들에게 휴전과 함께 평화협정을 선언한다. 그 협정은 더 이상 소요산을 탐내지 않는 대신, 그 누구도 소요산신을 깨워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2011년 가을, 여전히 아름다운 소요산에는 오랜 평화로 자신들의 임무를 잊은 여섯 수호신들이 여유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늘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공부벌레 자재암 수호신, 동동
매일 재잘재잘 시끌벅적 수다쟁이 세쌍둥이 상·중·하백운대 수호신, 백운상·중·하
능글맞고 선녀를 매일 밤 훔쳐보는 귀여운 변태 원효폭포 수호신, 순덕
거대한 몸집으로 위엄을 가진 독불장군 일주문 수호신, 일주장군
섹시하고 도도한 절세미인인 선녀탕 수호신, 선녀
도끼병에 걸린 밋상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인 공주봉 수호신, 공주

각기 다른 성격 탓에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는 소요산 속 수호신들의 세상.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세상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 몇 년 전부터 매일 오후 가족의 건강과 무운을 빌러 자재암에 오는 여인의 아들, 태양 때문이다. 언제나처럼 엄마를 기다리며 자재암 입구 계단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태양이 동동의 눈에 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궁금한 동동은 태양의 곁으로 가 태블릿 PC를 살짝 건드려보고는 신기해한다. 멋대로 움직이는 화면에 놀란 태양 앞에 동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한 남자는 수천 년 동안 여섯 수호신들만 존재하던 세상에 불쑥 나타나 그들과 친구가 된다. 태양은 수호신들에게 소요산의 기운이 담긴 단풍모양 팬던트의 목걸이를 우정의 증표로 받는다.

한편, 자신의 산을 잃고 오랜 시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떠돌이신이 있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떠돌이신에게 남은 건 변신술과 유일한 친구인 몽룡이 뿐. 산의 기운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떠돌이신은 서둘러 새로운 산을 찾아 정착해야 했다. 그 때, 어디선가 소요산신이 영면했다는 사실과 잠든 산신을 대신해 수호신들이 그 산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인간으로 변신한 떠돌이신은 사실 확인을 위해 소요산을 찾는다. 아름다운 풍경 때문인지 산의 기운이 넘치는 소요산. 그런 소요산을 둘러보던 떠돌이신은 산에 매력에 빠졌고, 곧 입구에서 한 장군이 일주문에서 쭈그려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떠돌이신은 단번에 그가 이 산의 수호신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산의 정상까지 오르며 수호신 여섯 명의 존재를 모두 알아챈다. 또한 평화로운 삶에 젖어 산을 지키는 일은 뒷전이 되어버린 수호신들의 모습에 이 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떠돌이신은 몽룡이와 함께 소요산을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그의 첫 번째 작전은 소요산을 더럽혀 산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일. 그는 다시 인간으로 변신해 소요산에 찾아가 쓰레기를 버리고 바위나 나무에 낙서를 한다. 하지만 소요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가 버린 쓰레기를 줍고 그가 해놓은 낙서를 지운다. 그렇게 그의 첫 번째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두 번째 작전은 몽룡이가 제안한 공중전이다. 몽룡이와 함께 두 번째 침략을 꾀하지만 멍청한 몽룡이는 소요산이 아닌 소요산 옆 마차산에 떠돌이신을 잘못 내려주곤 떠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으로 기가 찬 마차산신은 떠돌이신을 만신창이로 만든 후 쫓아낸다.

두 번의 작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떠돌이신은 좀 더 치밀한 작전이 필요함을 느끼고 소요산에 숨어 든다. 그러다 태양과 수호신들의 깊은 관계를 알게 되고 매일 그들 주위를 맴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던 떠돌이신은 소요산을 벗어나면 수호신들이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게 그들의 약점을 알게 된 떠돌이신은 변신술을 이용한 세 번째 작전을 세운다. 바로 자신의 기운을 숨겨 태양으로 변신한 뒤, 수호신들이 소요산을 벗어나게 하는 것.

며칠 뒤, 태양으로 변신한 떠돌이신은 수호신들에게 동두천 시내로 놀러가자고 제안한다. 처음엔 거절했던 수호신들은 떠돌이신의 계속되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요산에 일주장군만 남긴 채 떠돌이신을 따라간다. 수호신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처럼 엄마와 함께 소요산을 찾은 태양은 일주장군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그런 태양의 모습에 일주장군은 당황한다.

같은 시각, 소요산을 벗어난 다섯 수호신들은 처음으로 맛보게 된 도시의 모습에 신기해한다. 그 순간, 본 모습을 드러낸 떠돌이신은 몽룡이와 함께 수호신들을 공격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에 수호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소요산을 벗어난 데다 오랜 평화 속에 싸울 능력 역시 잃어버린 수호신들은 떠돌이신에게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그런 모습에 신이 난 떠돌이신과 몽룡은 이성을 잃고 수호신들을 마구 공격한다. 적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수호신들은 하나둘씩 정신을 잃고 쓰러져간다. 그 때, 앞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호신들을 찾아 헤매던 태양은 여기저기 널브러져있는 그들을 발견하곤 소리를 지른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태양의 목소리에 수호신들은 겨우 정신을 차린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린 태양이 넘어지고 그런 태양을 본 떠돌이신은 태양을 공격한다. 선녀, 순덕, 동동, 공주는 남은 힘을 다해 태양을 감싸 떠돌이신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곤 힘이 다해 산으로 돌아간다. 다시 떠돌이신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태양은 겁에 질린다. 그런 태양에게 이번엔 백운대가 달려온다. 태양을 막아선 백

운대는 떠돌이신의 무차별한 공격에 목숨을 잃으며 구슬로 변해버린다. 구슬을 보며 우는 태양에게 떠돌이신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한다. 이 때 수호신들이 준 태양의 목걸이가 빛을 내며 떠돌이신을 공격해 정신을 잃게 한다.

시간이 흐른 후, 떠돌이신은 다시 소요산에 쳐들어온다. 이번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는 수호신들. 그럼에도 더욱 강력해진 떠돌이신을 물리치는 건 쉽지 않다. 수호신들과 태양은 점점 소요산의 정상까지 밀리기 시작한다. 결국 수호신들은 하나둘 씩 몸에서 빛을 뿜으며 구슬로 변해버린다. 태양은 백운대가 죽었을 때처럼 그 구슬들을 주워 손에 꼭 쥐는다.

어느 새 소요산의 정상인 의상대까지 오른 동동과 태양, 그리고 떠돌이신. 떠돌이신의 일격으로 동동마저 구슬로 변하고, 그 모습을 본 떠돌이신은 이제 소요산은 자신의 것이라고 기뻐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소요산. 태양의 손에 놓인 여섯 개의 구슬을 바라보며 태양은 수호신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린다. 그 때, 태양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구슬을 비추고, 희미한 실루엣이 서서히 나타난다. 태양과 떠돌이신은 낮을 잃은 채 그 광경을 바라만 보는데, 그들 앞으로 영면에서 깨어난 소요산신이 나타난다. 떠돌이신은 정신을 차리고 소요산신을 공격하지만 소용이 없다. 소요산신은 떠돌이신에게 살며시 다가가 떠돌이신의 지난날을 이해한다. 떠돌이신은 처음으로 받게 된 따스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소요산신은 그의 눈물을 닦아준다. 소요산신은 떠돌이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협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영면에 들기 전, 힘이 강한 그를 의상대 수호신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태양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사라진다. 소요산신이 사라진 그 자리에 여섯 수호신이 다시 나타나 태양을 향해 환하게 웃는다.

소요산신의 기운이 보다 완연해진 2012년 소요산의 가을.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는 소요산의 단풍은 아름답고, 여전히 여섯 수호신, 아니 일곱 수호신의 하루하루는 조용할 틈이 없다.

우당탕탕 소요패밀리!

태초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 만물을 관리하는 신들이 있었다. 때문에 신들은 질서를 만들어야했고, 각기 정해진 구역과 상황에 따라 신들이 탄생하였다. 오대양을 관리하는 바다의 신들, 다양한 강의 신들, 그리고 산의 신들까지……. 많은 신들이 탄생해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신들의 세계 아래에서 형성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이 탄생하였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화 또한 생겨났고 그 속에서 국가도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인간들이 서로의 문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혈투으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신들의 세계에서는 기암괴석이나 폭포 등 아름다운 경치를 흠치려는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곤 했다.

특히 한국의 소요산은 그 수려한 경관과 매혹적인 분위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해졌고, 그로인해 소요산신의 힘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소요산을 부러워했다.

산신들은 질투의 대상인 소요산의 경치를 빼앗기 위해 크고 작은 싸움을 일으켰지만, 힘이 강한 소요산은 그들로부터 항상 소요산을 지켜냈다. 소요산의 힘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아름다워지자, 소요산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고, 다른 산의 신들은 계속해서 소요산신을 질투만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산신들로 구성된 산신 위원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요산을 없애기 위한 비밀회의를 열었다.

“소요산은 그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하여 인간들을 홀리고, 정신을 놓게 만듭니다.”

“소요산이 너무나 유명해 우리 산에는 어떤 기운들도 모이질 않아요.”

“소요산신을 강제로 이리로 데리고 옵시다.”

산신 위원회는 오랜 회의 끝에 자신들의 힘을 합쳐 소요산신을 강제로 영면시키자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 가지 못한다. 소요산신의 오랜 친구인 마차산신은 마차를 타고 소요산신에게 달려가 황급히 소식을 전해준다.

“소요산신아, 지금 산신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너를 영면에 들게 하려고 해.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해!”

자신과 자신의 산에 대한 위협을 느낀 소요산신은 강제로 영면에 처해지기 직전, 자신의 힘을 여섯 조각내어 여섯 명의 수호신들을 만들어 낸다.

“안되겠군. 내가 강제영면에 든다면, 인간들은 좋은 산의 기운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경치들도 사라질 테고…….”

지혜(자재암), 용기(선녀탕), 신뢰(일주문), 사랑(공주봉), 우정(백운대), 행복(원효폭포), 이렇게 6개로 나뉜 수호신들은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 소요산을 지켜야하는 소명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소요산신은 소요산의 정상인 의상대에 스스로 잠들었다.

“수호신들이여, 나를 대신하여 이 소요산을 지키고 아껴라. 내가 잠이 들어도 슬퍼하지 마라. 언제나

나는 소요산을 지킬 것이다.”

소요산신이 스스로 영면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산신들은 기회를 포착하여 소요산의 경치들을 차지하기 위해 소요산으로 쳐들어온다. 하지만 소요산신의 기운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소요산은 그렇게 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공주봉에는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의 역사가 남아있어, 그 곳을 차지하면 사랑의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산신들 중 하나는 공주봉에 쳐들어온다. 하지만, 주변의 수호신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그를 물리친다. 원효가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던 자재암을 차지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또 다른 산신은 그 틈을 타 소요산에 쳐들어온다. 하지만 워낙 머리가 좋은 자재암의 수호신은 빠른 분석과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리 예상하여 산신을 골탕을 먹인다.

이렇게 많은 산신들이 소요산의 경치들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과 결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수호신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고, 그들의 능력과 협동심은 소요산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에 더 큰 혼란을 느낀 산신들은 지쳐만 갔고, 결국 소요산 수호신들에게 휴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또한 더 이상 소요산을 쳐들어가지 않는 대신 소요산신을 깨우지 않는 조건으로 무기한 평화 협정을 맺는다.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소요산 수호신들은 기뻐하면서 자축을 하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2011년 가을, 소요산은 여전히 아름답다. 경기의 금강산이라는 명성은 여전히 자자하고 단풍은 여전히 붉다. 소요산에 가득 찬 원효와 요석의 사랑의 기운은 소요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풍요를 가져온다. 소요산 속 여섯 수호신 또한 산을 찾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늘 손에서 공부와 컴퓨터를 놓지 않는 자재암 수호신, 동동
재잘재잘 시끌벅적 수다쟁이 세쌍둥이 상·중·하백운대 수호신, 백운대 상·중·하
선녀탕 수호신을 매일 밤 훑쳐보는 능글맞고 귀여운 변태 원효폭포 수호신, 순덕
거대한 몸집으로 위엄을 가진 독불장군 일주문 수호신, 일주장군
섹시하고 도도한 절세미인 선녀탕 수호신, 선녀
도끼병에 걸린 밋상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소유자인 공주봉 수호신, 공주

이들의 각기 다른 성격으로 인해 소요산은 하루도 조용할 틈이 없었고 티격태격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수호신들은 그들만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세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바로 몇 년 전부터 매일 저녁이 되면 가족들의 건강과 무운을 빌려 자재암에 오는 한 여인의 아들 태양 때문이다.

태양은 오늘도 엄마가 자재암에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보내기 위한 태양의 선택은 최신 태블릿 PC로 게임하기이다. 태양은 자재암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다.

같은 시각, 오늘도 어김없이 백운대 세쌍둥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동동은 태양을 발견한다.

‘어라? 인간아이네. 응? 쟀 뭐하고 있는 거지?’

궁금해진 동동은 조심스럽게 태양의 곁으로 다가간다. 동동의 눈에는 태양보다 태양의 손에 들려 있는 태블릿 PC가 더 눈에 띈다. 처음 보는 기기에 백운대 세쌍둥이에게 골탕 먹은 일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태양의 옆에 앉아 태블릿 PC를 가만히 쳐다본다.

“어? 키보드가 없네? 손으로 다 되네?”

신기한 작동 방법에 홀려버린 동동은 태양의 태블릿 PC를 살짝 건드려본다. 갑자기 태블릿 PC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자 태양은 당황한다.

“뭐야, 이거? 왜 이래?”

하지만 태양은 그냥 오작동인줄 알고 무시해버리고는 게임에 집중한다.

“아 방금 이번 탄 썰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계속되는 호기심에 자꾸만 태블릿 PC를 건드려보는 동동. 계속되는 장난에 태양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친다.

“뭐야? 누구야? 뭐지? 뭐야!!”

그 때 동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태양 앞에 나타난다. 이렇게 수호신과 태양의 만남은 시작된다. 태양은 갑자기 나타난 동동을 보고 어리둥절해 한다.

“너 갑자기 어디서 튀어 나온 거야? 응? 동자승이네? 애야, 어서 들어가서 자!”

동동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태블릿 PC만 바라본다.

“이건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태양은 계속해서 경계를 한다. 조용히 태양을 지켜보던 동동은 태양에게 자신은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밝힌다.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태양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너무 신기해서 나타난 것이라면서 천천히 설명해준다.

“거짓말 치네. 그럼 넌 뭐 귀신이란 말이야? 에이~”

동동은 킁킁대면서 귀신이 아니라 수호신이라고 말해준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만물에는 신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바로 그 신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의심을 계속 놓지 않는 태양은 뒷걸음질은 치다 넘어져 기절하게 된다. 동동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발만 동동 굴리다, 태블릿 PC를 가만히 쳐다만 본다.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동동은 태블릿 PC를 만져보다가 태양의 엄마가 찾는 걸 듣고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진다.

‘태양아 나 동동인데, 이거 들고 내일 또 와줘! 내 친구들을 보여줄게’

태양의 엄마는 기절해 있는 태양을 발견하고는 태양을 흔들면서 깨운다.

“태양아? 어머! 애 왜 여기 이려고 있어? 태양아!”

“어? 엄마. 아..아냐. 갑자기 헛것을 봤나봐. 빨리 집에 가자. 배고파.”

방금 일어난 일을 꿈이었다고 생각한 태양은 집으로 돌아와 잠든다.

한편 동동은 다른 수호신들을 만나 태양과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일주장군아! 나 오늘 인간 아이와 이야기했다? 너무 오랜만에 인간과 이야기하니까 재미있더라. 그 아이가 진짜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

일주장군은 동동의 말에 웃으면서 맞장구를 쳐준다.

“인간 아이라고? 놀라거나 겁내지는 않았니?”

동동은 웃으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백운대 세쌍둥이는 동동을 비웃으면서 놀리기 시작한다.

“야야, 꼬맹아, 네가 꼬맹인데 무슨 아이라고 하냐? 너보고 애라고 안 때린 게 다행이다, 임마. 또 일주장군한테 도망 가냐?”

일주장군의 어깨로 재빨리 도망가는 동동. 선녀는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공주는 손거울을 보며 단장을 한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해 게임을 하러 태블릿 PC를 켜 태양은, 동동의 메시지를 확인한다. 어제의 일이 꿈인 줄로만 알았던 태양은 동동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라 책상에서 일어난다.

“야 태양! 너 뭐하는 거야? 빨리 자리에 안 앉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꾸지람에 자리에 앉은 태양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조용히 태블릿 PC의 메시지를 닫고 수호신을 만나야 할 지 고민한다.

‘아, 어제 일이 진짜였네? 수호신이 뭐지?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야겠다.’

태양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터넷 검색창에 수호신을 검색해본다. 그러자 가택신, 요괴, 수호령, 그리스 로마 신화 등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나온다.

‘음……. 수호신이라는 게 정말로 있구나. 그럼 진짜 소요산을 지키는 수호신? 신기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와 함께 자재암을 찾은 태양은 두리번거린다.

‘그 아이가 나타나려나? 귀신이면 어찌지? 아 뭐지? 무섭다.’

자재암을 돌아다니며 동동을 찾던 태양은 동동이 나타나지 않자 그냥 잊어버리자고 생각하면서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자재암 입구에 걸터앉아 태블릿 PC를 켜려고 한다.

“응? 너 왔구나! 왜 왔다고 안했어!”

동동의 갑작스런 등장으로 태양은 또 한 번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진다. 하지만 이번엔 놀라지 않고 자재암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리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동동을 만져본다. 사람과 생김새가 똑같고 분명히 인기척도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궁금했던 것들을 묻기 시작한다.

“진짜 수호신이야? 그럼 너도 올림푸스 가디언에 나오는 그런 신이야? 우와! 신기하다! 근데 어디서 나타났어?”

이 것 저 것 묻기 시작하는 태양을 본 동동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인간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다.

“요즘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난 산에만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처음 본다. 나도 컴퓨터랑 게임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너 스타크래프트 해?”

동동이 컴퓨터와 게임에 대한 말을 하자 태양은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을 보인다.

“어? 신이 게임도 해? 컴퓨터도 해? 신은 그냥 만능이어서 그런 건 필요 없지 않아? 그리고 요즘 누가 스타크래프트를 해, 요즘 대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하는 어플 게임이야.”

어플도 태블릿 PC도 무엇인지 모르는 동동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 때 태양은 너무나 신기한 수호신이란 존재에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동동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너 혹시 날 수도 있어? 에너지파 같은 것도 쓸 수 있어? 한 번 보여줘. 난 네가 아무리 봐도 그냥 동자승으로 밖에 안 보여!”

태양의 제안에 갑자기 욱한 동동은 사라졌다가 나무 위에서 나타나 솔방울을 태양에게 떨어뜨린다.

“야! 나 수호신 맞아! 에너지 파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날 수는 있어!”

입이 떡 벌어져 동동을 바라보던 태양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동동을 향해 소리친다.

“아 맞다! 어제 나한테 메시지 남겼었지? 친구들 보여준다고, 어디에 있어, 너 친구들?”

자재암 수호신은 이 때다 싶어 태양에게 말을 한다.

“음…… 네가 그 태블릿 PC를 빌려주면 보여줄 수 있는데…….”

태양은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태블릿 PC를 갑자기 달라는 동동이 달갑진 않았지만,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알려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면서 태블릿 PC를 건넨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럼 이게 컴퓨터야? 뭐야? 잠깐만. 난 기계를 만지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

동동은 태블릿 PC를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손을 모은 채로 기를 모은다.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태블릿 PC. 어안이 병병한 태양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내가 내 친구들 보여줄게! 나를 따라와!”

동동이 손짓을 하자 태양은 이끌리듯이 그를 따라간다. 동동을 따라가니, 산만한 덩치에 긴 창을 들고 있는 아저씨, 똑같이 생긴 세 명, 옆 집 대학생 누나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누나, 자기가 만날 놀리는 통통이와 닮은 형, 그리고 여동생 같은 아이가 재잘거리며 동동을 반겨준다. 백운대 세쌍둥이가 갑자기 달려와 동동을 들어 올리면서

“어라? 인간이네? 뭐야. 에이 이게 뭐야. 옷이 촌스럽잖아! 야. 뭐 하러 이런 애를 여기 데리고 와? 에비~!!”

라고 비웃는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태양은

“형들은, 아니 수호신님은 아래위로 빨간색이 뭐예요? 머리는 폭탄 맞은 것 같은데요?”라며 웃음을 짓는다.

“진짜 수호신님 맞아요? 와 신기하다. 애처럼 다 어린 건 아니네요? 에너지파 쓸 수 있어요? 막 제우스처럼 번개도 쏘고 그래요?”

태양의 어이없는 질문에 갑자기 웃음이 터진 수호신들은 태양을 바라본다.

“이 애가 태양이야? 어머 귀엽네? 나 예쁘지? 응? 오늘 귀걸이 바꿔봤는데. 어때? 이거 봐봐!”

갑작스런 공주의 질문에 태양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아…… 네…….”

하지만 태양은 예쁜 선녀를 바라본다. 갑자기 선녀를 바라보는 태양을 경계하는 순덕은 과자를 집어먹 으면서 태양에게 다가온다.

“너..너..서서선녀탕 쳐다보지 마..저..저리가..”

순덕의 말에 태양이 당황하자, 선녀는 태양의 불은 쓰다듬으며

“귀엽네. 예쁜 건 알아서! 자 여기까지 오느라 목말랐지? 자, 이 물 마셔봐.”

라며 물을 건네준다. 물을 받아 마신 태양은 너무나 맛있는 물맛에 감탄한다. 일주장군은 아이가 착해 보인다는 듯이 지그시 바라만 본다. 수호신들의 손님은 태양이 처음이었기에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광경에 기분이 좋아진 동동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신나는 음악을 틀면서 사진기를 꺼내든다.

태양은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하지만, 재미있는 상황과 새로운 만남에 한껏 들떠 이 것 저 것 묻기 시작한다.

“그럼 수호신님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우리엄마보다 나이 많아요?”

“여기에 원래 원효대사라는 스님이 있었다는데 본 적 있어요?”

태양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는 수호신들은 처음 찾아온 손님에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 때 일주장군이 입을 연다.

“우리가 너무 오래 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동아. 태양이가 어머니랑 함께 왔다고 하지 않았어? 데려다 주고 와.”

“응. 알겠어!”

동동은 그렇게 태양을 다시 자재암으로 데려다주고, 또 놀러오라며 인사를 한다.

“잘 가. 또 보고 싶으면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나타날 거야. 다음엔 태블릿 PC로 같이 게임도 해보자!”

동동의 말에 태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저 멀리서 자신을 찾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태양은 동동에게 인사를 하고 엄마에게로 달려간다.

수호신들도 아이가 싫지는 않았는지,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즐거운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신과 함께 놀던 태양은 수호신들에게 질문을 한다.

“저는 친구들을 사귀면 의리만큼은 무조건 지켜요. 우리 친구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목걸이를 드릴게요!”

그러자 수호신들은 귀엽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선물은 우리가 줄게. 마침 그 목걸이에 어울리는 펜던트가 있어. 여기에 담겨진 산의 기운이 너를 항상 지켜줄게. 자! 여기 단풍 펜던트야. 이걸 소요산이 가장 자랑하는 단풍을 형상화 한 거야. 1년 동안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단풍들의 기운과 산을 돌보는 우리의 기운이 함께 들어있지. 너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만든 것이니까 그 목걸이에 걸고 다니렴.”

수호신들의 선물에 행복해진 태양은 수호신들에게 뽀뽀를 하며 애정을 표현한다. 그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

한편, 자신의 산을 잃고 오랜 시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이 있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인해 떠돌이 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남을 흉내 내는 특기와 유일한 친구인 멍청한 말 몽룡이 전부다. 사

실 그가 어렸을 때만해도, 산신들 중 귀족이었던 그의 아버지 덕에 그는 강한 힘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산신들을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산을 가꾸지는 않고, 여자 산신한테 놀러가거나 잠만 자는 등 쓸데없는 짓만 하기 일쑤였다. 자만이 부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의 산에는 다른 떠돌이 신들이 찾아오고, 귀신이나 도깨비들도 놀러왔다. 산에 있는 나무와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 둘 산을 떠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할 것들이 떠나자 떠돌이신은 힘을 조금씩 잃기 시작했다. 힘을 잃기 시작하자, 얼굴은 까맣게 변하고, 귀티가 나던 그의 옷은 점차 누렇게 변했다. 떠돌이신의 산은 계속해서 황폐해져 갔고, 산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다. 체구가 좋던 떠돌이신은 점점 말라갔다. 자신의 산을 다시 살릴 생각은 안하고, 산의 기운을 거의 잃어가던 떠돌이신은 자신이 없어지기 전에 산에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모아 어서 빨리 새로운 산을 찾아 정착을 하자고 결론을 내버렸다. 정착할 산을 찾아 헤매던 떠돌이신은 산신들을 찾아간다.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신들도 그를 외면했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외로워진 그는 자신의 힘의 일부를 사용해 친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힘의 기운이 이상한 나머지 멍청이 말 몽롱이 태어났다. 몽롱은은 매번 그를 다른 길로 데려다주고는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신은 신들이 가는 카페에 들어서 신들의 음료수를 마시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러다 뒤에 앉은 산신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봐, 벌써 소요산신이 잠든 지가 삼천년이야. 그런데 아직도 소요산이 그렇게 아름답다지? 나 참, 이거 원 산신 노릇하기 힘들 구만. 수호신들보다도 관리를 못한다는 소리나 듣고.”

“맞아. 그런데 소요산신이 영면에 들기 전에 만든 수호신들이 요즘 의외로 태평해졌다는 소문이 자자 하더라고. 뭐, 신이 아니니 그럴 만도 하겠지만 말이야.”

소요산신이 영면했다는 사실과 잠든 소요산신을 대신해 수호신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에게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오호라~ 소요산이라고? 귀족도 아닌 놈이 만들어 낸 수호신이라고 해 봤자 얼마나 강하겠어? 이 귀족인 떠돌이신이 주인이 되어주마!’

떠돌이신은 수호신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등산객으로 변신해 조용히 소요산 속으로 들어간다. 떠돌이신은 소요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로 산의 맑은 기운이 넘쳐나는 소요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다.

‘와~ 산의 기운이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디보자…… 수호신들은 어디 있으려나?’

소요산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산을 둘러보던 떠돌이신은 입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장군의 복장을 한 사람이 일주문에 쭈그려 졸고 있었고, 떠돌이신은 단번에 그가 이 산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크하하. 졸고 있는 수호신이라……. 이거 뭐 한주먹거리도 안 되겠구만? 가까이 가보자. 나를 알아보나.’

일주문가 가까이 간 떠돌이신은 빠끔히 그를 쳐다본다. 조느라 정신이 없는 일주문장군이 떠돌이신의 정체를 알아차릴 리가 없다.

“드르렁~ 드르렁~”

떠돌이신은 쾌재를 부르며 다른 수호신들을 찾기 위해 소요산을 탐방한다.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자재암 수호신, 요가를 하며 자신의 몸매를 가꾸고 있는 선녀탕 수호신, 그런 선녀탕 수호신을 흠쳐보고 있는 원효폭포 수호신, 머리스타일을 가꾸면서 시끌벅적 떠들고 있는 상·중·하백운대 수호신, 손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공주봉 수호신까지, 모두가 오랜 평화로 소요산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임무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 수호신들의 모습을 보며 떠돌이신은 소요산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거 누워서 떡먹기겠군! 누가 소요산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랬어? 그래봤자 이 귀공자 떠돌이 신님을 이길 수는 없어. 신도 아니고 수호신 밖에 안 되는 천한 것들이 감히 이런 분에 넘치는 산을 갖고 있나. 내가 대신 돌봐주겠다!”

떠돌이 신은 몽룡이와 함께 소요산을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그의 첫 번째 작전은 ‘더럽히자 소요산!’ 소요산을 더럽혀서 산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등산객으로 변신한 그는 강아지로 변신시킨 몽룡이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바위나 나무에 낙서를 하고, 대소변을 아무데나 싸고 다닌다.

“우하하하. 어떠냐? 더러워지면 산의 기운이 약해지고 안 배겨? 수호신들아, 더 약해져라!”

하지만 소요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가 버린 쓰레기를 줍고, 배변을 치우고,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이 인간들이? 이게 뭐야! 안 돼에에에!!!!”

그렇게 그의 첫 번째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다시 몽룡이와 작전을 짜던 떠돌이 신은 곰곰이 생각한다.

‘더럽히는 게 안 되면 어떻게 수호신들을 놀라게 하지? 하아……. 지금 내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산의 기운이 좋아서 수호신들이 다 같이 모이면 아무래도 약간 버거운데…… 아직 내 힘이 모두 모이려면 멀었고…… 흐음…….’

그 때 몽룡이 갑작스런 작전을 제안한다.

“히이이이이잉~(주인님~) 히잉히이이이잉~(좋은 작전이 있습니다.) 히이이잉~(공중전이에요!) 히잉~(헝~헝헝헝!!(제가 날 수 있으니 기습작전을 하는 거에용!) 헝히잉~!!!(이길 수 있어요!!!)”

몽룡이 제안한 작전에 귀가 솔깃해진 떠돌이 신은 썩은 당근을 주면서 몽룡을 칭찬한다.

“오호라~ 이놈이 올바른 말을 할 때가 있군! 좋았어! 공중전! 이번엔 하늘이다! 이 귀족님에게 어울리는구만!! 귀티가 나는데?”

몽룡은 떠돌이 신을 태우고 신나게 소요산으로 날아간다. 산의 상공에 도착하자 떠돌이 신을 높은 나무에 떨어뜨리고 돌아간다.

“히이이이이잉~(주인님~) 후이이이이잉~♡(파이팅~♡)”

하지만 멍청한 몽룡이 떠돌이 신을 내려준 곳은 소요산이 아닌 소요산 옆 마차산이었다. 마차산신은 갑작스런 외부의 침입에 놀라서 나타나지만, 이미 타락하여 귀족의 품격을 잃어버린 떠돌이 신을 쳐다보더니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허허.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너 같은 잡놈은 여기 있을 데가 아니다! 썩 물러나라!!”
 마차산신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된 떠돌이 신은 너털너털해져서 쫓겨난다.
 “이놈의 몽롱이! 주인을 두고 도망가? 말까지 품격이 떨어지고 난리야! 이놈아 이리로 와!”

두 번의 작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떠돌이 신은 좀 더 치밀한 작전이 필요함을 느낀다. 떠돌이 신은 조용한 밤에 다시 인간으로 변신해 소요산으로 숨어든다.

‘이거 안 되겠어. 멍청한 말도 그렇고 품격 떨어지는 인간들도 그렇고 믿을 것들이 못 돼. 내가 직접 작전을 짜야겠어.’

떠돌이신은 태양과 동동이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동동아~ 내가 이겼지? 아직 넌 멀었어! 나를 스승님이라고 불러라~”

태양이 놀리듯 이야기하자 동동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한다.

“야~ 난 손이 너무 작아서 그래. 컴퓨터로 해보자!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인간과 수호신의 만남이라……. 그 모습이 신기했던 떠돌이신은 숨죽이며 둘의 동태를 살핀다. 게임이 끝나자 태양과 동동은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들을 몰래 뒤따르던 떠돌이신은 여섯 수호신과 함께 있는 태양을 발견한다.

‘어라? 저 어린 인간 놈이 다른 수호신들까지 알아? 오호라~’

태양과 수호신들이 어울려 재미있게 수다를 떨고, 인간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확인한 떠돌이 신은 그들 주위를 며칠 동안 맴돈다.

어느 날, 떠돌이신은 태양과 수호신들이 모여서 단풍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수호신님들, 그런데 소요산 단풍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산을 가 봐도 소요산 단풍만한 것이 없다고요.”

선녀는 웃으면서 대답해준다.

“그럼~ 이 예쁜 누나가 매번 물을 주고 이 부채로 사랑을 주는데 단풍이 안 예쁠 수가 없지!”

그러자 공주는 이에 질세라 대답한다.

“내가아~ 예전에 어떤 고승한테서 받은 사랑의 힘을 매번 단풍들한테 주는데 안 예쁠 수가 없지.”

갑자기 선녀와 공주가 티격태격 거린다.

“야 그럼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예쁘다는 거야?”

그 때 백운대가 한마디 한다.

“야야야~ 그래봤자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면 단풍도 다 쓸모없어져 임마. 저 아줌마들 말 믿지 마. 그냥 우리 덕분이야.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면 수호신 기운의 반의반도 못 쓰듯이 단풍들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단풍이 예쁘네, 산이 어찌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수호신님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동동은 백운대가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일주장군의 어깨에 올라타면서 태양에게 말을 건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 있으면 안 돼. 거기다 달이 뜨고 어두워지면 양의 기운이 없고 소요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잠이 들어서, 그때 우리도 잠이 들곤 하거든. 우리가 낮에 모은 양의 기운들이 음의 기운을 막아주려고 방어막을 만들어서 보호하면서……. 매번 같은 일상으로 소요산만 가꾸는 게

조금은 심심했었는데 너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 백운대도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태양은 ‘양의 기운? 생물들이 잠든다? 수호신이 자리를 뜨면 안 된다? 라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덕분에 수호신들이 행복해졌다니 나도 행복해’ 라며 미소를 짓는다.

조용히 숨어서 태양과 수호신들의 이야기를 엿듣던 떠돌이 신은 속으로 킬킬거리며 쾌재를 부른다.
‘우하하하하. 드디어 저놈들의 약점이 나왔다! 자기네들 자리에서 벗어나면 약해진다고~ 으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소요산에서 벗어나게 만들까? 으흠…… 으흠……’

그 때 갑자기 뇌리에 스치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오호~ 태양이라는 저 꼬맹이 인간놈을 이용하면 되겠구만! 으흠…… 어떻게 이용해먹을까…….’

태양과 수호신들 모르게 조용히 산을 빠져나온 떠돌이신은 이제 소요산을 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작전을 짜려고 한다.

‘음…… 어차피 산신들이 산을 벗어나면 약해지는 것을 알았지만, 수호신들도 그렇단 말이지? 태양은 유일하게 수호신들이랑 친한 인간이고……. 이 점을 이용해야하는데…… 아~ 막상 떠오르지는 않고…… 미치겠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머칠을 고민해도 작전이 떠오르지 않아 괴롭던 떠돌이신은 마을 시내를 떠돌아다니던 중, 재밌는 광고를 보게 된다.

2011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축제.

소요산 단풍축제. 동두천과 함께 합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떠돌이 신은 신이 나서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한다.

‘우하하하하. 바로 이거야, 이거. 좋았어. 소요산은 이제 내 거다!’

떠돌이신은 머칠 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후, 태양으로 변신해 소요산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동동아. 동동아! 노을자아~”

태양의 부름에 대답이 없는 동동. 짜증이 난 태양은 더 큰 목소리로 동동을 부른다.

“동동아~ 노을자아~”

동동은 갑작스런 태양의 방문에 놀랐다는 듯이 나타난다.

“어? 태양아. 너 갑자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머니랑 안 왔어?”

갑작스런 엄마에 관한 질문에 떠돌이신은 놀라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대답한다.

“아~ 응. 오늘 엄마가 피곤해서 안 간다고 해서. 뭐 만날 오기 귀찮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거 알아? 단풍축제. 얼마 전에 내가 단풍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 근데 그거 오늘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놀러가자고. 너희들이 가꾼 단풍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축제를 하는 지 궁금하지 않아? 같이 놀러가자~ 응? 놀러가자!!”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한 동동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 때 뒤에서 나타난 일주장군이 말

을 꺼낸다.

“태양아, 우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너도 알잖니. 그리고 수호신들은 인간의 앞에 나타나면 안 되는 존재들이야. 어머니도 안 계시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떠돌이신은 일주장군의 말에 짜증이 났지만, 그 기색을 하지 않은 채 애교 섞인 말로 일주장군을 꼬드기기 시작한다.

“에이~ 밤 되면 다들 잔다면서요. 그냥 잠깐 놀러가요. 양의 기운으로 방어막 친다면서요! 어차피 쳐들어올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뭘. 정 그러면 누구 여기 있으라고 하고 가면 되잖아요. 네?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만날 나만 여기 놀러오고! 수호신님들도 우리 동네 한번 오시면 안돼요? 네? 네?”

일주장군은 당황하지만, 혼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기에 다른 수호신들을 부른다. 갑작스런 태양의 제안에, 백운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한다.

“와우! 좋지! 놀러가자! 내 패션 센스를 보여줄 시간이야! 요즘 최신 유행하는 나의 패션을 보여줘야겠어!! 오~ 꼬맹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말을 하는데? 가자가자! 야 순덕! 그렇게 먹지만 말고……. 선녀! 너 몸매 관리한 거 한번 보여주러 가야지~ 가자~ 공주야~ 오케이?”

순덕도 호기심이 생기는지 조용히 대답한다.

“으..응.. 오..래랜..만에.. 이이인..간들 세에게에 가가보느는 것도 조좋은 것 같아.”

공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한다.

“이것 봐. 순덕이 재 다른 여자에 보러 가려고 하는 거야. 선녀 널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녀는 순덕을 신경도 안 쓰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말을 꺼낸다.

“음. 단풍축제라. 내 외모처럼 빛이 나겠네~ 그래 놀러가 보자.”

수호신들의 찬성에 일주장군은 당황한다. 반면에 기분이 좋아진 떠돌이신은 강해보이는 일주장군을 빼내기 위해 더 부추기기 시작한다.

“수호신님들! 그러면 일주장군님은 두고 가요. 다 가면 안 된다면서요. 일주장군님! 제가 놀러갔다가 맛있는 것 사가지고 올게요. 쉬고 계세요.”

모든 눈이 일주장군에게로 쏠린다. 일주장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음. 그럼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음의 기운이 모두 다 차기 전엔 돌아와야 해, 다들. 알겠지?”

그렇게 그들은 시내로 출발하고, 일주장군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소요산을 벗어난 다섯 수호신은 처음으로 맛보게 된 인간의 도시 모습에 신기해하며 냇을 놓는다. 순덕은 인형에게 옷을 사주려고 인형가게에 들러 이것저것을 둘러본다.

“우우..리 얘기하하한..테 어울리는 게게게.. 어디 이이있을까? 서선녀가.. 입는 오옷..같은 게 이이있으려나?”

백운대는 그런 순덕을 쳐다보며 혀를 꼴꼴 찬다.

“저 변태는 왜 저래? ㅋㅋ 선녀는 절대 너 안 좋아해 임마. 야, 가뜩이나 멀리 나와서 인간 모습으로 유지하기도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사면서 힘 빼지 말고 구경 좀 하자. 어이~ 공주~ 너보다 예쁜 여자 지나간다. 야. 변태~ 저~ 하아~ 역시 벌써 쳐다보고 있구만.”

공주는 손거울을 쳐다보면서 이야기 한다.

“노노노~ 별로 안 예뻐. 오늘 내가 더 예쁘지~ 뭐, 그래도 인간여자들은 키가 다 크네. 아우 짜증나!!
그래도 뭐~ 나보다 예쁜 것들은 없으니까 뭐~ 태양아 우리 어디로 가?”

돌이신은 시간이 지나자 약해지는 수호신들의 힘을 느끼고는 이제 슬슬 공격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크크크. 이놈들이 소요산에서 멀어지니 힘이 약해지고 있구만. 자... 어디서 이놈들을 요리해 볼까나?’
떠돌이 신은 걸어가다 작은 폐공장 터를 본다.

‘이곳은 더러운 곳이니 내 힘이 조금은 커지겠군. 좋았어. 여기서 이놈들을 잡아야겠다!’

“수호신님들! 잠깐 저기로 가 봐요! 옛날에 저기에 귀신들이 있다고 해서 제 친구들이랑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귀신이 있나 봐주세요!”

선녀는 태양의 말을 듣자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이야기한다.

“뭐? 귀신? 처녀귀신이야? 별로 처녀귀신은 재미없던데… 총각귀신없나? 무슨 여자들이 돌아다녀. 빨리 저승이나 가야지! 내가 돌려보내줄게. 친구들이 어디서 본 적 있대?”

그 순간, 본 모습을 드러낸 떠돌이 신은 수호신들을 공격한다.

“우하하하.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야 귀족 출신의 엘레강스한 떠돌이신님이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부하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얍!”

떠돌이 신은 그 동안 수호신을 이기기 위해 모아두었던 악의 기운을 가지고 옛 기억을 되살린다. 그러자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안개가 나타난다. 떠돌이 신은 검은 안개에서 자신의 블랙 쇼크를 꺼내든다.

“쿠아아아앙!”

그리고는 블랙쇼크에서 나온 데블썬더를 가장 강해보였던 선녀에게 던진다.

“우하하하. 만날 몸만 관리하더니, 힘이 더 약해진 천한 놈아! 짜릿짜릿하지? 네가 물을 써서 약하다는 것을 내 익히 알고 있지!!”

하지만 선녀를 순덕이 대신 막아주면서 쓰러진다.

“아아악!!! 서선녀야! 아안 돼!!”

순덕 역시 물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가 통하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이를 본 선녀는 당황하며 부채를 꺼내든다.

“순덕아!!!! 뭐야 이거? 태양이가 아니잖아! 넌 정체가 뭐냐!” 동시에 백운대와 동동, 공주가 자신들의 무기를 꺼내며 공격 자세를 펼친다. 동동은 즉시 폐공장의 쓰레기 더미 근처에 숨어 떠돌이신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저건 뭐지? 태양이는 어디 간 거지? 태양이가 우리를 속였나? 아난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컴퓨터로 상대방을 분석하려는 동동은, 소요산과 너무 멀어져서 빠른 속도로 검색이 되지 않고 자신의 힘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자 당황하며 별별 떨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백운대가 동동을 보며 소리친다.

“야 동동! 정신 차려! 지금 공격이야! 이건 뭐지? 산신들이 계약을 깬 것인가? 이렇게 비겁하게 쳐들어

은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공주야 괜찮아? 빨리 가서 순덕이를 확인해봐!”

같은 시각, 언제나처럼 엄마와 함께 소요산을 찾은 태양은 동동을 찾는다.

“동동아~ 어디 있어? 나 왔어! 놀자~”

아무 대답이 없자 태양은 허무해하면서 계속 불러보지만 동동은 대답이 없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동동이 보이지 않자, 일주문으로 가본다.

“어? 일주장군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태양의 방문에 당황한 일주장군은 이게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생각해본다. 너무나 해맑게 그를 반기는 태양을 보고 무엇인가 이상함 느낀다.

한편, 떠돌이 신의 일격으로 쓰러진 순덕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선녀는 냉철하게 판단하려 애쓴다. 선녀는 떠돌이 신에게서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과 자신들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 소요산에서 벗어나 힘이 없는데다가 여섯 명이 다 뭉치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곳의 터가 안 좋아서 우리 힘도 빠져나간다. 이리다간 우리 모두가 다 당한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떡하면 좋지?’

백운대는 뭔가를 직감한 듯, 선녀와 공주를 한곳으로 부른다. 그리고는 세 명이 하나로 변신한다. 백운대가 변신을 하자, 공주는 정신을 차린다.

“순덕이가 정신을 못 차려. 저 놈 지금 보니까 산신인 것 같아. 그런데 본래의 산신의 기운은 아니야. 뭔가 좀 달라. 내 기운이랑 상반이 되… 아~ 머리가 아파…”

떠돌이신은 데블썬더를 한 번 더 선녀에게 던진다. 선녀는 부채로 튕겨내며, 물로 순덕의 주변에 보호막을 쳐준다.

“백운대! 공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 저놈한테 안 돼. 막기에도 급급해. 어서 빨리 저 놈의 약점을 알아내는 게 필요해!”

백운대는 동동을 재촉한다.

“야! 아직 안됐어? 저 놈 뭐야? 분석결과 빨리 보내줘 봐!”

백운대와 선녀의 재촉에 동동은 더 속도를 낸다.

‘제발. 제발. 빨리 나와라. 옳지! 나왔다.’

떠돌이신에 대한 결과가 나오자, 동동은 결과를 전송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 뒤에서 나오려고 한다.

“그 놈은 떠도………… 아앗!!!!”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 위로 날아간 떠돌이신은 동동을 들어올린다.

“요놈이 여기 숨어있었네? 어쩐지 수가 부족하다 생각했어. 넌 분석하는 놈인가 보구나. 왜? 이 몸이 뭐냐? 알아낸 거냐? 그런데 이제 어찌지? 넌 이제 죽게 생겼는데? 우하하.”

떠돌이신에게 잡힌 동동은 벌벌 떨면서 오줌을 싸기 시작한다. 떠돌이신은 동동을 바라보며 껄껄 웃어댄다.

“수호신이나 되는 놈이 오줌을 싸? 천박하게 말이야! 자 내 공격을 받아랏!”

떠돌이신은 손에서 검은 물체를 만들어내더니, 동동에게 먹이고 동동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진다. 동동이 쓰러지자 당황한 수호신들은 다시 위기를 직감하고 기운을 하나로 모아 떠돌이 신에게 쏜다. “에잇, 우리의 힘을 봐라! 물과 바위 그리고 꽃의 힘이다!!” 파란 빛, 회색 빛, 그리고 노란 빛, 세 개의 빛이 모여 떠돌이 신에게 날아간다. 하지만 힘이 약해진 수호신들의 공격은 떠돌이 신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작은 상처만 준다.

한편, 일주장군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태양에게 빨리 시내로 달려가 보라고 한다.

“이상하군. 분명히 태양이가 왔었어. 그래서 다른 수호신들은 널 따라갔거든.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아. 네가 지금 시내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봐줘. 음의 기운이 차기 시작해서 난 이제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 무슨 일이 생기면 수호신들과 함께 빨리 여기로 돌아와야 해. 알겠지?”

“네 일주장군님”

태양은 일주장군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달리기 시작한다. 불안한 마음에 심장은 쿵쿵거리고 땀이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호신들이 준 펜던트가 붉은 색으로 변한다.

“빨리 가봐야겠어. 내가 왔었다니. 무슨 일이지? 동동아. 백운대님. 선녀님. 공주님. 순덕님.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같은 시각, 3명의 수호신의 필살기를 막아낸 떠돌이신은 기세등등하여 수호신들을 비웃기 시작한다.

“너희도 산을 떠나니 별 것 없군. 그래. 나도 산을 떠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 힘이 없더군. 하지만 이 몸은 귀티 나는 몸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보다는 강하다! 너희들을 없애기 위해 나의 기운을 모았다. 기운이 없지? 이 귀족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수호신 같은 잡귀신들이 무슨 산을 다스린다고 그래! 산신인 내가 이제 소요산을 돌봐주겠다!”

떠돌이신은 다시 한 번 블랙 쇼크를 들더니 기운을 모으기 시작한다.

“쿠르르릉~”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서 블랙쇼크에 검은 에너지가 모인다. 세 명의 수호신들은 당황하면서 순덕과 동동을 뒤로 두고 앞을 막아선다.

“이야압! 반아라, 나의 울트라 캡송 원더풀 킹왕짱 썬더 플래시를!!”

하늘에서 번쩍이면서 검은 번개가 수호신들을 내려찍는다.

“으아아아악!”

3명의 수호신은 떠돌이신의 필살기를 맞더니 이내 쓰러지고 만다. 선녀가 쳐 놓았던 보호막은 물로 변해 사라지고 백운대는 다시 세 명으로 분리되었다. 동동의 컴퓨터는 박살이 나고 순덕의 인형은 부서졌다. 그리고 공주의 거울은 깨져버렸다.

그 때, 여기저기 죽은 듯 널브러져있는 수호신들을 발견한 태양이 수호신들을 향해 소리를 친다.

“수호신님!!!”

희미하게 들려오는 태양의 목소리에 수호신들은 조금씩 눈을 뜨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너무 놀란 태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그런 태양을 발견한 떠돌이신은 태양을 공격한다.

“하하하. 인간 놈이 감히 신이 있는 곳에 발을 들여놔? 너도 한번 혼나봐라! 에잇 반아라!”

떠돌이 신이 태양을 공격하자, 선녀, 공주, 동동은 겨우 몸을 던져 태양을 감싸 대신 공격을 받아낸다.

“으아아아악! 태양아! 피해!”

순간, 모든 힘을 다한 순덕, 공주, 동동, 선녀는 갑자기 몸에서 빛을 발하더니 소요산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 모습을 본 떠돌이 신은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웃기 시작한다.

“우하하. 이제 소요산은 내거다. 내거라고! 응? 꼬맹아 아직도 여기 있냐? 다시 받아봐라!”

다시 떠돌이신 앞에 노출 된 태양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 때 정신을 차린 백운대가 소리를 치며 다가온다.

“야 이 멍청아. 거기 그렇게 서있으면 어떡해!”

백운대는 태양을 밀쳐내고 떠돌이신의 공격을 받아낸다. 태양은 쓰러진 백운대를 부축하고 울먹이며 말을 한다.

“다른 수호신님들이 죽은 거 같아요. 다들 빛을 내더니 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백운대는 한숨을 쉬면서 태양의 어깨를 잡고 대답해준다.

“그래? 헉헉. 그럼 다행이구만. 아직 안 죽었어, 그놈들. 괜찮아 입마. 휴우~ 소요산신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밖으로 나와 힘을 다하면... 허억...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힘을 비축할 수 있게 해놓으셨대. 나도 일주장군한테 들은 거야. 와, 이거 힘드네. 나 참... 괜찮아. 안 죽었어. 괜찮냐? 헉헉... 그나저나 저놈 저거 뭐야? 어떻게 우리 약점을 다 아는 거지?”

태양은 눈물을 닦으며 백운대를 계속 부축해준다. 백운대는 그 상태에서 떠돌이신을 향해 소리를 친다.

“야 이놈아. 너 보아하니 산신인 거 같은데, 너 산신들이랑 우리랑 협정 맺은 것 까먹었냐? 이진 명백히 위반이야! 너 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이려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리고 너! 어떻게 우리 약점을 알아서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하나? 산신들도 우리의 약점은 모르는데 말이야!”

떠돌이신은 꺾꺾 거리면서 백운대를 바라본다.

“크크크. 바보 같은 놈아. 네 놈의 주둥아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모르냐? 네가 저 꼬맹이한테 단풍이다 뭐다 하면서 너희 약점을 네 놈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것은 기억이 안 나냐? 수호신이란 놈이 평화에 찌들어서 인간 같은 하찮은 것이랑 어울리더니. 내가 네놈은 반드시 없앤다. 하나씩 내가 없애주마!! 에이잇!!”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다시 악의 기운이 모아진 떠돌이신은 블랙 쇼크로 울트라 캡슐 원더풀 킹왕짱 썬더 플래시를 다시 한 번 날린다.

눈을 질끈 감는 태양을 막으면서 백운대는 혼자 중얼 거린다.

“젠장. 내가 그랬다고? 내가 내 동료들을 망쳤다고? 이 잘난 내가? 젠장... 어쩐지 요즘 운수가 좋더라니. 꼬맹아 잘 있어라.”

떠돌이신의 일격필살을 맞은 백운대는 회색 구슬로 변해버렸다. 다른 수호신들과는 다른 색이었다. 백운대마저 아무 빛이 없는 구슬로 변해버리자 패닉에 빠진 태양은 떠돌이 신을 쳐다보면서 소리친다.

“이 나쁜 놈아! 왜 내 친구를 괴롭혀! 이제 그만해! 백운대님 일어나세요! 어디계세요? 야 이놈아!!! 넌 친구도 없어!???”

떠돌이신은 비웃으면서 태양을 쳐다본다.

“흥. 천한 인간 놈아.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너도 그 친구를 따라가라.”

떠돌이신이 태양을 공격하려하자, 태양은 눈물을 흘리며 떠돌이 신에게 돌진한다. 그러자 태양의 목걸이에서 하얀 빛이 나오더니 엄청난 힘이 떠돌이 신을 공격한다.

“뭐야! 이 기운은? 설마~ 설마아아아아~~~~ 소요산???!!!! 으아아아아악!!!”

태양의 공격을 맞고 쓰러진 떠돌이신을 보고 태양은 다시 백운대의 구슬을 들고 소요산으로 향한다.

일주장군은 다른 수호신들이 걱정이 됐는지 잠도 자지 못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날아오더니, 각각 수호신들의 은신처로 날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이 울면서 돌아온다.

“일주장군님… 백운대 수호신님이… 백운대 수호신님이… 으아앙!!”

갑자기 일어난 사건에 깜짝 놀란 일주장군은 태양을 데리고 다른 수호신들에게 달려가 본다. 하지만 잠들어 버린 수호신들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태양은 울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이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아차린 일주장군은 곧 다시 쳐들어올 떠돌이 신을 떠올린다. 일주장군은 자신의 기운을 태양에게 나누어주면서 산신들에게 가보라고 한다.

산신들의 세계에 도착한 태양은 산신 위원회에 소리를 지른다.

“산신님들이 떠돌이 신을 보내서 소요산 수호신들을 공격하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지 어른들이 왜 약속을 어겨요!”

산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태양을 달랜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떠돌이 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떠돌아다니던 신이야. 아마 소요산에 신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소요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 모양이군. 우리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단다. 인간아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들은 수호신이지 산신이 아니기 때문이지.”

냉정한 산신들의 태도를 확인한 태양은 좌절하면서 소요산으로 돌아온다. 산신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태양은, 다시 쳐들어올 것 같은 떠돌이 신으로부터 소요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른다.

‘내가 수호신들이랑 친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다쳤어. 절대 가만히 둘 수 없어.’

한 편, 태양의 일격을 맞은 떠돌이신은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며 일어난다.

“이런. 제대로 맞았군. 휴우~ 가만있자. 분명 그건 산신의 기운이었어. 어떻게 그 꼬마 놈이 산신의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으흠. 계획을 약간 수정해야겠어. 하지만 난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데 어떻게 하지?”

그 때 마침, 몽룡이 예전에 떠돌이 신이 살던 산에서 모은 악의 기운을 주머니에 담아 가져온다.

“히이잉(주인님), 히이이잉 형형 (여기 주인님을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형형 후히이이잉(예전의 산에 있던 물건들입니다.)”

몽룡의 갑작스런 선물에 화색이 돈 떠돌이신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우하하. 요놈이 이제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어디보자. 오랜만에 내 산의 기운이 어떤가 보자. 오호~ 아주 나쁜 마음들이 가득하구나. 좋아, 좋아. 흐음. 꿀꺽~오옷! 힘이 솟아난다!!!”

몽룡이 가져온 기운들을 먹자 떠돌이신은 갑자기 힘이 강해진다. 재정비를 한 떠돌이신은 곧바로 몽룡을 타고 소요산을 향해 날아간다.

소요산에 나타난 떠돌이신은 일주장군과 마주친다.

“이놈! 감히 떠돌이 잡귀가 신성한 우리 산에 오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떠돌이신은 일주장군의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는다.

“나보고 잡귀라고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난 귀족 출신의 산신 떠돌이신이다. 이놈아! 이제 이 산의 주인이 될 몸에게 무릎을 꿇어라!!”

떠돌이신의 목소리에 기력을 되찾던 수호신들이 하나둘씩 일어난다. 하지만 일전의 전투로 인한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은데다 음의 기운이 만연한 밤이기에 수호신들의 힘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선녀, 동동, 순덕, 공주는 정신을 차리고 일주장군에게 다가갔다. 선녀는 백운대를 찾았다.

“일주장군. 백운대 녀석은 어디 간 거야? 보이질 않네?”

일주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선녀 옆에서 공주가 울먹거린다.

“으앙... 백운대의 기운이 안 느껴져... 어디 있어 백운대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떠돌이 신은 웃으면서 말한다.

“그 뼈쩍 마른 똑같이 생긴 세 마리 말하는 거냐? 그 놈들은 이 몸께서 편안하게 해줬다. 이제 그만 너희도 나의 부하가 되어라. 걱정하지 말고.”

일주장군은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창을 들고 허공을 가른다. 창에서 바람이 나가면서 떠돌이 신에게 날아간다.

“휘익! 쇠~”

떠돌이신이 일주장군의 공격으로 저 멀리 날아가 나뉘글자 일주장군은 나머지 수호신들에게 의상대로 도망가라고 한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마차산신님께서 소요산신님께 들은 전언을 알려주신 적이 있어. 소요산신님께서 아주 큰 위기가 생기면 모두 의상대로 모이라고 하셨대. 어서 빨리 올라가. 나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가!”

태양은 그런 일주장군의 옆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한다. 하지만 일주장군은 태양을 바라보며 다른 수호신을 지켜달라고 한다.

“태양아, 좀 전에 그 펜던트가 너를 지켜주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너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렴. 어서 함께 올라가.”

일주장군을 뒤로 한 채, 나머지 수호신들이 재빨리 의상대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 때 마침, 떠돌이신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블랙쇼크를 꺼낸다.

“이놈들 어디 가느냐! 이리 오지 못해!”

일주장군은 그런 떠돌이 신을 막고선 공격을 시도한다. 태양은 일주장군의 그런 모습에서 슬픔을 느낀다. 자신이 힘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공주봉에 다다랐을 때 동동이 말한다.

“우리 지금 힘이 너무 부족해. 어떡하면 좋을까? 일주장군도 저렇게 있다간 당할 수 있어. 아까 내가 쓰러지기 전에 검색한 바에 의하면 떠돌이신은 원래 귀족이었는데 귀족을 시기하는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떠돌이신의 아버지가 죽었나봐. 그리고 나서 혼자 남게 된 떠돌이신은 자신의 산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린 채 아무것도 안 했나봐. 혹시 떠돌이신의 약점은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전략을 다 짜기 전에 내가 쓰러져서 확실하진 않아.”

가만히 듣던 순덕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그그...럼 우리리..의... 히히..임을 한 사..사람에게 모오..아아..주는 것은 어..때? 태태...양아. 너...너 백운대가... 구...구..슬로 변했다..다고 했지? 그으.. 구..구..슬 어디 있지?”

태양은 주머니에서 백운대 구슬을 꺼내 순덕에게 보여준다. 순덕은 굳은 결심을 한 듯 눈을 감는다.

“서..서..언..너..야... 내내내...내...가 너 지..진..짜 좋아했던 것 알지? 내..내가..비비비...룩 뚜 뚜둥..퐁하고.. 하...할...줄 아...아는... 거..엇도 없어도.... 내...내마음..은 지지진심이었어.. 꼭 살아남아서... 소...소...소...요산..을 지..지켜...줘..”

선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순덕은 모든 기운을 모아 선녀에게 전하면서 구슬로 변해버린다. 이 때 갑자기 공주도 동동과 선녀에게 말한다.

“동동아. 내가 만날 예쁘냐고 물어보고 뽀뽀거리면서 괴롭혀도 잘 받아주고 선녀보다 나를 더 많이 바라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선녀야! 너... 그래! 나보다 예뻐. 그리고 멋있어. 그동안 너무 즐거웠어. 꼭 소요산을 지켜줘!”

공주는 동동에게 자신의 기운을 전해주고 구슬로 변해버린다. 갑작스런 동료들의 변화에 깜짝 놀란 동동과 선녀는 어안이 병병하지만, 곧 선녀는 입술을 꼭 깨물면서 말한다.

“우리, 이제 셋밖에 안 남았어. 아마 일주장군도 당했을 거야. 동동아. 관심? 사랑? 그거면 되는 거야? 그놈 약점은 뭘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 녀석을 막고있을테니, 태양아. 넌 동동이랑 같이 올라가서 함께 우리를 도와줘!”

선녀의 굳은 결심을 알았다는 듯이 동동은 컴퓨터를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태양은 그 때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 때, 떠돌이 신이 흐트러진 차림새로 그들 앞에 나타난다.

“이 놈들 여기 있었구나! 감히 내가 이곳까지 오게 하다니. 오호라~ 소요산을 구경시켜주려고 하는구나. 나의 부하들이여! 이리로 오너라!”

선녀는 동동과 태양에게 의상대로 올라가라고 하며 떠돌이 신을 쳐다본다.

“이 놈아. 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선녀다! 너는 산신이기 때문에 내가 예우를 차려야하지만, 잘못된 일이 많기에 우리 소요산 수호신들은 널 용서할 수가 없다! 나의 공격을 받아라!”

선녀는 부채에 모든 기를 모아 물바람을 쏘고 떠돌이신은 상처를 입는다. 선녀는 동동과 태양에게 의상대로 올라가라고 손짓을 한다.

동동과 태양은 빠른 발걸음으로 의상대에 오른다. 울먹이며 뛰어가는 동동의 옆에서 태양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의상대에 올라가면 분명 어떤 일이든 벌어질 것이고 친구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의상대에 도착한 동동과 태양은 두리번거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패닉상태에 빠진다.

“동동아. 분명히 일주장군님이 여기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왜 아무 것도 없지? 어떻게 해야 해?”

동동은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한다.

‘왜 의상대에 올라오라고 했을까. 의상대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의상대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지만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저 조용하고 달빛만이 푸를 뿐이다. 얼마가 지났을까? 떠돌이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놈들아 어디 있느냐? 여기 네놈들 친구가 있다.”

친구들이라는 소리에 동동이 튀어나간다. 하지만 동동의 발밑에는 차갑게 변해버린 구슬들이 굴러와 멈췄고, 동동은 무릎을 꿇고 만다.

“일주장군! 선녀야!”

떠돌이신은 블랙쇼크를 들어 올려 또다시 악의 구름에서 번개를 만들어낸다. 동동은 운명을 체감한 듯 눈을 감는다.

“태양아. 잘 있어.”

그렇게 동동마저 구슬로 변해버리자 떠돌이신은 웃기 시작한다.

“동동아~!!!!!!”

“으하하하하하하!!!!!!”

태양은 수풀에서 튀어나와 구슬이 되어버린 동동과 일주장군 그리고 선녀를 주워든다. 그는 6개의 구슬을 품에 꼭 안고 울기 시작한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수호신님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떠돌이신은 그런 태양을 쳐다보고는 미소를 짓는다.

“감히 내 앞에서 슬픔을 보이느냐! 천박한 인간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느냐! 친구가 있는 놈이 친구도 지키지도 못하고! 너도 자격이 없다!”

그 순간 태양의 가슴에서 빛이 나더니 구슬로 모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구슬도 푸른빛이 나면서 점점 희미한 실루엣이 나타난다.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태양과 떠돌이 신은 깜짝 놀라면서 그 물체를 바라본다.

그 실루엣은 바로 소요산 신이었다.

“아니! 소요산신? 아니? 당신은 영면에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깨어난 거야!”

소요산신은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소요산에는 환한 빛과 따뜻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한다. 소요산신이 떠돌이 신을 향해 손짓을 하니 떠돌이신의 블랙쇼크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내 블랙쇼크! 예잇! 받아라! 나의 다크 소울을!”

하지만 자신의 무기를 잃어버린 떠돌이 신의 공격은 무용지물이다. 떠돌이신은 소요산신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뒷걸음질을 친다. 너무나 강력한 소요산신의 힘 앞에선 떠돌이신의 욕심과 악의 힘도 달갈로 바위치기였다.

“넌 왜 이렇게 강한 거냐? 왜 재수가 없는 거냐! 그렇게 비웃는 식으로 웃지 말란 말이다. 항상 너희끼리 몰려다니면서 비웃고 재밌게 놀고 지내니까 세상이 너희들 것 같으냐?”

떠돌이신이 횡설수설하자 소요산신은 미소를 띠며 말을 한다.

“많이 외로웠겠구나. 항상 그늘 밑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느끼겠지. 하지만 많이 떠돌아다녔으니 너도 이제 쉬어야하지 않겠니?”

소요산신의 따뜻한 말에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 떠돌이신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애써 이해하려고 하지만! 가식적인 것들이! 신들은 모두 가식적이었어. 앞에서만 살랑살랑 꼬리치고, 귀족이라고 떠받들더니, 아버지가 죽으니 감히 날 배신해?”

이런 말에 소요산 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를 쳐다본다.

“흑흑, 맞아. 항상 신들은 나를 미워했어. 우리 아버지를 싫어했어.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산을 보호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말이야! 그래서 산신들이 밉고 산이 미웠어. 그리고 관심이 필요했어! 난! 난! 자랑스러운 산신이 되고 싶었던 말이야! 하지만 난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했어! 난 외로웠다고!”

태양은 떠돌이신과 소요산신을 쳐다보며 수호신들을 모두 죽인 떠돌이신이 너무 밉다고 소리친다. 그러나 소요산신은 자신의 몸 안에는 수호신들이 살아있으며, 산신들과의 협정을 지켜야하는 자신은 다시 영면에 들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수호신을 환생시킬 것이라고 말해준다.

“내 안에 수호신들은 살아있단다. 아직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합쳐 하나로 뭉치는 것을 몰랐지. 하지만 태양이 너를 만나고서는 이 아이들도 많은 것을 알았단다. 정말 고맙구나. 태양아.”

그 말에 태양의 얼굴엔 웃음이 돌아온다. 그리고 떠돌이신도 마찬가지로였다. 눈물을 흘리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다.

“정말 수호신들이 살아나? 내가 잘못된 건데... 그렇게 수호신들을 괴롭혔는데? 다른 산신들을 괴롭혔는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나 이제 착하게 살고 싶어.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나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소요산 신은 떠돌이 신에게 자신이 영면에 들면 의상대를 지켜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눈물을 흘리던 떠돌이신은 기뻐하며 말한다.

“정말 그래도 되? 귀족 출신인 내가 당신을 지킨다면 영광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요산을 지킬 수 있다는 명예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해! 그리고 태양이라고 했나? 너의 친구들을 괴롭혀서 미안해. 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나를 이해해줄 수 있겠니?”

떠돌이신의 화해에 소요산신은 미소를 띠며 의상대의 수호신이 된 떠돌이 신에게 관용의 의미로 한울(한울타리)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 구슬로 남아있던 수호신들을 다시 환생시킨 후, 다시 영면에 들었다. 떠돌이신은 예전의 귀티 나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엇! 내가, 내가, 내 원래 모습이 돌아왔어!”

환생한 수호신들은 태양에게 달려간다. 그들은 소요산신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태양아! 걱정이 많았지? 우리도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어!”

태양은 눈물을 흘리며 수호신들에게 안긴다. 태양과 수호신들은 한울이 된 떠돌이신을 바라본다. 멧쩍게 웃는 한울 그리고 태양과 수호신들. 밝게 웃는 그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춘다.

2012년 소요산의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소요산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소요산 속에서 여섯 아나 일곱 수호신들은 시끌벅적 한 순간도 조용할 틈이 없다.

우당탕탕 소년패밀리!

소요산 수호신, 그리고 떠돌이신의 음모

〈소요산스토리텔링 공모전〉 출품 기획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이준용 | 박유리 | 정유리



Do Dream
두드림

Index

기획배경 및 의도

작품 모티브 소개

작품 설명

작품 강점 및 기대효과

추후 전개방안



소요산의 현재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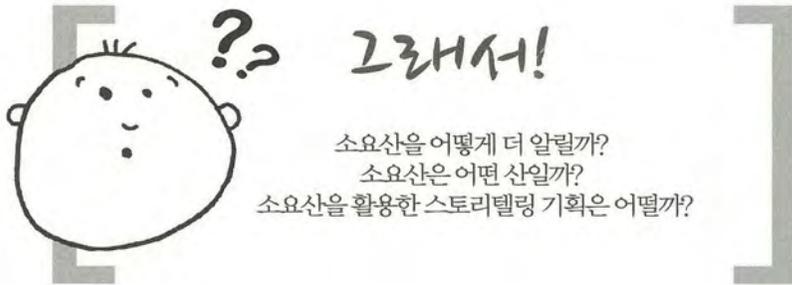
산세가 그다지 장쾌하고 웅대하지 않지만
기암괴석과 계곡이 어우러져 오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곳.

산 일간 검색 순위
20위권 내

가을단풍제로 유명
경기의 소금강(금강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사랑이 깃든 장소

아름다운 경관과 명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소요산을 어떻게 더 알릴까?
소요산은 어떤 산일까?
소요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획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요산의 강점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성의 인식



스토리텔링 기획을 통해 향유자에게 소요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동두천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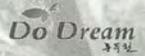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임무는?

무엇을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
소요산의 경관 및 명소, 그리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	소요산의 identity를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획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개발

단순히 공모전에서 그치지 않고 오래 지속 가능한 홍보 수단을 마련



1) 무엇을 알릴 것인가? 소요산 주요 7곳 선정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스토리의 모티브

수호신[守護神]

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

오래 전부터 민간신앙에서는 자연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치기 위한 제의를 지냈는데, 마을마다 동제·동구제·산제·산신제·서낭굿·당굿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고구려 수호 사방신(현무, 백호, 청룡, 주작), 마을을 지키는 장승, 서낭신, 집을 지키는 가택신 등이 있다.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스토리의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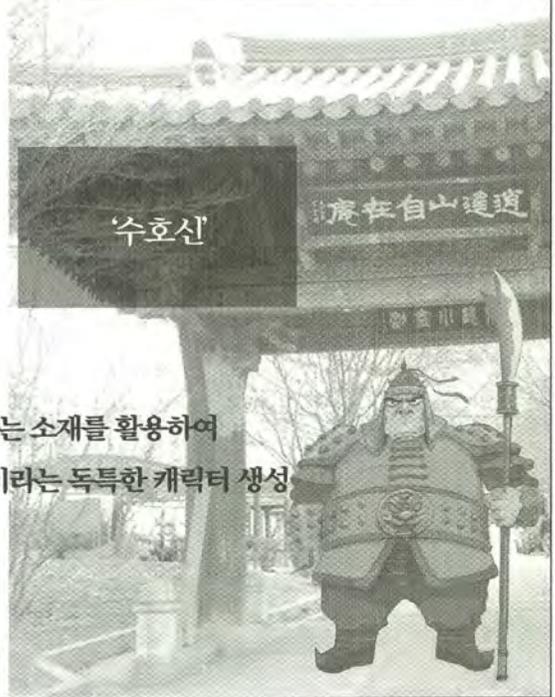
소요산
각각 명소 별 특성



'수호신'

소요산의 경치와 수호신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소요산의 경치를 지키는 수호신' 이라는 독특한 캐릭터 생성

일주문을 지키는 수호신 일주장군(예시)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시놉시스

몇 천 년 전부터, 산신들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운 소요산의 경치를 흠쳐가기 위한 크고 작은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어떤 신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강한 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소요산신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신들로부터 소요산을 힘겹게 지켜냈다.
소요산들 사이에 둔 싸움으로 산신 세계가 어지러워지자,
산신들은 자신들의 힘을 합쳐 소요산신을 강제로 영면시키기로 한다.

소요산신은 강제 영면에 처해지기 직전, 자신의 힘을 조각 내어
소요산을 지켜낼 여섯 명의 수호신을 만들고 산의 정상인 의상대에 잠든다.
수호신들의 활약으로 더 이상 산신세계는 소요산을 탐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소요산신을 깨워선 안 된다는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2011년 가을,
여전히 아름다운 소요산에는
오랜 평화로 자신들의 임무를 잊고 즐겁게 살고 있는 여섯 수호신들의 세상에
누군가로 인한 작은 변화가 생긴다.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시놉시스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갈등 구조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동동

체구가 작고 동글동글한 동지승. 수호신 중막내.

다른 수호신에 비해 몸집과 키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
지적 호기심이 강하며, 적과의 다툼이 있을 때 겁이 많아 숨어 있지만,
적의 약점을 찾아내어 전략을 짜는 전략가.

무기: 직접 만든 새총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백운상, 중, 하



허우대만 멀쩡하지, 하는 짓은 고집불통에, 장난꾸러기인 세 쌍둥이.

항상 수다를 떠느라 소요산은 조용할 틈이 없다.
시끄럽게 하여 적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조금은 알뜰고 허풍을 떨기도 하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캐릭터.

무기: 암석.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순덕

예쁜 여자앞에선 귀여운 변태.똥똥? 통통남.

평상시에는 수호신 일도 잘하고, 푹푹하지만,
선녀탕 수호신만 나타나면 능글맞은 변태로 돌변해버린다.
그의 능글맞은 웃음 소리가 특유의 매력이라면 매력.
자신의 미소녀 인형을 무시하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생각한다.

무기: 물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일주장군

말이 없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상대에게 용감무쌍한 수호신

언제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매우 게으르다.
강인한 외모와는 달리
정도 많고, 불의를 보면 못 참기도 하지만,
게으르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캐릭터.

무기: 그의 키보다 큰 창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선녀

긴 머리에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섹시녀 수호신

매혹적인 미모와 함께 늘씬한 몸매, 섹시함까지 겸비했다.
도도한 모습이지만 털털하고 당당한 점이 매력포인트,
항상 몸매관리를 하려고 먹는 것을 참는다.
잘생긴 남자를 무척이나 밝히지만 못생긴 남자들은 경멸한다.

무기: 부채에 일어나는 물벼람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공주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공주봉 수호신

한복도 늘 사랑살랑 분홍색을 고집하는 분홍 공주.
꽃으로 악세사리를 만들며 시시때때로 거울을 본다.
선녀탕 수호신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만, 가장 친한 친구 사이다.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할거라 착각하는 도끼병 환자.
알뜰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다.

무기: 거울로 모은 빛으로 공격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태양

수호신에게 선택받은(?) 개구쟁이 아이.

엄마가 매일 밤 가족의 건강과 무운을 비는 자재암에 따라왔다가,
우연하게 수호신과 만나는 캐릭터.
자재암 수호신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수호신의 이야기들을 듣고,
수호신과 떠돌이 신의 결투에 끼게 된다.

이주 활발하고 활동적이어서,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서는 성격이
지만, 의리가 있어, 한번 약속한 일은 절대 잊지 않고 지킨다.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캐릭터 소개

떠돌이신

평생을 돌아다니는 신

산신이 되어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다.
고집이 세고, 장난이 심하다. 향신 투덜거리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악의 상징이지만 뭔가 어설픈 것이 많다.
피부는 까맣고, 얼굴은 그늘이 져있고, 우울해 보인다.
커다란 새를 타고 다니는데, 그 새마저도 뭔가 모자라 보인다.

후에 소요산신에 의해 한올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작품 강점 (1)

신과 인간의 이야기

1

매력적인 세계관

평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판타지의 세계는
매력적인 소재로
여러 장르에서 사용됨

2

전설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 전설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웃집 토도로 (1988, 미야자키 히야오)
한 마을의 신들이 두 아이를 돕는
신비로운 이야기
작품의 완성도 뿐 아니라
캐릭터를 이용한 상업적 이익도 높음



올림포스가디언 (2008, sbs 제작)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과 인간의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 뿐 아니라
책으로 제작되어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작품 강점 (2)

소요산 관광객 연령층 확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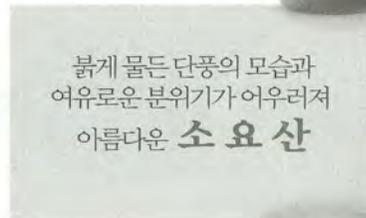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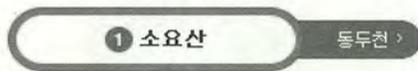
소요산 명소 각각에 귀엽고 친근한 의미를 부여하여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함.

다양한 연령대가 소요산을 찾을 것이라 예상되며, 가족 단위 관광객 증가 기대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작품 강점 (3)

소요산의 인지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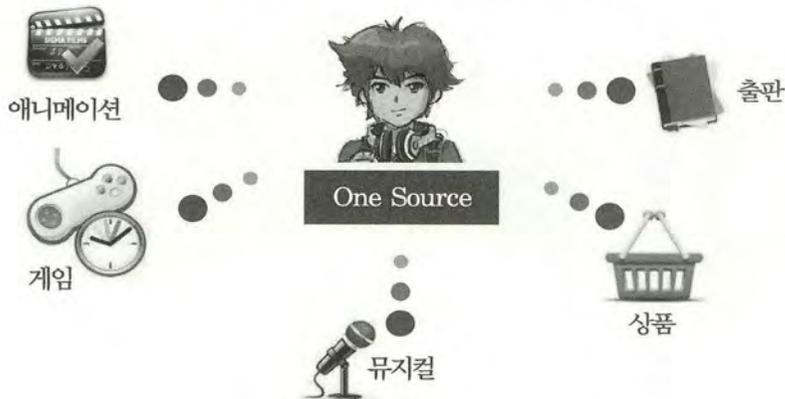
명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못한
소요산의 아름다움과 명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

소요산만이 가진 브랜드이미지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도시 브랜드 또한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2)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작품 강점 (4)

OSMU 및 다양한 상품 머천다이징 가능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여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3)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획



- 극장판 애니메이션
- 애니 시리즈
- 어린이 드라마
- 어린이 뮤지컬
- 관광가이드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여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3)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 극장판 애니메이션 기획

애니메이션 개요



타이틀: 우당탕탕 수호패밀리(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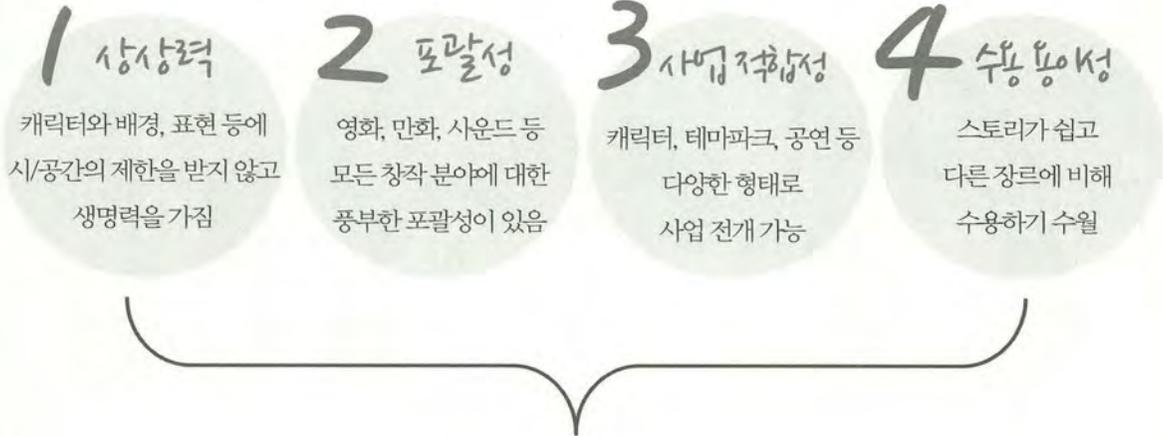
장르: 액션/판타지
 규격: 극장용 애니메이션 (90분)
 구분: 2D
 극본: 이준용, 박유리, 정유리
 작품 내용: 소요산을 빼앗으려는 떠돌이신으로부터
 소요산을 지키는 여섯 수호신들의 이야기.
 작품주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가능

(어린이 뮤지컬, TV애니메이션, 출판 도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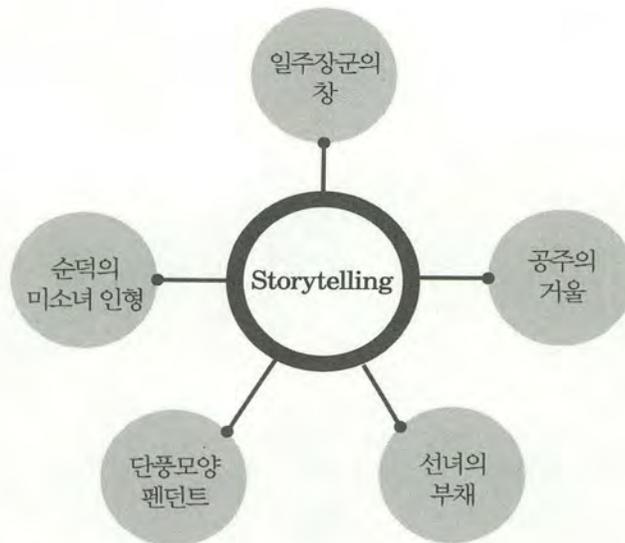
3)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획



애니메이션의 3가지 성격으로
소요산의 스토리의 향유 요소들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3)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 머천다이징 상품 기획



3) 지속적으로 알릴 방법? 캐릭터 관련 상품 기획 및 개발

머천다이징 상품 예시



스토리의 등장인물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

(ex. 캐릭터 테마로드, 인형, 스티커, 퍼즐, 팝업북, 학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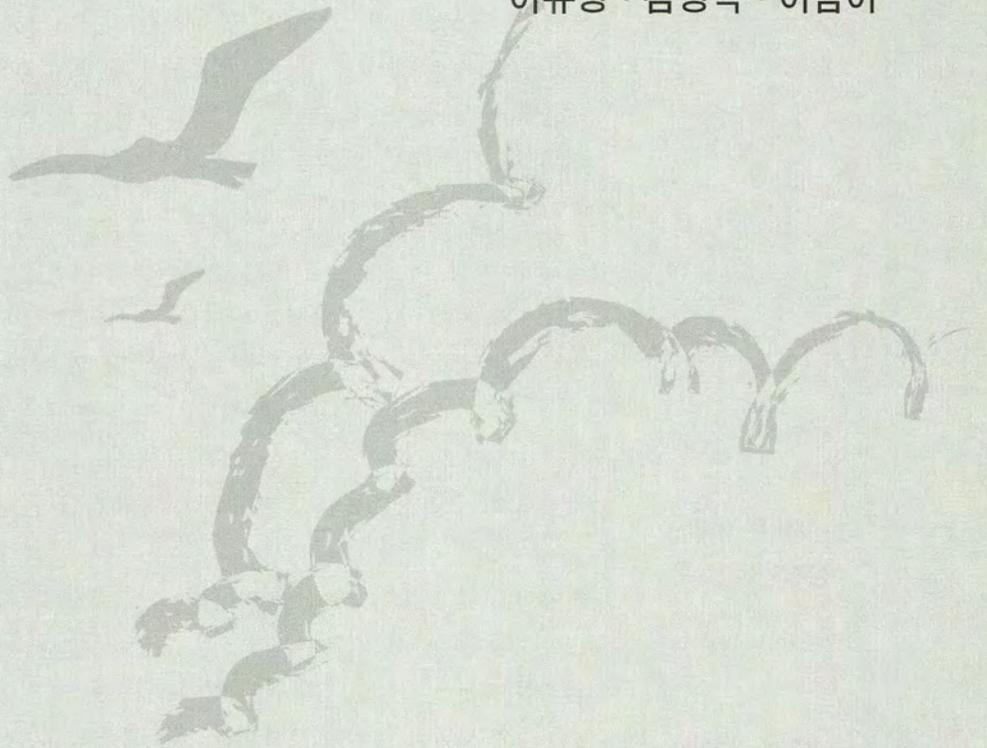
THANK YOU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잃어버린 가을을 찾아서

팀명 : 재밌냐?

이유성 · 김성옥 · 이봄이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일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스토리 구조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요산을 테마로 하여 단순한 모험뿐 아니라 이속에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 소요산의 아름다운 명소와 상징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넣어 차별성을 두었다. 옛날 전통설화와 현대 배경이 어색하지 않게 함께 사용되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소요산과 동두천시 고유의 상징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어느 지역, 배경에서도 나올 수 없는 소요산 고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소재가 된 소요산 대표캐릭터(소람이와 다람이, 아롱이와 다롱이, 파랑새)들은 상품 캐릭터화에도 접목하여 소요산 관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p>
<p>스토리 구성 (Plot)</p>	<p>엄마, 아빠와 함께 소요산 등산을 가게 된 소요. 우연히 금송굴에서 황금소나무를 발견하고 엄마아빠와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만진다. 이 때문에 노한 가을신은 사라져버려 가을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람쥐가 되어버린다. 다람쥐가 되어버린 엄마, 아빠를 구하고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기 위해 소요는 파랑소녀(파랑새)를 만나 함께 모험한다. 그 과정 중 다람쥐(소람이와 다람이), 원효와 요석, 단풍요정(아롱이와 다롱이)의 사랑을 이루어주는 큐피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소요는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고 사람들을 구한다. 다른 이의 사랑을 이루어주기만 하던 소요와 파랑소녀도 서로 사랑을 깨닫고 이별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소요 : 열 살 난 소년으로 자기 때문에 변해버린 소요산을 바로잡기 위해 파랑새와 함께 가을을 되찾으러 다닌다. 여리고 착한 심성.</p> <p>파랑새/파랑소녀 : 사계의 신을 도와 소요산의 평화를 지키는 요정. 소요를 도와 함께 가을을 되찾는 조력자다. 처음엔 냉정해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소녀.</p> <p>단풍요정(아롱이, 다롱이) : 파랑새와 같은 소요산의 평화를 지키는 천년단풍에 깃든 요정이다.</p> <p>소람이와 다람이 : 소요산에 사는 다람쥐. 소요의 도움으로 사랑의 도토리를 찾아 들은 이어지고 보답으로 연리지나무가지를 이어준다.</p> <p>원효와 요석 : 천년을 기다려온 연인. 소요의 도움으로 속리교를 건너 만나 천년의 사랑을 이루고 보답으로 천년 단풍을 준다.</p> <p>가을신 : 황금소나무를 멋대로 건든 사람들에게 노하여 숨어버리지만 소요와 파랑새의 간절한 부탁으로 다시 산을 관장하게 된다.</p>

시놉시스

소요, 소요산을 만나다.

올해로 열 살 난 소년인 소요는 놀이공원에 가고픈 마을을 뒤로 한 채 엄마, 아빠와 함께 소요산으로 간다. 소요산을 처음 보게 된 소요는 소요산의 붉은 단풍에 빠져들어 소요산을 점점 좋아하게 된다.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파랑새 한 마리를 보고 신기해한다. 원효폭포, 금송굴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요는 소요산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금송굴에서 온 가족이 잠시 쉬던 중, 소요는 금송굴 갈라진 벽 틈새로 새어나오는 황금빛을 발견한다. 그 금빛은 황금소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온 소나무가 황금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이었다. 소요는 놀라 주위 사람들에게 황금소나무가 있음을 알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 황금소나무를 한 번씩 만진다. 이 때문에 황금소나무를 만진 사람들은 모두 다람쥐로 변해버린다. 그리고 소요산의 가을을 관장하던 가을 신이 노하여 가을 신의 계절의 뒤편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을 신이 노하다.

가을이 사라진 소요산에는 붉은 빛이 온데간데없고 오직 늦여름의 푸른 나무들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가을이 사라진 소요산은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때 소요의 앞에 파랑새가 나타나 소요를 도운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로 제 때 추수를 하지 못한 산 밑 마을 사람들은 한 겨울을 날 곡식이 없어 찢찢맨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소요, 파랑새는 파랑빛의 소녀로 모습을 탈바꿈하여 소요의 옆에서 소요가 가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요, 다람쥐와 원효, 요석의 사랑을 이루어준다.

그러던 중, 이들 앞으로 소람이라는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난다. 소람이는 늦여름 태풍에 휩쓸려 자신의 사랑을 이루어줄 사랑의 도토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죄책감을 느낀 소요는 소람이의 도토리를 찾아 소람이가 좋아하는 다람쥐에게 전해주기로 한다.

공주봉을 지나다 소요와 소녀는 한 스님을 만난다. 그 스님은 아무 말없이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고만 있는 눈치였다. 소요는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얼른 일을 해결하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다.

도토리를 찾으러 속리교까지 내려왔다가 다리 맞은편에서 둘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난다. 그 여인은 가

들이 사라져 속리교가 어긋나는 바람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있던 차였다. 둘은 여인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방금 전 본 그 스님이라는 것을 눈치챈다. 소요는 자신 때문이라는 말을 차마 여인에게 하지 못한다. 소요는 미안한 마음에 도토리를 찾는 데에 전념했고 결국 속리교 아래 개울물에 있는 도토리를 발견한다. 소요는 가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다. 소요는 여인에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소요산이 변했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곧 구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소요와 소녀는 그 도토리를 연리지 나무에서 살고 있는 다람이에게 전해준다. 다람이는 그 사랑의 도토리를 받고 소람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소요와 소녀는 소람이와 다람이의 사랑을 축복해준다. 다람이네 식구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들의 집인 연리지 나무 두 그루를 다시 이어준다.

소요와 소녀는 다시 속리교로 향한다. 속리교는 다시 이어진 상태였고 그 여인은 속리교를 건너 공주봉으로 간 뒤였다. 소요와 소녀는 기쁜 마음에 두 사람의 행복을 확인하고 싶어 스님이 있던 공주봉으로 향한다. 공주봉에는 소요와 소녀의 예상대로 스님과 여인이 함께 있었다. 스님과 여인은 자신들이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임을 말한다. 그리고 천 년을 기다려온 자신들의 사랑을 이루게 해 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원효대사는 소요에게 천년 단풍을 준다.

소요, 단풍 요정과 파랑새의 힘을 빌어 가을색을 되찾다.

이제 천년 단풍을 얻은 소요와 소녀. 소녀는 천년 단풍 속에 잠들어 있던 단풍 요정 아롱이를 자신의 힘으로 깨운다. 아롱이에게 다시 소요산의 나무를 붉게 물들여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나 아롱이는 다롱이와 함께 있을 때만 그 힘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소요와 소녀는 아롱이와 함께 온 산을 돌아다니며 다롱이를 찾는다. 이제 하늘은 제법 회색의 겨울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시라도 바빠 다롱이를 찾아야만 했다. 소요단맥 갈림길에 다롱이가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셋은 그 곳으로 얼른 향한다. 소녀는 겨울의 첫눈이 소요산의 땅에 닿기 전까지 빨리 온 세상을 붉게 물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점점 하늘은 어두워져 이내 눈을 머금은 구름들로 가득해진다. 아롱이뿐만 아니라 소요와 소녀도 애타게 다롱이를 부르짖으며 찾던 중, 소요는 하늘에서 첫눈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한다. 첫눈이 땅에 닿기 전 다롱이를 불러 소요산을 물들여야하는 그들은 어쩔 줄 몰라한다. 아슬아슬하게 첫눈이 막 땅에 닿기 전 땅 아래에 잠들어있던 다롱이가 깨어난다. 소요산의 세 요정 아롱이, 다롱이, 그리고 파랑새(파랑소녀)가 만나자 소요산의 시간은 멈춘다. 첫눈이 내려왔기 바로 직전 모든 것이 멈춘 소요산. 그 곳에서 아롱이와 다롱이는 서로 힘을 합쳐 온 산을 다시 붉게 물들이고 제 역할을 다 한 두 요정은 사라진다.

소요와 소녀는 원효폭포로 향한다. 원효폭포 뒤에는 사계절의 신들이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다. 가을신 또한 자취를 감추어 그곳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둘은 그 곳에서 가을신을 애타게 찾아헤맨다. 가을은 사계절 중 세 번째 계절, 시간이 멈춘 원효폭포의 문을 소요는 우연히 세 번 쓰다듬게 된다. 폭포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을 신은 모습을 드러낸다. 소요와 소녀는 다시 소요산으로 나와 소요산을 관장해줄 것을 부탁하지만 가을 신은 거절한다. 소요와 소녀는 진심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가을 신을 설득한다. 소요의 진심이 담긴 눈물과 붉게 물든 소요산에 얼었던 마음이 눈 녹듯 내린 가을 신은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와 소요산을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가을을 찾아준 고마움의 표시로 가을 신은 소요산

역으로 내려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라는 말을 해 준다. 소요는 순간 가을 신이 다람쥐로 변해버린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챈다.

소요, 소녀와의 사랑을 깨닫다.

소요와 소녀는 함께 내려온다. 소요는 산 밖으로 나간다. 그러나 소녀는 나가지 못한다. 소녀는 소요산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소녀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둘은 슬프게 이별한다. 소요는 소요산 역으로 향한다. 그 곳에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 아빠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소요는 엄마, 아빠를 향해 힘차게 달려간다.

잃어버린 가을을 찾아서

“노는 날 무슨 산이야, 산은……”

소요는 아랫입술을 툇 내밀며 짜증을 부렸다.

“원래 이런 날, 다른 애들은 놀이공원 같은 데 간단 말이야!”

소요는 신발장 앞에 앉아 등산화를 신는 아빠를 졸라댔다. 그러나 아빠는 미소만 지어보일 뿐이었다. 뒤에서 엄마가 소요를 나무랐다.

“오늘 같은 날 놀이공원 가면 노는 시간보다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을걸? 그리고 또 가서 먹는 음식은 어떻게? 죄다 기름기 많은 음식들만 먹어댈 거 아니야?”

“도토리묵보다는 나아! 물경물경한 묵 씹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소요는 울상이 되어 아빠를 쳐다보았다. 무조건 혼을 내는 엄마보다는 소요의 말을 더 잘 들어주기 때문이었다.

“저번에 우리 소요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아빠가 같이 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산에 같이 가주지 않을래?”

그 말에 소요는 조금 수궁이 갔지만 그래도 놀이공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순 없었다.

“그만하고 얼른 신발 신어.”

어느새 엄마는 아빠 옆에서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소요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얼른 나오라는 말을 남긴 채 엄마는 현관문을 나섰다. 아빠가 소요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요는 잠깐 아빠의 손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밋지만 아빠는 안 미우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소요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갔다.

소요는 올해로 열 살 된 소년이다. 어엿하게도 나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붙어있다. 열 살 생일을 맞이하던 날, 소요는 스스로를 제법 어른스러워졌다고 여겼다. 그러나 열 살이 되었다고 해서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아홉 살 때와 마찬가지로이다. 소요는 오늘 놀이공원에 가서 범퍼카를 타며 신나게 놀 거라는 봄이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쯤 토끼 머리띠를 한 채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봄이가 부러웠다. 소요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소요는 홀로 뒷좌석에 누웠다. 입 안에 바람을 한가득 집어넣었다. 뽕뽕해진 두 볼을 양쪽 검지로 꺾 눌러 바람을 뱉어냈다. 엄마 아빠와 말도 없이 계속 그러기를 십여 분쯤, 창문 밖의 파란 하늘이 소요의 눈에 들어왔다. 거꾸로 매달린 단풍나무들도 보였다. 누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던 소요는 단풍의 진한 붉은색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스프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온 산이 다 붉은색이라니…….’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산이 소요의 눈에는 신비롭게 느껴졌다. 소요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놀이공원에 대한 아쉬움이 사라졌다. 초록의 푸르름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소요산에 핀 단풍잎들은 심술 난 어린 소요의 마음에 따스함을 안겨주었다.

“거의 다 왔어. 여기가 소요산이야. 단풍 예쁘지?”

소요는 붉은 단풍에게 자신의 모든 색을 다 빼앗긴 듯 넋 놓고 차창에 기대어 밖을 바라보았다.

소요의 가족은 모두 차에서 내려 소요산 일주문 앞에까지 다다랐다.

“여기서부터 이제 등산 시작인 거야. 우리 소요 잘 갈 수 있지?”

소요는 소요산의 단풍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간다!”

아빠와 엄마가 일주문을 지나 소요산 안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소요도 한참을 단풍에 빠져 있다가 얼른 오라는 아빠의 재촉에 뒤따랐다. 일주문 사이로 들어서자마자 소요의 눈앞에는 주황과 초록이 섞여 물든 소요산 전체가 보였다. 붉은 단풍잎들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시선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높았다. 하늘을 수놓고 있는 하얀 구름들은 초원에 마음껏 풀을 뜯으며 놀고 있는 양떼들 같았다. 붉고 푸르른 색으로 물들어 있는 소요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난 새들이 여기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소요는 절로 마음이 차분해졌다. 소요는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가지 않길 잘 했다고 생각했다.

산을 오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송골송골 맺히는 이마의 땀을 소요산의 단풍 바람이 식혀 주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소요는 신이 나서 엄마 아빠보다 먼저 소요산 이곳저곳을 올랐다.

소요는 나무에 매달린 단풍잎을 하나 떼어보려 손을 뻗었다. 손이 닿지 않았다. 엄마와 아빠는 아직 아래에 있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손을 쭉 펴 보았다. 제일 긴 중간 손가락에 닿을락 말락 하였다. 소요는 잠시 숨을 가라앉힌 뒤, 다시 손을 뻗어보았다. 붉은 나무에서 파란 빛이 언뜻 보였다. 파랑새였다. 열은 파란 하늘보다 조금은 짙은 파랑새였다. 소요는 눈을 손으로 비벼 다시 바라보았다. 파랑새는 거짓말처럼 소요에게 말을 걸 듯 짹짹거리고 있었다. 파랑새가 날아갔다. ‘어?’ 하며 소요는 파랑새를 따라가려 했지만 파랑새는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다. 엄마, 아빠가 소요의 뒤에 다가왔다.

“엄마, 아빠, 파랑새가 있어! 엄청 작고 귀여워.”

“파랑새?”

“방금 전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날아가더니 사라졌어.”

소요는 파랑새가 있던 나무와 파랑새가 자취를 감추고 날아갔을 법한 곳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엄마, 아빠에게 말했다. 하늘을 가리키며 또 말을 이었다.

“파란 하늘보다 더 파란 색이었어.”

“그런 새가 여기에 있을라구…… 그런 새는 동물원이나 수목원에 가야 있지. 우리 소요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닌데…… 분명히 파랑새였는데…….”

아빠가 미소 지으며 소요를 타일렀다.

“얼른 올라가서 엄마가 싸 준 김밥먹자.”

아빠와 엄마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소요는 잘못 보았나 싶어 어리둥절해하며 뒤를 따랐다.

소요네 가족은 원효폭포를 지나갔다. 원효폭포는 쉬지 않고 물줄기를 가지런히 쏟아냈다. 물줄기가 다룬 거대한 폭포들처럼 강하지는 않았다. 연하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줄기는 나름 강단 있어 보였다.

“물이 참 고집스럽게 흘러내리는 것 같구나.”

“물이 고집스러워요?”

원효폭포를 보고 있던 아빠의 말에 소요는 호기심을 일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시간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물이 흐르지 않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몸도 흘러가게 놔두는 모습이 적당히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니?”

소요는 아빠의 말대로 원효폭포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시간이 흐르는 걸 눈으로 증명해주는 것은 저 떨어지는 원효폭포밖에 없구나, 라고 소요는 생각했다.

계속 등반하러다 소요네 가족은 금송굴 터에 자리를 잡고 잠깐 쉬기로 했다. 그 곳에는 등산을 하러 온 다른 가족들도 몇 명 있었다.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은 더운 여름 날씨처럼 느끼게 해 주었다. 소요네 가족은 금송굴 그늘 안에 앉았다. 계곡 사이로 피어난 가을의 꽃들은 각각 저마다 달콤한 향기를 만들어 냈다. 그 달콤한 향이 선선한 바람을 타고 금송굴 안에까지 퍼졌다. 금송굴 안에서 쉬던 사람들은 모두 평화롭게 휴식을 취했다.

소요는 금송굴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굴 안의 벽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혼자 데굴데굴 굴러다니기도 하면서 금송굴 안에서 놀았다. 땀굴 거리다 금송굴 안쪽 벽에까지 굴러갔다. 벽에서 금색 빛이 자그마하게 나오는 것이 보였다. 벽의 갈라진 틈 안으로 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요는 그 갈라진 틈으로 눈을 붙였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에는 놀랍게도 금색의 소나무가 한 그루 빛나고 있었다. 나무 기둥부터 나뭇잎까지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소나무에 소요는 빨려 들어갈 듯 쳐다보았다.

“엄마, 아빠! 여기 금소나무가 있어!”

금송굴 안 사람들은 일제히 소요의 외침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엄마, 아빠도 돌아보았다. 엄마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소요에게 꾸지람을 했다. 그 때 금송굴 안 사람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정말 있는데!”

소요의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갈라진 틈 사이로 금소나무를 보고 놀랐다. 빨간색 등산 모자를 쓴 아저씨가 벽의 갈라진 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황금소나무를 만졌다. 아저씨의 손에는 금가루가 묻어있었다. 아저씨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정말 금이야!”

사람들이 그 소리에 웅성거렸다. 그러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한 번 만져보자, 하며 그 곳으로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한 명씩 손을 넣어 금가루를 확인했다. 소요의 엄마, 아빠도 그곳으로 달려가 금가루를 손에 문혔다. 그러자 굴 안에서는 벽에서 무언가가 짹짹 갈라지고 떨어져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소요는 불안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금소나무에 정신이 빠져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금가루를 손에 문힌 사람들도 엄마, 아빠도 소요는 걱정이 됐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벽 갈라지는 소리에 큰 재앙이라도 닥칠 것만 같았다. 금송굴이 무너질 것처럼 큰 진동이 왔다. 사람들은 그제야 굴 안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소요는 금송굴 밖을 쳐다보았다. 금송굴 안뿐만 아니라 온 소요산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소요의 눈에서 흔들리고 있던 소요산이 잠시 후 잠잠해졌다. 소요는 다시 금송굴 안을 돌아보았다. 금송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소요는 놀라 금송굴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사람들도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

소요는 울먹이며 금송굴 밖으로 뛰어나가려는데 굴 바닥 아래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있는 다람쥐들이 보였다. 그 다람쥐들의 발바닥에는 모두 금가루가 묻어 있었다.

“설마……엄마야? 아빠야?”

다람쥐들은 대답 없이 짹짹 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소요는 눈물을 훔치며 다람쥐 여러 마리를 바라보았다. 그 때 다시 굴 안의 벽이 짹짹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요는 두려웠다. 다람쥐들도 무서운지 벌벌 떨었다. 무언가가 벽에서 붙어 있다 떨어져 나왔다. 벽 여기저기서 나온 그것들은 검은 형체를 하고 있었다. 검은 형체에서 두 개의 빨간 빛이 나타났다. 박쥐였다. 박쥐들은 금세 날개를 펴 굴 안을 활개 치며 날아다녔다. 박쥐가 뱉어내는 소리는 끔찍했다. 소요는 놀라 허둥대는데 다람쥐들이 각각 흩어져 도망갔다.

“아, 안 돼! 엄마! 아빠!”

소요는 다람쥐들을 잃어버린 채 박쥐들의 공격을 피해 굴 밖을 빠져나왔다. 밖을 나온 소요의 급한 발걸음이 멈춰졌다. 검은 박쥐들은 소요의 뒤에서 푸드덕거리며 기분 나쁘게 날아다녔다. 소요의 눈앞에는 초록만이 가득했다. 산 어디를 보아도 붉은색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가운 햇살이 소요의 얼굴을 내리쬐었다. 소요는 눈을 찡그렸다.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고 텅텅했다. 작열하는 태양빛은 소요에게 두려움이 되어 내려앉았다. 소요는 태양을 피하듯 뛰었다. 엄마 아빠를 찾아야 했다.

‘다람쥐가 되어버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찾지? 그 작고 날쌔 다람쥐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다람쥐가 된 엄마 아빠가 설마 나를 잊은 것은 아니겠지? 나를 알아보겠지? 잠깐, 엄마 아빠가 다람쥐가 될 리가 없잖아. 이건 모두 꿈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머리에 이고 소요는 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산은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었다. 초록의 나무들은 드문드문 시든 노란 잎을 달고 있었다. 나무에 열린 설익은 열매들의 초록은 시리게만 보였다. 소요는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만 느껴졌다. 소요는 무작정 뛰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소요의 오른쪽 무릎이 까지고 왼쪽 뺨에 생채기까지 났다. 소요의 눈에 눈물이 그렇 맺혔다.

‘이 모든 게 다 꿈일 거야. 근데 넘어졌는데, 왜 꿈에서 안 깨는 거지?……’

“일어나.”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왔다. 소요는 고개를 들었다. 소요의 앞에 파랑새가 있었다. 조금 전 본 그 파랑새가 분명했다.

“넌……”

“왜 멍청하게 울고 있어? 빨리 일어나.”

소요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어났다.

“따라와.”

파랑새는 앞장서서 날아갔다. 소요는 뒤따라갔다. 소요는 파랑새에 대한 물음이 한가득 차올랐지만 아픈 다리에 신경이 쓰여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 조그마한 파랑새는 나비의 사뿐함보다는 빠르고 참새의 푸드득거림보다는 느리게 날았다. 그러나 무릎에 상처가 난 소요가 따라잡기에는 조금 빨랐다. 소요는 훌쩍이며 겨우 한 마디 뱉었다.

“저기……조금만 천천히 가주면 안 돼?”

“시간이 없어. 겨울이 곧 오고 있단 말이야. 가을도 오지 않은 채 겨울이 오면 그땐 산도 죽고 모두 죽을 거야.”

소요는 파랑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온다니, 그게 가능한 일일까. 어찌면 파랑새의 말이 맞을 지도 몰랐다. 굴 밖에 나오면서 본 산은 가을의 붉은색이 사라지고 한여름의 녹음만 무성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닌가. 소요는 파랑새가 이끄는 대로 산 밑으로 점점 내려갔다. 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연초록의 기운만 감돌았다. 소요는 깜짝 놀랐다. 정말 파랑새의 말대로 가을철 무르익은 곡식이 아닌 아직 덜 영근 곡식들만 가득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마을 하나가 보였다.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요는 궁금하여 파랑새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가을이 사라졌으니까. 여름 뒤에 가을이 아니라 바로 겨울이 오니까. 가을철에 제 때 추수를 해서 먹을 양식을 비축해둬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저기 다람쥐들 보여?”

소요는 파랑새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기 다람쥐 한 마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저 다람쥐도 먹을 도토리가 없어 굶주리고 있잖아. 이게 다 가을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소요는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다 현실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소요는 자기 뺨을 찰싹 때렸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떴는데도 눈앞에 파랑새는 그대로였다. 정말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소요산의 황금소나무는 소요산에 있는 것들 중 가장 신성한 것이야. 소요산에는 각각 사계를 담당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신이 있어. 황금소나무의 금가루를 사람들이 훔쳤기 때문에 지금 소요산을 관장하고 있던 가을 신은 노하셨고 황금소나무를 지키지 못한 스스로를 책망하며 계절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어.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소요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현실인 것을 말이다. 소요는 울먹였다.

“미안해……다 나 때문이야. 내가 금소나무가 있다고 말하지만 않았어도……”

소요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저앉으면서 다친 무릎이 아파 소요는 짧게 소리를 내 질렀다. 바지를 걷고 살펴보니 붉은 피가 맺혀있었다. 소요가 붉은 피를 보며 눈물지었다. 상처도 파랑새의 말도 소요를 아프게만 했다. 무릎 위로 하얀 손이 다가왔다. 손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소요의 상처를 아물게 했다. 소요는 놀라 그 손의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파랑 머리의 파랑 눈을 한 소녀가 서 있었다.

“누, 누구세요?”

“파랑새 보면 모르겠어?”

그리고 보니 유독 파랑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소녀였다.

“설마……”

파랑 소녀는 소요의 뺨에 난 생채기에도 손을 갖다 대어 살을 아물게 했다. 소요는 그 빛을 받으면서 파란 빛이 따뜻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사계의 신을 도와 이 소요산의 평화를 지키는 요정이야. 얼른 가자. 겨울이 닥치기 전에 가을을 되찾아야 해.”

소요는 어안이 병병했지만 소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의 계절은 원래 가을. 금송굴 안에서 사람들이 금가루를 손에 가져가 금소나무의 힘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현재의 계절인 가을이 사라졌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겨울 동안 먹을 음식을 미리 비축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고마운 계절을 이 소요산은 잃고 말았다. 여름의 무성했던 녹음은 이내 땅으로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다. 단풍잎처럼 붉게 은행잎처럼 노랗게 물들 것도 없이 모든 잎이 떨어졌다. 소요는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파랑 소녀의 손에서 이미 시든 잎이 바스르려 찬 바람을 타고 흩어지고 있었다.

“생각보다 심각해.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어.”

소녀는 소요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여름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언제쯤 겨울이 들이닥칠지 알아 보러 마을로 내려갔던 것이 시간을 잡아먹은 꼴이 되었다. 둘은 부리나케 달려 산으로 향했다. 삼림욕장이 시작되는 길 앞에 다다랐다.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 소요산의 나무 계단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마치 정말로 여름 끝에 내리는 태풍이라도 다녀간 듯 나무 계단은 들쭉날쭉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소녀와 소요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나무 계단을 벗어나니 운동 시설이 갖추어진 작은 공간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 그 곳은 을씨년스런 기분마저 들게 했다. 그 옆에는 된비알이 둘을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결심이라도 했다는 듯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된비알을 씩씩하게 올라갔다. 폭우가 지나간 소요산의 땅은 이리저리 거센 비가 파헤쳐놓아 울퉁불퉁했다.

둘은 하백운대에 도착했다. 하백운대에서 소요는 험험거렸다. 하백운대의 나무 몇 그루가 여름 태풍에 휩쓸려 부러져 있었다. 소요는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 다시 또 나무들에게 상처를 준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소요를 보던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소요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러던 둘 사이로 조그마한 다람쥐 한 마리가 울상을 한 채 쪼르르 굴러왔다.

“저기, 혹시 제 도토리 못 보셨나요?”

다람쥐는 애타게 둘을 보고 있었다. 소요는 어리둥절한 채 물었다.

“도토리라면 산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지 않니?”

“아니에요……제가 다람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 얼굴과 다람쥐의 얼굴을 도토리에 그린 것이 있어요. 그 도토리가 필요해요.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와서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 도토리를 찾아야만 해요.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

다람쥐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소요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지만 더 이상 웅크리고 앉아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소요는 그 다람쥐의 사랑의 도토리를 찾아주기로 했다.

“감사해요. 제 이름은 소람이라고 해요. 그 도토리는 아마 속리교 쪽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다람쥐는 연리지 나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도토리를 찾아서 다람쥐에게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해요.”

소요는 꼭 그러겠다고 다짐했다.

“잘 했어. 계속 그렇게 웅크려 있는 것보다는 빨리 가을을 되찾기로 마음먹는 것이 한결 가벼울 거야.”

소녀의 말에 소요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뭘 해야 돼?”

“천년 단풍을 찾아 온 산을 다시 단풍으로 물들이고, 그 후엔 가을 신이 사라진 곳의 문을 두드려서 가을 신을 산으로 나오게 해야 해. 그러기 전에 우선 소람이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해. 다시 여름이 찾아오면서 생겨버린 일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하니까.”

소요와 소녀는 험한 돌 비탈이 이어지는 중백운대를 거쳐 공주봉으로 향했다. 공주봉에는 인자해 보이

는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그 곳에서 박으로 만들어진 물병으로 목을 축이고 있었다. 물병을 보자마자 소요는 목이 무척 말랐다. 스님은 눈치를 채고 소요에게 물병을 건네었다.

“덥지? 얼른 마시거라.”

한껏 목이 말랐던 소요는 스님에게 물병을 받아 마셨다. 물은 서서히 밀려오는 겨울바람의 기운 덕분에 차가웠다. 차가운 물이 소요의 목을 더 메이게 만들었다. 소요는 스님에게 물었다.

“여기서 뭐하세요?”

스님은 그저 미소만 지어보였다. 스님의 그 씩씩한 미소가 소요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다. 소요는 스님에게 근심거리를 물어보았다.

“기다리는 것이 참……힘이 들구나.”

스님은 이 말뿐이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소요는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라 직감했다. 소요와 소녀는 스님에게 힘을 내시라는 말을 끝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어느덧 둘은 속리교 앞에 다다랐다. 속리교의 다리는 놀랍게도 끊어져 있었다. 끊어져 점점 어긋나져만 가는 다리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여인이 다리 반대편에 외로이 서 있었다. 그 여인은 신비롭게도 옛날의 복식을 하고 있었다. 소요는 그 여인이 걱정되었다.

“괜찮으세요?”

여인은 대답도 없이 울었다.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여인은 울먹이며 억지로 말을 이었다.

“소요산의 가을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 속리교가 어긋나버렸단다. 이제 나는 다시는 그 분을 만나러 이 속리교를 건널 수가 없어.”

소요는 그제야 스님이 기다렸던 사람이 이 여인임을 눈치 챘다.

“천 년을 기다려 온 사람인데…….”

자신의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천 년을 기다린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소요를 슬프게 만들었다. 소요는 차마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소요는 쓰러지지 않도록 소녀의 팔을 잡았다. 소녀는 그런 소요가 안쓰러웠다.

“걱정 마세요. 곧 소요산은 가을을 찾을 거예요.”

소녀가 소요 대신 여인을 위로해주었다. 소녀는 여인이 울음을 그치도록 다독여주었다. 소요는 여인에게서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지만 소요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겨울이 자리 잡기 전에 한시 바빠 서둘러야 했다. 소요는 소녀에게 무언가 답을 구한다는 듯 애타게 바라보았다. 소녀는 무언가 생각에 골몰하고만 있었다. 소요는 영문을 몰라 소녀가 얼른 말하기를 재촉했다.

“이 분들은 천 년 전에 사랑을 다 이루지 못하고 소요산에 그 혼이라도 남아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신 거야.”

“그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저 분들은 천 년의 세월동안 혼만 남아 이 소요산에서 기다리신거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연리지나무의 전설을 기다리신 것 같아.”

“연리지 나무의 전설?”

“응. 연리지 나무는 사랑을 이루게 해 주는 전설적인 나무야. 그 나무는 천 년에 한 번씩 서로의 가지 맞닿아 안을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인 것 같아. 그런데 소요산이 뒤틀려 가을을 잃어버렸으니……”

소요는 소녀의 말에 풀이 죽어 울고만 싶었다. 그런 소요에게 소녀는 힘을 내라고 말해주었다. 우선 소람이의 도토리를 찾아주어 다람이와의 사랑을 이어주는 것이 우선이었다. 소녀는 여인에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토리를 보지 못 했냐고 물었다. 여인은 그 도토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소요와 소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골똥히 생각했다. 소요는 속리고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보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외쳤다.

“폭우에 도토리가 휩쓸렸다면…… 속리고 밑에 흐르는 개울물! 여름의 폭우로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저서 어찌면 돌들 사이에 그 도토리가 끼어있을 지도 몰라!”

소요와 소녀는 얼른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 개울물 아래로 내려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은 두 아이가 걱정되어 조심하라는 말을 연신 해주었다. 개울물은 조금 시려웠다. 스님이 준 물처럼 차가웠지만 소요는 이제 결코 두렵지만은 않았다. 꼭 이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소요는 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투명한 개울물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는 소요의 눈에 반짝하고 무언가가 담겨졌다.

“찾았다!”

소요가 기뻐 외쳤다. 소녀는 소요가 있는 곳으로 얼른 다리를 움직였다. 소요가 가리키는 곳에는 소람이의 얼굴이 새겨진 도토리가 개울 아래 돌들 사이에 걸려 있었다. 소요는 그 도토리를 주웠다. 소람이의 얼굴이 그려진 뒷면에는 다람이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다. 소요의 얼굴에 함지박한 미소가 피어났다.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는 첫 번째 일을 해낸 것이다. 소요와 소녀는 얼른 개울물을 나왔다. 도토리를 찾은 것을 여인도 함께 기뻐해주었다. 소요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여인에게 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소요는 잠깐 여인을 돌아보았다.

“죄송해요!”

소요는 여인에게 외쳤다. 여인은 의아하다는 듯 소요를 쳐다보았다.

“속리고 이렇게 된 거, 다 저 때문이에요……그렇지만 얼른 다시 연리지 나무를 이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스님을 만나게 해 드릴게요!”

소요와 소녀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고 그들에게 여인은 손을 흔들어주었다.

둘은 험한 산비탈을 지나 연리지 나무로 향했다. 연리지 나무로 가는 길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지만 소요와 소녀는 가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연리지 나무에 당도했다. 연리지 나무를 바라보는 소요의 시선이 조금은 어두워졌다. 연리지 나무는 여인의 말대로 맞닿아야 할 가지가 서로 어긋나 있었다. 파랑 소녀는 연리지 나무에서 살고 있는 다람이를 불렀다. 다람이가 나무 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소요는 들뜬 마음에 대뜸 다람이에게 도토리를 안겨 주었다. 다람이는 그 도토리에 자신의 얼굴과 소람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너에 대한 소람이의 마음이야. 소람이가 전해달라고 했어.”

다람이는 소요와 소녀의 주위를 통통 뛰어다녔다. 자신과 소람이의 얼굴이 새겨진 도토리를 받은 것이 무척이나 기쁜 모양이었다. 다람이는 가족들을 불렀다. 그러자 연리지 나무 안에 있던 다람쥐 다섯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 다람이의 아빠, 엄마, 언니, 오빠, 남동생이었다. 다람이는 소람이가 준 도토

리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었고 가족들도 다람이와 소람이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고마워요. 보답으로 제가 두 분께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소요는 그 말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며 연리지 나무가 다시 이어져야함을 자초지종 설명했다. 다람이와 가족들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소요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다람이네 여섯 가족은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어 각각의 연리지 나무로 올라갔다. 서로 가지가 어긋나버린 양쪽의 가지 위로 무게가 가장 가벼운 다람이와 남동생이 올라갔다. 그리고 다람이가 서 있는 가지를 엄마와 언니가, 남동생이 서 있는 가지를 아빠와 오빠가 붙잡아 주었다. 다람이가 가지를 잡고 남동생이 서 있는 쪽으로 훌쩍 날아갔다. 남동생은 다람이의 꼬리를 가까스로 붙잡았고 다람이는 무사히 남동생이 있던 가지 위로 안착할 수 있었다. 그 바람에 연리지 나무의 두 가지도 서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람이는 연리지 나무의 두 가지가 다시는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다. 소요는 얼른 속리교가 다시 이어져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소요와 소녀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속리교로 다시 향했다. 다람이네 가족들은 급히 가는 소요와 소녀에게 손을 흔들어서 주었다.

소요 일행이 속리교 앞에 왔을 때 이미 다리는 연리지 나무처럼 똑바르게 이어져 있었다. 그 다리는 이제 다시 어그러질 일이 없다는 듯 굳게 예전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소요는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서 빨리 가을을 되찾아주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소요와 소녀는 다시 방향을 틀어 산을 되올라갔다. 올라가는 길에 공주봉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 곳을 지나치려다 소요와 소녀는 스님과 여인을 발견했다. 여인은 이어진 속리교를 건너 공주봉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스님을 만나고 있었다. 여인과 스님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라만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인이 먼저 소요를 발견하였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 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 천 년 전에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소요는 두 번째로 받는 고마움에 마음이 점점 가뿐해짐을 느꼈다. 여인의 옆에 있던 스님도 고마움을 더해주었다.

“나는 원효이고 이 사람은 요석공주란다. 우리의 혼은 이 소요산에 남아 천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단다. 연리지 나무 두 그루가 서로 하나로 이어져야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운명이거든. 고맙다, 정말.”

소요는 위인전에서만 보던 원효대사를 실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리고 소요는 자신이 꼭 대단한 일을 한 것만 같아 뿌듯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는 이제 서로의 사랑을 이루었으니 소요산의 평화가 찾아오길 함께 기도해주겠다고 둘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원효대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소요에게 건넸다. 그것은 붉은 단풍이었다. 원효대사가 내미는 손 안의 단풍은 소요산의 초록색을 단숨에 다 물들여버릴 정도로 강렬한 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천년 단풍이란다. 이것이 아마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는 데에 도움이 될 거야.”

소녀는 천년 단풍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외쳤다.

“천년 단풍이야! 드디어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을 수 있어. 이 천년 단풍으로 소요산의 녹음을 노랗게 붉게 물들일 수 있어!”

소요는 소녀의 말에 자신을 휘감고 있던 무거운 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가벼워진 소요는 소녀와 함께 떨 듯이 기뻐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도 함께 기뻐해주었다. 그 순간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몸이 조금씩 열어지고 있었다. 소요는 깜짝 놀라 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는 점점 희미해져 작별 인사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소요는 천년 단풍이 혹여나 시린 바람에 날아갈까 봐 꼭 쥐었다.

“이 천년 단풍 안에는 단풍 요정이 잠들어 있어. 그 단풍 요정을 깨워야 해.”

파랑 소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천년 단풍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소녀의 손바닥에서 파란 빛이 새어나왔다. 그 파란 빛이 따뜻하게 천년 단풍을 감쌌다. 그러자 잠시 후 천년 단풍 위로 빨알간 무언가가 돌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뭇잎처럼 하나둘씩 돌아나 이내 곧 다섯 갈래로 나뉘어졌다. 다섯 갈래로 나뉜 조그마한 잎 하나가 조금씩 피어났다. 그리고 잎 속에 숨어있던 눈, 코, 입이 선명해져갔다. 단풍 요정의 모습이 울긋불긋 크레파스 색을 한 채 나타났다. 두 눈은 고요히 감겨 있었고 코에는 콧방울이 매달려 잠자는 숨소리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하고 있었다. 파랑 소녀는 가만히 단풍 요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단풍 요정은 소녀의 말이 들리는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누웠다. 작은 요정이 몸을 뒤척이는 모습은 귀여웠다. 그 귀여움에 소요와 소녀는 서로 빙긋 웃었다. 소요는 조심스레 단풍 요정의 콧방울을 손가락으로 터뜨렸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단풍 요정은 둥그랗게 눈을 떴다. 소요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단풍 요정은 자신의 눈앞에 가득한 소요의 얼굴에 놀라 잠이 확 달아난 듯 보였다. 소녀는 소요의 손에 앉아있는 단풍 요정을 보며 말했다.

“아롱아. 지금 시간이 없어. 한시라도 바빠 소요산의 가을을 되찾아야만 해.”

단풍 요정 아롱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소요도 소녀의 말에 덧붙였다.

“내가 그만 금송굴에 숨어있던 황금소나무를 사람들이 만지게 만들었어. 그 때문에 사람들은 벌을 받아 다람쥐로 변했고, 소요산의 가을도 도망가 버렸어.”

아롱이는 소요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볼을 부풀리며 소요를 흘겨보았다. 소요는 멋쩍어하며 머리를 긁었다.

“미안해, 아롱아…….”

파랑 소녀가 심각하게 하늘을 바라봤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소녀의 말에 소요와 아롱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구름들은 겨울에 내릴 첫눈들을 모두 껴안아 짙은 회색으로 변해갔다. 그 짙은 회색빛은 마치 소요산을 다 잡아먹을 듯 소요산의 하늘을 점령해가고 있었다. 따가운 햇살이 회색 구름에 가려 점점 빛을 잃어만 갔다. 점점 줄어드는 햇살에 잎도 식어 누렇게 변했다. 그리고 땅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소녀가 아롱이를 타일렀다.

“이려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이 소요산의 잎들을 붉게 물들여서 가을을 다시 찾아줘!”

그러자 아롱이는 곤란하다는 듯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난 가을을 다시 찾아줄 만한 힘이 없어. 가을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건 가을 신뿐이야. 가을 신이 소요산으로 다시 나와야만 해. 나는 그저 내 색깔로 소요산을 붉게 물들이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리고 물들이는 일은 시간을 멈춘 뒤에나 가능해.”

“가을 신은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가을 신이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어?”

소요가 다급하게 아롱이에게 물었다.

“가을 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몰라. 그저 시간이 절대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 뒤에 멈추어져 있다고만 들었어. 오직 세 번의 부름만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알아?”

소요가 소녀를 향해서도 되물었다. 그러나 아롱이, 소녀 모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아롱이는 자신의 힘을 지금은 쓸 수 없다는 말을 했다. 소요는 당황해했고 그런 표정을 떠넘기지 말라는 듯 아롱이가 대답했다.

“다롱이가 없잖아. 다롱이가 없이 나는 혼자 힘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다롱이랑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다롱이랑 떨어져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해.”

소요와 소녀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또 어디서 찾아 싶어 아롱이에게 다롱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다롱이는 소요단맥 갈림길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단서를 쥐고 소요와 소녀는 아롱이와 함께 소요단맥 갈림길로 뛰어갔다. 하늘은 끝내 짙은 회색을 넘어서 검은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소요와 소녀는 뛰었다. 더 빨리 뛰는 바람에 계단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긁혀 옷이 찢어지고 생채기가 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파랑 소녀는 몸 전체에서 파란 빛을 뿜어내어 소요에게 그 빛이 닿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빛이 닿을 때마다 소요의 몸에 난 상처들은 아물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늦여름의 마지막 비인지 초겨울의 눈이 아직 얼지 않은 비인지 알 수 없었다. 소요는 점점 빗줄기가 차가워져가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겨울이 오면 안 된다. 빨리 다롱이를 깨워야 했다. 내리는 비에 놀려 셋은 할 말을 잃어갔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소요단맥 갈림길에 다다랐다. 그제야 소요는 입을 열었다. 무작정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다롱이를 불렀다. 비가 내리기를 멈추고 싶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눈 결정체로 바뀌어가서 그러는 건지 빗줄기는 여리게 변해갔다. 그 때 소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겨울의 첫 눈 결정체가 땅에 닿기 전까지 다롱이를 깨워야 해.”

그렇지만 그 외침은 허공에 흩날려 사라져버렸다. 이미 소요는 하늘에 떠 있는 하얀색 눈 결정체를 보고 말았다. 야속하게도 하늘은 겨울을 빨리 앞당겼다. 소요의 눈에는 떨어지는 하얀 눈이 눈물에 비쳐 흐릿하게 보였다. 그 떨어지는 하얀 눈을 따라 소요의 두 눈도 아래로 내려갔다. 하얀 눈은 소요의 눈에서 두 갈래, 세 갈래가 되어 흘러내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높이였다. 소요는 재빨리 떨어지는 눈을 향해 몸을 엎드려 누웠다. 그리고 떨어지는 눈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눈은 아쉽게도 소요의 손바닥을 피해 땅으로 떨어져 갔다.

다람쥐가 되어 평생을 살게 될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에게 놀이공원에 가자며 졸라대던 아침이 생각났고 소요산을 처음 보며 붉은 빛에 신기해했던 때도 떠올랐다. 이제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무섭고 막막했다. 소요는 눈앞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를 끝으로 그만 눈을 꼭 감아버렸다. 소요의 감은 눈에서도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돼……. 제발…….”

그 순간, 땅에서 붉은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붉은 빛은 정확히 소요가 손을 뻗고 있는 그 곳, 눈 결정체가 막 땅에 닿으려하는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의 주인은 다롱이었다. 다롱이가 그 곳에 잠들어있던 것이었다. 다롱이는 그 눈을 감싸 안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겨울의 첫눈은 땅에 닿기도 전에 다롱이의 파스한 품 안에서 녹아내렸다. 소요가 흘린 눈물이 땅에 닿으려는 순간 허공에

서 그대로 멈춰졌다. 파랑 소녀가 다가가 허공에서 멈춘 소요의 눈물을 거두었다. 그리고 소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요는 눈을 떴다. 소요의 눈앞에 보이던 앙상한 나뭇가지는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소요는 눈이 떨어지고 있던 그 곳을 보았다. 그 곳에는 아롱이와 똑 닮은 다롱이가 빙긋 웃고 있었다. 다롱이는 자신의 손에 놓인 녹은 눈을 소요에게 보여 주었다. 소요는 그제야 안에 쌓아만 두었던 울음을 한꺼번에 토해 내었다. 소요는 옆드린 채로 땅에 얼굴을 박고 소리 내어 영영 울었다. 파랑 소녀는 소요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한없이 울음을 쏟아낸 뒤에야 소요는 고개를 들었다. 파랑 소녀의 입술이 움직여 미소가 되었다. 소요는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다. 소요산의 모든 것들은 흔들림을 멈추고 있었다.

“우리는 소요산의 세 요정 아롱이, 다롱이 그리고 파랑새야. 우리 세 요정이 한 곳에 모이면 소요산의 시간이 이렇게 멈추나봐. 사실 우린 몇 천 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거든.”

파랑 소녀가 조금 멋쩍은 듯 웃어보였다. 소요는 두 눈에 남아있던 눈물방울들을 마저 훔쳐 냈다. 파랑 소녀가 소요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물들이러!”

소요는 그 손을 잡았다. 아롱이와 다롱이도 손을 잡고 소요의 어깨에 앉았다. 소요는 아롱이, 다롱이가 떨어질까 조심조심하며 걸었다. 아롱이와 다롱이가 가는 곳마다 앙상하던 나무에는 단풍잎이 그려졌다. 아롱이는 크레파스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롱이는 수채화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 것 같았다. 소요도 아롱이를 흉내 내어 그림을 그리면 파랑 소녀도 다롱이처럼 색칠을 하는 시늉을 했다. 그렇게 넷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요산이 점점 환하게 변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소요산은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 붉었다. 소요의 마음도 붉은 기운으로 가득해졌다. 소요산은 가을 색을 되찾아 붉은 빛으로 완연했다. 마지막으로 가을 신을 부르는 일만 남았다. 아롱이, 다롱이도 파랑 소녀도 가을 신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아롱이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시간이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곳에 멈추어 있다.’는 단서 하나만으로 가을 신을 찾아야 했다. 아롱이와 다롱이는 어느 새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아. 가을 신에게 부탁하는 일은 소요 네 몫이야. 부디 가을 신을 불러서 소요산의 완전한 가을을 되찾을 수 있길 기도할게.”

아롱이는 소요의 검지를 잡고 악수했다. 소요 또한 아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다. 아롱이, 다롱이는 함께 소요산에 스며들듯 날아가 버렸다.

소요와 파랑 소녀는 아롱이가 말한 단서를 곰곰이 되뇌었다. 시간이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곳에 멈추어져 있다……

‘시간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물이 흐르지 않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몸도 흘러가게 놔두는 모습이 적당히 고집스러워 보이지 않니?’

소요의 뇌리로 아침에 들었던 아빠의 말이 스쳐갔다.

“원효폭포야! 가을 신이 숨어있는 곳은 틀림없이 원효폭포일 거야!”

소요는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파랑 소녀에게 들려주었다. 파랑 소녀는 소요의 말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원효폭포로 함께 달려갔다. 단풍나무들이 둘에게 길을 내 주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소요 또한 그 축복에 감사하며 단풍나무들에게 인사했다. 소요 아빠의 말처럼 시간이 멈추면서 원효폭포에서

쏟아지던 물 또한 그대로 허공에 떠 있었다. 소요와 소녀는 허공에서 정지한 물방울들 사이로 이리저리 가을 신이 숨어있을 만한 곳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그런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녀는 아룡이가 일러 준 단서를 되짚어 보았다.

“시간이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 뒤에 멈추어 있다. 오직 세 번의 부름만이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세 번의 부름?”

소요는 무작정 ‘가을 신님’하며 세 번을 연거푸 불렀다. 그러나 시간마저 멈춰버린 산에서는 소요의 메아리마저 들려오지 않았다. 소요와 소녀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시간이 멈추어져서 안 되는 것이란 아빠의 말대로 분명 이 원효 폭포일 텐데…….”

소요는 허공에 멈추어진 폭포수를 빙 돌아 폭포수 뒤에 숨어있던 벽을 손으로 짚었다. 벽이 가을 신이 숨어있는 곳인가 싶어 소요는 벽에다 대고 가을 신을 세 번 불렀다. 그러나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밖엔 없는 데…….”

소요는 아쉬운 듯 손으로 벽만 쓸어댔다. 세 번째 쓸어내릴 때쯤 소요의 손이 닿은 벽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소요는 놀라 벽에서 손을 뗐다. 소요가 손을 떼자마자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원형이 되었다. 그 원형 왼쪽에는 손잡이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 원형은 마치 집에 있는 현관문처럼 변했다. 소요와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 문을 열기로 했다. 소요가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리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눈에 붉은 머리를 가진 배불뚝이 아저씨가 퉁퉁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섰다.

“누구야?”

내뿜는 목소리마저 표정을 닮아 퉁퉁하고 투박했다.

“뭐야, 너넨?”

말하다 말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는 온통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놀라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더 잇지 못했다. 소요와 파랑 소녀는 그의 병진 얼굴을 보며 뿌듯해했다. 소요는 자신이 방금 전 벽을 세 번 쓰다듬은 것을 기억했다. 그는 가을 신이 분명했다. 소요는 밝게 웃으며 물었다.

“이제, 나오실 거죠?”

가을 신은 소요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소요도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싫어.”

가을 신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소요는 도로 들어가려는 가을 신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러나 가을 신은 쉽사리 노여움을 풀지 않았다. 소요는 가을 신의 왼쪽 다리에 엉겨 붙었다. 파랑 소녀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소요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저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다람쥐가 되어도 좋아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나와 주세요.”

가을 신은 다리에 엉겨 붙은 소요를 보다, 무릎 꿇고 비는 파랑 소녀를 보다, 산 여기저기에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다 생각에 잠겼다. 가을 신은 자신의 색깔로 입혀진 소요산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는 사그라들었다. 가을 신은 소요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소요는 가을 신의 호통을 듣자마자 이제 자신은 다람쥐가 되어 벌을 받는 구나 싶었다.

“한 번만 그랬다간 봐! 그 땐 다람쥐가 아니라 하루살이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알아들었어?”

소요는 잘못 들었나 싶어 가을 신을 쳐다보며 되물었다. 가을 신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조그마한 미소도 언뜻 내비친 것 같았다. 소요는 코를 훌쩍였다. 파랑 소녀도 가을 신의 호통에 놀라 움찔해 있었다. 가을 신은 소요가 훌쩍이는 모습을 보며 얘기했다.

“소요산역으로 가 봐.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소요는 영문을 몰라 가을 신만 쳐다보았다.

“빨리 안 꺼져?”

소요와 파랑 소녀는 그 소리에 질려 함께 산 밑으로 도망갔다. 부리나케 산을 내려가는 둘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을 신은 빙그레 웃었다. 가을 신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 앞에 멈춰져 있던 원효폭포를 움직였다. 원효폭포가 움직이는 것을 신호로 소요산의 가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을 휘감고 있던 먹색 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소요산에 내려앉았다. 떨어지는 폭포수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신 가을 신은 빠른거리는 몸을 풀며 소요산 위로 올라갔다.

손을 꼭 잡은 둘은 정신없이 산을 달려 내려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한참을 뛰어가다 소요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 바람에 꼭 잡고 있던 소녀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아파하며 소요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힘이 풀린 소요는 소녀를 보자마자 웃음이 물밀 듯이 밀려나오는 것을 느꼈다. 소녀도 똑같았다. 소요와 소녀는 서로 마주보고 소요산이 떠나가라 웃어젖혔다. 파랗고 높은 하늘을 수놓는 산새들의 노랫소리는 둘의 웃음에 장단을 맞추듯 울려 퍼졌다. 가을 햇빛에 반사된 단풍잎이 소요와 소녀의 웃음을 한 층 더 밝혀주었다.

웃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소요는 다시 파랑 소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파랑 소녀는 고개만 설레설레 저었다. 파랑 소녀의 몸은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었다.

“소요산을 벗어날 수 없어. 난 소요산을 지키는 요정들 중 하나이니깐.”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언젠가는……얼른 가 봐. 부모님이 기다리시겠다.”

소요는 웃느라 잠깐 동안 잊었던 엄마, 아빠를 다시 떠올렸다. 가을 신의 말대로라면 소요산 역에 있는 것은 다람쥐가 아닌 엄마, 아빠일 것이다. 노여움을 푼 가을 신이 엄마, 아빠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준 것에 감사해했다. 소요는 파랑 소녀의 배웅을 받으며 뒤돌아섰다. 몇 발자 걸다가 아쉬운 마음에 뒤돌아 소녀를 보려했지만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소녀는 없었다.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 소요는 산을 내려왔다.

소요산 역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요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저 멀리 아빠의 검은 승용차가 보이고 그 옆에 서 있는 엄마, 아빠가 보였다. 소요는 엄마, 아빠를 향해 힘차게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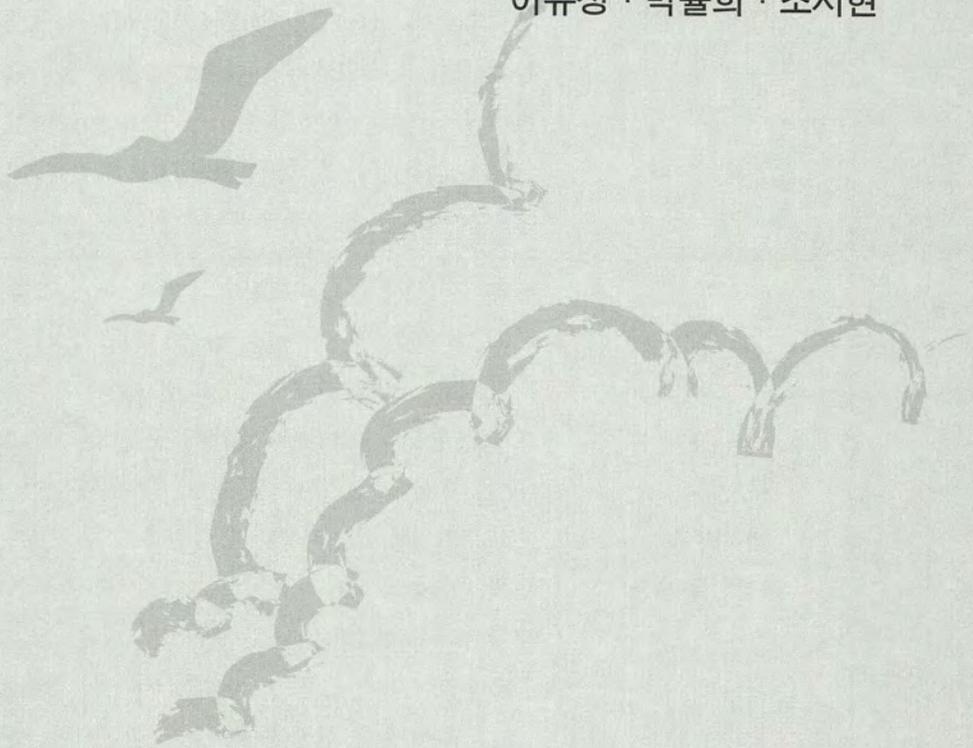
여 백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넙퉁의 편지

팀명 : 재밋냐?

이유성 · 박률희 · 조시현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의 전설이 남아있는 소요산. 끝내 결말을 맺지 못한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를 맺어주고, 둘의 안타까운 사랑을 상상하여 서로에게 마음이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닿게 되는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에 대해 말한다. 소요산의 단풍과 소요산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보여주어 소요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소요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준다. 동두천시의 상징인 다람쥐와 파랑새를 등장시켜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두천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배경이 되는 등산로를 통하여 소요산의 정취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p>
<p>스토리 구성 (Plot)</p>	<p>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란 설총은 우연히 어머니인 요석의 방에서 원효에게로 쓴 편지를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하기로 결심한다. 무작정 집을 나선 설총은 찾아간 자재암에서 원효가 수련을 하러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 설총은 자재암의 동자가 가르쳐 준대로 길을 나서다 상처 입은 파랑새를 구해준다. 파랑새는 설총에게 은혜를 갚고 설총은 다시 원효를 찾아 떠난다. 잠시 쉬던 중 다람쥐들을 만나고 그들의 장난에 넘어가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아버지인 원효를 찾아간다. 도중에 다칠 뻔하지만 파랑새의 도움으로 위기도 극복한다. 모험 끝에 결국 원효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설총은 어머니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두고 온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설총 :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린 소년. 아버지를 궁금해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어느 날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전해주겠다고 결심한다.</p> <p>요석 : 설총의 어머니로 신라의 공주이다. 원효와 헤어진 뒤 재가하지 않고 원효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설총이 원효에게 편지를 가져다주려 노력한다.</p> <p>원효 : 설총의 아버지. 승려이며, 자재암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p> <p>다람쥐(소람이, 다람이) : 장난기가 많은 소요산의 다람쥐들이다. 단풍잎을 들고 다니는 말을 하는 다람쥐이다. 설총을 곤경에 빠뜨리지만, 설총이 원효에게 줄 선물을 구하는 것과 편지를 원효에게 전하는 것을 도와준다.</p> <p>파랑새 : 말을 하는 소요산의 수호신으로 설총이 목숨을 구해주자, 설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은혜를 갚는다.</p>

시습시스

제목

설총의 편지 《부제 : 소요산이 전해준 마음》

주제

이루어지지 못한 원효와 요석의 사랑을 전해준 설총.

발굴배경

소요산은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남아있는 전설의 땅이다. 결국 맺어지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워 이를 소재로 하여 못다 이룬 사랑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원효가 도를 깨달았다는 자재암과 그 주변의 등산로(명소)를 이용하여 소요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가을의 고운 단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을처럼 여문 가족의 정을 보여준다.

의의

소요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단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눈여겨 볼만한 명소들을 제시하여 동두천시와 소요산에 대하여 알린다. 동두천시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등장시켜 동두천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또한 소요산의 등산로를 따라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실제로 소요산을 방문하여 소요산과 단풍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설총의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며, 소요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따뜻함을 전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스토리관련 기초정보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 원효는 소요산 자재암에 들어오기 전에 스님으로서 요석공주와 통하여 파계승이 되었고 스스로를 소승거사라 칭하며 민중들을 교화하며 떠돌아다녔다. 이는 대승불교의 시발이 되었다. 요석공주는 원효를 사모하여 공주봉에서 설총을 낳고, 매일 원효대사의 무운을 빌며 자재암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소요산 : 절묘한 산세와 수려한 계곡, 무엇보다도 단풍의 절경으로 작은 금강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소

요산은 예부터 수많은 문인, 학자, 시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으며 그 절경을 노래하였다.

자재암 : 작은 규모의 절간으로 수련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며 원효대사가 도를 깨우친 곳이라고 한다.

하백운대, 중백운대, 상백운대 : 소요산의 등산로. 하백운대 - 중백운대 - 상백운대로 이어지는 소요산 2코스를 배경으로 한다.

줄거리

스님이 화려한 차림의 공주에게 가락지 하나를 내어준다. 공주의 손바닥 위로 가락지가 놓인다.

설총이 경대 위에서 가락지를 발견한다.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설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책위로 가득 쓰인 편지들. 설총은 문득 어머니가 밤마다 한숨을 쉬며 뭔가를 쓰시던 것을 기억해낸다. 위에 올려진 편지 몇 개를 만지작거리던 그는 결심한 듯 위에 놓인 편지 몇 장을 쥐고 밖으로 나온다. 단풍나무 길을 지나 그가 간 곳은 자재암. 집안의 종들이 대사님은 자재암에서 수련을 하신다던 얘기를 떠올린 것이다. 단풍나무 길을 걷던 중 설총은 색이 곱고 상하지 않은 예쁜 단풍잎 하나를 얻는다. 자재암에서 '원효대사님' 을 찾지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다는 동자승의 말에 원효를 뒤쫓는다. 동자승이 알려준 하백운대로 가던 중, 갈림길에서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되고, 그로인해 바닥 쓰러져 죽어 가는 파랑새 한 마리를 발견한다. 설총이 놀라서 다가가자, 파랑새가 설총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걸 지나칠 수 없었던 설총이 파랑새의 부탁대로 파랑새를 선녀탕에 데리고 간다. 선녀탕에 도착해 파랑새가 갑자기 선녀탕으로 뛰어 들어 놀랐지만, 파랑새가 멀쩡하게 물속에서 나와 다행이라 여긴다. 그 후, 파랑새는 설총에게 고맙다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한다. 잠시 망설이던 설총은 아버지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네 깃털 하나만 뽑아줄 수 있겠냐고 묻고, 파랑새는 깃털을 뽑아준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파랑새에게 설총은 원효대사라고 한다. 파랑새는 원효가 아마 이 시간쯤이면 하백운대에서 중백운대로 향하고 계실 거라고 한다. 설총은 깃털을 쥐고 우선 하백운대로 힘들게 올라간다. 하지만, 파랑새의 말대로 하백운대에 없어서 다시 중백운대로 향한다. 중백운대에서 아버지가 없어 상심하고 잠시 쉬는데, 다람쥐 두 마리가 나타난다. 아까부터 어딜 그렇게 가고 있냐고 묻고, 자신들의 이름이 소람이, 다람이임을 밝힌다. 설총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원효대사라는 것을 밝히자 다람이는 대사님이 상백운대로 향했으며, 도토리묵을 좋아하신다고 한다. 잠시 망설이던 설총은 도토리를 주워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좋은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밥을 다람쥐에게 준다.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와 가락지가 잘 있나 확인하던 설총의 얼굴이 파래지며 가락지를 잃어버린 걸 확인한다. 하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 설총은 울먹인다. 그 시간, 밥을 들고 도망가다 소람이가 죄책감을 느끼고 가락지를 찾아 설총에게로 돌아간다. 다람이는 용서를 빌고, 설총은 그 용서를 받아 주고 동행하게 된다. 그들이 상백운대로 향하는 중, 파랑새가 날아와 대사님이 하산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설총은 하산하게 된다. 하산하는 중간에, 근처 계곡에서 반짝이는 예쁜 돌을 발견한다. 주우려던 설총은 미끄러지고 다리를 다친다. 그리고 설총이 돌을 줍자마자 화창한 날에 갑자기 여우비가 쏟아진다. 배도 고프고, 옷도 젖었다. 설총과 소람이, 다람이는 근처 굴로 비를 피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고, 왜 찾아가는 거냐고 두 다람쥐가 묻고 설총은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한다. 조금씩 그치는 비를 쳐다보며 설총은 빨리 아버지에게 편지와 선물들을 드리고 싶다며 웃는다. 해가 드러나고, 다리를 다쳐 울상인 설총의 앞에 파랑새가 나타나 머금고 있던 선녀탕의 물을 뺏는다. 다리가

나은 설총이 파랑새에게 감사의 인사 건네고, 기쁜 표정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본다.

도토리묵이 원효 앞에 놓여있고, 한 스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토리묵을 왜 보고계시냐고 묻는다. 원효는 스님을 쳐다보며 알 듯 말 듯 한 미소를 짓는다.

인물캐릭터

설총 :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린 소년. 아버지를 궁금해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어느 날 어머니의 그리움이 담긴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전해주겠다고 결심한다.

요석 : 설총의 어머니로 통일 신라의 공주이다. 원효와 헤어진 뒤 재가하지 않고 원효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쓴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설총이 원효에게 편지를 가져다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원효 : 설총의 아버지로 승려이며, 자재암에서 수련을 하고 있다.

다람쥐(소람이, 다람이) : 단풍잎을 들고 다니며 말을 하는 장난기 많은 다람쥐 들이다. 설총을 곤경에 빠트리지만, 설총이 원효에게 줄 선물을 구하는 것과 편지를 원효에게 전하는 것을 도와준다.

파랑새 : 말을 하는 소요산의 파랑새로 설총이 목숨을 구해주자, 설총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은혜를 갚는다. 만나면 좋은 운을 가져다준다고 전해진다.

스토리보드의 매력 포인트

1. 소요산 단풍의 아름다움 표현.
2. 등산로를 활용한 소요산 경관의 표현.
3. 동물 조력자를 등장시켜 친근함 유발.
4. 아이 주인공을 등장시켜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부각.
5. 소요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제시.

국내외의 유사사례 소개 및 차별성

설총이 사랑의 메신저라는 면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큐피드'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를 알 수 없는 데에서 여운이 나타난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삶의 주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종교 중 하나인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설총이 큐피드의 담당이었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가족애를 맺는 메신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설총의 편지

부제 : 소요산이 전해준 마음

여인의 고운 손바닥 위로 가락지 한 짝이 건네졌다. 특별한 무늬가 없는 평범한 옥가락지였다. 여인은 자신의 손에 놓인 가락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손을 거두지 못한 채, 가락지를 넘겨준 젊은 스님을 쳐다보았다. 여인과 스님의 시선이 마주쳤고, 둘 사이에 한동안 긴 정적이 흘렀다. 둘의 옷깃을 스치고 이제 막 가을을 알리는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어지럽게 흔들리던 나뭇가지들이 잠잠해지고 난 후에야 여인이 입을 열었다.

- 멀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추억도 하지 말라 이르시는 겁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님은 아직도 거두지 못한 여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여인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여인에게 인사했다.

- 부디 강녕하시길 바랍니다. 공주님.

그렇게 스님은 떠나갔고, 여인은 자신의 손에 들린 가락지를 꼭 쥐고 눈물지었다. 이제 스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그의 흔적은, 점점 그녀에게서 희미해져 갈 것이었다.

설총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주위에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고 또 살폈다. 설총은 요석이 가꾸는 아담한 정원을 지나 요석의 방으로 향했다. 현재는 요석이 없는 시간대이기에, 기회는 이때였다. 평소라면 설총도 요석을 따라 나섰어야 했지만 오늘은 설총이 아랫마을 친구들과 놀아야 된다고 하도 때를 써서 요석이 하루만 혼자 소요산으로 향한 것이었다. 설총은 서둘러 요석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특유의 향이 번져 있는 그 곳을, 설총은 참 좋아했다. 특히, 이 집 안 유일하게 아버지의 흔적이 있어 더욱 좋았다.

두 개의 장롱과 경대 위에 고이 모셔져 있는 옥가락지 빼고는 특이할 것 없는 요석의 방. 하지만 그것 만으로도 설총에게는 지난날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 요석의 방에는 그 증거들이 모여 있었다. 설총도 최근에 안 사실이였다. 장롱 안 구석구석에 낡은 편지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설총은 장롱을 열어 가장 최근 것으로 보이는 편지 봉치를 집어 품에 넣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였고, 설총 자신을 위해서였다. 요석의 편지를 본 순간부터 설총은 계속 아버지를 그려왔다. 그 전까지 이름조차 몰랐던 아버지를 편지로라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다. 원효의 모습을 저 혼자 상상하며 행복해 하던 설총은 진심으로 원효와 만나고 싶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았다. 허나 요석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원효의 존재를 설총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까지 설총은 자신이 정말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던 것이다.

막 방을 빠져나가려던 설총의 눈에 옥가락지 한 짝이 들어왔다. 설총은 그것 또한 집어 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가 닫았다. 웬만하면 요석의 방 주위에는 종들이 다가오지 않아서 인기척은 없었다. 그래도 설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하며 후다닥 쪽문으로 뛰었다. 그런 설총의 뒤로 가을의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며 따라갔다.

얼마나 달렸을까. 설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다. 뒤에서 따라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정도 안심이 된 설총은 걷기 시작했다. 땀 때는 몰랐는데 걷기 시작하니 주위가 설총의 눈에 천천히 들어왔다. 빨갭게 색을 낸 단풍나무들이 늘어선 길 가운데에 설총이 있었다. 바람에 흩날려서 아름다운 색의 나뭇잎들이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다.

자재암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아버지도 이처럼 예쁜 가을의 색을 느끼고 계실까? 아마 자신과 똑같이 소요산의 가을을 보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 같은 설총이었다. 설총은 흩날리는 단풍잎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참으로 신기 하게도 설총의 손바닥 위로 유독 진하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내려앉았다. 여태껏 이렇게 예쁘게 물든 나뭇잎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단풍나무도 아버지에게 전하려는 설총의 마음을 이해한 모양이었다.

“아버지도 이런 색의 단풍잎은 처음 보실 거야!”

분명 신기해하며 기뻐하시겠지? 설총은 단풍잎을 품에 갈무리하며 단풍나무길을 빠져나왔다. 설총이 사라지자 단풍나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까의 부산함을 지운 채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소요산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일주문을 지나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스며져 있는 원효폭포와 그 옆에 속세를 떠나 선경으로 접어든다는 속리교에 다다랐다. 설총은 원효폭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속리교를 건넜다. 계속해서 물든 나무들과 풀의 향연이 펼쳐졌다. 설총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소요산을 매일 와봤다고는 하나, 어머니가 가는 길과 자재암으로 가는 길은 달랐다. 같은 소요산인데 이렇게 새로워 보여 설총은 눈 깜박이는 것조차 아까워서 아까부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런 아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 보였는지 몰랐다.

주위를 신경 쓰며 걷다보니 어느새 자재암 앞에 다다랐다. 자재암이 스님들의 수련 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설총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안을 기웃거렸다. 힐끔, 또 힐끔, 설총이 문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반복하고 있을 때,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자승이 설총 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답 뒤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던 설총이 깜짝 놀라서 팔꼭질을 하였다. 꺾! 꺾! 설총은 팔꼭질이 멈추지 않아 동자승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였다. 그래도 팔꼭질이 대수가 아니기에 설총은 동자승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동자승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기 또래의 아이가 자재암에 혼자 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시기에 문 앞에서 계시기만 하십니까?”

“저, 꺾, 제가 원효, 꺾, 대사님을, 꺾…….”

설총은 팔꼭질 때문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져서 있는데, 동자승이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설총은 동자승을 기다렸다. 얼마 안 있어 동자승이 바가지를 들고 설총에게 뛰어왔다. 동자승이 설총에게 건넨 바가지 안에는 맑은 물이

담겨져 있었다.

“옥련샘물에서 떠온 겁니다. 원효 대사님께서 즐겨 드시니 분명 무언가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물! 설총은 물에 효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었다. 바가지를 받아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아버지와 같은 물을 먹어보게 됐다는 것만으로 이미 딸꾹질은 멈춰 있었다. 동자승이 알게 모르게 미소 지었다.

“이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는 설총에게 동자승이 말했다. 설총은 검연쩍게 바가지를 돌려주며, 아까부터 하려던 말을 입에 담았다.

“아버, 아니, 원효 대사님을 뵈러 왔어요.”

아. 동자승의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배어나왔다.

동자승이 소요산 자락을 돌아보았다. 설총도 동자승을 따라 소요산 자락을 쳐다보았다. 알록달록 안 예쁜 구석이 없어 보였다. 적색, 황색, 녹색 등이 모여 소요산에게 옷을 입혔다. 둘은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각(一刻)전에 나가셨습니다. 하백운대로 향하시는 것 같던데…….”

일각전이면, 금방이었다. 뛰어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였다. 설총은 동자승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산으로 달렸다. 그런 설총의 뒷모습을 동자승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저렇게 뛰다간 발을 헛디디기 마련인데 설총이 휘청 넘어질 것처럼 기울었지만 곧 균형을 잡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위태로워 보이는 설총을 보며 동자승은 왜 저렇게 원효대사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아이의 보폭과 어른의 보폭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원효는 보이지 않았다. 설총이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한들 원효를 따라잡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이제야 기껏 하백운대로 가는 갈림길만 얼핏 보였을 뿐이었다. 설총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갈림길 앞에서 멈췄다. 왼쪽으로 가면 하백운대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선녀탕과 이어지는 중백운대 너머의 길이 나온다. 임시로 아무렇게나 꽃아 놓은 나무 표지판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다. 설총은 왼쪽 길을 보다가 오른쪽 길에 시선을 두었다. 아까 전부터 오른쪽 길이 시끌시끌해서였는데, 설총이 고개를 돌리니 잠잠해졌다.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왼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설총의 뒤로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새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들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설총은 뒤를 돌아보았다. 시끄러운 소리가 환청이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이상했다. 설총은 혹시나 하고 몸을 하백운대쪽으로 돌렸다. 바로 전에 들려왔던 그 소리가 한층 더 시끄럽게 울렸다. 설총이 한걸음, 한걸음 멀어질 때마다 소리는 더 맹렬해져, 설총은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 했다. 꼭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건지 알기 위해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오른쪽 길로 조금 걷자, 그 이유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온통 붉은 가운데 그 원인은 파랗게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설총은 길 옆에서 파란 빛을 내고 있는 생명체에게 다가갔다. 작은 몸집의 아이는, 웬만하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파랑새였다. 소요산 깊은 산중에 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리 다쳐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설총이 파랑새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에 파랑새가 미약하게 반응을 보이며 눈을 떴다.

“저를, 선녀탕으로…… 데려다 주세요. 부탁, 이에요.”

금방이라도 끊어져 버릴 듯 가느다란 목소리가 파랑새의 목을 통해 흘러나왔다. 파랑새가 말을 한다는 것이 신기해 보일 법도 한데, 설총은 파랑새가 곧 죽을 것 같아 보였기에 파랑새를 품에 안고 무작정 선녀탕으로 뛰었다. 가슴 속 한편에는 아버지를 뒤쫓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작은 생명을 두고 갈 순 없었다. 설총은 여기서 파랑새를 두고 간다면 아버지 앞에 서기가 매우 부끄러울 것 같았다. 어머니에게서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 배웠다. 아버지도 그리 생각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와도 뛰기를 멈출 수 없었다. 설총 품에 안겨 있는 파랑새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설총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이 조그만 생명을 살려달라고.

설총은 몰랐다. 그런 설총의 뒤로 색색의 나뭇잎들이 휘날렸던 것을, 그들도 파랑새를 심히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들뿐만이 아니고 소요산 전체가 파랑새를 걱정하고 있었다.

선녀탕에 도착한 설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파랑새를 계속 안고 있었다. 우선 선녀탕 가까이 다가갔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파랑새야, 선녀탕에 다 왔어. 눈을 떠봐. 자, 선녀탕이야.”

설총은 파랑새를 두 손으로 감싸 선녀탕 쪽으로 내밀었다. 움찔하고 파랑새가 미동을 보였다. 설총이 기뻐서 좀 더 선녀탕 쪽에 가까이 손을 옮겼다. 이번엔 파랑새가 눈을 떴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설총이 채 말을 다 잇기 전에 파랑새는 온 힘을 다해 선녀탕 안으로 뛰어 들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미처 파랑새를 잡지 못한 설총의 표정이 허망하게 변해갔다. 설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쥐었다 폈다 해봐도 파랑새가 있을 리 없었다. 이미 놓쳐 버린 파랑새였다.

큰 상심에 빠져 있던 그 때, 선녀탕 물이 일렁이더니 설총의 바로 앞에서 파란 물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파랑새였다. 죽은 줄만 알았던 파랑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선녀탕 주위를 빙빙 돌며 비행했다. 다행스럽게도 파랑새는 건강해보였다. 어디하나 다친 곳 없어 보이는 파랑새가 살포시 설총의 앞에 내려앉았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목숨을 구했어요.”

파랑새는 파랗게 빛나는 자신의 날개를 펴리며 설총에게 인사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흉과 약간의 피가 묻어 있어 색이 바랬었는데,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하니 파랑새가 달리 보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파랑새를 만나보고 싶어 하지는 알겠다. 그 어떤 색이 와도 파랑새의 색과는 견줄 수 없을 것 같았다. 파란 색인데도 햇빛을 받으면 오색찬란한 빛이 엿보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근데 어찌다가 다쳤던 거야?”

“부모님 몰래 아랫마을에 놀러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저는 인간 마을을 한번 보고 싶어 간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발견하고는 계속 저를 쫓아 왔어요. 물론 저보다 빠른 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그걸 맞았습니다. 그 후 정신없이 소요산으로 날아오다가 그만 기력을 잃고 추락한 거예요.”

아랫마을 아이들이라면 설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좀 짓궂은 면이 있었던 아이들이지만, 돌을 던질 줄이야! 설총은 오히려 저가 파랑새에게 미안해졌다. 사람들에게 의해 저 작은 생명이 죽을 뻔했다는 말

이 아닌가.

“미안해. 내가 애들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아니에요. 은인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은인께는 감사하는 걸요.”

파랑새가 빙긋 미소 지었다.

“혹여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모두 들어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설총은 손을 내저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파랑새에게 보답을 받으면 더 미안해질 것 같았다. 설총은 얼른 부모님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발을 떼었다. 그러자 파랑새가 설총의 주위를 빙빙 돌며 은혜를 갚겠다고 끊임 없이 말해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파랑새가 말했다. 설총은 고민했다.

“음, 그럼, 너의 깃털 하나만 나에게 줄래?”

최대한 부담이 없는 걸로 택한 것이 파랑새의 깃털이었다. 원효에게 선물로 주고도 싶고, 자랑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파랑새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첫 인물이라고 생각 되는 설총이었다.

“그거야 쉽죠. 근데 뭐하려고요? 별로 쓸모가 없을 텐데, 더 좋은 소원을 말하지……. 웬만하면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너의 그 파란 깃털이면 돼. 아버지에게 선물할 거거든. 분명 기뻐하실 거야.”

설총의 말에, 파랑새는 기꺼이 자신의 깃털을 뽑아 주었다. 파랑새의 깃털을 받아 든 설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파랑새도 덩달아 기뻐져 설총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를 찾으러 가.”

“아버님이 누구신데요?”

“원효대사님.”

설총은 혼잣말로 조그맣게 중얼거렸지만, 그걸 용케 들은 파랑새가 원효대사님을 안다고 했다. 매년 소요산에서 수련하는지라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마 중백운대로 향하고 계실 거예요. 하백운대를 이미 지나셨을 걸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뺏었네요.”

“아니, 아니야. 이제부터 부지런히 가면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총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파랑새가 미안한 마음에 하백운대 갈림길까지 설총과 동행하였다.

“부디 아버님을 만날 수 있길 빌게요. 조심하시고요.”

설총이 손을 흔들며 파랑새에게 인사했다. 파랑새는 설총이 걱정되어 그 자리에서 한참을 빙빙 돌다가 설총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자리를 떴다. 은인의 앞에 행운이 있기를, 설총에게 기적을 줄 순 없었지만, 그래도 파랑새는 기적을 빌었다.

설총은 하백운대로 올라가는 내내 파란 깃털과 붉은 단풍잎으로 무엇을 해서 드릴까 곰곰이 생각했다.

자신의 품에 있는 두 개의 물건이 이렇게 뿌듯했던 적은 처음이었다. 괜스레 웃음이 비죽비죽 튀어 나오고, 행복한 상상이 계속 됐다.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설총이었다.

하백운대에 도착했다. 파랑새의 말이 맞는 모양인지, 그 어디에도 원효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설총은 조금 쉬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더 멀어질까봐 부지런히 중백운대로 향했다. 시원한 바람이 설총의 땀방울을 닦아주고 저 멀리 공주봉까지 날아갔다.

노송들 사이로 의상대와 공주봉이 얼핏 보였다. 요석은 아직 공주봉에서 원효의 무사를 기원하고 있을 것이었다. 공주봉과 의상대뿐만 아니라 나한대까지 보이는 하백운대와 중백운대 사이의 구간은 소요산의 절묘한 산세를 한 눈에 보기에 가장 적당한 자리였다. 간간히 부는 바람과 푸르른 노송 사이로 붉고 노란 소요산의 풍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뤘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공주봉 반대편에서 소요산을 본격적으로 본 설총은 보폭을 조금씩 느리게 했다. 아버지가 자주 거닌다는 이곳과 정반대에 있는 공주봉.

“어머니, 이곳에서 공주봉이 보입니다. 아버지도 저와 똑같은 풍경을 보셨겠죠?”

원효가 거니는 길에 오고 나서야 알았다. 원효도 요석이 있는 공주봉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어머니를, 나를 보고 계셨구나. 설총은 금세 기운이 넘쳐났다. 그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었다. 이대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설총이 저만치 뛰어갔고, 그런 설총이 남았던 자리에 옥가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옥가락지와 설총은 점점 멀어져 갔다. 외로이 남겨진 옥가락지 위로 그림자 두 개가 드리웠다. 조그맣고 앙증맞은 두 손이 옥가락지를 들어 올렸다. 아작, 하고 앞으로 옥가락지를 무는 다람쥐 한 마리.

“악, 뭐야, 먹는 게 아니잖아.”

옥가락지를 문 채 소람이가 말했다. 그 옆에서 다람쥐가 한심하다는 듯이 옥가락지를 뺏어 바닥에 내팽개쳤다. 소람이가 짹짹 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딱 보기에든 먹는 게 아니잖아. 쪼그만 게 이 줌 되면 실 때도 됐는데, 왜 안 쉬는 거지?”

“몰라. 다람쥐, 나 배고파. 그냥 도토리 주우러 가면 안 돼?”

“싫어. 나는 꼭 밥을 먹어보고 말거야. 가려면 너 혼자 가.”

다람쥐는 종종 걸음으로 설총이 사라진 방향으로 향했다. 소람이는 어쩔 수 없이 단풍잎을 들고 다람쥐를 쫓았다.

저 멀리 중백운대가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설총은 아버지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중백운대로 뛰었다.

“아버지! 아버지!”

설총의 목소리가 중백운대 넘어 까지 퍼졌다. 소요산 전체를 울리는 것만 같았던 설총의 목소리가 잠잠해진 것은 중백운대에 도착해서였다. 살짝 비쳤던 그림자는 그저 사람 크기 만한 나무였다. 설총은 숨이 차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설총이 망연자실하게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정중앙 보다는 더 기울어져 있으니, 정오에서 한두시진은 지난 후일 것이다. 점심 때를 훨씬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하니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설총은 소매 안에서 주먹밥 꺼냈다. 혹시 몰라 챙겨왔더니 유비무환이 되었다.

커다란 호박잎에 쌓인 밥은 정말 꿀맛이었다. 설총의 노고를 알아주기라도 하듯이 밥 특유의 고소하고

달달한 맛이 설총을 감탄케 했다. 집에서 가져온 밥이었지만, 집 밥 같지 않았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다니. 그리고 보니, 처음 공주봉에 올라서 점심을 먹었을 때도 이런 맛이 났었던 것 같다. 매일 공주봉에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 맛이 점점 잊혀져갔지만.

설총은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찾는 것이 먼저였다. 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머니의 이 마음을 전해줄 거라고 다시 다짐하며 설총은 공주봉을 쳐다보았다. 저 멀리에 있는 공주봉을 보고 주먹밥을 먹던 설총의 허벅지를 누군가가 쿡쿡 찔렀다.

“흠흠,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누구 그렇게 찾아가? 나랑 소람이가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아, 애가 소람이고, 나는 다람이야.”

다람이는 다짜고짜 설총에게 물어왔다. 다람이의 눈에는 설총이 들고 있는 밥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설총은 자신이 얻은 것만큼이나 예쁜 단풍잎을 들고 있는 두 다람쥐를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 혹시 원효대사님을 뵈었니?”

소요산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는 다람쥐들이라면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않을까? 설총은 조그만 희망을 걸어보았다. 다람이가 배고파 죽겠다는 소람이를 힐끔 보고는 활짝 웃었다. 소람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럼! 아주 잘 알지! 아까 저기, 상백운대로 향하시던걸?”

“원효대사님이 누구……악!”

소람이의 발을 다람이가 꼭 밟았다. 소람이는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자신의 발을 잡고 나뉘굴었다. 다람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설총은 소람이의 말을 못들은 눈치였다. 의심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도하며 기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껌껌하던 차에, 다람이가 그것을 해결해준 것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람아, 다람아!”

“고맙긴, 우리는 비록 배가 고프지만, 아까부터 고생한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고생하기에 도와주고 싶었거든.”

힘없이 축 늘어진 다람이가 안쓰러워 보였던 설총은 자신이 먹고 있던 밥을 다람이와 소람이 앞에 펼쳐 두었다. 다람이는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밥으로 다가왔고, 소람이는 냉큼 달려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작은 두 다람쥐가 밥 앞에 앉아 먹는 걸 보니, 괜히 설총 자신이 다 뿌듯했다.

“우리에게 밥을 나눠줬으니깐, 좋은 정보 하나 알려줄게! 원효대사님은 도토리묵을 좋아하셔!”

기분이 좋아 보이는 다람이가 그렇게 외쳤다. 도토리묵? 어차피 단풍잎과 파랑새 깃털과 같이 도토리도 찾아서 목걸이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다. 찾는 김에 조금 더 많이 찾으면 도토리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설총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알려준 다람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상백운대라는 목표가 생겼으니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설총은 중백운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편지와 가락지, 나뭇잎과 깃털이 잘 있나 확인해 보았다. 편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나뭇잎도 그 색 그대로 붉게 빛나고 있었고, 파랑새의 깃털도 그대로였는데, 가락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리에서 뛰어 봐도 나오는 것이 없었다. 설총은 그 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아! 그래! 다람쥐들이라면 알 수도 있어! 다람쥐야!”

설총이 돌아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발도, 다람쥐 두 마리도, 꼭 조금 전 상황이 환상이었

던 것처럼 그 자리는 너무나 깨끗했다. 어찌지, 어떻게 하지. 도움을 청하려던 다람쥐들도 없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산. 인기척이 느껴질 리도 없었다. 아버지를 못 만날 때 못 만나더라도, 그 가락지만은 꼭 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줘야 했다.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설총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크게 슬퍼하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소람이와 다람이는 커다란 호박잎을 들고 산 속으로 뛰었다. 앞에서 뛰는 다람이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고, 뒤에서 뛰는 소람이는 계속 뒤를 힐끔 거렸다. 소람이의 조그만 눈에 설총의 울먹이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열심히 움직이던 호박잎 한 쪽이 기우뚱하며 멈춰 섰다. 다람이가 소람이를 돌아 보았다.

“너 원효대사님이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왜 거짓말했어? 도토리묵은 또 뭐고.”

“아예 거짓말 한 건 아니야. 예전에 어떤 스님이 상백운대로 향하는 걸 몇 번이나 봤었다고. 그래서 추측해본거야. 그리고 도토리묵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다람이를 소람이가 괜히 쳐다보다가 역시 뭔가 아닌지 몸을 돌렸다.

“그래도 이건 아냐. 그 아이가 뭔가를 찾았어! 분명 아까 떨어뜨린 걸거야. 너는 여기 있어. 나만 가더라도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래.”

“뭐? 소람아! 소람아!”

다람이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에 울려 퍼졌지만, 소람이에게는 전해지지 못했다. 소람이는 벌써 저만치 뛰어가고 있었다. 다람이는 호박잎과 소람이가 사라진 자리를 번갈아 보다가 호박잎을 버리고 뛰었다.

허허로운 증백운대에 잠시 동안 앉아 있던 설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거리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락지만은 꼭 찾아야 했다. 설총은 힘겹게 오른 증백운대를 뒤로 하고 하백운대로 향했다. 아이의 발걸음이 그렇게 힘겨워 보이긴 오늘 들어 처음이었다.

가락지를 찾기 위해 설총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바스락. 설총이 가락지를 찾는 와중에 풀숲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설총은 그 쪽을 주시했다. 잠시 후, 자그만 머리통 하나가 불쑥 풀숲에서 튀어나왔다. 소람이었다. 뒤이어, 옥가락지 한 짝도 같이 풀숲에서 튀어나왔다.

“이거 찾는 거 맞지?”

“어! 맞아! 그걸 찾고 있었어! 이걸 찾으려고 없어졌던 거구나.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설총이 가락지를 받아 들고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다. 정말 못 찾으면 어찌나 싶었는데, 이 다람쥐들은 자신을 두 번이나 도와주었다. 설총은 다람쥐의 부탁은 뭐든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설총을 보며 소람이가 다람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다람이가 설총의 앞에 섰다.

“사, 사실, 나는 원효대사님을 몰라. 매번 이 길을 지나다니시는 스님을 보고 추측한 것뿐이야. 이 시간대에 꼭 상백운대로 향하셨거든. 미안해. 나는 그냥 다른 친구들이 쌀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기에, 먹어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도토리묵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 해 본 말이야. 인간들 중에서도 싫어하는 이를 못 봐서.”

자기 스스로도 미안한 감이 있었던지, 다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설총에게 진실을 고했다. 설총은 멀뚱히 다람이를 내려다보다가 쪼그려 앉았다. 설총이 손을 뻗어 다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그런 조그만 단서라도 길을 잃은 나에게 길을 알려줬잖아. 그리고……아버지도 도토리묵을 싫어하시진 않을 거야. 그래, 상백운대에 가는 동안 도토리를 모으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개의치 않는 설총의 태도에 다람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설총은 비록 가락지를 잃을 뻔해서 큰 고충을 겪었지만, 다람쥐 친구들을 얻게 되었다. 길벗이 생긴 것이다. 설총이 가락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품에 넣고는 상백운대로 향했다. 아이 뒤로 다람쥐 두 마리가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소요산에 웃음소리가 퍼져 나갔다. 셋의 웃음소리였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하는지 셋은 즐거워 보였다. 소람이와 다람이는 설총의 어깨에 앉아 계속해서 재잘거렸다. 그래서 이랬는데, 이래서 그랬는데. 특히 다람이의 수다는 끊임없었다. 조금 시끌벅적하긴 했지만, 설총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신났다. 셋뿐인데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현재는 한참 다람이의 무용담을 듣는 중이었다. 제목도 거창하게 ‘매에게 승리를 얻어내다’였다. 소람이는 다람이가 떠드는 것과 상관없이 도토리를 주우러 동분서주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매의 눈을 발로 찼지! 매는 몸부림치더니 픽 고꾸라지더라고. 그러니깐 내가 매를 물리친 거야! 거기 있던 친구들이 나보고 영웅이라고 했어! 대단하지?”

다람이는 손짓, 몸짓 모든 것을 동원해 그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었다. 설총은 다람이의 무용담이 재미있어, 도토리를 주우면서도 귀 기울이고 있었다. 적당한 때에 추임새도 넣어가면서 말이다. 소람이가 도토리를 어른 한 주먹 만하게 주워 와서 설총에게 넘겨주며 다람이에게 핀잔을 줬다.

“대단하다, 대단해. 그게 네가 무찌른 거냐? 수호신께서 지켜주신 거지.”

“바, 반은 내가 했다, 뭐.”

반박 할 것이 없던 다람이가 항의하듯 증얼거렸다. 소람이가 혀를 내둘렀다. 그 날 수호신께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다람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 날의 끔찍한 기억을 재밌는 무용담으로 바꾸는 것도 다람이의 재주라면 재주라고나 할까. 설총은 둘의 대화를 듣다가 궁금해져서 소람이를 쳐다보았다.

“수호신이 누구신데? 소요산의 수호신이시여?”

“아. 너는 인간이라서 모르지. 응. 소요산의 수호신이시지. 진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파랑새의 모습을 하고 계셔.”

“뭐어?”

설총이 두 주먹에 쥐고 있던 도토리를 떨어뜨렸다. 소람이와 다람이가 깜짝 놀라 굴러가는 도토리를 잡으러 뛰었다. 다람이가 설총에게 뭐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나서야 설총이 펄떡 정신을 차리고 도토리를 주우러 뛰어갔다.

다람쥐들과 설총은 도토리를 주워 안전하게 천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설총은 조금 낮이 나간 듯 보였다. 다람이와 소람이가 서로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였다. 다람이가,

“왜 크러는 거야? 또 뭔가를 잊어 버렸어?”

하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나, 파랑새를 봤는데…….”

소람이와 다람이가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다람이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들도 평생 볼까 말까 한 파랑새님을 어찌 인간이 봤다 하는가. 다람이가 설총이 자신보다 말장난이 뛰어나다며 연신 웃어 짓혔다. 소람이도 처음엔 웃음을 참다가 다람이의 웃음이 커지자 따라서 크게 웃었다. 설총이 입을 비죽 내밀었다. 진짠데.

“진짜야! 내가 파랑새를 구해줘서, 이거, 이 깃털도 얻었는걸.”

보다 못해, 이젠 파랑새님을 구해줬단다. 다람이가 뒤로 나자빠졌다. 다람이와 소람이는 설총이 파란 깃털을 어디서 주운지 알았나보다. 설총의 불이 부풀어 올랐다. 증거까지 있는데 왜 자신을 안 믿어 주는 건지 몰랐다.

설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다람쥐는 상당히 재미있어했다. 둘만 하하 호호 웃던 그 때, 은은한 푸른 하늘과는 다르게 반짝이는 파란빛이 설총 일행 쪽으로 날아왔다. 다람이가 그 쪽을 자세히 쳐다보다가 화들짝 놀라며 설총의 어깨 위에서 떨어졌다. 데굴데굴 바닥을 구르다람이가 설총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파랑새를 올려다보았다. 파랑새가 사뿐히 설총의 머리 위에 앉았다. 상백운대까지 일리의 반도 안 남은 거리였다.

“방금 원효대사님께서 하산하셨어요. 흑여 헤메실까봐 이렇게 다시 찾아 배요. 하산 길까지 심심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친구들을 사귀셨네요.”

파랑새가 빙그레 웃으며 날개를 펴렷다. 파랑새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다시 소요산 너머로 사라져갔다. 설총은 파랑새에게 손을 흔들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소람이와 다람이는 믿기지 않는 관경에 넋이 빠져 있었다. 진짜 파랑새였다. 어깨가 으쓱해진 설총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후에 정신을 차린 두 다람쥐들이 설총에게 이것저것 물은 건 두말할 것도 없었다.

오후 내내 화창한 하늘이 이어졌다. 맑디맑아 비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한 날씨였다. 다람쥐들도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비는 쏟아지고 말았다. 다람쥐들은 부산스럽게 가까운 굴을 찾았다. 커다란 규모라서 어린 아이 한 명이 비 피하기에는 아주 적당해 보였다. 왜 하필 설총이 다쳤을 때 여우비가 쏟아지는지……, 하늘도 참 무심했다.

설총은 아까 계곡에서 빗갈이 아름다운 돌을 줍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말았다. 피가 흐르는 것을 다람쥐들이 가지고 있던 단풍잎으로 막아 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임시방편일 뿐이라 치료가 필요해 보였다.

“다쳤는데 왜 웃고 있어?”

소람이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설총을 보았다. 설총은 잡티 하나 없는 하얀 돌을 손에 쥐고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이 너무 순수해서 소람이는 더 이상 설총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했다. 얼마나 좋으면 이 상황에도 웃을 수가 있을까. 중백운대에서 단 한번 밖에 식사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배도 많이 고플텐데. 자신들은 도토리를 주우면서 하나씩 까먹기라도 했지만, 설총은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건가. 다람이와 소람이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었다. 자신들도 아버지가 있지만 말이다.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기에 네가 그렇게 찾으러 다니며 고생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

어떤 분인지 설총이 알 리가 없었다. 편지로 밖에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 설총은 갑자기 쏟아지는 여

우비를 쳐다보았다. 손을 뻗어 물줄기를 받아내며 설총이 조용히 말을 했다.

“모르겠어. 사실,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뵈 적이 없어. 어머니의 편지 속 아버지만 만나봤을 뿐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고 계신지, 나는 알 길이 없어.”

단지 상상만 할 뿐. 설총이 말끝을 흐리며 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런 곳에서 여우비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 그러니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고 속으로 새기고 또 새기는 설총이었다.

소람이와 다람이는 자신들이 잘못 물은 건가 싶어 조용해졌다.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뵈었다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묻다니, 자신들이 생각해도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두 다람쥐도 설총을 따라 빗줄기에 시선을 두었다.

“그래도, 좋은 분이셔. 그건 장담해. 어머니가 그렇게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걸 보면 분명 좋은 분이 실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럴 거야.”

어딘가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설총은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다. 부모님이 왜 만나지 못하는 건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왜 말을 해주지 않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설총 자신 또한 언제나 아버지를 그려왔다. 요석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설총은 아버지를 사랑했다. 편지로 알기 전 아버지나 편지로 알게 된 아버지나 설총에게는 모두 다 똑같은 ‘가족’이었다.

두 다람쥐와 설총은 조금씩 그칠 기미를 보이는 빗방울들을 쳐다보았다. 설총은 끌어안은 다리를 좀 더 꼭 안았다. 다람쥐들은 그런 설총 옆에 꼭 붙어 있었다.

“난 만날 부모님께 투정만 부렸는데.”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별로 안 친해.”

다람이에 이어 소람이가 말했다. 둘은 설총을 올려다보았다. 설총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방긋 웃어 보였다. 소람이와 다람이도 따라 웃었다. 셋은 한동안 그렇게 웃었다.

“빨리 아버지를 뵈고 싶다. 이 편지랑 선물을 전해 주고 싶어.”

셋은 거의 다 그쳐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람이와 소람이는 설총의 손에 자신들의 작은 두 손을 겹치곤 꼭 뿔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두 다람쥐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인기척 하나 없는 곳에서 두 다람쥐와 있는 것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설총이었다.

가늘게 내리던 빗방울이 하나 둘 사라지더니 비가 그쳤다. 하늘은 그대로인데 빗방울만 쏟아 붓던 여우비가 그친 것이었다. 설총의 마음이 약간 조금해졌다. 설총은 자신이 다쳤단 것을 생각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바로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소람이와 다람이가 우왕좌왕하며 서로 약초를 구하러 가겠다고 나섰다.

“내가 갈 거야. 너는 혹시 모르니 여기 있어.”

“싫어. 내가 갈 거니깐, 네가 여기 있어.”

싸우다가도 타협을 했다가도 또 싸웠다. 둘의 다툼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보다 못한 설총이 둘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자신이 찾으러 가는 것이 더 빨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픔을 꼭 참고 일어나보려던 설총이 울상을 지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시기에 파랑새가 굴로 날아들었다. 어쩌면 파랑새는 이때껏 계속 설총

을 걱정해서 따라다녔는지도 몰랐다. 설총이 필요할 때에 나타나는 걸 보면, 파랑새는 걱정스레 설총을 보다가 입에 담아온 선녀탕 물을 설총의 상처에 뱉었다. 선녀탕 물이 상처에 닿자 순식간에 아물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단 몇 초 만에 새살이 돋은 상처 부위를 설총과 두 다람쥐는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역시 수호신이라 그런지 특별한 힘이 있는 거구나! 두 다람쥐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한 거야?”

“선녀탕 물을 떠온 거예요.”

선녀탕 물이 효험이 있는 거구나. 설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백운대 갈림길까지 동행해도 될까요? 걱정이 돼서…….”

“물론이지. 걱정 시켜서 미안해.”

“아니에요. 은인께 뭐든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파랑새가 설총 주위를 날다가 먼저 앞장섰다. 그 뒤를 두 다람쥐가 꿈이야 생시야 하며 따랐고, 설총도 천천히 발을 떼었다. 정오보다 한시진 일찍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해가 산 중턱에 가까워져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소요산의 색다른 면을 보았고, 파랑새와 다람쥐 친구가 생겼다. 결코 잃고 간 것이 없었다.

설총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가 소요산이었다.

“빨리와!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야지!”

앞서 가던 다람쥐가 설총이 따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외쳤다.

맑은 하늘 위에서 비행하는 파랑새와 알록달록 물든 나뭇잎 위에 가을의 색을 띄고 있는 두 다람쥐, 그리고 설총 품에 든 편지와 선물, 그 모든 것이 소요산이 준 것과 같았다. 친구와 가족, 설총은 믿었다. 이 마음이 꼭 아버지에게 전해질 거란 것을. 아버지는 알 것이다.

“어, 어! 같이 가!”

파랑새와 두 다람쥐가 설총을 기다렸다가 설총이 다가오자 동시에 발을 내딛었다. 설총은 이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다음번에도 만나러 와야겠다고 설총은 생각했다. 그땐 아버지 때문이 아닌, 이 작은 친구들을 위해서 말이다.

설총이 다녀간 후 하루가 지났다. 자재암에선 떨어진 나뭇잎을 쓰는 동자승이 있었다. 한번쯤은 불평을 터뜨릴 만도 한데, 어린 스님은 의젓하게 나뭇잎을 쓸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이미 포기하고 불경을 외우러 간 지 오래였지만, 동자승만은 떨어지고 떨어지는 가을 낙엽들을 쓸었다. 한참을 낙엽만 쓸던 동자승의 눈에 예쁜 색 단풍잎 하나가 띄었다. 동자승은 그것을 집어 들었다.

빨간색이 선명하게 물든 단풍잎을 보자, 어제 저녁 때 좀 자재암을 다시 찾아 왔던 설총이 생각났다. 설총은 어찌 원효와 자꾸 어긋나는 운명을 지닌 모양이었다. 하루에도 세 번이나 어긋나는 걸 보면, 분명 한 것 같았다. 처음 자재암에서, 그 다음 소요산 산길에서, 다시 자재암에서.

소요산에서 돌아 오시자마자 바빠 어딘가로 또 가셨다는 동자승의 말에 한껏 풀이 죽은 설총의 모습이 동자승의 눈에 아직도 선했다. 어찌나 기운이 없어 보이던지, 실망이 커 보이는 설총이 안쓰러워 동자승은 설총의 부탁을 덜컥 들어주고 말았다. 다른 스님들이 아시면 경을 칠 일이었다.

외부의 서찰을 자재암 안으로 들이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었다. 특히 사사로운 서찰이면 더더욱. 설총이 건넨 종이뭉치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긴급하게 보내오는 서찰로는 안 보였다. 동자승도 그 건 알았다. 알았지만, 설총의 표정이 너무 절실해서 차마 부탁을 안 들어 줄 수가 없었다. 설총에게는 분명 제 목숨보다도 중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동자승은 색 예쁜 단풍잎을 만지작거리다가 원효가 기거하는 작은 방을 쳐다보았다. 당시 설총은 편지와 함께 무언가를 더 주었다. 옥가락지 한 짝하고, 천주머니에 가득 든 도토리묵과 얼기설기 꿰어 놓은 목걸이.

“목걸이는 그럴 수 있는데, 왜 도토리를 그리 많이 주워온 걸까?”

동자승은 그것이 의문인 것 같았다. 천주머니를 건네주면서 도토리묵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원효의 상 앞에 도토리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종이뭉치가 보였다. 원효는 엉성하게 만들어진 목걸이를 한 손으로 쥐고 아무 말 없이 불경이 써진 서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서책이 넘어가는 소리와 방문을 열어놓아 바람이 드나드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원효는 미동도 없이 그 상태로 계속 불경을 외워나갔고, 그 모습을 밖에서 지나가던 한 스님이 발견했다. 스님이 의아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원효대사님, 어째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토리묵을 앞에 두고 불경을 외고 계십니까?”

스님이 말을 걸자, 그제야 서책에서 시선을 떼는 원효가 보였다. 원효는 도토리묵을 한참동안 바라보다가 알 듯 말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스님은 여전히 모르겠다는 눈치였지만, 원효는 알았다. 그래서 미소가 나왔다.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소요산 대모험! 요석공투의 연리지를 구해라

최지훈 · 이유성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절한 사랑을 형상화한 연리지를 기본 모티브로 동두천과 소요산의 다양한 자연, 문화, 관광 자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스토리를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두천과 소요산의 다양한 캐릭터와 인물, 장소, 설화 역시 스토리에 적극적으로 등장시켜 스토리의 소재로 활용 하였습니다..</p>
<p>스토리 구성 (Plot)</p>	<p>이야기의 진행 순서는 마치 실제로 소요산을 한 바퀴 돌아보듯 소요산역부터 시작하여 연리지문, 속리교를 지나 백운대, 칼바위, 나한대, 의상대, 공주봉을 모두 돌아본 후 다시 연리지문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p> <p>또한, 주인공들이 소요산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사건(요석공주의 연리지를 다시 붙이는일)과 각각의 소요산 지점(백운대, 의상대 등)에서의 중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위 사건을 해결해야하는 구조로 구성하여 재미와 극적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습니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뒷장 별지에 첨부</p>

등장인물

영호 : 21세 대학교 남학생으로 지현을 짝사랑하는 순정파이지만 평소 남자다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성격. 하지만 지현이 위기에 처하면 용기와 재치가 발휘되어 문제를 척척 해결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지나 갈 수 없는 착한 성격

지현 : 21세 대학교 여학생으로 영호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남자다운 모습이 없는 영호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에 책임 질 줄 아는 착한 성격

소람이 : 소요산의 자연, 문화에 해박하며 요석공주를 보필하는 다람쥐. 영호와 지현에게 소요산 이곳 저곳을 소개해주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 사건 해결을 위해 영호와 지현을 다그칠 줄 아는 조금은 쌀쌀한 맛은 성격.

요석공주 : 원효대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천년 동안 기도를 드릴 정도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지닌 여인.

어유소 장군 : 조선시대 무신으로 북벌의 명장답게 소요산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인물. 의상대에서 소요산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으며, 이무기를 대적할 만큼 뛰어난 무술 및 도술 실력을 겸비한 남자

이무기 : 용이 되지 못한 거대한 크기의 뱀의 모습을 한 한국 전통 설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동두천 설화 '쇠목의 이무기'와 동기이며 평소에는 금송굴에 파리를 틀고 잠을 잔다. 소를 먹는 것을 좋아하며 포악한 성격.

백운 삼형제(하백, 중백, 상백) : 백운대의 세 봉우리인 하백운대, 중백운대, 상백운대에 살며, 소요산에서 가장 튼튼한 그릇을 만들기로 유명하다. 또한 세 명의 형제가 모두 우연히 선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자재암 사자 : 평소에는 자재암에 머물며 석등 들고 있는 사자 모양의 조형물 이지만 석등을 내려놓으면 소요산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된다.

나한전 문지기 : 자재암 나한전 앞에 위치한 도깨비. 평소에는 나한전 앞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맛있는 물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시늬시늬

1. 소요산과의 인연이 시작되다 : 소요산역, 소요 맛 거리

영호와 지현이 이른 아침 소요산역에 도착한다. 영호는 지현을 짝사랑 하지만 지현은 영호가 그저 친구로 느껴질 뿐이다. 그런 영호와 지현이 이른 아침 소요산역에 도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영호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사랑이 이뤄진다는 소요산 연리지문을 지현과 함께 지난다면 왠지 좋은 인연이 시작 될 것 같아서이다. 그리하여 영호는 지현에게 용기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하였고, 당황한 지현은 얼떨결에 영호의 데이트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영호와의 데이트를 잔뜩 기대했던 지현은 이른 아침부터 소요산으로 향하자 뽀로통 해진다. 하지만 기분 좋은 영호는 지현을 이끌고 소요산역과 소요 맛거리를 지나 소요산으로 들어간다.

2. 연리지문은 사랑을 이뤄 줄까? : 건강오행로, 연리지문

소요산 초입의 건강오행로를 지나 수려한 단풍이 어우러진 산책로를 영호와 지현은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리고 그 둘은 연리지문에 도착하였고 연리지문의 의미를 알게 된 지현은 부끄러워하며 자신에 대한 영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다. 하지만 지현은 여전히 영호가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3. 누가 연리지를 꺾었는가? : 요석공주 별궁지, 일주문, 속리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가던 영호와 지현은 요석 공주 별궁지에서 우연히 작은 크기의 연리지를 발견한다. 지현은 연리지를 신기해하며 두 나무가 붙은 부분을 살짝 만져본다. 그러자 연약한 연리지 가지는 부러지고 만다. 연리지 가지를 부러트린 일에 울상이 된 지현과 영호는 일주문을 지나 속리교 앞에서 울고 있는 요석공주를 만난다.

요석 공주가 울고 있는 이유는 이리하였다. 소요산에서 수행 끝에 극락으로 들어간 원효대사는 아직 덕이 부족한 요석공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 그것은 정성껏 기도를 드려 두 나뭇가지가 하나의 가지로 이어지는 연리지가 되면 요석을 극락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속리교 건너편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요석의 기도로 인해 두 나무가 연리지가 되었지만 지현 때문에 부러져 다시 천년을 기도해야만 했다.

부러진 연리지 가지를 붙이는 방법은 요석이 들고 있는 작은 크기의 깨진 호리병을 들고 속리교를 건너

인간의 세계 속세가 아닌 소요산의 신들이 모여 사는 선경에 들어가 백운대에 있는 백운 삼형제에게 깨진 호리병을 고친 후, 금송굴의 이무기가 지키고 있는 소나무의 송진 일곱 방울을 담아와 부러진 연리지에 뿌리면 되는 것이었다.

요석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요석공주의 사랑의 기도가 충만히 깃든 연리지 가지를 지현이 꺾었기 때문에 한 평생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저주에 걸렸고, 지현이 직접 송진을 호리병에 담아 와서 연리지를 붙이는 방법만이 그 저주에서 풀리는 길이었다.

그런 요석 공주의 말을 영호와 지현이 믿지 않자 요석공주는 도술을 사용하여 돌맹이를 소람이(다람쥐)로 변신시켜 영호와 지현을 깜짝 놀래 킨다.

4. 자재암의 사자를 찾아라! : 원효폭포, 원효암 일대, 자재암

요석공주의 도술 보고 모든 것을 믿은 영호와 지현은 속리교를 지난다. 원효폭포가 보이는 곳에 냇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 영호와 지현에게 소람이는 자신이 들고 있는 다섯 가닥의 단풍 나뭇잎이 모두 시들게 되면 지현과 영호는 다시 속세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 해준다. 그리고 그 시간은 두 시간 정도라는 것도 함께 전해준다. 백운대를 지나 금송굴까지 다녀오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영호가 소람이에게 말하자 다 방법이 있다며 영호와 지현을 자재암으로 안내한다.

108계단과 해탈문, 백운암을 지나 자재암에 도착한 영호 일행은 무거운 석등을 들고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소요산을 가장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사자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사자는 무거운 석등을 들고 있어야 하기에 도와 줄 수 없다고 영호 일행에게 이야기 한다.

영호는 자재암 한전 앞의 문지기를 보고 꾀를 내게 된다. 영호는 빈 호리병에 원효 샘물 보다 맛있는 약수가 있다고 말하며 사자에게 물을 주는 척을 한다. 그 말은 들은 문지기는 자신도 맛을 보고 싶다며 부탁을 한다. 하지만 영호는 물을 다 먹었다며 산 아래에 한병 더 있다며 문지기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사자를 타고 금방 다녀올 테니 잠시 석등을 들어 달라고 문지기에게 부탁한다. 문지기는 흔쾌히 영호의 말을 들어주며 사자 대신 석등을 든다. 하지만 문지기가 석등을 모두 들자 영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산 아래가 아닌 백운대 방향으로 떠나게 된다.

5. 백운 삼형제중 누가 선녀와 결혼해야 하는가? : 백운대, 선녀탕

재빠른 사자를 타고 백운대를 돌아보던 영호 일행은 상백운대에서 선녀탕으로 내려가는 하산로 근처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백운 삼형제(상백, 중백, 하백)를 찾는다.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형제가 서로 선녀탕의 선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운 삼형제는 지현에게 누가 선녀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부탁하며 각자 선녀와의 인연을 이야기한다.

삼 형제의 이야기를 듣던 중 영호는 형제가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선녀를 만난 것과, 선녀복장과 얼굴의 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사자와 함께 선녀탕으로 내려간다. 잠시 후 영호는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선녀와 돌아온다. 영호는 삼형제가 각기 다른 선녀를 만난 것임을 알아채고 선녀탕에서 세명의 선녀를 데려온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백운 삼형제는 요석 공주의 호리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 영호에게 무엇이든 넣으면 두 개로 변하는 마법 사발을 준다. 하지만 그 마법 사발을 쓸 수 있는 것은 딱 한번이라는 말도 들려준다. 또한 이무기에게 가기 전에 의상대에 어유소 장군에게 들려 조언을 구하라고 말해준다.

6. 어유소 장군의 특급 작전 : 칼바위, 나한대, 의상대

칼바위와 나한대를 지난 영호 일행은 의상대에서 이미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어유소 장군을 만난다. 어유소 장군은 이무기를 처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영호와 지현은 어유소 장군이 일러준 대로 방향을 나누어 영호는 공주봉으로, 지현은 금송굴로 향한다.

7. 이무기를 마주하다! : 공주봉 금송굴 구절터

영호는 소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무기를 금송굴에서 불러내기 위해 어유소 장군이 나무토막을 둔갑시킨 소를 데리고 공주봉에 오른다. 그리고 소의 엉덩이를 때려 울음소리가 나게 하자 금송굴에서 자고 있던 이무기가 신이 나서 공주봉으로 달려왔다. 그 사이 금송굴에 미리 숨어있던 지현은 이무기가 자리를 떠나자 금송굴 앞의 소나무의 송진 일곱 방울을 호리병 담아 영호를 다시 만나기로 한 구절터로 향하였다.

하지만 공주봉에서 소가 가짜임을 안 이무기가 지현과 영호를 구절터로 아와 공격한다. 위험에 처한 영호와 지현을 보고 의상대에서 어유소 장군이 달려와 이무기와 싸운다. 그리고 어유소 장군은 도술을 부려 이무기를 돌무더기에 가두지만 발버둥 치던 이무기 때문에 지현이 들고 있던 송진이 담긴 호리병이 깨지게 된다.

지현은 망연자실하며 깨진 호리병에 남은 네 방울의 송진을 바라본다. 그러던 중 영호는 백운 삼형제에게 받은 마법 사발을 꺼내 자신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지현을 위해 호리병에 남은 송진을 넣는다.

8. 소요산은 사랑을 싣고 : 다시 속세로

영호와 지현은 아침에 보았던 요석공주 별궁지 앞을 다시 찾아 백운 삼형제의 마법 사발을 열고 거기에 고인 송진을 조심스럽게 부려진 연리지 가지에 뿌린다. 부러진 연리지는 다시 붙고 지현과 영호는 요석공주, 소람과 작별한다. 그리고 지현은 소요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영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소요산에서 내려간다.

소요산 대모험! 요식공투의 연리지를 구해라

1. 소요산과의 인연이 시작되다 :소요산역, 소요 맛 거리

소요산역으로 수도권 1호선 지하철 열차가 가을 아침의 햇살을 받으며 미끄러지듯 들어온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形形色색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동두천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밝은 얼굴로 내린다. 그런 등산객 사이에서 짜증 어린 하품을 하고 있는 지현이 끼어있다. 그리고 지현의 옆에는 배낭을 짊어 멘 영호가 서있다.

“지현아, 역시 동두천 아침 공기가 참 좋지 않나?”

“그러게. 일요일 아침 일찍 부터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네!”

지현은 영호의 말에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런 지현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냥 신이 난 영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소요산역을 빠져나갔다.

투덜거리는 지현과, 그런 지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영호가 이른 아침 소요산역에 도착 한테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현을 오랫동안 짝사랑 하고 있는 영호가 용기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다.

지현도 영호가 싫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남자답지 못한 영호의 모습 때문에 남자친구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영호의 데이트 신청은 지현에게 갑작스런 일이었다. 영호는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만나자며 일방적으로 지현에게 말 하였고, 당황한 지현도 얼떨결에 승낙 해버렸다. 그리고 영호는 지현에게 편한 신발을 신고 오라는 말도 덧붙였다.

영호와의 데이트에 설레며 아침 일찍 서울역에 나간 지현은 등산복 차림의 영호를 만나 놀랐다. 그리고 그 둘의 데이트 장소가 소요산이란다 한 번 더 놀랐다. 하지만 영호가 지현을 소요산으로 데려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며 본 소요산 연리지문의 한 문구 때문이다.

‘이 문을 지나가는 모든 연인이 연리지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진정 기원합니다.’

영호는 아직 지현과 연인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얽혀 같이 자라나는 사랑의 상징인 소요산 연리지문을 함께 지나며 되면 지현과 좋은 연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용기 내어 지현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서 동두천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소요산에 한 번에 올 수 있는 것도 편리하고 좋은 점이였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수도권 최고의 단풍 명산인 소요산은 이미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각광받는 데이트 코스였다.

소요산역에서 나와 찾길을 건너 오른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자 소요 맛거리가 영호와 지현을 맞이했다.

“너 이렇게 사람 아침부터 불러놓고 맛있는 것 안 사주기만 해 봐.”

역을 빠져 나오는 내내 투덜거리던 지현은 길 양쪽으로 늘어선 음식점을 바라보며 영호에게 말했다. 정감 넘치는 소요 맛거리의 음식점 모습을 보니 벌써부터 배가 고픈 지현이었다.

“걱정 마. 벌써 소요산에서 맛있는 음식점은 다 찾아 봤어. 인터넷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소요산 관광

정보는 물론이고 음식점 정보까지 모두 미리 보고 왔지. 등산하고 내려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영호와 지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요산으로 향했다.

2. 연리지문은 사랑을 이뤄 줄까? :건강오행로, 연리지문

영호와 지현은 파랑, 빨강, 노랑, 하양, 검정 다섯 가지 색깔의 문으로 이루어진 건강오행로 부터 시작된 소요산의 산책로를 걸어갔다. 소요산에 방문한 모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여 동양의 음양오행을 응용한 건강오행로를 걸으니 두 사람은 산에 모두 오르기도 전에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게다가 바람이 살랑거릴 때마다 머리끝을 스치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마치 터널 같이 계속 이어져 있어 걸으면 걸을수록 영호와 지현의 마음도 기분 좋게 살랑거렸다.

맑은 계곡을 끼고 있어 상쾌함을 더하는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던 영호와 지현은 연리지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두 나뭇가지가 얽혀있는 모습의 화사한 연리지문이었다. 영호는 지현을 이끌고 수줍게 연리지문 앞으로 다가갔다. 연리지문 앞에는 단풍잎을 든 다람쥐 모습이 동두천의 마스코트 소람이가 반갑게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연리지문? 무슨 뜻이지?”

지현이 연리지문을 바라보며 이야기 했다.

“글세..., 나도 연리지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 저기 소람이 옆에 설명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

이미 연리지 문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영호는 지현의 질문에 부끄러워져 잘 모르겠다는 어설픈 연기와 함께 말했다.

“연리지문은 두 나뭇가지가 서로 얽혀 같이 자라는 모습을 뜻하며 부부, 연인간의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래. 아치의 좌측은 원각의 도를 위해 정진하는 원효대사를 형상화 하고, 우측은 지순한 사랑을 품은 단풍처럼 화사한 요석공주를 형상화 하여 두 사람의 애뜻한 사랑이 천년이 지나 연리지처럼 이어지는 것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문을 지나는 모든 연인이 연리지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현은 연리지문의 설명을 다 읽기도 전에 부끄러운 듯이 뒷말을 흘려버렸다. 그리고 영호는 지현의 설명을 잘 못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벌써 연리지문을 지나 서있었다.

“야. 김영호 같이 가.”

지현은 영호가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에 일부러 소요산 연리지문으로 오자고 한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며 영호를 따라 연리지문을 지났다. 하지만 지현은 여전히 영호가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3. 누가 연리지를 꺾었는가? : 요석공주 별궁지, 일주문, 속리교

영호와 지현은 연리지문을 지나 소요산 매표소를 향해 걸어갔다. 그 둘이 걸어가는 산책로에는 원효와

요석의 캐릭터로 꾸며놓은 벽화 및 구조물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원효와 요석의 사랑이야기가 적힌 안내문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안내문에는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와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설화는 물론, 그 후 스스로 속인의 옷을 입고 여러 사람에게 불교를 전한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특히 영호와 지현은 소요산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원효를 보기 위해 아들 설총을 데리고 이곳으로 찾아와 아침, 저녁으로 원효를 향해 기도를 올린 요석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적혀 있는 내용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원효와 요석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시 앞으로 걸어가던 두 사람은 요석공주 별궁지 앞에 도착하였다.

“이곳이 바로 요석 공주가 설총과 함께 원효대사를 기다리면서 매일 기도를 드리며 살았던 곳이래.”

영호가 요석공주 별궁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현은 신라시대 사람이 살던 자리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다는 듯 요석 공주 별궁지를 주변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영호야, 저것 좀 봐! 저게 연리지인가?”

요석 공주 별궁지의 주변을 바라보던 지현이 뒤편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현의 말대로 정말 연리지가 있었다. 아직 작은 크기이긴 했지만 뿌리가 서로 다른 두 나무의 나뭇가지가 마치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한데 이어져 있었다.

“이 나뭇가지 너무 신기하지 않니?”

지현이 두 나뭇가지가 이어져 있는 부분을 살짝 어루만지며 이야기 했다. 두 나무는 이제 막 불기 시작한 모습이었다.

“지현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살짝만 만져도 부러질 것 같은데?”

영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현이 살짝 손을 대고 있던 두 가지가 붙어있던 부분이 부러지고 말았다. 지현은 당황해 하며 두 가지를 다시 이어보려 했지만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나 어떻게 해... 저 소중한 나무를 부러트려 버렸어.”

작은 잘못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착한 마음의 지현은 요석공주 별궁지를 지나 매표소에 이를 때까지 울상이 되어버린 얼굴이었다. 그리고 매표소를 지나 영호와 지현은 소요산의 단풍과 어우러져 더욱 멋진 일주문을 맞이하였다.

“경기소금강?”

지현이 일주문 현판에 적힌 한자를 읽어 보았다.

“소요산의 가을 단풍이 봄철의 꽃과 같다고 할 정도로 유명해서 예전부터 경기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곤 했대.”

영호가 지현에게 일주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하지만 경기의 금강산인 소요산에 들어가는 지현의 표정은 연리지를 부러트린 일로 아직도 밝지 못하였다.

일주문을 지나 영호와 지현은 속리교 앞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인을 볼 수 있었다. 여인의 모습은 방금 전 산책로에서 보았던 요석 공주 캐릭터와 비슷한 신라시대 복식이었다.

“소요산에는 원효대사와 소요공주의 설화가 유명하다더니 저렇게 속리교 앞에서 요석공주와 관련된 행사를 하나봐. 지현아, 우리 가서 같이 사진 찍을까?”

영호가 연리지를 부르트린 일로 울적한 지현의 기분을 풀어 주고 싶어 한층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행사처럼 보이지는 않은데? 저것 봐, 지금 저 여자 울고 있잖아.”

지현의 말대로 속리교 앞에선 신라시대 복식의 여인은 서글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호의 물음에도 여인은 아무 대꾸 없이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어디 다치시거나 아프신가요? 제가 119나 경찰서에 전화 할게요.”

이번에는 지현이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먹이던 여인은 어느 정도 진정 찾은 뒤에야 입을 뗐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천년 만에 드디어 속리교를 건너 저의 부군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안타깝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와 지현은 젊은 여인의 이야기에 조금 어리둥절하였다.

“무슨 일 때문에 부군을 만나지 못하시나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되물었다.

“저의 부군이신 원효대사께서 제 앞에 놓인 속리교를 건너 소요산에서 만고의 수행 끝에 극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극락에 들어가시기 전 아직 덕이 부족하여 현세에 남아있는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정성껏 기도를 드려 두 나뭇가지가 하나의 가지로 이어지는 연리지가 되면 저를 극락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속리교 건너편에서 기다리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저의 기도가 드디어 하늘에 닿았는지 두 개의 나무가 연리지가 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에 이곳 속리교에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계신 낭자께서 실수로 제 연리지 가지를 부르트리시는 바람에 저는 다시 천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말을 마친 여자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현과 영호는 여인의 말에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현이 연리지 가지를 꺾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천년을 살았다거나, 자신의 부군이 원효대사라는 여인의 말을 그 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당황스러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영호와 지현이었지만 착한 심성의 그 둘은 여인이 혼자 서럽게 울었기 때문에 쉽게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제가 연리지가지를 꺾은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부러진 나무를 다시 붙일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 드릴 수는 없을까요?”

지현이 친절하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한 가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요.”

지현과도 관계가 있다는 말에 영호와 지현은 다시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요? 이무기가 지키는 금송굴 소나무 송진이요? 허허허...”

여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영호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현도 여인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자신을 요석공주라고 소개한 여인의 말을 이리하였다. 자신이 들고 있는 작은 크기의 깨진 호리병을 들고 속리교를 건너면 인간의 세계 속세가 아닌 소요산의 신들이 모여 사는 선경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운대에 있는 백운 삼형제에게 깨진 호리병을 고친 후, 금송굴의 이무기가 지키고 있는 소나

무의 송진 일곱 방울을 담아와 연리지에 뿌리면 부러진 가지를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현은 요석공주의 사랑의 기도가 충만히 깃든 연리지 가지를 꺾었기 때문에 한 평생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저주에 걸렸다고 했다. 지현이 직접 송진을 호리병에 담아 와서 연리지를 붙이는 방법만이 그 저주에서 풀리는 길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요석공주님, 아니 아가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물론 속리교가 속세에서 잠시 벗어나 소요산을 즐기다 온다는 뜻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들려주신 이야기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울고 계신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영호가 여인에게 말하며 지현과 함께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여인이 다시 그 둘을 불러 세웠다.

“물론 속세에 계신 분들이라 저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시겠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저의 말을 조금 믿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지현의 발밑의 작은 돌멩이를 주워 영호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주문을 외우자 그 돌멩이가 펑 소리와 함께 다람쥐로 변하였다. 영호와 지현은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4. 자재암의 사자를 찾아라! : 원효폭포, 원효암 일대, 자재암

“영호와 지현은 속리교 건너편에 낮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등산객으로 붐볐던 속리교를 요석공주의 호리병을 들고 건너자 소요산에는 영호와 지현만 있는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 둘은 속세를 떠나 소요산의 선경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 한심한 인간들아, 이려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요석공주가 도술을 부려 변신시킨 작은 다람쥐가 영호와 지현을 다그치며 이야기 했다. 그 다람쥐는 바로 붉은 단풍 나뭇가지를 든 동두천의 마스코트 소람이었다. 영호는 자신의 앞에 단풍나무를 들고 말하고 있는 다람쥐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는지 자신의 뺨을 살짝 꼬집어보기도 하였다.

“다람쥐..., 아니, 소람아. 그러면 아까 그 아가씨가 요석 공주님이고, 우리는 그 이무기가 지키는 금송굴 소나무 송진을 가져오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 그 송진인지 뭔지를 요석공주님이 직접 가져오면 되지 왜 우리에게 시키는 거야? 아까 보니까 도술도 부리실줄 아는 것 같던데?”

영호가 소람이에게 물었다.

“너는 저기 보이는 원효대사님께서 도를 깨치셨다는 원효폭포를 보고도 그렇게 한심한 질문을 해야겠냐?”

영호는 소람이의 말에 10m높이에서 힘차게 물을 뿜어내는 원효 폭포의 장관에 눈이 돌아갔다. 그런 영호를 소람이가 다시 다그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까 요석공주님이 말씀 하셨듯이 네 옆에 있는 지현 남자가 연리지를 꺾어버리는 바람에 지현 남자는 다시는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저주에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현 남자가 직접 호리병에 담은 송진으로 연리지를 붙이지 않는 한 다시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닥거

릴 시간이 없어! 내가 들고 있는 이 다섯 가닥의 단풍 나뭇잎이 모두 시들게 되면 너희는 다시 속세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소람이가 영호와 지현 앞에 다섯 가닥으로 나누어진 붉은 단풍 나뭇잎을 내밀며 말하였다.

“그 단풍나무 가지가 모두 시드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이번에는 지현이 소람이에게 물었다.

“너희 인간의 시간으로 치면 두 시간 정도?”

“뭐? 그럼 두 시간 동안 우리가 백운대에 올랐다가 금송굴에도 가야 된단 말이야? 아까 산 입구에서 등산코스를 보니 백운대를 모두 돌아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것만 해도 두 시간이 걸린다고. 게다가 나 현대 아래쪽에 있는 금송굴을 들려서 오는 일은 불가능해!”

영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소람이에게 대꾸하였다.

“그래서 요석공주님이 너희를 도와주라고 소요산 지리에 흰한 나를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단풍잎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 주신거란 말이지. 그리고 산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알고 있어. 소요산에서 가장 빠르게 산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자재암 사자님께 부탁하면 돼.”

“자재암 사자님?”

영호와 지현은 소람이의 말에 머리를 갸우뚱 거렸다.

자재암의 사자를 생각하며 원효폭포를 뒤로한 영호는 소요산 등산로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자재암으로 향하는 왼쪽 방향과 공주봉으로 향하는 오른쪽 방향이었다. 영호는 자재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지현이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기위해 금송굴의 송진을 가지고 꼭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였다.

영호는 굳은 다짐과 함께 씩씩하게 자재암으로 향하는 첫 걸음인 108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108 번뇌를 다스리는 승려가 된 듯 한걸음 한걸음이 결의에 차있었다. 오랜만에 산에 오르는 지현이었지만 금송굴의 송진을 가져오지 못하면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볼멘소리 한마디 없이 108 계단을 올랐다.

108 계단의 끝에는 속세의 수많은 번뇌를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지닌 해탈문이 영호와 지현을 기다렸다. 소람이는 재빠른 걸음으로 벌써 해탈문에 매달린 종을 치며 영호와 지현이 오기를 기다렸다.

“108 계단을 지나 해탈문에 이르니까 개운한 기분이지? 짧은 길이의 계단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곳이 바로 108계단과 해탈문이야. 너희도 연리지 꽃만 꺾지 않았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연꽃, 만다라꽃과 같은 멋진 문양이 새겨진 이 해탈문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겠지?”

소람이가 영호와 지현을 놀리듯 이야기 했지만 수려한 경관과 함께 조화가 어우러진 해탈문은 바로 앞의 원효대와 함께 소요산의 유명한 포토존이었다.

영호와 지현은 해탈문을 지나자 원효대사가 도를 깨우쳤다는 원효대를 볼 수 있었다. 원효대 정면으로 보이는 관음봉과 가을 단풍이 함께 어우러진 수려한 경치를 보자 영호는 시간만 넉넉하다면 사진으로 멋진 풍경을 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가야할 길이 바쁘긴 했지만 원효대의 절경은 영호와 지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원효대를 지나자 한국 고유의 정취가 살아 숨 쉬는 듯한 아름다운 돌담길과 그 길 위에 고즈넉한 사찰이 영호의 눈에 들어왔다.

“소람아. 저기 돌담길 위로 보이는 절이 자재암이니?”

영호가 자신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소람이를 향해 외치듯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소람이는 어느새 영호가 있는 곳까지 짹짹 달려오더니 영호의 발목을 깨물었다.

“아야! 갑자기 왜 깨무는 거야?”

영호가 깜짝 놀라 또다시 소리를 지르자 소람이는 자신의 코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보이며 영호와 지현에게 속사이드 말했다.

“저기는 자재암이 아니라 백운암이야. 속세에서는 많은 스님들께서 수행하는 곳이지. 여기 선경에서도 마찬가지야. 덕 있는 도사님들이 수행하시는 곳이니 이 길을 지날 때에는 조용히 지나야 한단 말이야.”

소람이의 말을 들은 영호와 지현은 조심해서 백운암 밑 돌담길을 걸어 나갔다.

백운암을 지나 계단을 오르자 가을 단풍과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천년고찰 자재암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가 바로 자재암이야. 너희도 알겠지만 원효대사님이 창건하신 유서 깊은 사찰이지. 자재암 앞으로는 물소리가 쾌청한 청량폭포가 흐르고, 양 옆으로는 만물상과도 같은 기암괴석들이 자리 잡고 있는 소요산의 보석과도 같은 사찰이지. 그리고 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과 삼성각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동굴에 위치한 나한전까지 하나하나가 그 멋을 자랑한다. 특히 나한전 옆에 원효샘의 맑고 깨끗한 물은 물맛 좋기로 유명한 약수중의 약수라고 할 수 있지.”

소람이의 자재암 설명을 들은 영호와 지현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경치를 감상하는데 정신이 없었다.

“소람아,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자재암 어디에 사자가 있다는 거니?”

자재암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지현은 눈을 찧고 찾아보아도 사자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바로 저기 석등을 들고 계신 사자님이 안보인단 말이야?”

소람이가 청량 폭포 옆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을 들고 두 마리의 사자 모양의 석등이 서있었다. 소람이는 석등으로 다가갔고, 지현과 영호는 의아해 하며 소람이의 뒤를 따랐다.

“사자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요석공주님을 보필하고 있는 소람이입니다.”

소람이가 석등에 대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돌로 되어 단단했던 사자의 얼굴이 소람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람이와 영호, 지현을 쳐다보았다.

“그래. 소람이로구나. 그런데 뒤에 있는 녀석들은 누구냐? 보아하니 속세의 인간들 같지만 말이다.”

석등을 들고 있는 무섭게 생긴 사자가 말을 한다는 것과 그 근엄한 목소리에 영호와 지현은 깜짝 놀랐다. 소람은 영호와 지현이 요석공주의 연리지와 연관된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소요산에 빠르게 오를 수 있도록 영호와 지현을 등에 태워달라고 사자에게 부탁하였다.

“요석공주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들어 드리고 싶지만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너희 둘을 태우려면 내 옆에서 함께 석등을 들고 있는 나의 벗과 함께 너희를 한명씩 태우고 소요산을 누벼야 하는데 누군가는 꼭 이 자재암을 밝히는 석등을 들고 있어야 한다.”

사자는 아쉬워하며 이야기 했다.

“그러면 제가 한 분의 사자님과 함께 석등을 들고 있을까요? 그 사이에 지현이와 함께 송진을 가지러 다녀오세요.”

영호가 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석등이 보통 석등인줄 아느냐? 이 석등은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나도 이 석등을 들고는 한 발자국도 꿈쩍 할 수가 없을 정도다. 속세의 인간이 들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사자의 말에 실망한 영호와 지현은 소람이 들고 있는 단풍잎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섯 갈래의 잎 중 하나가 시들어 가고 있었다.

“사자님. 그럼 혹시 힘이 센 다른 분께서 잠시 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저기 나한전 앞에 있는 분도 힘이 세 보이는데요.”

영호가 나한전 입구 양 옆에 서있는 도깨비처럼 무서운 모습의 석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한전 문지기가 그런 부탁을 들어 줄 리가 없다. 저 문지기는 성질이 괴팍하여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호는 사자에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다.

“아! 물맛이 정말 좋구나! 어찌 원효약수보다 맛있는 물이 있단 말이냐? 내 이런 물은 평생 처음 먹어 본다!”

사자가 나한전의 문지기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자의 큰 목소리에 문지기도 사자가 있는 곳을 힐끔 바라 보았다.

“제가 속세에서 가져온 약수입니다. 물맛이 좋지요?”

영호가 다시 요석공주가 건네 준 빈 호리병을 들고 사자에게 먹이는 시늉을 하였다.

“그 물맛이 그리 좋으냐? 내 원효대사님이 드시던 옥련샘물보다 맛있는 물은 먹어 본 적이 없거늘.”

문지기가 입맛을 다시며 영호에게 말했다.

“거기 문지기님도 조금 드릴까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호리병이 워낙 작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산 밑에 가면 한 병이 더 있는데 제가 금방 산 밑으로 내려가 가져다 드릴까요?”

영호가 빈 호리병을 거꾸로 세우며 물이 없다는 시늉을 하며 말했다. 물론 호리병의 깨진 부분을 문지기가 볼 수 없도록 손으로 잘 가리고 이야기 하였다.

“여보게 문지기. 나 혼자 맛있는 물을 다 먹은 것이 미안하니 그럼 내가 그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산 밑에 다녀오지. 내가 태우고 가면 눈 깜짝 할 새면 다녀올 있을 것이야. 대신 이 석등을 잠시만 들어 주겠는가?”

이번에는 사자가 문지기를 향해 말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게. 안 그래도 내 목이 마르던 참이니 옥련샘물 보다 맛있다는 물맛 한번 보고 싶구만.”

두 명의 문지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쌍사자의 무거운 석등을 짊어지며 말했다. 문지기는 오직 맛있는 물을 먹을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문지기가 석등을 모두 들자 두 마리의 사자는 기지개를 켜며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밖으

로 나온 사자의 모습은 무거운 석등을 들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기품 있고 날렵한 모습이었다.

영호와 지현은 두 마리의 사자 등에 나누어 올랐다. 사자의 등은 영호와 지현을 태우고도 남을 정도로 넓고 듬직하였다. 소람이도 영호의 어깨위에 앉았다. 그리고 영호를 태운 사자가 산 아래가 아닌 하백운대에 오르는 계단으로 방향을 틀자 석등을 짊어진 문지기가 의아해 하며 영호에게 이야기했다.

“너희들 왜 하백운대 방향으로 가려 하느냐? 산 아래로 가야 맛있는 물을 가져 올 것이 아니냐?”

“그럼 문지기님 석등을 잠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정이 급해서요…. 죄송합니다.”

영호는 문지기에게 죄송한 인사를 전하며 하백운대로 급하게 출발하였다. 영호의 일행 뒤에서는 문지기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5. 백운 삼형제중 누가 선녀와 결혼해야 하는가? : 백운대, 선녀탕

자재암에서 백운대로 오르는 길은 본격적인 소요산 산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듯한 가파른 계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사자의 등에 탄 영호와 지현은 단숨에 서너 계단씩 재빠르게 오를 수 있었다. 이정도 속도라면 한 시간 안에 소요산을 한 바퀴도 돌 수 있을 것 같았다.

가파른 계단을 지나 영호와 지현은 소요산 백운대 능선의 제일 아래 봉우리인 하백운대에 도착하였다. 하백운대는 중백운대와 상백운대를 거쳐 나한대, 의상대, 공주봉으로 이어지는 말굽모양의 소요산 등산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백운대에 이를 즈음 소람이가 들고 있는 단풍나무 가지의 두 번째 잎이 시들었다.

“소람아, 여기가 하백운대인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백운삼형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현이 하백운대를 둘러보며 소람이에게 말했다.

“글쎄 말이야. 여기 하백운대는 소요산에서 가장 튼튼한 그릇을 만들기로 유명하신 백운 삼형제 중 막내인 ‘하백’님이 계셔야 되는데.”

소람이도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기척을 느낄 수 없어 중백운대로 발길을 옮겼다.

중백운대에 도착한 영호 일행은 그곳에서도 역시 백운 삼형제의 둘째인 ‘중백’을 찾을 수 없었다. 푸른 산과 붉은 단풍, 그리고 흰 구름만이 그들을 반겨줄 뿐이었다.

“우선 갈 길이 바쁘니 상백운대 까지 가보도록 하자. 거기에는 백운 삼형제의 장남이신 ‘상백’님이 계실거야.”

소람이가 상백운대 방향으로 영호와 지현을 태운 사자를 이끌었다.

영호 일행은 중백운대를 지나 상백운대에 다다르는 중간 즈음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이유는 바로 중백운대를 지나 선녀탕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에서 다투고 있는 백운 삼형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운 삼형제는 요석공주와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복장을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삼형제의 얼굴은 서로 닮아있었다. 하지만 그 키가 서로 달라 형제를 구분 할 수 있었다.

소람이가 백운 삼형제에 다가가 요석공주님과 영호, 지현의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백운 삼형제는 서로 다투느라 정신이 없었다. 삼형제의 싸움을 말리기에 소람이는 역부족이었다. 그러자 지현과 영호도 사자에서 내려 그들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하였다.

백운 삼형제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러하였다. 평소 각자의 백운대 봉우리에서 집을 짓고 지내던 백운 삼형제는 각기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선녀탕의 선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삼형제는 모두 선녀에게 첫눈에 반하였고, 청혼을 하기 위해 상백운대와 중백운대 사이길을 통하여 선녀탕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세 형제 모두 선녀에게 청혼 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선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며 싸우고 있었다.

“형님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남자도 여자이니 우리중 누가 선녀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 달라고 부탁을 해봅시다!”

삼형제중 가장 키가 작은 막내 하백이 말을 하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각자 선녀님과 사연을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누가 결혼해야 마땅한지 결정을 부탁하도록 하자. 상백 형님도 군말 없이 이 앞에 남자님의 말씀에 따르기입니다.”

두 번째로 키가 큰 중백이 가장 키가 큰 상백에게 자신 있다는 듯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네놈들이나 남자님의 결정에 따르거라. 나는 자신 있으니 말이다.”

상백 역시 자신만만한 말투로 말하였다.

지현은 당황해 하였지만 이 다툼이 해결되지 전까지는 요석공주의 호리병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우선 삼형제의 사연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내가 선녀님을 처음 본 것은 한 달 전 즈음 일제야. 초록 저고리를 입은 선녀님이 내가 머물고 있는 하백운대 부근에서 과일을 따고 계셨지. 나는 멀리서 숨어 지켜보다 아름다운 선녀님께 반하여 다가가려 하였지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후였다. 하지만 선녀님께서 떠난 자리에는 여기 있는 작은 노리개가 남아있었지. 아마 지켜보고 있던 나를 알아보시고 정표를 남기신 것이 틀림없으시다.”

막내 하백이 초록 노리개를 내밀며 이야기를 하였다.

“노리개를 받은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나는 선녀님을 도와드리기 까지 하였다. 보름 전 즈음 노란 저고리를 입으신 선녀님께서 중백운대를 지나 선녀탕으로 가시던 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셨단다. 날이 저물어가지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시던 선녀님을 내가 직접 업어서 선녀탕 근처까지 데려다 드렸느니라. 나는 감사의 표시로 바로 이 노란 노리개를 받았다. 어머니, 내가 더 선녀님과 정이 깊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둘째 중백 역시 노란색 노리개를 내밀며 말하였다.

“나는 선녀님과 함께 거문고도 함께 타며 정을 나누었다. 아마 일주일 정도 전 일 것이다. 내가 상백운대에 앉아 거문고를 타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려 주변을 살펴보니 빨강 저고리를 입은 선녀님이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 선녀님에게 거문고를 한 곡을 연주해 드렸고, 거문고 타는 법도 알려드렸다. 그리고는 선녀님께서 고맙다며 이 빨간 노리개를 주셨느니라.”

첫째 상백도 마찬가지로 빨간 노리개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말하였다.

사연을 들은 지현은 누가 선녀님과 결혼을 해야 하는지 쉽게 결정 할 수 없었다. 세 명 모두 각자 선녀님과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선녀님의 생김새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지현이 고민하는 사이 영호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백운 삼형제에게 질문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이라는 말처럼 어여쁘신 모습이였다. 특히 코에 살짝 난 점이 볼수록 매력적

인 모습이였다.”

상백이 선녀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며 지긋이 눈을 감고 이야기 하였다.

“형님 눈이 벌써 나빠지신 겁니까? 선녀님이 예쁘신 것은 맞으나 점은 코가 아니라 오른쪽 눈 옆에 있던 말입니다.”

둘째 증백이 상백의 이야기에 대꾸하였다.

“두 분 형님 모두 잘못기억하고 계시군요. 기억력이 가장 좋은 저 하백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선녀님의 점은 오른쪽 눈이 아닌 왼쪽 눈입니다. 그런 것도 기억 못하시면서 어찌 선녀님에게 청혼할 수 있습니까?”

막내 하백의 말에 백운 삼형제는 자신의 말이 옳다며 다시 다투기 시작하였다.

“제 생각이 맞다면 백운 삼형제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싸우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말을 마친 영호는 사자의 등에 올라타며 이야기하고는 선녀탕 방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렸던 영호가 잠시 후 지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영호는 혼자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다. 영호 뒤에는 선녀가 따라 오고 있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선녀였다.

백운삼형제의 말을 자세히 들은 영호는 해결 방법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았다. 바로 백운삼형제가 각기 다른 선녀를 만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자를 타고 선녀탕으로 내려갔다. 상백운대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간 맑은 물이 오목한 바위에 모여 마치 목욕탕처럼 생겨 이름이 붙여진 선녀탕에 도착한 영호는 그 앞에서 세 명의 선녀를 만날 수 있었다. 세 명의 선녀는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얼굴의 점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세 자매였다.

백운 삼형제는 세 명의 선녀가 백운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하였으나 영호의 설명을 듣자 부끄러워하며 각자 자신과 연이 닿은 선녀에게 다가갔다.

“내 너희들에게 큰 빛을 지었구나.”

말끔하게 고친 요석공주의 호리병을 지현에게 건네주며 상백이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삼형제가 너희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이다.”

증백이 밥그릇보다 조금 더 큰 모양의 자기와 그 뚜껑을 영호에게 건네주며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 삼형제가 만든 마법 사발이다. 그것은 요석공주님의 호리병처럼 금송굴의 송진을 넣어도 깨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은 물론이며 한 가지 더 특별한 기능이 더 있다. 바로 무슨 물건이든 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 안에 같은 물건이 두 개가 생겨난다.”

“그럼 여기에 돈다발이나 보석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그것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호는 상백의 말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팔짝 뛰어 오르며 신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래, 그렇단다. 하지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는 것은 단 한번뿐이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넣어야 될 것이다.”

영호는 한번뿐인 기회지만 산에서 내려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다.

“또한 한 가지 말해주자면 지금 바로 금송굴의 이무기를 찾아가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자칫 너희가 다시는 속세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 이무기에게 찾아가기 전에 소요산에서 가

장 지혜가 많으신 의상대의 어유소 장군님께 조언을 구하고 가거라. 분명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실게다.”

하백의 말에 영호와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상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소람이가 든 단풍잎은 벌써 세 개가 모두 시들어 있었다.

6. 어유소 장군의 특급 작전 : 칼바위, 나한대, 의상대

영호와 지현은 백운대를 지나 의상대로 향하는 칼바위 구간에 접어들었다. 칼바위는 그 이름에 맞게 칼날처럼 뾰족하게 생긴 바위로 이루어진 능선이었다. 그중에는 영호와 지현이 사자를 타고 지나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험한 길도 있었다.

잠시 사자에서 내려 바위를 내려가던 지현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 하였다. 하지만 영호가 짹짹 손을 내밀어 지현을 잡아 무사 할 수 있었다. 지현은 그런 영호의 손을 잡으며 볼을 붉혔다. 지현이 생각하는 영호의 평소 모습은 어딘가 어눌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 자재암과 백운대에서 보여준 영호의 모습은 재치 있고 용감한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영호 일행은 험했던 칼바위능선을 지나 나한대에 이르렀다. 소요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한대는 불교에서 수행하여 해탈에 경지에 이른 수행자를 이르는 ‘나한’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다고 소람이가 말해주었다. 지현은 원효대사는 물론 여러 고승들이 수련했던 장소여서인지 수려한 경관은 물론 사색에 잠기게 하는 분위기 있는 고즈넉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였다.

나한대를 지나 의상대로 향하는 동안에도 이제 두 개 밖에 남지 않은 단풍나무 가지의 잎은 시들어 가고 있었다. 소람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길에 서둘렀다.

“저... 어유소 장군님이신가요?”

동두천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의상대에 도착한 영호는 기품이 넘치는 긴 수염의 중년 남자에게 다가 이야기 하였다. 그 남자는 조선시대 무장들이 입었던 갑옷과 긴 칼을 차고 바위에 앉아있었다.

“그래. 내가 어유소 장군이니라. 네가 요석공주님의 연리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영호로구나.”

조선시대 무신으로 북벌의 명장 어유소 장군다운 근엄한 목소리였다.

“네. 제가 영호인데요.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너뿐만이 아니라 지현이와 소람이, 자재암의 사자까지 모두 알고 있느니라. 소요산에서 가장 높은 주봉인 동시에 원효대사님의 영원한 수행 동반자인 의상대사님의 이름에서 딴 이곳 의상대에 앉아 있으면 소요산의 모든 일이 보이곤 한단다. 지금 보니 자재암의 석등을 사자 대신에 들고 있는 문지기들은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구나. 히히히.”

어유소 장군이 자재암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너희들의 모든 사정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이무기가 지키고 있는 금송굴의 소나무 송진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주마.”

어유소 장군의 말에 영호와 지현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먼저 동두천에서 전해 내려오는 쇠목의 이무기 이야기를 알아야 하느니라.”

“쇠목이라면 동두천시 광암동 부근이 아닌가요?”

지현의 대답에 어유소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곳이 바로 쇠목이니라. 그 마을 입구에는 깊은 폭포가 있단다. 그 폭포 밑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농부가 소에게 물을 주기 위해 이무기가 사는 쇠목으로 갔다고 하는구나. 그 농부는 물을 먹는 소를 보며 잠시 쉬다가 이내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소는 온데 간데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소의 고삐와 줄만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농부와 같이 쇠목에서 소가 없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하자 쇠목 마을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리하여 소를 쇠목 묶어 놓고 누가 훔쳐가나 숨어서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렇게 숨어서 소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쇠목의 폭포 안에서 시켜면 이무기가 올라와 소를 잡아가는 것을 보았고, 놀라서 모두 도망을 갔다고 하는구나.”

흥미진진한 쇠목의 이무기 설화였지만 지현과 영호는 잠시 후면 그들 앞에 나타날 이무기가 갑자기 무섭게 다가왔다.

“금송굴을 지키는 이무기는 동두천 쇠목에 살던 녀석과 동기간이니라. 그 녀석 역시 소라면 사족을 못 쓸 만큼 좋아한다. 그러니 내가 이 통나무를 소로 둔갑시켜 줄 터이니 영호 네가 이 소를 데리고 공주봉으로 가거라. 공주봉에 이르면 소웅 엉덩이를 한 대만 때리면 소가 큰 소리로 울 것이다. 그러면 금송굴의 이무기가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이 나서 공주봉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러면 금송굴에 미리 숨어있던 지현이 네가 이무기가 자리를 떠나면 그때 소나무의 송진 일곱 방울을 호리병에 담으면 된다.”

“정말 멋진 작전이십니다!”

영호가 어유소 장군의 말에 감탄하여 무릎을 치며 이야기 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속세의 인간들이 동두천에 위치한 나의 사당과 묘소를 잘 지켜준 것과 매년 가을 나를 위해 동두천 시내에서 소요산까지 어유소 장군 행렬 재현을 멋지게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니라.”

어유소 장군은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그가 간단히 주문을 외우자 옆에 놓인 나무토막이 ‘핑’ 소리와 함께 누런 황소로 변하였다.

“영호는 계속해서 공주봉 방향으로 떠나고, 지현이는 길이 조금 험하지만 산을 가로질러 금송굴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일이 성공하면 다시 속리교로 돌아가는 구절터에서 합류하여 요석공주님께 송진이 담긴 호리병을 전해 드리거라. 너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어서 서둘러 길을 떠나야 할 것이다.”

영호와 지현은 어유소 장군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각자 길을 나누어 출발준비를 하였다. 지현은 영호와 떨어져 이무기가 사는 금송굴로 향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런 지현을 바라보던 영호는 지현에게 다가갔다.

“지현아 걱정 하지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지금까지도 잘 해 왔잖아.”

영호는 지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응원을 해주었다. 지현은 이런 영호의 든직한 모습에 다시 한 번 불이 불거졌다.

7. 이무기를 마주하다! : 공주봉 금송굴 구절터

금송굴에 도착한 지현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금송굴에서 따리를 틀고 자고 있는 이무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김씨와 송씨가 피난한 굴이란 뜻의 금송굴은 깊이는 10m 폭은 5.6m로 성인 남성 30~40명은 족히 들어 갈 수 있는 넓이었다. 지현은 이무기가 금송굴이 가득 찰만큼 따리를 틀고 있었기에 그 거대한 크기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거대한 뱀과 같은 생김새의 이무기는 잠자는 숨소리조차 지현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만큼 무서웠다.

“저기 이무기 옆에 있는 소나무가 바로 금송굴의 소나무야.”

소람이 지현에게 속삭이듯 말하였다. 소람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늙은 소나무가 서있었다. 그리고 소나무 가지에는 영호와 지현이 그토록 찾아 해맨 송진이 맺혀 있었다. 지현은 호리병을 손에 꼭 쥐며 이무기가 공주봉으로 가기만을 기다렸다.

지현이 이무기를 보며 놀라고 있을 시간 영호는 어유소 장군이 둔갑시켜준 소와 함께 의상대를 지나 공주봉에 오르고 있었다. 공주봉은 원효대사가 자재암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온 요석공주의 애꿎은 사모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명칭이었다. 그만큼 원효와 요석의 사랑이 깃든 장소였다.

영호는 소를 끌고 공주봉에 오르느라 조금 시간을 지체하였지만 정상에 오르니 넓은 휴식처가 잘 마련되어있어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그러자 소의 ‘음메’ 하는 울음소리가 크게 울렸다.

공주봉에서 울리는 소의 울음 소리가 지현이 있는 금송굴까지 전해졌다. 소의 울음 소리에 이무기는 시퍼런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소 울음소리를 듣고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빠른 속도로 공주봉 쪽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뱀의 몸이었지만 산을 오르는 속도는 자재암의 사자 못지않게 빨랐다.

“지현 남자 지금이야!”

소람이의 말에 지현은 금송굴 앞에 있는 소나무로 뛰어갔다. 그리고 나무에 호리병을 대자 한 방울, 한 방울 씩 송진이 흘러 들어갔다. 마침내 일곱 방울의 송진을 모두 호리병에 넣자 지현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사자의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전속력을 다해 구절터로 향하였다.

이무기가 공주봉에 도착한 것은 영호가 구절터 방향으로 하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이무기는 주위를 둘러보니 공주봉 정상에 홀로 서있는 소를 볼 수 있었다. 군침을 톹톹 흘리며 소에게 다가간 이무기는 큰 입을 벌려 소를 한입에 삼켰다. 하지만 이무기의 입으로 들어간 소는 다시 나무토막으로 변하였고, 이무기는 산산조각 난 나무토막을 뱉어냈다. 누군가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머리까지 치민 이무기는 산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자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다. 이무기는 사력을 다해 공주봉에서 구절터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영호는 자신의 뒤에 화가 난 이무기가 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금송굴로 간 지현을 걱정하며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절이 있던 널직한 자리여서 이름이 붙여진 구절터에 먼저 도착한 것은 지현이었다. 한손에는 금송굴 송진이 든 호리병을 조심히 붙잡고 영호가 내려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지현은 공주봉 방면에서 영호를 태운 사자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영호의 뒤를 따라온 거대한 이무기도 볼 수 있었다.

“영호야 조심해!”

지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영호는 그제서야 자신의 바로 뒤까지 따라온 이무기를 볼 수 있었다. 영호는 사자의 등에 더욱 바싹 매달려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

“지현아 빨리 속리교로 도망가!”

영호도 지현을 향해 소리쳤다. 이무기는 구절터에 내려와 있던 지현을 보았고 호리병 속에서 나는 송진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네 이놈들! 너희가 내 송진을 훔쳐가려 나를 공주봉으로 유인했구나! 내 너희를 여기서 씹어 삼켜버리겠다!”

영호와 지현의 의중을 알아차린 이무기는 더욱 맹렬한 속도로 구절터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호리병을 들고 있는 지현에게 그대로 돌진하였다.

“까악!”

지현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타고 있던 사자에서 떨어졌다. 이무기의 날쌔 기습 공격을 피하다가 사자의 등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무기는 떨어진 지현을 향해 다시 몸을 움직였다.

“그만둬!”

영호는 이무기에게 소리치며 지현이 쓰러진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영호는 지현을 뒤로 하고 거대한 이무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흐흐, 가소롭구나. 속세의 인간 따위가 나를 가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무기는 영호를 비웃으며 큰 입을 벌리며 천천히 영호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이무기의 이빨에 영호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영호의 뒤편에서 칼 한 자루가 이무기에게 날아왔다. 이무기는 가까스로 칼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 칼의 주인은 바로 의상대의 어유소 장군이였다. 영호의 뒤에서 몸을 날리며 나타난 어유소 장군이 급히 영호와 지현을 일으켜 세웠다.

“내 의상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다 이무기가 구절터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일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 급하게 내려왔다. 너희 둘 다 괜찮으나?”

어유소 장군이 땅에 박힌 칼을 꺼내 들며 말하였다.

“저희는 괜찮아요.”

영호가 지현을 꼭 끌어안으며 대답하였다.

“내가 이무기를 상대하고 있을 테니 그동안 너희는 어서 호리병을 들로 속리교를 빠져 나가거라.”

어유소 장군은 영호와 지현에게 말을 남기고 이무기를 향해 뛰어 들어 공격하였다. 팽팽하게 밀며 당기는 대결을 벌이는 어유소 장군과 이무기를 뒤로 하고 영호와 지현은 속리교로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 길을 어유소 장군을 대적하던 이무기가 다시 가로 막았다.

“내 오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여기서 무사히 보내지는 않겠다!”

이무기가 영호와 지현에게 다시 달려들며 말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던 어유소 장군은 이번에는 이무기를 바라보며 주문을 외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이무기를 향해 돌이 날아와 들어갔다. 그 돌들은 이무기를 푹푹 묶어 돌탑을 만들어 나갔다.

“내가 이렇게 돌탑에 갇혀도 너희에게 그냥 송진을 내어 줄 수는 없다!”

온몸이 돌에 파묻히고 얼굴만 남은 이무기가 마지막 힘을 다해 혀를 길게 늘어뜨려 지현이 들고 있는 호리병을 쳐냈다. 마침내 이무기가 돌 속에 파묻혀 마치 돌탑 처럼 쌓아 졌다. 그러나 이무기가 쳐내 날아간 호리병은 따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지현은 깨진 호리병을 조심스럽게 들어 보며 울음을 터트렸다. 영호는 지현의 어깨를 감싸며 달래었다. 하지만 지현의 울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소람아 여기 조금 남은 송진으로는 연리지 가지를 붙일 수 없을까?”

지현이 깨진 호리병에 조금 고여 있는 송진을 집어 들며 말하였다.

“미안하지만 너무 적어. 그건 네 방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 적어도 일곱 방울이 있어야 연리지를 붙일 수 있어. 그래도 너희는 최선을 다 했잖아. 아마 요석 공주님도 그것을 알아 주어야.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서 속리교로 돌아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시는 속세로 돌아 갈 수 없어.”

소람이가 지현에게 마지막 입사귀도 거의 다 시들어가는 단풍나무 가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잠깐만. 지현아, 우리는 송진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릇이 하나 더 있잖아!”

영호가 무엇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낭에서 백운 삼형제가 선물로 준 마법의 사발을 꺼내며 말했다.

“이 사발에 남은 송진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연리지 나무를 붙일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될 거야.”

영호가 사발을 지현에게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영호야. 백운삼형제가 너에게 준 하나를 넣으면 두 개가 되는 소중한 마법 사발이잖아. 그것만 있으면 너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게다가 그건 무엇이든 한번만 넣었다 빼면 그 사발은 깨져버린다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요석공주님의 연리지도 붙여야 하고,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너의 저주도 풀어야지. 지금 나한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영호의 말을 듣고도 미안함에 머뭇거리는 지현을 대신해 영호가 직접 송진이 남아 있는 호리병 조각을 마법 사발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지현을 향해 멧쩍게 웃어 보였다.

8. 소요산은 사랑을 심고 : 다시 속세로

영호와 지현은 아침에 보았던 요석공주 별궁지 앞의 연리지 앞에 섰다. 그리고 지현은 백운 삼형제의 마법 사발을 열고 거기에 고인 송진을 조심스럽게 부러진 연리지 가지에 뿌렸다. 귀하게 가져온 송진인 만큼 지현은 더욱 조심스럽게 송진을 뿌렸다. 그리고 송진이 부러진 연리지 가지에 닿자 연리지 가지는

다시 손을 맞잡고 있는 것처럼 한테로 이어졌다. 그리고 백운 삼형제가 준 사발을 그들의 말대로 깨져버렸다.

“너무 아깝다.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현은 깨진 사발을 보며 아쉬워 말했지만 영호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현을 바라보았다.

“소람아 고마웠어. 그리고 자재암 사자님과 백운삼형제, 어유소 장군님께 감사말씀 꼭 전해 드려줘. 아 그리고 특히 나한전 문지기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 드리는것도 잊지 말고.”

지현이 속리교 앞에서 선경으로 돌아가려고 채비를 하는 소람이에게 말했다.

“내가 또 보고 싶으면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지 말고 그냥 소요산에 찾아와 그럼 평범한 다람쥐 모습으로 언제든지 마중 나갈게.”

소람이도 그간 영호, 지현과 정이 많이 들었는지 아쉬워하며 이야기 하였다.

“저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부군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리교 앞에선 요석공주가 영호에게 말하였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희가 자초한 일인걸요.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요석공주에게 인사하며 말하였다.

“그럼 저는 이만 속리교를 지나 선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속리교를 건너 소요산에 다녀오신 동안 정이 많이 드신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저와 원효대사님 처럼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리교를 건너는 요석공주의 말을 들은 지현과 영호는 어느새 손을 잡고 서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소요산을 떠날 때 까지도 놓지 않았다. 마치 금송굴의 송진이 닿아 다시 붙은 연리지 가지처럼 말이다.

캐릭터 소개

1.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캐릭터



<출처: 직접 촬영>

2. 소람이 캐릭터



<출처: 직접 촬영 및 동두천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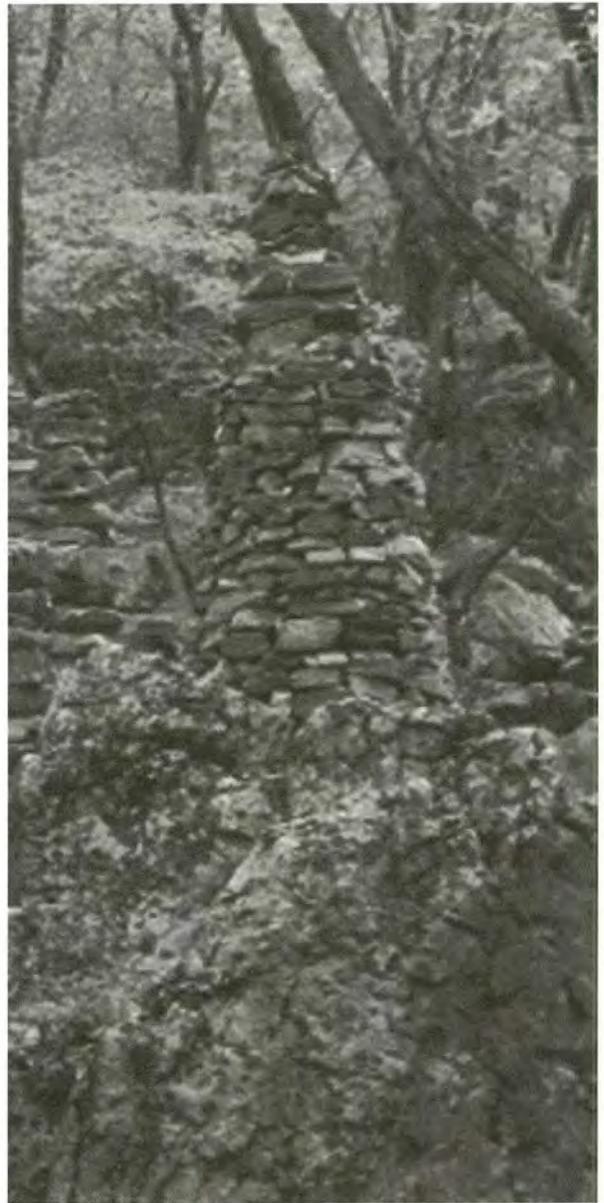
3. 자재암 사자석등과 나한전 문지기



<출처: 직접 촬영>

※ 실제 소요산 자재암에는 2개의 사자 석등 중 1개가 지난 여름 홍수로 인해 유실된 상태임. 추후 보수 예정

4. 구절터의 돌탑(이무기를 가두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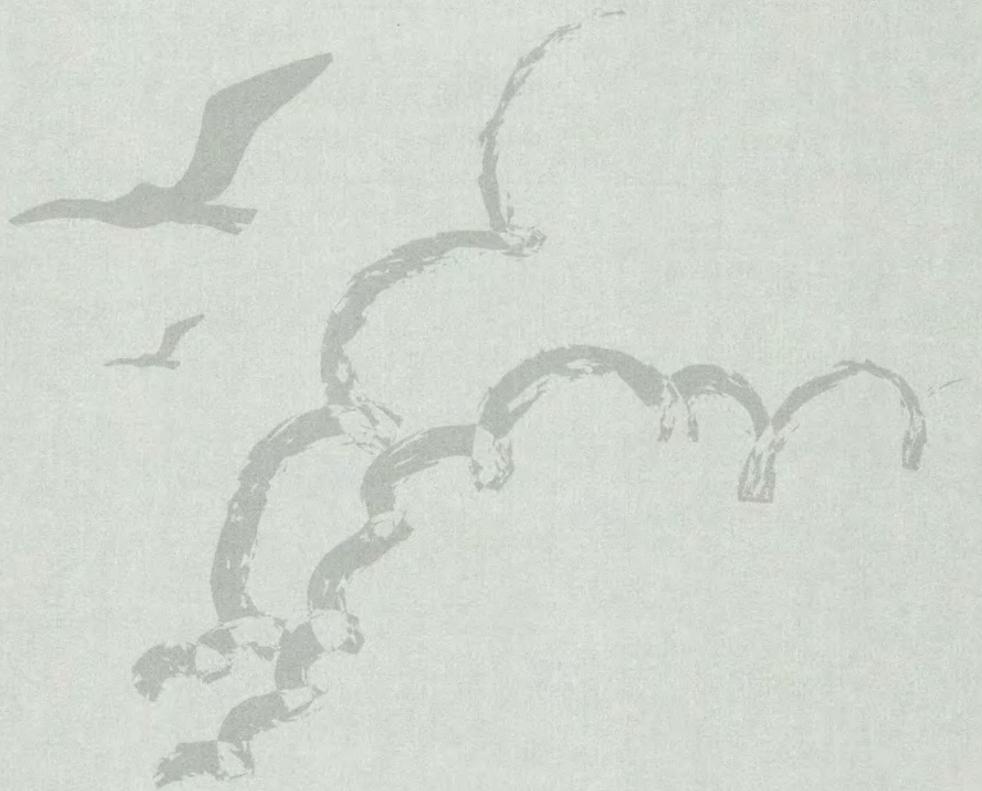


<출처: 직접 촬영>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소요산의 꿈

윤성제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아름다운 소요산과 원효대사, 요석공주의 전설.</p>
<p>스토리 구성 (Plot)</p>	<p>소요산을 파괴하려는 악의 왕과 싸우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 소년에게 진정한 용기를 가르치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원효대사. 요석공주. 이재원(소년) 악의 왕. 새. 바위얼굴. 소나무, 등등</p>

시놉시스

초등학생 재원은 동두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직장을 다니시던 아버지가 이곳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이렇다 해도 가족의 한 명인 재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사한 것에 대해 재원은 불만이 많다. 이제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하고 학교도 전학해야 하기 때문.

이사 첫날. 이삿짐 정리로 너무 바쁜 엄마. 그리고 근무 때문에 집에 아예 계시지도 않은 아빠. 혼자서 방안에 틀어박혀 있던 재원은 결국 핫김에 가출을 결심한다.

무작정 집을 나온 재원은 버스기사에게 가장 멋진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 소요산에 내린 재원은 화려한 풍경에 넋을 놓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재원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눈을 떠보니 바위얼굴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재원이 바위얼굴의 손을 잡고 악수하자 바위얼굴이 살아나 요정의 세계로 재원을 데리고 간다.

요정의 세계에 도착한 재원은 뜻밖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 요정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군대들. 재원은 또 다른 요정인 소나무를 안는다. 그러자 소나무가 여자로 살아나 거미로부터 재원을 구해준다. 여자는 재원을 요석공주에게 데려간다.

재원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공주. 종이배에 재원이 손을 대자 순식간에 거대한 배로 변한다. 재원과 요석공주가 배를 타고 성으로 들어간다. 기다리고 있던 원효대사는 재원을 위해 성안에서 화려한 잔치를 연다. 그리고 재원이 바로 악의 군대로부터 요정의 세계를 구하는 구원자라는 사실도 듣게 된다. 하지만 재원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일축한다.

요석공주는 악의 군대가 생명을 앗아간 땅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 살려낸다. 그 광경에 놀라는 재원. 그 순간 악의 군대가 요석공주를 납치한다. 겁이나 싸우지 못하고 공주를 구하지 못하는 재원. 결국 원효대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재원은 성을 도망치듯 빠져 나온다. 갈 곳을 잃은 재원. 그러자 다시 원효대사가 나타나 재원에게 무술을 가르쳐 준다. 그렇게 무술을 연마하는 동안 악의 군대가 요정의 성을 침략한다.

결국 재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람들과 요석공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간다. 스승 원효대사는 재원에게 바위군대를 준다. 순식간에 수백의 군사로 변하는 바위들. 재원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악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향한다.

악의 군대가 요정의 성을 침략하기 직전 재원과 원효대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악의 군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간신히 공주를 구한다. 하지만 악의 왕의 던진 창이 재원의 심장에 꽂힌다. 죽어가는 재원. 눈물을 흘리는 요석공주.

공주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죽은 재원을 살려낸다. 다시 재원이 악의 왕과 싸운다. 하지만 역시 역부족. 재원과 공주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주가 손을 뻗어 악의 왕의 금속심장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생명을 얻어 환희에 젖는 악의 왕. 그 순간 원효대사가 건넌 창. 재원이 창으로 악의 왕의 심장을 찔러 악의 왕을 죽인다. 비로소 소요산 요정세계의 평화가 찾아온다.

재원은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와 작별 인사를 한다. 그러자 재원은 꿈을 꾸 듯 잠에서 깨어난다. 그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자제암 앞. 멀리 재원을 부르는 부모님을 본다. 재원, 달려가 아빠의 품에 안긴다. 아빠가 재원을 들어 목말태운다. 그 뒤로 보이는 웃고 있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노요산의 꿈

동두천으로 이사 온 첫 날.

재원(11살, 가지런히 빗어 넘긴 단정한 머리스타일로 무테안경을 쓴 차갑고 푹푹한 소년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은 빈약한 팔다리는 그가 운동을 매우 싫어하는 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은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새집을 노려보고 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내부는 방금 이사 간 듯 여기저기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다.

공원에는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는 커다란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다.

오순도순 모여앉아 얘기를 주고받는 동네 아줌마들.

새로 이사 온 재원의 가족을 보고 반가운 미소를 보낸다.

웃으며 수건을 머리에 둘러쓴 재원의 엄마는 이삿짐직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이삿짐을 정리한다.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가셨다. 할 일이 밀렸다고 오늘부터 일하셔야 한데. 넌 가서 친구들 찾아봐.”

“여기 친구가 어딴어?! 내 친구들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나 여기 싫어!”

“그런 말이 어딴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한 일이야.”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착잡한 표정으로 재원을 본다.

화가 나지만 애써 참는 얼굴이다.

그녀는 현재의 상황을 재원에게 수 없이 설명했다.

아빠, 엄마가 직장에 새로 발령 나서 이사하게 된 상황.

아빠와 따로 떨어져 살 수 없어 같이 이사 온 거라며.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이젠 여기가 집이야. 힘들면 방에 올라가서 쉬어.”

“여긴 우리 집 아니야! 난 내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늦은 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재원은 자신의 방바닥에 누워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다.

“여기 진짜 싫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엄마, 아빠는 내 생각 하나도 안 해.”

친구로부터 답이 없자 재원은 화가 나는지 핸드폰을 침대에 던지곤 방을 나선다.
거실에선 걸레를 손에 쥔 엄마가 지쳐 소파에 앉아 졸고 있다.
엄마를 원망스런 눈으로 바라보던 재원은 집안을 돌아다닌다.
그러다 반항기가 발동해 가출을 시도한다.

“모두 자기들 맘대로 정해버리면 다야? 내 의견은 상관없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내가 없어져 주겠어.”

집을 나온 재원은 아무버스나 집어타고 동네를 나간다.
처음엔 겁도 났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컸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창밖 도시 풍경을 본다.

“버스기사 아저씨, 여기서 쨌 멋진 데가 어디예요?”

“멋진 데?”

“네. 동두천 최고요.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하하. 이 동네 처음인가 보구나. 물론 최고로 멋진 곳이 있지.”

“설마, 그게 어딘데요?”

“소요산. 작은 금강산이라고 부르지.”

“금강산이요?!”

“그래.”

“이 버스 가요?”

“너가 운이 좋구나. 내가 데려다 줄게. 하하하”

버스를 타고 마음 좋은 기사와 함께 소요산에 도착한 재원.
정말 버스기사의 말대로 사람도 많고 산이 아름다웠다.
재원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 거란 생각은 잊어버린 채 용돈으로 맛있는 음료부터 사 먹기 시작한다.

그렇게 정신없이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재원.
시간이 흐르고 차츰 관광하던, 산행하던 사람들이 점점 자취를 감춰간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잃은 재원만 혼자 남게 된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 하지만 아차 충전을 안 하고 나왔다.
공중전화를 걸려 하지만 동전도 남아있지 않다.
밤이 되자 금세 울상이 되어버리는 재원.

“엄마~나 무서워요.”

무작정 걷던 재원은 소요산에서 길을 잃는다.
이제 서 있을 힘도 없는 재원. 풀썩 주저앉아 쓰러진다.
천천히 눈을 감는 재원. 눈물이 불을 타고 흐른다.
그 순간,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왜 울고 있니?”

재원,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분명 자기 혼자다.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긴, 여기 있잖아. 고개를 들어봐.”

재원, 소스라치게 놀란다.
커다란 얼굴의 바위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이다.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다.

“바... 위괴물이다!”

“헉, 괴물이라니 너 이렇게 잘생긴 괴물 봤니?”

“난 소요산은 지키는 바위란다.”

“으악!! 말하는 괴물이다!”

“참.....난 괴물이 아니라니까, 이 산을 지키는 요정. 소요산요정이라고!”

“요정? 진짜?”

“못 믿겠니? 그럼 올라와 내 귀를 잡아봐. 그럼 너한테 보여줄게. 어서.”

“날 잡아먹진 않겠지?”

“요정이 왜 사람을 잡아먹어?!”

재원, 천천히 바위를 올라가 남자의 귀를 잡는다.
그러자 바위가 마치 사람처럼 환하게 웃는다.
멋지게 노래를 부르는 남자. 메아리가 되어 소요산 전체에 울려 퍼진다.
재원은 그저 신기해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른 남자가 다시 재원에게 말을 건다.

“가자!”

“어딜?”

“어디긴 어디야, 바로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바위가 산 속에 파묻혀 있던 몸을 드러낸다. 쿠궁~
우와! 남자의 엄청난 몸에 놀라는 재원.
키가 하늘에 닿을 거 같다.
남자, 커다란 바위 손을 재원에게 내민다.
재원, 남자의 손을 꼭 잡는다.
남자, 재원을 잡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점프!
그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온갖 동물들이 산을 뛰어다니고 원효폭포가 물을 쏟아낸다.
그 물을 뒤집어쓰는 재원. 으악~

“하하하. 완전히 젖었구나!”

“뭐가 웃겨요!”

“미안, 이곳 소요산은 우리들의 세계란다. 아름답지?”

“네.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내가 몰랐죠? 친구들한테 다 말해줘야겠어요”

“하지만 이곳은 얼마 가지 못할 거야.”

“왜요?”

“이 곳을 파괴하려는 나쁜 괴물들이 있거든.”

“네? 정말요?”

그 순간 어둠에 쌓이는 재원.
고개를 들면 거대한 거미가 해를 가린 채 뒤에 서 있다.
남자, 놀라 재원의 손을 잡는다.

“도망쳐!!”

거미가 입에서 거미줄을 뿜어낸다.
바위남자에게서 떨어진 재원.
간신히 거미줄에 잡히지 않고 바닥을 구르는 재원.
악~하지만 팔이 부러진다.

“팔이 부러진 거 같아요!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

거미가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쌓인 나무를 삼켜버린다.

“재원아,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남자, 쓰러져 있는 재원의 손을 꼭 잡고 달리기 시작한다.
남자와 재원을 향해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 거미.
계속해서 거미줄을 쏘아댄다.
요리조리 간신히 거미줄을 피하는 재원과 남자.
거미줄을 맞은 나무가 검은 색으로 말라 죽는다.

“재원아, 저기 소나무 보이지?”

재원의 눈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보인다.

“네!”

“내가 저 놈을 유인할 테니 어서 달려가 안겨!”

“나무에 달려가 안기라고요?”

“그래!”

“말도 안돼요! 소용없어요!”

“어서 날 믿고 시키는 대로해.”

“알았어요!”

재원, 소나무를 향해 달려가고 바위얼굴의 남자는 거미를 유인한다.

“이 괴물 거미야, 아이를 놔두고 나랑 싸우자!”

거미가 커다란 발로 남자를 내려친다.
그 충격에 몸에 붙은 바위들이 날아가 버리는 남자.
거미가 거미줄을 쏘아대며 계속 재원을 쫓는다.
재원의 발 바로 뒤로 떨어지는 거미줄.

“악~!!!”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재원.
겁이나 눈물이 글썽하다.
바위남자, 주먹으로 거미괴물을 내려친다. 팡!!
다리가 부러지는 거미괴물.

“어서, 조금만 힘을 내”

재원,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소나무를 본다.
가지를 포옹자세로 취하고 있는 소나무.

재원, 힘을 내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달려가 간신히 소나무와 포옹한다.
그 순간 소나무가 여자로 변해 재원을 꼭 안아준다.
두 사람을 향해 거미줄을 쏘는 거미.
거미줄이 두 사람을 덮치려는 순간.
눈부신 빛을 내며 감쪽같이 사라지는 재원과 여자.
분해서 핑음을 내는 거미.
날아가는 재원과 소나무를 보는 바위남자가 활짝 웃는다.
여자에게 안겨 하늘을 날아가는 재원.
웃는 얼굴로 재원을 바라보는 여자.

“살았다!”

“그래. 아주 아슬아슬 했어.”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주님이 계신 성으로”

“공주요?!”

“응, 요석공주님.”

“요... 석... 공주?”

공주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재원.
그 모습이 귀여운 지 미소를 짓는 여자.
멀리 탐동계곡이 보인다.

성앞.
성 앞에 도착한 재원은 요석공주를 만난다.
재원을 반갑게 마중 나온 공주.

“반갑다”

“으... 응”

“성으로 들어가자. 널 위해 음식을 준비했어. 배고프지?”

“죽을 거 같아요~”

“하하하”

재원과 공주, 부대찌개와 만두전골이 차려져있는 식탁으로 간다.
재원, 놀란다.

“부대찌게다!”

“버섯만두전골도 있어. 도토리묵도 있고 마음껏 먹으렴.”

“감사합니다!”

재원, 허겁지겁 입이 터져라 먹는다.
그 모습을 보고 웃는 공주와 사람들.
식사를 마친 재원과 공주, 아이들이 종이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곳으로 간다.

“타”

“이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종이배잖아요.”

“일단 타라니까. 원효대사님을 만나러 갈 거야.”

“원효대사님?”

재원, 의심스런 눈으로 종이배에 살짝 엉덩이를 걸친다.
그러자 순식간에 거대한 배로 변하는 종이배.
어느새 요석공주가 재원의 옆에 서 있다.
배가 물을 가르며 자제암으로 승~들어간다.

“우와!!!”

“멋지지? 원효대사님이 널 기다리신다.”

“저를요?!”

공주, 고개를 끄덕이며 재원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는다.
 흠칫 놀라는 재원.
 그러자 환한 빛이 나며 부었던 팔이 가라앉으며 말끔히 치유된다.
 팔을 움직여보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다.

“하나도 안 아파요!”

“당연하지”

“공주님, 초능력자세요?”

“하하하!”

환타지 속 자제암 안.
 배를 타고 도착한 공주와 재원.
 호위무사들과 유모가 험레벌떡 뛰어온다.
 재원을 위한 화려한 연회가 열린다.
 재원은 유모가 마련해 준 기사 옷을 입는다.
 공주는 재원에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춤을 추자고 제안한다.
 얼떨결에 춤을 추는 재원.
 한 번도 춤을 배운 적이 없는 재원이 공주의 손을 잡는 순간 마법처럼 환상적인 춤을 추게 된다.
 그러자 안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도 흥겹게 춤을 춘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원효대사.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몰래 숨어서 바라보는 가면을 쓴 가냘픈 체격의 남자.

원효대사가 재원에게 다가온다.
 그러곤 왜 재원이 이곳에 왔는지 설명해 준다.
 재원은 이 나라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기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찾아왔지만 선택되지 못했다.
 그들에겐 숨겨진 힘이 없기 때문.
 그 얘기를 들던 재원은 코웃음을 친다.
 자신은 몸도 약하고 알레르기도 많으며.
 원효대사가 재원을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본다.

“우린 전설을 믿고 기다려 왔다. 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난 집에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다가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공주.

악의 성.

날카로운 강판으로 덧붙여져 만들어진 거대한 성.
긴 철제계단 아래 가냘픈 남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다.
뒤 돌아서 있는 거대한 체격의 악의 왕.
남자가 염탐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 한다.
돌아서는 왕의 모습은 강철로 만들어진 사이보그 로봇이다.
두 개의 붉은 눈이 무섭게 빛난다.
딱딱한 기계음으로 명령한다.

“원효대사를 죽이고 요석공주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바보 같은 놈은 없애버려라”

“알겠습니다. 대왕님”

요석공주와 재원은 왕국을 둘러본다.
요석공주는 악의 군대의 공격에 죽어가는 동물과 식물을 살려낸다.
그녀가 죽어가는 새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는다.
그러자 새가 다시 살아나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른다.
죽은 나무를 보는 재원은 요석공주가 나무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미 죽어버린 생명은 살릴 수 없다고 말해준다.

“생명은 소중한 거야. 나무, 동물도 마찬가지지.”

“죽은 건 살릴 수 없나요?”

“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잘 보호해야하는 거야.”

“네”

재원은 요석공주와 함께 악의 군대가 짓밟고 간 죽음의 땅을 본다.
하지만 재원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은 원효대사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고.
요석공주가 웃으며 재원의 손을 잡아준다.

“넌 할 수 있어. 다만 너 자신을 믿고 있지 않을 뿐이야. 아무리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 힘은 나오지 않아.”

그 순간 가냘픈 남자가 두 사람 앞에 선다.

기분 나쁘게 웃는 남자.

도망가는 공주와 재원.

남자가 고함을 친다.

“괴물들아, 잡아라!”

그러자 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커다란 근육이 옷을 찢으며 솟아난다.

순식간에 괴물로 변해버린 남자가 재원과 요석공주를 공격한다.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 요석공주와 재원이 도망가는 길을 막는다.

겉을 먹은 재원이 요석공주의 손을 놓치고 공주는 넘어진다.

재원, 망설이다 다가오는 괴물들을 보고 혼자 도망간다.

쓰러진 공주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괴물.

재원을 노려본다.

그 순간 나팔이 울리며 멀리서 원효대사가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다.

겉먹은 괴물은 요석공주를 데리고 빠르게 도망간다.

“요석공주를 손에 넣었으니 이만 돌아가자!”

“재원아, 도와줘!”

“요석공주님, 미안해요. 난 너무 무서워요.”

재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라보기만 한다.

악의 성에 갇힌 공주.

커다란 박쥐가 하늘에서 공주를 감시하고 있다.

“난 믿어 반드시 재원이 니가 우리 모두를 구해줄 거라고. 그러니 제발 자신을 믿어야해. 그럼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요석공주는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

성안. 주민들의 실망스런 눈빛을 받는 재원.
원효대가가 재원에게 다가온다.
재원, 뒤로 물러선다.

“원효대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 그저 겁쟁이꼬마라고
요”

“공주는 널 믿었다. 나도 널 믿는다!”

“죄송합니다. 원효대사님, 전 이 소요산도 여러분도 지킬 수 없어요.”

원효대사는 웃으며 재원에게 다가가려 한다.
하지만 재원은 그에게서 돌아선다.
안타까운 눈으로 재원을 보는 원효대사.

늦은 밤.
재원은 몰래 성을 빠져나와 도망친다.
그 모습을 숨어서 바라보는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새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공주가 살린 작은 새가 재원의 뒤를 따른다.
재원, 혼자 울며 중얼거린다.

“이 곳도 마찬가지로야. 나만 없어도 돼.”

자신의 비겁함과 무능함에 화가 나는 재원.
새가 재원을 위로한다.

“아니야, 원효대사님과 요석공주님은 널 아직도 믿고 계셔.”

“그래서 난 더 괴로워. 난 용기가 없다고!”

재원의 앞에 나타나는 원효대사. 새가 재원에게 앞을 보라고 한다.
재원, 새의 말대로 앞을 본다. 그러자 원효대사가 다가와 살며시 손을 재원의 어깨에 얹는다.

“다시 만났네.”

“원효대사님! 어떻게 여길....”

“난 이제 너의 스승이 되어줄게. 그러니 날 믿고 따라오렴. 하하하”

원효대사가 멋진 무술시범을 보인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재원.

승려들은 공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 출격을 앞두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공주를 구해오라며 그들을 응원한다.

늠름하게 군대를 이끌고 악의 성으로 향하는 승려들.

악의 성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악의 왕.

박쥐, 보라색괴물, 거미 군단을 부른다.

작은 새가 이 상황을 재원에게 알려준다.

재원도 공주를 구하러 가고 싶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죽이는 악의 왕을 물리치고 싶다.

하지만 스승 원효대사는 재원을 만류한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재원,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새의 설명을 듣는다.

악의 왕이 군대를 조직해 소요산을 파괴하러 온다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이렇고 있을 순 없어! 사람들과 소요산을 지켜야해!”

재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원효대사.

드디어 전쟁이 터졌다.

악의 성에 도착한 승려들과 악의 군단과의 싸움.

잔인하고 무참한 싸움.

박쥐가 하늘에서 내려와 승려들을 낚아채 집어던진다.

거미는 거미줄을 뿜어내 승려들을 묶어맨다.

거대한 보라색괴물은 승려들을 공중으로 집어 던진다.

모든 전력을 잃고 간신히 도망치는 승려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주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무표정한 얼굴의 악의 왕은 공주에게 묻는다.

“나에게 생명을 달라”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난 너의 능력을 봤다.”

“너무 늦었어. 이미 죽은 건 다시는 살릴 수 없다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모두 가질 수 없다.”

악의 왕은 소요산의 멸망을 준비한다.

모든 악의 군단이 총동원된다.

이 세계에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하늘을 새까만 박쥐들이 뒤덮는다.

땅속에서 거대한 거미들이 끊임없이 기어 나온다.

수백 명에 달하는 악의 군대가 괴성을 지르며 보라색괴물로 변한다.

스승 원효대사에게서 훈련을 받던 재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스승의 말대로 설사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공주와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

왜냐면 그들은 아직도 재원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은 스승에게 공주와 성을 지키러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전 가야해요. 원효대사님.”

“넌 아직 힘이 약하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두 날 기다리고 있어요.”

스승은 재원이 아직은 악의 왕을 이길 수 없다고 만류한다.

하지만 재원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주와 원효대사가 자신을 믿었듯 자신도 자신을 믿고 싶다고.

스승은 재원을 데리고 종이배로 간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라고 말한다.

재원 앞에 서자 불과 수많은 바위들이 넘실한 군인으로 변한다.

재원, 원효대사와 함께 그들을 이끌고 성으로 향한다.

악의 왕이 이끄는 악의 군단이 공주의 성 앞에 도달한다.

공포에 떠는 사람들.

악의 왕은 두 팔이 묶인 공주를 자신의 앞에 내려놓는다.

그리곤 아직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있다면 데려가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악의 왕 앞에 나서지 못한다.
절망하는 공주.
그 순간 원효대사와 함께 재원이 나타난다.

“드디어 나타나셨군. 원효대사.”

“악의 왕. 나 원효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두 군대간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다.
수십 명의 괴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원효대사.
그 틈에 달려온 재원이 공주를 낚아챈다.
성으로 도망가는 재원.
악의 왕이 거대한 창을 들어 재원을 향해 던진다.
창이 날아와 재원의 가슴에 꽂힌다.
퍽하고 쓰러지는 재원.

“잡아 올까요?”

“어차피 다 죽는다.”

공주가 피를 흘리는 재원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간다.
승려들이 성문을 잠그고 전쟁준비를 한다.
악의 왕의 명령에 총공격을 시작하는 악의 군단.
박쥐가 성안으로 날아들어 사람들을 물어뜯는다.
거미가 성벽을 타고 오른다.
보라색괴물이 성안으로 바위를 집어던진다.
아수라장이 되는 성 안.
공주는 죽어가는 재원을 안고 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칼을 들고 성 위에 선다.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한다.
사기가 올라 일제히 악의 군단에게 화살을 날리는 병사들.
화살에 맞아 순식간에 타버리는 박쥐와 거미들.
슬슬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박쥐와 거미와 보라색괴물들.

“멍청한 것들”

악의 왕이 앞에 선다. 군대를 노려보는 악의 왕.
거대한 불화살을 악의 왕에게 쏘아낸다.
사방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 환호성을 지르는 병사들.

“악의 왕이 죽었다. 우리가 해냈다!”

불길이 사라지면 연기 속에 우뚝 서 있는 악의 왕.
그의 몸을 감쌌던 검은 망토가 사라지자 온 몸이 강철로 된 로봇의 몸이 드러난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악의 왕. 천천히 다가온다.
성벽 안으로 재원을 안고 있는 공주가 보인다.
천천히 기계음을 내며 공주에게 다가가는 로봇.
공주가 온 힘을 다해 재원에게 마음의 소리를 보낸다.

“포기하지 마. 살 수 있어.”

로봇이 공주를 죽이려는 순간 환한 빛이 재원으로부터 뿜어져 나온다.
번쩍!! 눈을 뜨는 재원. 공주를 잡으려던 로봇의 팔을 낚아챈다. 힘과 힘의 대결.
놀라는 사람들.
로봇의 팔을 잡고 일어나는 재원. 로봇의 다른 팔이 재원을 공격한다.
그 충격으로 성문으로 날아가는 재원. 팡!!
박살나는 성문. 하지만 그 잔해 속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씩 웃으며 일어서는 재원.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와 로봇과 충돌한다.
이번엔 로봇이 다른 성벽에 날아가 충돌한다.
머리가 돌아간 로봇.
자신의 손으로 머리를 잡고 180도 회전해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로봇이 날아와 재원을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계속되는 공격을 막지 못해 땅바닥에 쓰러지는 재원.

“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절망하는 재원.
그 순간 공주가 로봇의 심장에 손을 얹는다.
순간 팡! 하면서 공주의 손에서 빛이 나간다.
당황하는 로봇.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생명의 힘을 로봇에게 불어넣는 공주.
로봇의 가슴속에 심장이 만들어진다. 쿵팡쿵팡 뛰는 심장.

“생명…….”

공주가 재원을 보고 소리친다.

“지금이야!!”

원효대사가 재원에게 창을 던진다.

창을 받은 재원이 로봇의 심장을 향해 힘차게 쫓는다.

인간처럼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로봇.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온다.

숨을 거두는 악의 왕.

환호하는 사람들.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악의 군단.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공주를 재원이 안는다. 사람들의 승리의 환호성.

이별의 시간.

재원과 요석공주, 원효대사가 마주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원에게 환호를 보낸다.

공주와 원효대사는 재원을 꼭 안아준다.

재원은 이제 부모님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기다리셔. 날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 벌써 걱정하고 계실거야.”

“고마워요. 원효대사님, 요석공주님.”

재원, 눈을 뜨자 자제암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

“꿈이었나? 우와! 진짜 신나는 일들이었어.”

그 순간 저 멀리 달려오는 아빠와 엄마.

“재원아!”

“엄마! 아빠!”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결정해서”

“저도 죄송해요. 엄마 아빠 힘든데 투정만 부려서요.”

“우리 이제 서로 모두 이야기하자.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너도 약속 할 수 있지?”

“네! 근데 아빠,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착한 버스기사분이 널 걱정해 신고를 해 주셨단다. 처음 보는 애가 혼자 소요산으로 갔다고”

아빠가 재원을 목말 태운다.

그 뒤로 저녁노을이 지며 요석공주와 원효대사가 흐뭇하게 웃고 있다.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소요산 특공대 소요형언록의 예언

이슬비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소요산 곳곳에는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거기에 물음표를 더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아 마침표를 찍은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원효대사는 왜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소요산으로 향했던 것일까? 정승대감의 귀한 자제인 송명업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두 번이나 이 곳 소요산 금송굴에 머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구한 말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 벌어졌던 항일 의병투쟁이 하필 이 곳 소요산에서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픽션의 눈으로 역사적 팩트를 바라보자 소요산이 가진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들을 ‘유기적인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보자는 모티브가 떠오르게 되었다. <바람의 화원>, <성균관 스캔들>, <뿌리깊은 나무>까지 역사와 허구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와 같은 리얼리티에 허구의 반짝이는 재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소요산의 숨겨진 역사성과 가치를 ‘영웅과 퇴마’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더하여 재창조했다. 흥미진진한 모험과 역사적 가치를 모두 가지는 유익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p>
<p>스토리 구성 (Plot)</p>	<p>“세상을 등지고 살던 남자가 누나의 실종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누나와 세상을 구하고 자신도 구원하게 된다.”</p> <p>음주운전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프로데뷔기회까지 날려버린 전직 야구 선수 김정우. 5년 동안 두문불출 폐인생활을 하던 그에게 하나뿐인 누나가 회사 엠티 중 소요산에서 실종되는 일이 일어난다. 부모와 다름없이 여기던 누나의 실종에 그는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게 된다. 소요산에서 실종자를 찾아준다는 사람들(선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소요산으로 향한다. 그 곳에서 선인들이 가진 <소요정언록>의 글귀를 통해 그가 난세를 구할 영웅으로 선택된 것을 알게 된다. 백운골 신선들과 선인들의 도움으로 수련한 그는 일본 요괴들에게 끌려간 누나와 다른 여자들을 시련과 실패 끝에 구해내고 소요산과, 더 나아가 세상을 난세로부터 구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비로소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는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김정우(남, 32세)</p> <p>눈빛으로 상대선수의 심리를 꿰뚫던 전직 야구선수. 프로데뷔를 며칠 앞두고 부모님과 여행을 떠났다가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부모님을 잃고 프로에서도 제명당한 후 후 5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인터넷 댓글 알바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던 그가 누나의 실종사건에 의문을 품고 소요산으로 향하면서 조력자들을 만나 누나와 세상을 구하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생명을 얻게 된다.</p>

구 분	내 용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선인들(삼봉(/상호/조룡 - 남) <소요정언록>의 정언을 해석하고, 난세를 구할 선택된 영웅과 함께 세상을 지키려는 소요산 특공대 3인방. 식탐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우를 도와 여인들과 어지러운 세상을 구한다.</p> <p>백운골 신선들 (상백운/중백운/하백운) 백운대에 사는 소요산 신선들. 난세를 막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정우를 위해 자신들만의 필살기를 각각 1가지씩 정우에게 속성 훈련시킨다. 간만에 찾아온 난세 영웅이 또 언제 올세라 청소와 밥 짓기 등 가사노동을 계속 시키지만 그 실력과 능력만큼은 최고이다.</p> <p>남자 (요괴들의 대장) 욕망에 눈 먼 걸만 멧쟁이 신사. 자신을 짝사랑하던 김은미를 꼬드쳐 납치한 후 난세 영웅으로 지목된 동생 김정우를 소요산으로 끌어들여 죽이려 한다. 원효대사의 소요산 부처친견 이래 1400여 년 간 반도침략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2011년, 실종으로 위장하여 반도의 새생명을 잉태할 여자들을 납치, 제물로 바치고 세상을 정복할 새로운 계락을 꾸민다. 김정우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된다.</p> <p>김은미 (여, 34세) 김정우의 누나. 김정우를 죽이려는 남자의 계략에 빠져 납치된다. 평소 김정우를 위해 헌신하는 엄마 같은 누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납치되어 세뇌, 폭력 고문에 고통을 당한다.</p> <p>요괴, 잡귀들 남자가 끌고 다니는 일본 귀신들로, 김정우를 위협하고 세상 정복을 위한 남자의 수단들이다.</p>

시놉시스

프로 야구선수로 데뷔할 뻔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댓글 알바로 삶을 연명해 나갈 뿐인 사회 부적응자 김정우. 그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를 잃고 선수로서의 생명도 박탈당한 아픔을 지니고 있다. 그런 그에게 단 하나뿐인 누나는 어머니이자 실낱같은 희망이다. 하지만 회사 단합대회를 위해 집을 나섰던 누나는 그대로 실종되어 한 달 째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평소 짝사랑하던 회사 동료와 실종되었다는 점, 상사와의 불륜 스캔들로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아 권고사직이 예정이었던 탓에 회사와 경찰에서도 누나의 실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서본 지 벌써 5년, 정우는 누나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만 보내고 있다.

누나가 실종 장소인 소요산 어딘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예지몽을 꾸는 정우는 직접 누나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혼자 하기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던 차에 그는 소요산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아준다는 ‘소요산 특공대’의 광고글을 접하게 된다. 그들과 만나 누나를 꼭 찾으리라 마음먹은 정우는 소요산으로 출발한다.

소요산에 도착한 정우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 특공대가 살고 있다는 공주봉으로 향한다. 오랜만의 운동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쳐있던 정우는 등산 온 중년 남자 세 명에게 막걸리와 점심을 대접 받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으로 변신한 요괴들이었고 정우는 요괴들에게 결박당해 납치될 위험에 처한다. 그 때 매로 변신한 소요산 특공대 멤버 조롱이가 정우를 구하게 된다.

조롱이와 함께 공주봉 특공대 합숙소에 오게 된 정우는 누나를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소요산 특공대가 사실은 몇 백 년 간 소요산의 예언을 담은 <소요정언록>의 해석과 보관을 맡고 있는 선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정우가 <소요정언록>에서 지목한 현세의 영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 사실을 먼저 안 요괴들이 정우를 유인하기 위해 누나를 납치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던 정우도 요괴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누나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소요산 특공대에 가담하게 된다.

세 선인은 소요산의 비밀에 대해 알려준다.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당시 복중에 있던 아들 설총을 버리고 소요산에서 수양을 쌓고 득도하게 된 이유는 소요산에 서려있던 사악한 기운들을 억누르기 위함이었다. 사악함이 커지다 보면 반드시 난세가 도래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원효대사는 소요산에 기거하면서 아무도 몰래 사악한 잡귀와 요괴들을 잡아 땅에 가두고 결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원효가 부처님과 친견에 따라 작성한 <소요정언록>은 그 결계를 지키고 난세 때마다의 영웅을 지목한 예언서였다. 그 예언에 따라 난세를 구하는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웅이 없는 한탄스러운 시대에는 난세가 도래하여 국가가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정우는 누나를 구하기 위해 훈련에 돌입한다. 백운대 어딘가에 있는 ‘백운굴’로 간 정우와 세 선인은 그 곳에서 상백운, 중백운, 하백운 신선을 알현한다. 정우는 둔갑술, 축지법, 독심술을 배운다. 정우는 독심술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어느 정도 정우와 세 선인 모두 마음이 합일하던 날 삼봉은 신선들에게 나아갈 길을 여쭙고 신선들의 조언에 따라 그들은 요괴들의 대장격인 악인귀를 쳐부수고 빛 희생을

막기 위한 길을 떠난다.

원효폭포의 돌벽 안에 있는 악인귀의 소굴로 들어선 네 사람은 그 안에 수십 명의 여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끔찍한 장면을 목도한다. 이제 얼마 후면 악당들의 제물로 바쳐질 여자들을 구해내기 위해 넷은 정면으로 요괴들과 맞선다. 혈투 끝에 그들은 가까스로 누나 김은미를 비롯한 여자들을 구해낸다. 하지만 요괴들의 추격은 계속되고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후 그들은 금송굴로 피신하여 겨우 휴식을 취하게 된다.

세 선인은 여자들을 배웅하러 산 초입까지 내려 갔다가 그들을 추격하던 요괴들과 요괴들의 대장 악인귀의 공격으로 악인귀의 조롱박에 갇히게 된다. 금송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정우와 은미는 갑작스런 요괴들의 등장 놀라게 된다. 또한 은미가 사랑했던 남자가 단지 그녀를 이용하려고 했던 요괴들의 대장 악인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하게 된다. 세 선인과 여자들을 가둔 악인귀 남자를 상대로 정우는 이제 혼자서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된다.

관음봉 기슭에서 그들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다. 가까스로 악귀에 전염된 누나의 공격과 요괴들의 진을 물리친 정우는 남자와 일 대 일 대결을 펼치게 된다. 천 사백 여 년을 기다려 온 악인귀의 공격에 정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회심의 일격을 눈치챈다. 정신 없는 와중에도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정우는 백운골 신선들과 세 선인을 떠올리며 맘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악인귀 남자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읽어낸다. 이윽고 악인귀가 회심의 일격을 함과 동시에 그가 휘두르는 검을 가지고 역으로 남자를 찔러 무찌른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던 조롱박 안에서 선인들과 여자들을 구해낸다.

다시 결계에 악인귀와 요괴들을 가두고 난세에서 평화를 구해 낸 정우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함께 얻으며 뜻깊은 모험을 마친다. 원효폭포에서 선인들이 나누어 주는 조롱박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그간 있었던 모든 소요산의 기억들을 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2년 후, 오랜 방황을 벗고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된 정우.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다시금 소요산을 찾은 그의 모습을 매료 변신한 조롱이 기쁜 듯 바라본다. 소요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비춰진다.

소요산 특공대 : 소요형언록의 예언

108 계단에 이르자마자 은미가 눈에 띄게 동료들에게서 뒤쳐졌다. 등산화 대신 끈 조인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발목이 벌써부터 삐끗거렸다. 요석공원에서 다 함께 왁자지껄 먹은 김밥과 동동주가 뱃속에서 끓어댔다. 삼삼오오 날래게 산을 오르는 그녀의 동료들 그 누구도 은미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달 말이면 그만둘 회사 단합산행에 대체 왜 따라 나선 것인지 스스로도 바보 같았다. 게다가 권고사직이 아닌가. 유부남 상사의 일방적인 대시에 무관심으로 일관했을 뿐이지만 상사 아내는 은미를 불륜녀로 몰았다. 은미의 편은 없었다. 평소 일 잘하는 사원이었지만 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회사 동료들은 잘근잘근 스캔들을 음미할 뿐이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은미는 불륜 딱지를 붙인 채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일산에서 여기 소요산까지 온 것일까. 이쯤에서 그냥 하산할까 고민했다. 산 정상에서 아래까지 짐을 오르내리는 레일을 타고 집까지 미끄러져 가고 싶었다.

108 번째에 괴로워하며 계단을 오르는 은미를 앞서가던 남자 동료 한 명이 그녀를 돌아봐 준다. 그녀를 향해 살포시 미소를 짓고는 다시 씩씩하게 걸어가는 남자의 듬직한 뒷모습에 은미의 뺨이 붉어진다. 맞다, 산에 온 이유. 고백도 뵈도 한 적 없지만 그녀는 저 남자를 사랑해 왔다. 같이 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어쩐지 연인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도 남자는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그녀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재직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그를 더 보고 싶었다. 기회가 된다면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도 해 볼 참이었다. 바로 이것이 요 몇 년간 바쁘게 일만 해 온 그녀가 등산화도 없이 따돌림을 무릅쓰고 소요산에 온 이유다.

엄마야! 은미가 뽀족하게 솟아난 돌부리 같은 것에 걸려 넘어졌다. 남자의 뒷모습만 보며 걷다 미처 한 치 앞을 못 본 탓이다. 눈물이 쏙 빠지게 아팠다.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만 들어보니 잘 닦은 반석 위에 탑과 비석이 보인다. 일어나야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새 남자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아요? 묻는다. 넘어진 채 고개를 끄덕여 보지만 좀처럼 팔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남자가 은미를 번쩍 안아들며 병원에 가자고 말한다. 은미의 가슴이 쿵닥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아프던 발목도 속도 깨끗하게 나았다. 왜 왔냐는 동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오그라들었던 마음도 다시금 발랄함을 되찾았다. 남자 품의 온기를 느끼며 은미는 소요산에 오길 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은미는 요 몇 년 사이 처음으로 행복감과 설렘을 맛 봤다. 소요산의 단풍들이 그녀의 뺨만큼 아름답다.

1

누나가 소요산에서 실종된 지 한 달이 흘렀다. 경찰의 수사와 수색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찾고자 하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 쪽에서는 누나의 실종을 거의 가출로 단정 짓는 듯 했다. 누나가 회사의 젊은 남성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상사와 염문설에

휘말리는 등 그다지 사생활이 바른 여자는 아니었다는 회사 사람들의 진술도 경찰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한 몫 한 듯 했다. 처음 실종신고를 했던 회사에서는 어차피 해고될 예정인 누나의 실종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누나의 책상을 정리한다면서 집으로 누나의 짐을 보내겠다는 사무적인 전화 한 통만 걸려왔을 뿐이다.

일이 이렇게 되는 동안 정우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실종정황에 대해 묻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형사를 대면한 것 두 어 번과 누나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함께 사라졌다는 남자의 사진을 찾아보았던 것 외엔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나를 찾아다니지는 않았다. 그러지를 못했다. 5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었다.

5년 하루 전까지 그는 야망과 포부로 푹푹 뭉쳤던 우직한 야구선수이자 자신감 있는 청년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다 할 슬럼프 없이 늘 주전으로 뛰었다. 비록 고교 졸업 때 구단에 러브콜은 받지 못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꾸준한 기량을 선보였다. 상대를 응시하며 수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프로 2군에 입단 제의를 받았다. 연봉 6천만 원. 정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잘 해나갈 자신이 있었다.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좋은 차 한 번 몰아보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 거금 사천 오백만 원 짜리 중형차를 구입했다. 그 차를 몰고 경치 좋은 교외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행복한 며칠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반주를 몇 잔 마셨다. 그리고 곧 교차로에서 트럭과 그대로 충돌했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정우와 누나는 살았고 부모님은 그대로 돌아가셨다.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부모님 장례식을 치렀다. 부모님께 드렸던 남은 연봉 천 오백만 원은 장례식 비용으로 썼다. 그리고 KBO 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다. 구단에 6천만 원 빚을 지고 외국으로의 판로도 막힌 채 정우의 프로선수로서 짧은 며칠이 그렇게 영원히 끝이 났다. ‘술 먹고 부모죽인 놈’이 된 정우는 연일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다. 쫓기듯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온 정우는 문을 닫고 그 후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누나만이 정우와 세상을 잇는 통로였다. 누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슬픔을 묻어두고 쾌활하게 지냈다. 회사 사람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건 그저 자신의 앞에서 한 슬픈 연기에 불과했겠지만, 누나가 회사에 가면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 했지만 누나의 기척과 온기로 정우는 하루하루를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 누나의 실종은 정우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 단절 속에서도 정우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 보일 자신이 없었다. 한 달 동안 매일 매일 잠들기 전까지 정우는 혼자 된 외로움과 공포에 시달렸다. 미치기 일보직전이었다.

형사 : 이건 가출이라고 봐야 돼요. 정황상 그렇잖아요. 남녀 사체도 발견 안 됐고 둘이 껴안고 산 밑으로 내려갔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어요.

정우 : 저한테 전화가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형사 : 이젠 안 할 모양이죠.

정우 : 그래도 사람이 연락도 없이 실종이 됐는데.

형사 : 그렇게 미련이 남으면 동생 분께서 직접 찾으세요.

조사도 안 나오겠다 그래서 집까지 찾아가게 하더니만. 저희도 힘들어요.

용기 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정우는 힘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간밤에 정우는 꿈을 꿴다. 소요산 골짜기 어딘가에서 온 몸이 피로 물든 채 수많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제물로 바쳐지는 누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이제 혼자된 공포와 누나 신변에 대한 걱정이 더해졌다.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요산 수색을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시원찮다. 나에겐 가족이지만 경찰에겐 한 장 남자와 함께 도망쳤을지도 모르는 그저 그런 실종자에 불과할 것이다. 세상은 남의 마음까지 신경 써서 행동하기엔 너무나 바쁘고 가혹하다. 지난 밤 꿈을 꾸기 전까지 정우도 누나가 남자와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불길했다. 꿈속에서 보았던 누나의 눈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이 고통을 말하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누나가 단지 남자와 도망쳐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확신이 정우에게 생겼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사라진 누나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정우의 머릿속이 멎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다. 구단에게 진 빚을 위해 재택 댓글알바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본 세상이 그가 아는 현재의 전부다. 게다가 그에겐 같이 동행해 줄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없다. 그는 지독하리만큼 아무도 없는 혼자다.

두 번째로 누나 꿈을 꾸 다음 날 새벽, 정우는 콜택시를 부르기로 했다. 누나는 절규하고 있었다. 꿈에서 깬 정우의 팔에 누나의 처절한 손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정우는 누나가 애타게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느꼈다.

새벽 5시, 누나 방에 있던 얼마간의 현금을 발견한 정우는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후에 택시를 잡아타고 그토록 자신을 부르는 소요산으로 향했다.

정우는 잠도 잊은 채 프린트 해 온 종이들을 뒤적거렸다. 소요산의 주요 등산로를 들여다보며 누나가 사라진 관음봉 부근 추담스님 공덕비와 108계단을 잇는 등산로들을 훑어봤다. 그리고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소요산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 정우는 한 사이트에서 ‘소요산 실종자 찾아드립니다’ 라는 글을 발견했다. 소요산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3명의 특수 훈련팀이 소요산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틀림없이 찾아준다고 되어 있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선금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글귀에 밀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수련생활로 인해 휴대폰이 없으니 산의 뜻에 따라 잘 찾아오라는 터무니없는 남자의 메일을 정우는 진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만큼 절박했고,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사람이 두려운 만큼 사람에 굶주렸다고 스스로를 생각 해 보는 그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정우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택시에서 내린 정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썼다. 등산객이 많았다. 입장료 2,000원을 지불하고 소요산 초입인 요석공원을 빠르게 올랐다. 578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5년 간 운동이라곤 하지 않은 정우에겐 초입부터 버거웠다. 안내도를 보자 의상대가 소요산의 가장 꼭대기였고 3-4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 정우는 등산을 시작했다.

정우는 메일을 보낸 남자의 말을 차례차례 떠올리며 그대로 행했다. 원효폭포에서 손발과 얼굴을 씻었고 물병에 물을 담았다. 108계단을 지날 땐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혹시나 누나의 사체가 있을까 싶어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108계단에서 정면으로 관음봉이라는 곳이 보였다. 원효대사가 부처님을 친견했다는 곳이다. 소요산은 원효 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이름과 이야기를 탄 장소가 많은 것

같다. 관음봉에 앉아있던 때 한 마리가 저공 하여 정우를 빙빙 돌다 사라진다. 바위를 기점으로 보이는 소요산의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졌다. 누나는 과연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석별한 뒤 도를 닦기 위해 지었다는 자재암에서는 난생 처음 예불을 드렸다. 지난여름의 폭우 때문에 돌탑들과 난간들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절 곳곳이 크게 훼손 돼 있었다. 도를 닦는다고 정을 통하던 요석공주를 떠나 이곳에 절을 지었을 때 원효대사는 대체 어떤 생각이었던 건가. 자신을 좇아온 요석공주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하니 그 시대의 나쁜 남자였을지도 모른다. 정우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자재암을 바라보았다. 십시일반 신도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천불도 있었다. 천 명의 부처님, 그 중 한 명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 나의 누나를 굶어 살피 주소서. 정우는 기도하며 자재암을 지나쳤다.

정우는 소요산 등산로가 꽤 불친절 하다고 생각했다. 잘 닦여진 길은 자재암 근방이 전부다. 바위가 많아 금세 발목에 무리가 왔다. 높은 바위를 타넘으면서 정우는 나무 위에 매달린 리본들을 유심히 봤다. '나무에 매달린 리본들이 오는 길을 알려 줄 겁니다.'라는 메일의 글귀 때문이다. 하지만 '공중도덕 지킵시다.', '주 예수 교회', '봉우리 산악회' 등의 글귀만 보일 뿐 리본 어디에도 나아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날은 덥고 무척이나 힘들었다. 정우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원효폭포에서 떠온 물을 마셨다. 짝짝름하고 미지근했다. 정우는 물병의 물을 나무에 모두 부어 버렸다.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일어섰다.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정우의 모자를 앗아가 버리는 통에 정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리본을 다시 보았다. 정우의 눈에 리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정우는 비로소 자신이 갈 방향을 가지고 걷기 시작했다. 공주봉이다! 산을 오른 지 몇 시간이 흘렀다. 정우의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아직도 목적지인 공주봉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다. 목이 마르고 배도 무척 고팠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나무 그늘이 드리운 바위에 둘러앉아 도시락이며 과일과 술을 나누어 먹었다. 산 초입 '마지막 편의점'이라고 적혀 있던 매점에서 뭐라도 사 올 걸 하는 후회도 들었다. 그 매점을 지나치자 정말 음식 파는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다. 원효폭포에서 떠온 물을 조금만 남길 걸 하는 후회도 막심이었다. 어디서 왔어? 하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중년의 대머리 아저씨 서너 명이 얼큰한 얼굴을 하고 정우를 향해 친근한 표정으로 웃고 있다. 수도사 모자라도 쓴 듯 머리 중앙은 텅 비고 그 곁에만 머리가 있다. 세 아저씨 모두 똑같은 머리 스타일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갓파쿠를 떠올리게 했다. 정우는 낯선 사람들의 인사에 순간 몸이 굳었지만 겨우 까딱 인사를 했다.

정 우 : 일산...

중년남 : 일산부터 여기까지 왔어? 멀리서도 왔네? 젊은 친구가 건설하네.

산이 몸에도 좋고 좋지! 젊을 때 산에 많이 다녀야 돼.

늙으면 무릎 꼬맹이 아파!

와하하하, 웃고 떠드는 중년의 아저씨들은 아줌마들보다 훨씬 시끄러운 것 같다. 하지만 아저씨들의 친근한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다. 5년 전 그 날 이후, 자신을 향해 가감 없이 웃어주는 사람으로 오랜만에 만난 것 같다. 조금 일찍 문 밖으로 나왔어도 됐을까? 생각해보는 정우다. 아저씨들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갓파쿠 아저씨 한 분이 정우에게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라며 불

잡는다. 아저씨들이 술판을 벌일 준비를 한다. 떡이며 과일, 막걸리들을 보자 가뜩이나 주렸던 정우의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배고픔은 어색함과 쑥스러움도 이긴다. 정우는 저도 모르게 아저씨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잔을 받았다. 떡이며 김밥을 먹고 술을 연거푸 들이켰다.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다. 5년 만에 마시는 술은 속을 뜨끈하게 했다. 아저씨가 정우에게 잘 익은 천도복숭아 하나를 건넨다. 과즙이 줄줄 흐르는 달고 시원한 복숭아였다. 아저씨들의 웃음소리에 덩달아 정우도 많이 웃었다. 슬슬 눈이 감기고 졸려왔다.

정신은 흐릿하고 몸도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다. 팔과 다리가 결박당하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든다. 갓파쿠 세 아저씨의 얼굴이 보인다. 분명 그 아저씨들인데 뭔가 기괴한 모습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메일들을 살펴보고는 희심의 미소도 짓는다. 펍치기 일당이었나? 역시 되는 일이 더럽게 없나보다. 약간의 공포도 있었지만 자포자기도 있었다. 어차피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 줄 만한 연결고리는 가족도 꿈도 뻗어도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으니까. 공주봉이 코앞인데 자신은 언제나 희망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인간이다. 술 따위 안 먹었어야 했다.

정우를 결박하던 갓파쿠 아저씨들이 무언가에 얻어맞고 쓰러진다. 커다란 매 한 마리가 아저씨들의 머리를 쪼아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우는 정신을 잃었다.

정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좁은 오두막 안에 잔타라 빠진 세간이 보인다. 자신의 방에서 나는 익숙한 홀아비 냄새까지 폴폴 풍긴다. 딱 봐도 저승으로 올라간 건 아닌가 보다. 누군가에 의해 살아난 것 같은데 여긴 어딘가. 그 때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일어났어? 자기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 옛된 청년이 다짜고짜 반말이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해서 정우는 눈만 멀뚱히 떴다.

조롱 : 일본 요괴야 요괴, 나 아녘음 요괴들한테 끌려갔을 거라니까.

청년은 정우에게 물을 건네며 저렇게 허세를 부렸다. 자기가 만날 사람이 있어 마중 나갔다가 정우를 발견했기에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일본 요괴한테 끌려가서 영원히 노예로 부러졌을 거라는 등 생각나는 대로 마구 말을 쏟아냈다. 미친놈인가?

상호 : 이조롱 이 미친놈아! 네가 라면 다 처먹었냐?

중년의 남자 둘(삼봉, 상호)이 국자를 들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다 정우를 발견하곤 입을 다문다. 그리곤 조롱이라 불린 청년에게 귓속말을 한다. 수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밀려드는 구토 증세에 정우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까 먹었던 복숭아가 튀어나왔다. 붉은 복숭아가 여러 마리의 실뱀으로 변하더니 사라졌다.

조롱 : 그 복숭아, 잠깐만 더 네 안에 있었으면 너 죽었을 거야.
근데 희한하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보기엔 무재주가 재주스러운데.

조룡이가 정우의 등을 토닥여 주며 말했다. 듣다보니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다. 버릇없는 자식. 그 나저나 이곳은 어디지, 살펴보니 공주봉 밑 깊숙이 숨어있는 작은 집이다.

정우 : 소요산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조룡 : 도 닦으러.

정우 : 왜 지리산 같은 델 안 가시고?

조룡 : 다 이유가 있어. 내려가다 구청에다 찌르지 마!

정우 : 이 야트막한 산에서 도를 닦는다고요?

조룡 : 근데 너, 어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정우 : 누나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에서 실종됐는데 누나 찾아 줄 사람들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조룡 : 정말? 누나가 실종 됐어?

정우 : 네.

조룡 : 원효폭포에서 세수족 했어?

고개를 끄덕이는 정우의 모습에 등을 두드려 주다 말고 상호 형님, 삼봉 형님 손님이 왔어요! 라며 조룡이 뒤꼍으로 달려간다. 뒤꼍에서 남은 라면 개수를 세던 상호와 삼봉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 나온다.

방 안에 장정 넷이 둘러 앉아있다. 조룡과 달리 상호와 삼봉은 진지한 표정이다.

상호 :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오셨다고?

조룡 : 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는 마케팅을 잘 해야 된단니까. 이것 봐요 석 달 열흘 했더니 한 명 왔잖아! 100년 만이라고요!

단순 실종자일 수도 있어. 상호가 엄한 얼굴로 조룡이에게 말했다.

조룡 : 108계단 부근이래요. 추담스님 공덕비일거예요. 냄새 안 나요?

세 사람의 말을 정우는 의아한 얼굴로 멍하니 쳐다봤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말이 없던 삼봉이 가보자. 사람이든 뭐든 찾아보자, 하며 일어섰다. 이 사람들, 믿어도 되는 걸까. 머릿속으론 여러 가지 잡념이 들면서도 정우는 우선 세 사람을 따라 나섰다. 어차피 자신 혼자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밀쳐야 본전이다.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이예요? 정우가 묻자 상호가 대꾸한다. 우리 특공대 출신이야. 소요산 특공대, 아니, 아니 소요산 불법점거 특공대다.

공주봉에서 자재암까지 내려오는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분명 정우가 지도로 보기엔 꽤 먼 거리였건만 말 몇 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벌써 도착했다. 정우는 저 세 사람이 축지법을 쓰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조금은 든든했다.

네 사람은 우선 자재암부터 108계단 주변을 이 잡듯이 뒤졌다. 삼봉의 말에 따르면 단순 실종자일 때를 대비하여 주변 수색을 먼저 해야 한단다. 능선과 바위를 훌쩍훌쩍 타넘어 다니며 잘도 뒤졌다. 정우는 겨우 108계단 다리 밑이나 살펴봤다. 수색을 모두 끝냈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네 사람은 추담스님 부도탑 쪽으로 가서 예를 갖춘 뒤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 때 삼봉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사! 나머지 세 사람이 달려가 보니 바닥에 깊게 패인 자국이 있었다. 삼봉은 말없이 흙을 파냈다. 그 안에서 작은 향아리 하나가 나왔다. 조롱이도 놀란 표정으로 눈만 깜빡거렸다. 저게 뭔가. 정우는 어안이 병병했다. 향아리를 열자 부서진 더 작은 향아리들과 찢어진 부적이 보였다.

상호 : 결계가 풀렸다.

그러면 안됐지만 정우는 저도 모르게 폭소했다. 불법점거 홈리스인 줄만 알았더니 또라이들이구만. 뭐가 어째? 어렸을 적 만화영화에서나 보던 발음이다. 결계란 건.

정우 : 결계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호 : 요괴한테 잡혀간거야 너희 누난. 누나 외에도 잡혀간 사람이 많아.

조롱 : 이렇게 있다간 우리나라가 위험해. 난세가 온다고.

차라리 누나가 같이 사라졌단 그 남자에 미쳐서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믿는 편이 훨씬 현실적일 것 같다. 이런 또라이들을 만나려고 아침부터 그 발악을 했던 말인가. 경찰서에 한 번 더 전화를 해 보는 게 나을 거다. 정우는 콧방귀를 끼었다. 내려온 김에 하산이나 해야겠다. 자재암 기왓장이나 한 장 사서 누나가 건강하거나 빌어야지. 정우는 세 사람에게 등을 돌려 걸어가려했다. 악! 무시무시한 삼지창이 정우의 뒷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공덕비를 파괴시켰다. 엄청난 괴력이었다. 네 사람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요괴들이었다. 삼봉과 상호 형님들이 주문을 외우자 부도탑에서 추담스님이 튀어나와 요괴들에게 다가갔다. 요괴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롱아! 상호가 조롱이를 부르자 조롱이가 매로 변신하여 요괴들을 따라 하늘로 솟구쳤다. 나무에 꽂힌 삼지창이 정우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난세의 징조다. 상호와 삼봉형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지금으로부터 천 사백 여 년 전, 원효대사가 힘겹게 물어두었던 요괴들과 그 수장이 지상과의 결계를 뚫고 현세에 출몰했다는 것이다. 근데 대체 왜 누나를 데려갔단 말인가? 정우는 언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조롱 : 네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상처투성이의 조룡이 방으로 들어서면서 말한다. 매에서 서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조룡은 날개를 접으며 정우를 바라봤다. 세 사람 모두 조룡의 말에 놀랐다. 조룡은 상호형님이 해주는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본 광경을 털어냈다.

조룡은 빠르게 날며 요괴들을 뒤쫓았다. 그 요괴들은 선녀탕 근처에서 용트림을 일으켰고 그들에게 다가던 조룡도 용트림에 휘말려 커다란 동굴로 함께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 그 곳에 정우의 누나를 포함하여 수 백 명의 여자들이 고문을 받고 있었다. 누나에게 정우가 소요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괴들이 낄낄댔다. 누나의 모습을 하고 정우의 꿈에 나타나 소요산으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다 조룡은 요괴들에게 들켜 어렵사리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정우는 왜 그들이 자신을 찾는 건지, 그리고 왜 소요산까지 자신이 와야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삼봉이 방에서 일어나 책 한 권을 가지고 와 앉는다. 정우는 유심히 그 책을 들여다봤다. <소요정언록>이라 적힌 고서적이었다. 삼봉이 책을 펼친다. 글들과 그림이 보인다. 원효대사의 초상화도 보인다. 처음 난세를 예감한 건 원효대사였지. 삼봉의 말에 원효대사 초상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책 위로 원효대사가 일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요석공주의 회임소식을 들었을 때 원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다. 복중의 태아는 하늘이 내려준 현인이 될 것임을 직감한 탓이다. 비록 파계하였으나 이 아이와 함께 종교의 화합과 중생구제의 대업을 이어가리라 원효는 몇 번이고 부처님께 용서와 감사의 절을 올렸다. 당분간은 한 여자의 지아비로 살리라 생각한 원효는 요석공주의 태교를 위해 자연으로 잠시 들어가기로 맘먹었다. 고심 끝에 원효는 땅의 기운이 좋고 산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 임신부인 요석공주와 함께 거닐기 좋은 아담한 산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이 산을 소요하기 좋은 곳이라 하여 ‘소요산’이라 부르기로 했다.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원효는 어느 순간부터 소요산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게 되었다. 귀기가 서리는데 그 느낌이 요망하고 흉악하여 두려운 마음마저 들게 했다. 원효는 곧 그것이 왜에서 건너 온 요괴들임을 알았다. 왜의 잦은 침공으로 인한 결전 끝에 죽임을 당한 왜구들의 모습이였다. 원효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원효의 안에 있던 부처님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 작지만 강건한 소요산에서 이 요괴들과의 격전을 오래토록 치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곳의 기운을 지키지 못하면 난세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 요괴들은 ‘색’이 너무나 강했다. 아녀자들을 범할 정도의 강력한 기운이었다. 요석공주와의 별궁으로 돌아온 원효는 밤낮으로 고민과 번뇌를 거듭했다. 부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까닭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행해야 옳단 말인가. 그리고 원효는 마음을 먹었다. 이 산을 자신의 사는 동안 힘닿는 그 순간까지 지켜내기로.

원효는 요석공주와 이별했다. 원효의 곁에 있는 아녀자를 요괴들이 가만들 리가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복중의 태아도 위험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원효는 헤어짐을 택했다. 원효는 부처님께 길을 구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련을 시작했다. 사찰을 짓고 밤낮없이 도를 닦았다. 폭포 아래에서 불도를 갈고 닦으며 난세를 막을 묘책을 구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다. 그 날도 어김없이 산세를 살피며 길을 구하던 그는 지금의 관음봉과 마주했다. 높은 절벽에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가 고고히 서 있는 바위의 위용이 원효의 눈을 오래도록 머물게 했다. 그리고 거저맞처럼 소나무 아래 미소를 머금은 부처와 친견했다.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처는 원효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다.

부처님과 친견한 후 원효는 소요산의 일본 요괴들을 찾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요괴들을 붙잡

아 향아리에 가둔 후 산 곳곳 중요한 자리에 향아리를 봉하여 묻고 결계를 쳤다. 소요산의 지기를 지키고 난세의 도래를 막기 위해 힘썼다. 그렇게 또한 긴 세월이 흘렀다. 원효는 어느 날 자신의 힘이 다한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지기이자 후배인 의상대사를 소요산으로 불렀다. 당나라에서 득도한 후 중생구제에 힘쓰던 그는 원효의 뒤를 이어 소요산을 지키고 국운을 지킬 선봉장이 되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난세태개의 기동과 반석을 다졌던 것이 원효라면, 의상은 매일 소요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치밀하게 요괴들을 다스렸다. 잠시라도 게을리 한다면 요망한 기운들은 곧 자신과 나라의 목을 죄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효는 죽기 전 의상에게 책 한권을 주었다. 부처와 친견해 얻었던 관음봉에서의 대화를 남긴 기록, <소요정언록>이었다. 정언록은 국운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영웅의 노력과 그림에도 빛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결국 난세 도래의 암시도 있었다. <소요정언록>의 정언에 따라 여러 영웅들이 소요산의 맥을 지키는 역사가 이어져왔다. 의상에 의해 소요산 선인들에게 <소요정언록>의 보관과 정언풀이의 대업이 맡겨졌다. 선인들 풀이에 따르면 오늘날에 대한 정언록의 정언은 이랬다.

“영웅도 아닌, 용맹한 자도 아닌 다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아는 자가 세 명의 선인과 함께 난세를 막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예언된 자가 정우 너라고 생각해. 세 사람의 깊은 눈길이 정우에게 와 닿았다. 라면 하나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무슨 영웅이고 선인이냐고요. 정우의 농담에도 그들은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난세를 막을 영웅이 나라고? 정우는 황당했다. 믿어지지 않고 믿는다 해도 절대 그럴 리가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굳은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정우 : 만약 사실이라 해도 왜 저를 잡아가지 않고 누나를 잡아간 거예요?

상호 : 난세엔 늘 여자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돼.

전에도 마찬가지였어. 원효대사가 쳤던 결계가 지금까지 유지됐던 게 아냐.

깨진 적이 두 번 있었어.

1592년 조선. 소요산 선인들은 정언록의 예언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정언록에서 예언한 대로라면 200년간의 평화 시기가 끝나고 고난의 시간이 닥치고 있었다. 더욱 큰 근심은 정언록에서 난세의 영웅을 지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경고하고 있었다.

“세상을 거꾸로 보는 이가 결계를 깰 것이다.”

이 대목을 두고 선인들끼리도 연구를 거듭했다. 세상을 거꾸로 보는 이를 찾아 난세의 시간동안 향아리에 가두어 놓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과연 그것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 모호했다. 세상을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국제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중국은 여진족이 득세하여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은 혼란한 백 년의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통일한 시점이었다. 특히 일본은 일본 통일을 넘어 대륙진출의 야욕을 가지고 서양의 조총으로 군대를 무장시킨 다음 호시탐탐 대륙을 노리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대륙과 접한 조선이 제 1 처리대상으로 눈에 띄었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조선은 당파싸움으로 시끄러웠고 200년간의 평화를 당연시 여겨 군 정비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았다. 선인들은 여러 신진 관리들의 몸을 빌려 당시의 왕 선조에게 군대를 정비하고 성을 쌓아 전쟁에 대비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선조를 포함

한 관료들은 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근심하던 소요산 선인들은 직접 결계를 지키기로 했다. 선인들은 반선인을 찾아 나섰다. 소요산 선녀탕의 선녀들이 현명한 인간을 선택하여 결합하면 태어나는 새로운 계층이 반선인들이었다. 반선인들은 인간세계에서 자신들의 쓰임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가장 지혜롭고 우직한 반선인 몇이 소요산 결계를 지키는 데 선택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금송굴 결계를 맡은 반선인 송명업이었다. 그는 정승을 여럿 배출해 낸 송씨 가문의 장남으로 살고 있었다. 송명업은 선택받은 그 날로 금송굴로 가 결계를 지켰다.

결국 선인들은 ‘거꾸로 인간’을 찾아내지 못했고 송명업이 금송굴 결계를 지킨 지 일주일 쯤 되던 날 임진왜란이 터졌다. 왜구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격화됨에 따라 금송굴의 결계도 들썩였다. 왜에서 온 잡귀들이 결계를 찾아 소요산을 들쭉시키고 다녔다. 반선인들에게 무자비한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금송굴까지 왔다. 송명업은 선인들의 조언에 따라 때를 기다려 그들을 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금송굴에서 숨을 죽이고 잡귀들이 혼란해 질 때를 기다렸다. 그 때 박쥐 떼가 일제히 송명업 주위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것들의 붉고 푸른 눈이 송명업을 일제히 비추었다. 거꾸로 선 채, 송명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깊은 내상을 입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계가 깨졌다.

난세가 도래했다. 몇 백 년만에 탈출한 요괴들은 기괴하게 날뛰며 조선을 초토화 시켰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심했으나 가장 고통 받은 것은 여자들이었다. 가장 고통을 주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왜로 끌려갔다. 요괴들의 신을 위해 제물로 바쳐졌다. 성 노리개가 되거나 부역을 해야 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숨어 지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은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할 힘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때까지 정언록의 예언을 너무 꼬아서 생각했다고 자책하던 선인들은 깨달았다. 세상을 거꾸로 보던 자들은 여전히 버젓하게 살아 조선을 호령하고 있음을. 그리고 난세는 더 이상 되풀이 되면 안 되는 지옥임을.

삼봉 : 우리만 널 알아본 게 아냐. 우리가 널 찾기 전에 요괴들이 널 먼저 찾아낸 거야. 네가 그것들을 잡기 전에 그것들이 널 먼저 찾아내 죽일 거야. 너무 긴 시간을 싸워왔어.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할 때야. 그게 지금이고, 정언을 네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네 결정에 따라 행동하겠어.

방 안에 적막이 감돌았다. 정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바라보는 셋을 바라본다. 여섯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 어쩌면 평생을 바쳤을 신념이 정우의 결정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의 눈이 말하고 있다. 쉽지 않았을 선인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인생 역경. 아팠던 건 자신만이 아니다. 이제는 다시 무언가를 향해 뿔 때다. 삶의 방향을 잃은 자신을 바라보던 누나의 눈과 그들의 눈이 닮았다고 느끼며 정우가 입을 떼다. 제가 어떻게 하면 누나를 찾을 수 있어요?

정우와 선인들 네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갔다. 밤도 낮도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동안 냇은 묵묵히 걸었다. 그들이 걷는 길을 따라 시간과 계절과 영겁의 세월이 스쳐지나갔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걸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세 선인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정우의 눈에 ‘운대골’이라고 적힌 나무 팻말이 보였다.

신선들이라며? 수행하러 왔다며? 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조롱이를 향해 소리쳤다. 집 청소를 시작한 지 꼬박 반나절이 지났다. 이 좁은 집이 왜 이렇게 치울 게 많은 거야. 한참이나 청소를 해냈지만 아직 반도 못 치웠다. 백년 만에 네가 왔잖아. 그래서 그래. 조롱이 역시 흠뻑 땀에 젖어 헉헉댄다. 백 년만의 영웅이라고 상백운, 중백운, 하백운 세 신선들이 기뻐할 때 덩달아 따라 웃었더니 그 노 신선들은 백 년만의 청소부라고 기뻐했던 게 분명하다. 빨리 하고 밥 차려! 상백운 신선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상백운 : 원래는 한 십년쯤 수양을 해야 되거든.

삼 봉 : 그러면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스승님.

하백운 : 그래 그렇다며?

중백운 : 속성으로 하자 속성으로.

상백운 : 난 둔갑술

중백운 : 난 축지법

하백운 : 난 독심술

백운골 신선들은 저마다 정우를 가르칠 학습과목을 소개했다. 그리고 세 선인들의 코칭과 함께 정우의 속성 영웅 만들기 코칭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에 정우의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밥을 짓고 백운골 청소를 한다. 식사를 마친 후 7시부터 11시까지 상백운 신선과 둔갑술 수련을 한다. 둔갑술을 위해서는 주문과 몸동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우가 듣기에 상백운 신선의 둔갑술 주문은 랩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무척 어려워서 따라 하기가 쉽지 않다. 둔갑술 몸동작도 어렵다. 계속해서 연습을 하지만 잘 따라하지 못하는 정우. 보다 못한 세 선인이 한꺼번에 손을 잡고 둔갑 주문과 동작을 하자 넷은 토끼로 변한다. 토끼의 모습 안에서 정우는 실 새 없이 동작과 주문을 한다. 빼끗 한 동작이 틀리자 넷 모두 사람으로 돌아온다. 상백운 신선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분노해 소리친다. 내가 천 년 동안 선생노릇 하면서 너 같이 모자란 놈은 처음이다 이놈아!

정우와 중백운 도사는 중백운대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고 있다.

중백운 : 난 상백 형님같이 성질머리만 더러운 노친네가 아냐. 체계적이랄까? 걸음마부터 떼보자구. 일단은 내려가야 하니까 내 손 잡아라. 올라올 땐 각자 올라오는 거다.

정우가 중백운 신선의 손을 잡자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성큼성큼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순식간에 산 초입까지 내려 온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기초 축지술 수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우는 계속 실패할 뿐이다.

중백운 : 나는 시간이 많다. 역겹의 시간도 더 남았지.

그래도 안 될 놈한테 쓰긴 아무래도 아깝다. 걸어 올라오도록 해라.

정우를 남겨둔 채 휘적휘적 축지법으로 올라가버리는 증백운 신선. 스승님! 외치는 정우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정우는 실낱같은 희망의 눈길로 세 선인들을 바라본다. 그렇지만 선인들은, 축지법은 같이 못해! 라며 얼른 축지법으로 올라가 버린다. 정우,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다. 오르면서도 계속 축지법 연습을 해보지만 잘 되지 않는다. 땀을 비 오듯 흘리는 정우는 힘들어 하면서도 표정만은 밝았다.

하백운 : 너 무재주라며? 너희들 정언록 해석 잘못된 거 아냐?

하백운대 절벽에 놓은 들마루에 누워 귀를 후비는 하백운이 정우를 조롱한다.

조 룡 : 아닐걸요?

하백운 : 걸요가 뭐야 임마? 너 스스로도 애 상태 보니 자신이 없는 거지?

상 호 :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백운 : 그래? 모르겠다. 내 임무니까 일단 해보거나 하자. 정우야.

정 우 : 예, 스승님.

하백운, 정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그를 나무 등걸로 세게 밀친다.

정 우 : 어이쿠! 왜 이러세요 스승님.

하백운 : 겁먹었지?

정 우 : 아니, 예. 당황스러워서.

하백운 : 독심술은 먼저 이렇게 시작한다. 기선제압이 첫 번째야. 너도 나도 신이 아닌데 우리가 얹은 술수로 천 길 사람 맘을 쉬이 알 수 있겠느냐? 기선제압을 딱 하고! 해 봐 어서.

정우, 쭈뻐거린다. 스승님의 먹살을 잡기도 그렇고 밀치는 건 엄두도 안 난다. 집게손가락으로 스승님의 옷자락을 살포시 잡는다.

하백운 : 정우야.

정 우 : 예 스승님.

하백운 : 네 행동에 너의 누이 생사가 결정된다.

하백운은 웃음기를 싹 거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본다.

하백운 : 너에게 국운이 달려있다고 한다. 국가의 허울이 달린 게 아니다.

민초의 생명이 너에게 달렸어. 알겠냐?

정 우 : 예, 예, 스승님!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정우는 하백운의 멍살을 거칠게 잡아 위압을 가하며 밀친다.

하백운 : 이제 내 눈을 봐. 정신을 집중하고 눈이 말하는 걸 똑바로 응시해.

정우는 눈을 부릅뜨고 하백운의 눈을 응시한다. 처음엔 눈동자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들어온다. 어떤 미동도 없이 정우를 똑바로 응시하는 결의에 찬 눈이다. 그리고 점차 하백운 도사의 눈이 정우에게 말을 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마음을 나눈다.

하백운 : 수업 끝. 무한반복 하면서 열심히 연마해라.

세 선인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우를 위해 시간을 더디게 흐르도록 만들었다. 그들만의 시간체계 안에서 정우는 백운골 신선들에게 배운 세 가지의 기술을 열심히 연마한다. 변신술은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변하고 특하면 동작과 주문이 틀려 다시 변하기 일쑤다. 축지법은 뿔랑 말랑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정우는 그래도 열심히 수련에 임했다. 그래도 독심술만은 나날이 기량이 발전하여 세 선인의 맘을 읽어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 백운골 세 신선들의 입맛을 파악하여 맛있는 끼니를 대령했고 동물들과 자연의 소리에도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정우는 웃는 날이 많아졌다.

삼봉 : 이제 길을 터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선인과 정우는 백운골 세 신선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길을 여쭙었다. 신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할 길을 이제 논해 보자. 상백운 선인이 말했다.

사방이 컴컴한 방에 선인들과 정우는 눈을 감고 정좌해 있다. 백운골 세 선인이 주문을 외운다. 그 주문들은 네 사람의 머리로 들어가 미로처럼 복잡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갈 길을 주입시킨다. 모두 정신을 집중해. 소요산의 기운을 느껴라.

이슬이 촉촉하게 소요산 전체를 적시고 있는 새벽, 정우와 세 선인은 운대골을 떠나 길을 나선다.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마음으로 의지하며 묵묵히 소요산 길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4

원효폭포에서 그들은 수족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었다. 늘 등산객으로 북적이던 소요산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원효 폭포 옆에 있는 불상으로 가 정성껏 치성을 드렸다. 오늘 비로소 네 사람의 기운이 합일을 이뤄 여정을 떠납니다. 저희의 앞길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삼봉은 경건한 목소리로 불상에게 기도를 올렸다. 마지막 합장을 마친 넷은 서로 손은 잡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주문이 계속되자 불상 옆 밋밋한 돌 벽이 동굴처럼 스르르 제 몸 속을 열어보였다. 넷은 돌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금 문이

닫히고 불상 안에 갇든 신이 잠쪽같이 돌을 다시 벽으로 만들어 버렸다. 고요한 소요산 초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길고 좁은 터널을 통과하고 가파른 계단을 내디뎠다. 길고 긴 터널을 걷고 또 걷던 중 그들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들은 보게 되었다. 미용실처럼 거울과 의자를 하나씩 차지하고 앉은 수십 명의 여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반선인들과 난세 영웅들의 식솔들이다. 그리고 거울 안에서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괴들의 세계재패 애니메이션 선전영상들이다. 여자들의 앞에서 여러 명의 요괴들이 그녀들을 희롱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크게 설치된 모래시계는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말하고 있다.

조룡 : 저 시간이 끝나면 여자들은 악인귀에게 제물로 바쳐질 거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 결계가 모조리 깨질 테니까. 그 전에 우리가 여자들을 다 데리고 빠져나가야 돼.

정우 :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해결책을 궁리해보며 이리저리 살펴보던 정우는 흠칫 뒷걸음질 쳤다. 사악한 기운의 잡귀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려보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잡귀들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빛은 길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차고 뜨거운 기운들이 서로 엉켜 알 수 없는 회오리와 소음들을 냈다. 그들은 여자들이 감금된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악한 기운을 받은 여자들까지 그들을 공격하는 무리에 가세했다. 세 선인이 공력을 모아 허공을 가르고 잡귀들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일 대 백의 싸움이 계속되자 네 사람은 더 이상 버티기엔 무리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정우는 빠르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떨어진 절벽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 통로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우와 세 선인은 서로의 눈을 보며 마음을 통했다. 그리고 손을 맞잡은 채 주문을 외기 시작한다. 굉음과 함께 회오리가 일었다. 삼봉의 소매로 수십 명의 여자들이 들어왔다. 그 동안 나머지 두 선인들과 정우는 여전히 공격을 멈추지 않는 요괴들과 격전을 벌였다. 고전 끝에 그들은 변신술을 통해 매로 변하여 요괴 소굴을 벗어났다. 그러나 요괴들 역시 술수를 통해 그들을 끝없이 추격해왔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소요산 전체를 통틀어 계속되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통에 간간히 산을 찾았던 등산객들은 갑작스러운 바람과 환영, 회오리로 황당하고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산행을 했다.

산 전체를 몇 바퀴나 돌았던 걸까. 정우의 기가 바닥났다. 축지법과 변신술을 사용하는 동안 술법에 익숙지 않은 정우는 몇 번이나 실패했다. 세 선인들이 함께 있었기에 겨우겨우 위기를 모면해 온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도 계속되는 싸움과 추격 때문에 선인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축지법의 발걸음도 점점 더더져갈 무렵 네 사람의 눈에 자재암이 띄었다. 그들은 그 곳으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요괴들도 그들의 뒤를 따라 자재암을 습격했다. 지금 정면대결을 했다가는 승산이 없었다. 잡귀들이 아무리 미약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는 수 십 수백의 괴물들이었다. 정우는 정신없이 주위를 살폈다. 그들이 아주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공간이 필요했다. 정우는 처음 소요산에 올라오던 날 자재암에서 보았던 천불을 모신 방으로 세 선인들과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변신술을 통해 천불로 변했다. 요괴들이 들어왔지만 그들

을 찾을 수는 없었다. 요괴들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분해했다. 그리고 잡귀들을 데리고 자재암을 떠났다. 아니, 떠나려고 했다. 그 때 요괴 한 마리가 천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 불상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기 시작했다.

요괴 : 천 하나, 천 둘, 천 셋….

요괴 무리는 불상들을 파괴해 나갔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불심과 정성을 모아 모신 불상들이었다.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싸울 수도 없었다. 냇은 마음을 맞댔다. 단전에 기를 모아 이성이 알아차리지 못한 숨은 기를 요괴들을 향해 발사했다. 요괴들이 그 파괴력에 주춤하는 사이 그것들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헉, 헉, 헉 숨이 턱밑까지 찼다. 오르막을 오르는 터라 힘이 배로 들었다. 축지법도 변신술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뒤에선 역시나 지쳤지만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추격하는 요괴들이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 정우와 세 선인은 잡힐 듯 잡힐 듯 겨우겨우 포위를 면하고 있었다. 점점 힘이 떨어진다. 이대로 잡히는 건가. 온 몸의 힘이 이미 다 빠졌다. 맨 뒤로 처져있는 정우의 옷을 요괴가 움켜쥐었다. 그 순간이었다. 조룡이 정우의 멱살을 잡아 핵 끌어당겼다. 그리고 짐짝처럼 정우를 어딘가로 끌고 와 내동댕이쳤다. 악! 정우와 선인들은 레일에 올라탔다. 누군가가 밀어주기라도 하듯이 레일은 롤러코스터의 속도로 요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산 위로 올라갔다.

금송굴 안으로 겨우 기어들어간 네 사람은 땀에 젖어 드러누웠다. 요괴들도 추격을 멈추었는지 굴 밖도 조용했다. 정우는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느낌이 머리끝까지 올라옴을 느꼈다.

정우 : 누나는요? 무사해요?

삼봉이 소매를 펼치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정우와 상호, 조룡도 삼봉의 곁에서 헉헉 대면서도 가까스로 주문을 도왔다. 한 명, 한 명 여성들이 삼봉의 소매에서 나왔다. 소매에서 나온 수십 명의 여자들이 굴 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엔 아직 사악한 기운에 휩싸여 있던 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이 돌아왔다. 오랜 기간 고통의 상처로 신음했다. 그 중에는 정우의 누나도 있었다.

정우 : 누나……!

은미 : 정우야?!

두 남매는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라고 묻는 자신의 남동생을 바라보면서 은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

남자의 품에 안겨 산을 내려갈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지난 5년간의 슬픔도, 불쾌한 소문들도 모두 잊고 자신이 사력을 다해 짝사랑 했던 남자와 자신 둘 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원효폭포 안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갔다. 로맨틱한 상황을 상상했던 은미는 졸지에 포로가 되었다. 남자는 요괴들의 교주였다. 소요산 결계를 깨고 온 세상을 재패하려는 야욕에 불타있었다. 폭력과 고

문 그리고 정언록에 언급된 남동생 정우를 데리고 오라는 회유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남동생 정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남동생은 전부였다. 그렇게 버티길 수차례, 요괴들은 은미의 뇌 속에 마음대로 들어가 꿈을 조종하고 급기야 정우의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정우가 자신을 구하러 와주길 바라면서도 제발 자신을 찾지 않길 바라는 모순적인 마음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복됐다. 그러다 결국 내일 모레면 자신들이 요괴들의 교주에게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생이 걱정되고 또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 정우는 세상을 버린 몸이었다. 하루하루 걱정과 그리움을 안고 살던 자신의 앞에 거짓말처럼 정우가 나타났다. 정우의 얼굴을 보며, 사실은 무척이나 그립고 자신에게와 주길 바랐던 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누나와의 재회 후에 조롱이와 정우는 여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산에 지천으로 널린 우산나물을 뜯어왔다. 상호와 삼봉이 우산나물을 찢어 해독제로 사용하고 달인물을 마시게 해 두통을 호소하는 여자들을 간호했다. 얼마간의 휴식 후 산 초입까지 선인들이 여자들을 배웅하러 나갔다. 정우와 은미가 금송굴 안에 남았다.

그 때였다. 푸드덕 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날카롭게 금송굴 안을 가득 채웠다. 붉은 눈을 한 박쥐 떼가 정우와 세 선인들, 여자들을 에워쌌다. 박쥐들의 날개짓과 날카로운 소리들로 정신이 아득해 질 지경이었다. 이윽고 사악한 기운을 달고 요괴들이 정우 앞에 나타났다. 그 때 은미의 몸이 흠칫 떨렸다. 요괴들 사이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그 남자였다. 정우도 낯익은 인상의 그가 은미를 납치해 간 그 회사 동료임을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모두의 앞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정우의 표정에 분노와 공포, 슬픔이 동시에 어렸다. 저 남자가 선인들이 말한 악인귀였다. 그 때 남자가 철부채를 손으로 잡고 짹 펼쳤다. 그것은 삼봉의 부채였다. 철부채는 형편없이 피가 튀겨 찢어져 있었다.

사악한 기운으로 천 사백 여 년을 이어 온 그 남자에게 선인들은 공격을 받았다.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세 선인들도 귀가하던 여자들도 남자의 사악한 힘에 빨려들어가 습격을 당했다. 정우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늘 세 선인이 말했던 대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음이 급했다. 선인들의 말대로라면 이제 난세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우는 누나의 손을 굳게 잡았다. 정언록의 예언대로라면, 자신은 할 수 있을 터였다. 정우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지만 요괴들의 저지로 힘을 쓸 수 없었다. 혼자서는 무리였다. 남자 근처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정우는 요괴들에게 계속 장풍을 얻어맞아 깊숙한 곳까지 통증을 느꼈다.

남자 : 정언록 그 놈이 진짜 너 인지도 의심스러운 수준이네.

정우 : 여자들은 놈 쥐.

남자 : 여자들은 놈 쥐. 놈주면, 네가 구할 수는 있고?

정우 : 이 야비한 새끼야. 여자들 가지고 그 따위 짓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남자 : 넌 여자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정우는 킬킬대며 말을 잇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남자의 내레이션에 따라 일제 강점기 시절의 정신대, 조선 병참기지화에 따른 강제 노동 징집, 병자호란 시절 성 노예를 피하기 위한 조흔 풍습 등의 역사적 화면들이 보인다.

남자 여자들은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야. 가장 작고 약한 단위지만 없어서도 안 되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머저리 같은 너희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젠 아냐. 너희 삶의 터전을 말려 버릴 거야.

그 순간, 금송굴 안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괴성이 들린다. 남자의 패거리와 정우가 모두 놀라 바라보자 그 곳엔 봉두난발을 한 송명업이 사악한 박쥐들에게 둘러싸인 채 절규하고 있다. 남자가 비열하게 웃어 보인다.

남자 : 정언록 영웅의 말로라는 게 저거란다. 임진왜란 때 못 지킨 결계를 지키겠다고 사자들에게 빌고 빌어 소요산에 숨었지. 수십 년 뒤 병자호란까지 반생반사 상태로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결계는 깨졌지. 그리곤 저렇게 갇혀있는 거야.

정우 :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야.

남자 : 어째서 그렇지?

정우 : 네 눈을 딱 보니 그래.

남자 : 마음대로 주절 거려도 좋아. 어쨌든, 너무 오랜 시간 끌어왔어.

관음봉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자. 어차피 나도 네 목숨이 필요하니까.

말을 마친 후 남자가 사라졌다. 금송굴 깊은 안쪽에서 울부짖는 송명업의 절규가 소요산에 메아리치며 울렸다. 정우는 삼봉 선인에게서 들었던 백 년 전 두 번째 결계가 깨지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6

1908년, 폭포소리도 숨을 죽였다. 폭포로 배수의 진을 친 항일 의병장 김연성은 신식 무기로 복색을 갖춘 일본군을 노려보며 다시금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여기서 지면 결계도 깨진다. 작년,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일본군은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고 조선군을 강제 해산시켰다.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항일운동을 벌였으나 신식무기로 중무장한 일본군 앞에 패색이 짙어져 갔다. 조선인 중 적지 않은 일부는 그것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떠들며 항전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 전체를 잠식해 갔다. 오늘, 이 소요산 골짜기에서 마지막 승부좌도 다름없는 결투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의병장이나 <소요정언록>에서 예언한 영웅이 바로 김연성이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잡념조차 사치였다. 김연성은 그저 원효대사가 득도했다는 이 관음봉 기슭에서 승리가 아닌 평화를 거머쥘 수 있길 기도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와아아 하는 누군가의 함성소리를 시작으로 피와 살을 베는 혈투가 이어졌다.

생사를 건 결투 끝에 김연성은 마지막 적군의 목을 베었다. 거친 호흡으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아남은 동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연성은 자신이 선 관음봉 골짜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는 기쁨의 웃음 대신 자꾸만 눈물이 흘렸다. 이 많은 핏덩이들을 토해내며 지켜낸 승리가 그를 힘들게 했다.

“검으로 배수의 진을 친 자, 난세를 구하리라.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리.”

정언록의 예언대로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면… 부하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흠뻑러진 붉은 살점들이 그를 자꾸 불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2년 뒤, 일본의 속국이 됨과 함께 장장 35년간의 난세가 계속된다.

정우는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아픔을 동반한 비릿한 피비린내를 맡았다. 아찔한 고통에 정우가 귀를 감싸 쥐고 뒹굴었다. 그간 보았던 무술도 술수도 아닌 충이었다. 정우가 원효 폭포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조금 틀지만 앉았다면 충은 정우의 머리를 관통하여 뇌수를 꺼냈을 것이다. 정우의 고집으로 골짜기 기슭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은미가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흘렸다. 시작이 너무 화려했나?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멧을 낸 슈트까지 차려입고 나타난 남자는 나타나자마자 저런 소리를 지껄었다. 언제 봐도 재수 없는 자식이다. 오늘도 요괴들을 잔뜩 대동한 재였다.

정우가 찢어진 귀의 고통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요괴들이 공격을 시작했다. 요괴들의 검은 손이 정우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요괴들의 괴성과 완력에 정우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요괴들 역시 얇은 술수 정도만 부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결투는 완력의 싸움이었다. 정우는 땅에 떨어진 나무 막대기를 주워 들고 요괴들과 잡귀들을 다치는 대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연습용 배트라도 잡은 듯 꽤 강한 힘으로 무찌르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혼자서 무리였다.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 때 사악한 그림자 하나가 정우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누나, 누나의 몸을 빌린 귀신이였다. 두 눈이 금송굴 박쥐의 그것처럼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힘으로 정우의 멧살을 잡고 휘둘러댔다. 그것이 누나의 몸만 빌린 사악한 존재라고는 하나 차마 정우는 누나를 완전히 공격할 수가 없었다. 정우는 누나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기절시켰다. 그리고 그 동시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또 다른 요괴를 막대기로 찢어버렸다. 요괴가 모래처럼 휘날려 없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요괴들은 너무나 많았다. 남자가 자신의 휴대용 모래시계를 보며 약간은 초조하게 웃었다. 요괴들과 잡귀들에게 둘러싸여 점점 목이 조여오고 있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모든 심신을 집중하여 백운골에서 배운 축지법과 변신술을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을 외고 동작을 이어갔다. 쉬지 않고 주문과 동작을 계속해 나갔다. 정우의 발걸음이 빨라짐과 동시에 정우가 둔갑술을 이용해 여러 가지 형상들로 빠르게 변신했다. 그 모습을 남자와 요괴들이 당황하여 바라봤다. 노인, 소녀, 아기, 동물, 곤충, 식물 등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며 회오리와 같은 속도로 요괴들을 혼란시키고 처단해 나갔다.

요괴들과 잡귀들이 서로 혼란하여 부딪치는 동안 정우는 빠르게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남자가 몸을 일으켰다. 피 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정우의 얼굴을 흐르는 통에 정우는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들었지만 남자의 마지막을 각오한 얼굴에 아이러니하게 자신도 힘을 얻었다. 서로 중 하나에게 마지막이 될 싸움이다.

남자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정우가 힘없이 이리저리 내팽개쳐졌다. 숲 이리저리로 정우를 날려 보내고 나뭇가지 위에 정우를 걸어놓는 수모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린치가 이어졌다. 남자가 정우의 멧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피 범벅이 된 정우의 얼굴을 보며 남자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우는 남자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노리리란 것을 짐작했다. 9회말 2아웃,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승부사의 얼굴이다. 정우는 육체의 피로와 고통의 와중에도 냉정하게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진 싸움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소요 정언록의 예언이 진실의 ‘정언’이라면 하늘이 자신의 편일 터였다. 세 선인의 모습과 백운골 신선들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눈을 자세히 바라봐라.’ 하백운 선인의 가르침이 정우의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정우는 자신의 목살을 쥔 남자의 눈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운대로 자신도 목살을 잡으며 이글대는 눈으로 기선제압을 시작했다. 정우는 남자의 눈을 뿌리깊은 욕망과 야욕의 눈이라고 생각했다. 조금의 동감이나 동조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도 뜨거운 눈이다. 정우는 핏대를 세운 이 눈에 스러져 갔을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점점 미쳐가는 자신의 앞에 남자에게 약간의 측은지심을 느끼기도 했다.

정우는 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던 날부터 소요산 선인들, 백운골 신선들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생각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굳건하게 살아 난세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을 그들을 생각하면 자신도 더 힘을 내야 할 것이다.

남자의 눈이 스스로의 생각을 뿜어내고 있었다. 남자는 정우를 죽이고 소요산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결계가 깨지고 난세, 아니 그에게는 천하를 거머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남자의 눈이 말하고 있다. 이 즉시 너의 목을 벨 검을 꺼내리라고.

정우는 세 선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닿길 바라며 검을 꺼내는 남자의 허를 강하게 질렀다. 난 절대 지지 않아! 절대로! 발악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모래와도 같이 남자의 영이 바람에 흩뿌려지고 있었다. 비릿한 피내음이 골짜기에 스며들었다. 그 냄새와 모습은 흡사 100년 전 우리 의병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골짜기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들... 어쩌면 그들의 원혼이 이곳에 남아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난세의 아픔을 막아주는 것일지도 몰랐다.

영이 사라져버린 남자와 요괴들의 육신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다. 정우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쓰러진 은미에게 기를 쏟았다. 그녀가 곧 정신을 차리는 기색이 느껴진다. 쓰러진 남자의 소매에서 조롱박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제야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아주 긴 갈증 끝에 맥주의 병을 따듯 조롱박을 막아둔 삼베의 뚜껑을 열었다.

소요산 정상에서부터 덜덜 거리며 레일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모양새로 세 선인과 정우, 여자들이 레일을 타고 쓰러지듯 휴식을 취하고 있다.

남자의 소매에서 세 선인과 여자들을 구해낸 후 세 선인은 남자와 요괴들을 작은 항아리에 다시 가두었다. 오랜만의 신나고 경쾌한 주문외기였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있던 추담스님 공덕비 부근에 그들을 가두고 결계를 쳤다. 남자가 지니고 있던 모래시계가 다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갔다.

선인들의 집에 있는 <소요정언록>의 예언, “영웅도 아닌, 용맹한 자도 아닌 다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아는 자가 세 명의 선인과 함께 난세를 막을 것이다.”의 구절이 다른 옛 구절들처럼 금빛 양각으로 깊게 새겨지고 정우의 활약상이 원효처럼 그림으로도 남겨진다. 예언이 아닌 정언이 되는 순간이었다.

레일을 타고 내려오면서 정우는 비로소 소요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었다. 높진 않지만 소담하고 우아한 소요산의 능선들이 아름다웠다. 모자도 마스크도 없이 온 몸으로 자연을 만끽하는 정우의 모습이 훨씬 자유롭게 보였다. 포근한 산바람이 정우의 땀을 식혀주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레일이 멈추었다. 롤러코스터의 운행이 끝나듯 다사다난했던 소요산의 모험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원효폭포에서 정우와 은미, 여자들은 세 선인이 떠 주는 물 한 조롱박으로 타는 갈증을 가셨다. 그리고 그간 소요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망각했다.

에필로그

헛둘, 헛둘 기합이 잔뜩 든 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이 소요산을 오르고 있다.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학교 야구복으로 맞춰 입은 야구부 학생들은 울긋불긋 아름다운 소요산 단풍제의 절경도 만끽하지 못한 채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소요산에는 훈련에 맞춤설계라도 한 듯 계단부터 시작해서 칼바위와 높은 경사 등 다양한 난코스가 있어 이제 열 두어 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야구 꿈나무들의 얼굴이 새빨갳게 익어 있다. 야구부의 땀박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정신 차리고 정렬! 소리치는 감독의 목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의 가장 뒤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감독은 바로 정우다. 2년 사이 몰라보게 빠진 살이 그를 건강해 보이게 했다. 활력 있는 얼굴이 보기 좋게 타서 더욱 남성미 있고 균형 잡힌 몸으로 느껴졌다. 소심하게 말끝을 흐리던 그가 이제는 산이 울릴 만큼 큰 소리로 구령을 외치고 선수들을 코칭하고 있다. 등산객들과 눈이 마주치면 씨익 웃으며 눈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달리는 정우의 품 안에는 그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되었다는 아주 자그마한 신문기사가 늘 들어 있다. 화려한 재기는 아니지만 그가 인생 2막의 포문을 스스로 열어젖혔다는 용기에 대한 자축이다. 야구부원들과 힘차게 달리고 서로에게 기합을 넣어주며 그는 오늘 다시 한 번 소요산을 달리고 있다. 그의 머리 위로 매 한 마리가 원을 그리다 날아간다. 정우는 뭔가 아주 익숙한 매의 모습에 잠시 고민하다 소요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다시 훈련에 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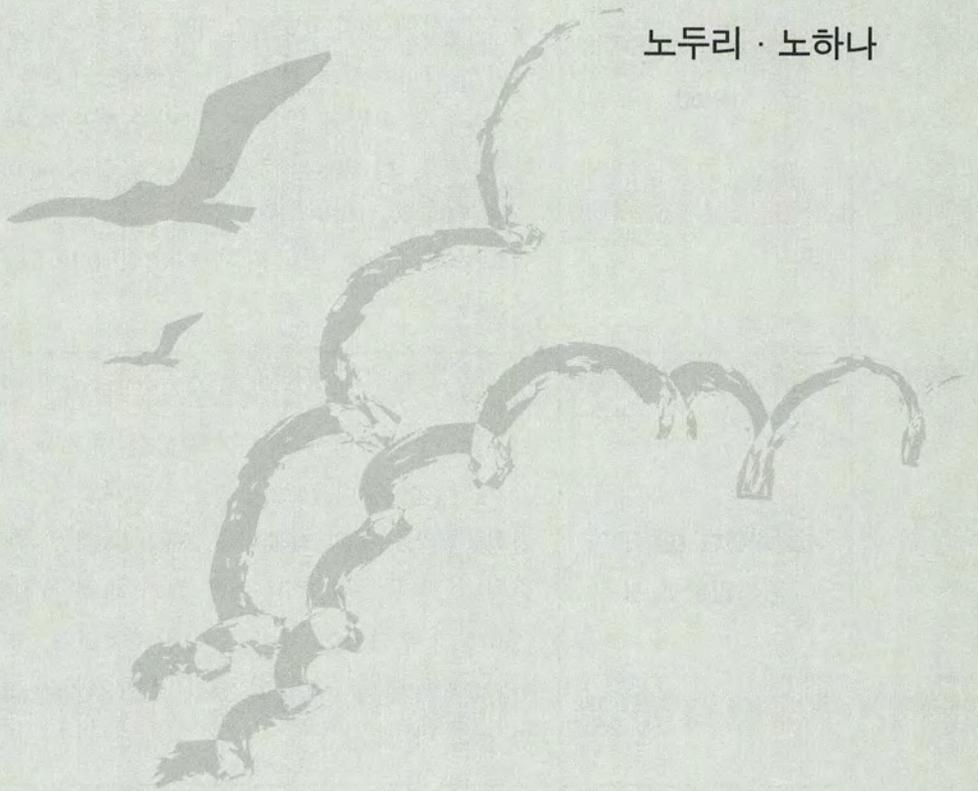
매로 변한 조롱이가 정우의 머리를 땀들다 높이 날아오른다. 소요산의 정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여 백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해갈(解渴)

팀명 : 노자매
노두리 · 노하나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소요산에는 원효정이라는 우물이 있다. 예부터 소요산은 돌산이기에 물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원효정은 자재암에 오르는 신자들을 위해 원효대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전해진다.</p> <p>이 우물에는 우물의 물을 떠 마시면 위장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부덕한 자가 먹으면 물에서 벌레가 씹힌다고 전해진다. 이 전설에서 착안하여, 영험한 원효정의 물을 차지하기 위해 한 인간이 부리는 탐욕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 보고자 한다.</p>
<p>스토리 구성 (Plot)</p>	<p>신라시대 성골 중 한 사람인 진곡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온갖 악행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20년간 낫지 않는 그의 속병이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어도, 진곡은 항상 자신의 몸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곡은 영험한 원효정에 대해 듣게 되고, 아파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 돈을 주고 원효정에서 물을 길러 올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번번이 사람들이 떠온 물을 먹으면 벌레가 씹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시켜 결국 원효정에 부덕이 몰려 물줄기가 멈추게 된다.</p> <p>원효정의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 안달 나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온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원효대사: 자재암의 주지스님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 진곡이라는 사람의 부덕함에 원효정의 물이 마르자, 일반인으로 변장해 진곡을 혼내고 깨달음을 준다.</p> <p>진곡: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는다. 원효정의 물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을 쓰는데, 그 때문에 원효정의 부덕함이 서려 물이 말라버린다.</p> <p>하인: 진곡의 충신. 몸이 좋지 않은 진곡의 명령을 무엇이든 수행한다. 진곡의 손과 발이다.</p>

시습시습

소요산, 원효가 만든 영험한 물줄기 흐르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시대 656년(태종 무열왕3년). 3일 간 요석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후, 파계를 하고 소요산으로 법도를 닦기 위해 올라간 원효 대사는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효의 덕은 나라 안팎으로 훌륭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원효를 보기위해 자재암을 찾아 소요산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자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소요산이 돌산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점이였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갈증을 느껴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었고, 원효는 이를 고민한다. 어느 날 그는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본 자리를 찾아 땅을 파자 물이 샘솟았다. 원효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위한 우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우물이 원효정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소요산에 올라온 병자들의 아픈 몸이 원효정의 물을 마신 후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이였다. 위장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롯하여 갖가지 속병을 가진 사람들은 원효정의 물을 마시고 속이 한결 후련해짐을 느꼈다.

벌레가 득실거리는 탐욕의 물.

원효정의 영험함은 성곽 내에까지도 소문이 나고, 돈을 받은 귀족의 심부름으로 원효정에서 물을 길어다주는 사람들도 생긴다. 그러나 원효정의 물은 아무리 깨끗한 상태로 퍼올린다 해도, 불순한 의도와 행실이 불온전한 사람들이 마시면 입안에서 벌레가 씹히는 불결한 물로 변하였다.

그러던 중 성곽 안의 최고 부자로 소문난 성골 진곡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 원효정의 물을 떠올 사람을 선발한다.

이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원효정의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 씹 바치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번번이 탐욕에 눈이 멀어 일을 그르치고 만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해 진곡에게 떠올린 물은, 물바가지를 뜨자마자 벌레가 득실거리려 한모금도 마실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원효정은 본래 상주승려가 어긋날 경우, 물줄기가 시원치 않게 나왔다.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자, 진곡이 계속 사람들을 시켜 원효정의 물을 받아오게 하자 그 부덕함에 원효정 물줄기는 약해졌고 결국 하루에 한 두 방울씩 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욕심은 욕심을 낳는다.

진곡이 원효정의 물을 마시지 못해 애타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자신이 원효정의 물을 길러오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는 일반인으로 변장한 원효였다. 원효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의 몸을 내어 놓겠다고 한다. 진곡은 흔쾌히 그래보라고 승낙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자는 물을 한 바가지 길어오게 된다. 그 사내는 이 것이 진정 원효정의 물이며 이 물을 마시면 만병통치가 될 것이라 했다. 진곡은 사내가 떠다준 한 모금의 물을 마셨다. 그 물은 다른 사람들이 주었던 것과 달리 별레가 득실거리지도 않았고, 시원하고 깨끗했다. 진곡은 물을 마신 후에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한모금의 물이 너무 아쉬웠다. 더 많은 물을 마시면 몸이 장정처럼 되고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진곡은 그 사내를 다시 부른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에 반을 줄 테니 원효정의 물길이가 마를 만큼 떠다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사내가 진곡에게 말하길 “이 물이 분명 사람에게 좋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진곡은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물을 모조리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내는 진곡에게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 가져다준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받고 유유히 사라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진곡의 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불쑥 의심이 든 진곡은 하인들에게 그를 잡아오라 명한다. 하인들은 여기 찾아다니다 진곡에게 받은 돈으로 산 양식과 약재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던 그를 발견한다. 진곡의 하인들은 원효를 잡아 진곡의 집으로 간다.

진곡은 원효를 집 앞 마당에 꿰어앉히고 자초지종을 묻는다. 진곡은 자신이 소요산 자재암의 승려 원효이며, 원효정의 깨끗함을 해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진곡을 벌하러 왔다 말한다.

탐욕이 더해져 독이 된 물.

다시 말해 원효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원효정을 더럽힌 그 자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그 물줄기가 말라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그를 혼내기 위해 묘수를 쓴 것이었다. 원효는 진곡에게 그 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었다. 진곡은 그 물은 원효정에서 떠온 물이지 않느냐 반문했다. 원효는 허허 웃으며, 그 물은 당신 때문에 말라버린 원효정으로 인해 물을 구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라 말한다. 그는 큰 소리로 진곡을 꾸짖으며, 그의 사사로운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예를 들어 말해준다. 평소 진곡의 착취로 인해 배를 굶는 백성들의 이야기. 또, 그의 욕심으로 말라버린 물로 인해 물을 구할 수 없었던 청년 승식이 결국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고, 매일 우물 앞에서 운다는 이야기. 하루에 한 두 방울 나오는 물을 얻기 위해 다투는 백성들의 이야기 등을 말하며 이 모두가 그대가 뿌린 탐욕의 결과라 타박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죄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원효정의 물은 결코 약이 될 수 없으며, 당신이 마신 사람들의 눈물 또한 머지않아 독이 될 것이라 말한다.

마음으로 되찾은 영험의 물.

진곡은 원효의 말을 듣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스스로 원효정이 있는 소요산에 오른다. 그리고 그 곳에서 원효가 말했듯 우물 앞에서 어미를 잃은 슬픔에 온 산이 찌렁찌렁 울리는 큰 소리로 통곡을 하는 청년과 자신 때문에 나오지 않는 원효정 물을 얻고자 다투어 유혈이 낭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진곡의 탐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원효정의 물은 한 방울이라도 얻기 위해 모두가 원효정의 부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충격으로 말을 잊지 못한 진곡은 가슴으로 뉘우침의 눈물을 흘린다.

이 후 진곡은 자신의 부를 위해 백성들에게 착취했던 재물을 모두 돌려준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재암에 올라 불공을 드린다. 놀랍게도 그 후에 원효정의 물줄기는 마르지 않고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원효정에서 자유로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 또한 진곡은 매일 원효가 머무르는 자재암에 가서 진심으로 뉘우침의 공을 드린다. 진곡은 어느 날 우연히 산에 오르던 중 원효정 우물가에서 노인이 건네주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짓는다. 누군가 진곡을 위해 건네준 배려의 덕이 진곡의 몸을 낮게 했기 때문이다.

해갈(解渴)

신라 656년 (태종 무열왕3년). 요석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후, 파계를 하고 소요산으로 법도를 닦기 위해 올라간 원효 대사는 소요산에 있는 자재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효의 덕은 나라 안팎으로 훌륭하다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원효를 보기위해 자재암을 찾아 소요산으로 몰려들었다.

#1. 자재암 마당

신자1 : 자네 혹 남은 물 있나? 어머니께서 목이 말라 하시는데, 가져온 물이 이미 다 떨어져서 말이네.

신자2 : (물통을 건네주며) 나도 딱 한 모금 밖에 남지 않았다네. 이걸로 해갈하실 수 있다면 이 물이라도 좀 드리게.

신자1 : (물통을 건네받으며) 고맙네. 덕이 넘치는 이곳에 물만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말이야.

신자 1이 옆에 기대고 있는 어머니께 물 한 모금을 드린다. 그리고 그 모습을 원효대사가 본다.

원효대사 : 이곳에 온 자들 모두,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합장을 하며)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 원효의 방안

원효가 방안에서 자고 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 송글 맺혀있고, 꿈이라도 꾸는 듯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원효대사는 꿈에서 소요산 길을 걷고 있다. 그 때, 밝은 불빛을 발견한다.

원효대사 : (신기한 표정으로)이게 무슨 불빛이지? (불빛이 움직이자 당황하여)어!, 어디로 가는 거야?

불빛이 원효를 어딘가로 이끈다. 원효대사는 불빛을 따라 험난한 돌산을 걷는다. 한참을 걸을 후, 불빛이 한 장소에 멈춰 빙빙 돈다.

원효대사 : 드디어 멈췄군. (의아해 하며)그런데... 불빛이 이곳에서 돌고 있어.

원효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엇이라도 깨달은 듯 그곳을 판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온다.

원효대사 : (그는 돌산에서 물이 나오자 깜짝 놀란다.) 이이이건...

그곳을 빙빙 돌던 불빛은 사라진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잠에서 깬다.

원효대사 : (눈을 번쩍 뜨며)이이이건... (날숨을 내쉬며)하~꿈이었구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 (잠시 후, 무언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으로)그래, 이건 분명.

새벽녘이지만, 원효는 산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나간다.

#3 소요산 깊은 숲속

원효대사 산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원효대사 : (산을 이리저리 쳐다보며)분명 이 길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한 지점에서 걸음을 멈춘다. 꿈에서 불빛이 빙빙 돌던 곳이 오버랩된다.

원효대사 : (바위를 만지며) 그래, 이 이곳이야.

원효 고개를 끄덕이고 땅을 파기 시작한다. 그가 판 웅덩이엔 물이 가득 고여 있다. 원효는 깜짝 놀란다. 그리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무엇이라도 깨달은 듯 말한다.

원효대사 : (합장을 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인 웅덩이에는 물줄기가 터져, 물이 계속 고인다.

#4 소요산 아래에 위치한 동네

아낙들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그 때 한 아낙이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며 다른 아낙에게 말을 한다.

아낙1 :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며)그 소리 들었어?
 아낙2 : (역시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며)무슨 소리?
 아낙1 : 얼마 전 원효대사께서 우물을 만들었다 잠아?
 아낙2 : 그 얘긴 나도 들었어.
 아낙1 : (빨래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아낙2 귀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 글썄
 아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아픈 몸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거야.
 아낙2 : (빨래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정말?
 아낙1 : 예휴 그렇다니까. 얼마전 영덕이네 어머니가, 영덕이가 떠다준 그 우물물을 먹고 위장병이 싹
 나았다잖아. 그 물에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게 틀림없어.

#5 원효정

사람들이 원효정 물을 한 모금씩 마시려 줄을 서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신 후 합장을 하고 내려간다.
 그 때 사내1이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마신 물을 삼키려다 모두 뱉어버린다.

사내1 : (목을 부여잡으며)책, 이게 뭐야!

사내가 뱉은 물에는 벌레가 그득하다.

사내2 : (혀를 차며 혼잣말로) 저 사람 평소 욕심이 많나보구면. 부처님이 노하신 게야. 쫓쫓.

사내1 : (사내 2의 떡살을 잡으며) 뭐야? 이놈이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사내2 : (눈을 크게 뜨며) 내가 없는 말 했소? 이 우물은 탐욕 많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거 몰라 하는
 말이오?

사내1 : (잡았던 손을 놓으며 얼굴이 붉어져)아니, 그래도 이놈이?

사내2 : (사내1에 얼굴을 들이밀며)뭐, 뭐요?

사내1은 부끄러운 듯, 사내2의 떡살 잡은 것을 놓고, 서둘러 산을 내려간다.

하인 : (그곳을 지나가다 그들의 말을 한참을 엿듣다 끼어든다.)무슨 일이오?

사내2 : 당신은 이 영험한 원효정 물을 모른단 말이오?

하인 : 영험 하다가구요?

사내2 : (줄서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줄서 있지 않겠소?

하인 : 그런데 당신은 그 사내와 왜 싸웠던 거요?

사내2 : 정말 몰라서 그러시오? (중요한 말을 하기위해 한 박자 쉬고, 헛기침을 하며)흠흠, 이 물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영험한 물이긴 하지만 아무나 마실 순 없기 때문이오.

하인 : 그게 무슨 소리요?

사내2 : 이물이 몸이 아픈 자들에겐 약이 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에겐 독이 된다는 뜻이요.

하인 : 독이라구요?

사내2 : (주변에 줄 서 있는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자자, 다들 부처님께 떳떳하지 못하면 마시지도 마시오. 이 물은 욕심 부리는 자에게는 독이 될 뿐이니까.

그리고 사내2가 물을 마신다. 곧 벌레가 씹혀 마신 물을 토해낸다.

사내2 : (물을 뱉으며)켁.

#6 진곡의 방

진곡 : (깜짝 놀라)정말이냐? 정말 마시면 몸이 낫는다는 약수가 있단 말이냐?

하인 : (진지한 표정으로)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저기 소요산에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은덕을 받들어 우물을 만들었는데. 중병에 걸린 자들도 그 물만 마시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합니다요.

진곡 :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럼 한 번 나도 마셔야겠구나. 정말 낫는다는 거지?

하인 : (머리를 끄덕이며) 여부가 있나요, 어르신. 욕심이 있는 자에게는 벌레가 씹히긴 하지만, 그저 욕심부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약수가 된다 합니다요.

진곡 : 무어라? 벌레가 씹혀?

하인 : 네. 그렇습죠.

진곡 : 그렇단 말이지. 내가 욕심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좋다. 어서 그 물을 떠 내게 바치거라. 얼른.

하인 : 네. 어르신.

진곡의 하인들이 원효정에서 물을 떠와 진곡에게 바친다.

진곡 : (들뜬 기분으로 물을 신기하게 쳐다보며) 이게 그 영험한 물이더냐?

하인 : 네.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진곡 : 드디어. 내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겠구나. 한 번 마셔보자.

진곡 약수를 마신다. 그 후 곧 약수를 뱉어낸다. 진곡이 뱉은 물에는 각종 벌레들이 그득하다.

진곡 : (경악하고 소리지르며) 이게 무엇이더냐?

하인 : (놀라서 함장하며) 나미아부타불 관관세음보살.. 부.. 부처님이 노하신게지요.

진곡 : (화가 나서)똥이라?

하인 : (송구스러워 말을 더듬으며)이 물은 욕심이 없는 자들만 먹을...

진곡 : (버럭 화를 내며)내가 왜 이물을 못 먹는단말이냐?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난 꼭 먹어야 한다.

하인 :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하지만...

진곡은 손가락으로 한쪽 관자놀이를 치며 한참을 고민한다.

진곡 : 이걸 뭔가 잘못된 것이다. 분명, 무슨 방도가 있을거다. 무슨 방도가. 내가 이 영험한 물을 마실 무슨 방도가...

하인 : (진곡의 눈치를 보며)...

진곡 : (한참을 고민한 끝에 어떤 방도를 찾은 듯한 표정으로)아! 그러면 되겠구나. (비장한 표정으로 하인에게)네가 할 일이 있다.

#7 진곡의 집 마당

진곡의 집 마당에 건설한 청년들이 무리지어 서있다. 그리고 진곡은 그들을 보며 자리에 앉아있다.

진곡 : (그들을 살펴보며)다들 모아 놓았느냐?

하인 : 네. 어르신. 어르신께 깨끗한 원효정 물을 떠다 바치면 돈을 준다 방을 붙이니 동네 사람들 모두 도전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진곡 : (마당에 있는 장정들에게) 내 너희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려는지 알고 있느냐?

장정들 : (우렁차게) 네.

진곡 : 너희들이 바친 원효정의 물 중, 내 몸의 약수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내 그 자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리라.

장정들 : (우렁차게) 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8 진곡의 방

진곡 : (물을 뺏으며)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다.

하인 : (울상을 지으며) 그러게 말입니다요. 어르신. 어찌된 영문인지 소인도 모르겠습니다요.

진곡 : 내게 자신 있게 약속했던 사내들은 모두 물을 떠온 게냐?

하인 : 네 어르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요. 불순하게 원효정 물을 퍼서 그런지, 원효정이 거의 말라버렸다 합니다요.

진곡 : 뭣이야? 내 원효정의 약수를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말라 간다 그 소리냐.

하인 : 예. 어르신. 그래서 원효정의 약수를 먹으려는 백성들도 허탕치고 아우성을 친다합니다.

진곡 : (눈을 치켜뜨며)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 나만 마시면 된다 말이다. 남들이 마시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나. 난 아직 약이 되는 물을 먹지 못했다. 물이 바닥나기 전에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모조리 떠와라. 어서.

하인 : (당황하며) 그.. 그래도.. 어르신..

진곡 : (하인을 쳐다보며) 내 이 병에 걸린 지 언 20년이 되었다. 아무리 약을 써 봐도 낫지 않았고,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언제나 속이 부글부글 끓고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부귀영화 누려도 속이 아파 어디 한 곳, 한 발짝 내 맘대로 내딛지 못하는데. 그 어디 나보다 중한 사람이 있고. 그 누가 나보다 더 큰 사연이 있단 말이나. 더 큰 방을 달아라. 내게 약이 되는 물을 퍼올 자들을 찾아라.

하인 : (기에 눌러) 네, 어르신

#9 방이 붙어있는 동네 어느 벽

일반인처럼 변장한 원효대사가 그 방을 보고 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방을 보고 한마디씩 한다.

사내1 : (기가차서)하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다.

사내2 : 그러게 말이오. 자기가 말려놓은 물을 어떻게 또 떠 오라는 건지.

사내1 : 그 심술 어찌나 대단한지, 가난한 백성들 온갖 이유로 약탈한 것도 모자라, 이젠 돈 없어 약방조차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원효정 물까지 빼앗아 가다니.

사내3 : 얼마 전에는 이틀정도 빛을 늦게 갚았다고, 저 건너 승식이네 찌그만 고랑까지 빼앗았다지 않소. 승식이 어머니 울고불고 난리터만,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러다 큰일이나 나지 않을까 모르겠소.

사내2 : 아니 빛을 갚지 못하게 매일 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 가면서 조금 늦었다고 고랑까지 빼앗냐 말이지. 반드시 벌 받을 께요. 예잇. 못된 인간.

사내1 : (목소리를 낮추며)조용하자구. 그러다 그 집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 우리도 끝이요, 끝.

원효대사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난다. 남은 사람들은 그 방에 침을 한번 씹 뱉는 시늉을 하고 가던 길을 걸어간다.

#10 진곡의 집 문 앞.

원효대사 일반인처럼 분장하고, 그 집 문을 두드린다. 커다란 집 대문이 열리고 원효대사 씩씩하게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간다.

#11 진곡의 집 마당

하인 : (원효대사를 쳐다보며) 어떻게 오셨소?

원효 : (허허 웃으며) 이 곳 어르신이 원효정 물을 떠올릴 사람을 찾는답지요?

하인 : 그렇소만.

원효 : 내가 원효정 물을 떠다 올리리다. 원효정 물을 떠올리면 방에 붙어있던 약조 분명히 들어주는 것이지요?

하인 : (콧방귀를 끼며) 당연하오. 하지만, 꼭 마실 수 있는 원효정 물을 퍼 올렸을 때나 가능한 말이오. 그 물이 아니면 상은커녕 당신에게 매질이 주어질 것이오.

원효 :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원효정 물이 아니면 죽음도 달게 받겠습지요.

하인 : (놀라며) 뭐요? (비웃으며) 그렇게 쉽진 않을께요.

진곡이 원효의 이야기를 듣더니 문을 벌컥 연다.

진곡 : (원효를 쳐다보며) 네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자신 있다는 게냐?

원효 : (진곡을 쳐다보며) 네. 그렇습니다. 곧 어르신께 물을 바쳐 드리지요.

원효대사는 진곡에게 말을 건네고, 유유히 진곡의 큰 대문을 열고 사라진다. 며칠 후 원효대사가 다시 진곡의 집으로 찾아온다.

하인 : (진곡의 쪽으로 몸을 조아리며) 어르신, 그 사내가 왔습니다.

진곡 : (방안에서 들리는 진곡의 목소리) 어서 들어오라 해라. 어서.

#12 진곡의 방

원효대사 : (물통에 담겨있던 물을 주며) 이것이 바로 원효정의 물입니다.

진곡 : 그래. 한 번 마셔보자. 하지만 지난번 말했다시피, 이 물이 내게 약수가 되지 않는다면 내 너에게 가히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원효대사 : (차분하게) 그러시지요.

진곡 원효가 떠온 물을 마신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과 달리 벌레가 씹히지도 않고, 마시자마자 속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진곡 : (껄껄 웃으며) 이것이 진정 원효정의 약수란 말이냐?

원효대사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을 걸쳐 받아온 원효정의 약수물입니다.

그러나 물통의 물은 한 모금밖에 되지 않는다. 진곡은 아쉬워하며 물통을 두드려본다.

진곡 : (물통 안을 들여다보며) 이게 전부냐? 더 없는 것이냐?

원효대사 :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효정의 물이 말라버려, 이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래도 모아 가져온 것입니다.

진곡 : 그래도 좀 아쉽구나. 한 모금이면... 이 물을 배불리 마시면 얼마나 좋을꼬. 금방이라도 날아다닐 텐데 말이다.

원효대사 : (일어나려 하며)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키시지요.

진곡 : 그.. 그래.. 좋다. 여봐라 이 자에게 약속한 만큼 챙겨주어라.

원효대사가 진곡의 방문을 열고 나온다. 한모금의 물로는 부족했던 진곡이 계속 물통을 쳐다보며 툭툭 친다.

진곡 : 너무 아쉬워. 너무... 이걸 뭐, 간에 기별도 가지 않잖아. 이 좋은 물, 배불리좀 먹고 싶은데.. (무언가 결심한 듯)그래!

원효대사는 마당에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때, 방에서 원효대사를 부르는 진곡.

진곡 : 잠.. 잠시만, 다시 들어 오거라.

원효대사 : (진곡의 방으로 돌아오며) 무슨 일 이십니까?

진곡 : 내 속병을 얻은 지 언 20년. 그 동안 어느 것을 누려도 속이 편치 않아 행복하지 않았고, 내 몸만 건강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했다. 그런데 니가 떠온 원효정 한 모금에 느껴보지 못한 속편함을 느꼈다. 내 부탁하건데 원효정 물을 내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떠올 수 있겠느냐. 네가 원효정 물을 넘칠 만큼 떠올준다면, 내 재산의 반을 너에게 주겠노라.

원효대사 : 원효정 물이 지금 말라버려 하루에 한 두 방울씩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익히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속설로는 원효정 물을 탐욕스럽게 마시면 약수가 아니라 별수 즉 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물을 어르신이 배불리 마실 수 있을 만큼 떠올도, 그물이 정말 어르신께 약수가 될지 그 것이 의문입니다.

진곡 : (고개를 저으며) 네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나를 위해 먹을 수 있는 원효정의 물만 떠올면 된다. 내가 물을 마시고 병에 걸리든, 아니면 낫든 그 건 뒤에 일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원효대사 : (고민하는 시늉을 하다) 네, 그렇게 해드립니다. 단, 저와 한 약조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사는 그 말을 하고 진곡의 방을 나간다. 그가 나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하인이 말한다.

하인 : (궁금한 표정으로)어르신, 정말 저 자에게 어르신 재산의 반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진곡 : (음흉한 표정으로 웃으며)내 미쳤느냐?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생판 모르는 그 자에게 주겠느냐.

하인 : 허면 어찌 하시려 하십니까.

진곡 : 우선 물독을 받은 후 쫓아내면 되지 않겠느냐. 내 어찌 내 돈을 그자에게 주겠느냐. 절대 줄 수 없다.

그 때 원효대사는 밖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원효대사는 돌아간다. 그 후 1개월 만에 진곡의 집을 찾아간다.

#13 진곡의 방

원효대사, 진곡의 방에 물독을 들고 들어와 바닥에 놓고 앉는다.

진곡 : (원효가 가져온 물독을 보며) 네 드디어 왔구나. 그래, 약속대로 원효정 물을 가득 가져 왔느냐.

원효대사 : 네, 그렇습니다. 약속대로 물을 떠왔습니다. 어르신께 이것을 바칩니다.

허나,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곡 : 그냥 줄 수 없다니, 무슨 말이나. 이 앞에 독을 두고 내게 줄 수 없단 말이나?

원효대사 : 그 전에 저와 했었던 약조를 지키심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진곡 : 너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내어달란 말이더냐? 그런데 어떡한단 말이더냐. 난 이미 내 재산을 내 여식에게 물려주었는데 말이다. (태도가 돌변하여)여봐라 이 독을 빼앗아라. 그리고 이자를 쫓아내라.

하인 : 네, 알겠습니다. (밖에 있는 하인들을 부르며)들어오너라.

그러자 밖에 있던 하인 몇 명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원효를 내쫓는다. 하인들이 원효를 내쫓자 진곡은 물독을 살핀다. 웃는 얼굴로 물독을 여는 진곡, 그러나 독안에는 물이 없었다.

진곡 : (황당해하며)이게 무어냐. 어찌 된 일이나.

하인 :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진곡 : 물독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인 : 네? 그럼 그자가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까요?

진곡 : (원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하인들에게)여봐라, 그걸 다시 데려 오너라.

밖에 내쳤던 원효대사를 데리고 들어오는 하인들.

원효대사 : (화난 것을 절제하는 듯 한 표정으로)이게 말씀하신 약속입니까? 어르신.

진곡 : (당황해하며) 그..그게 아니다.

원효대사 : 이러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효정의 물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진곡 : 저... 저기 ..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약속을 지킬 테니 물을 내게 다오.

원효대사 : 그럼 어르신께서 지키지 않으셨던 약속을 먼저 지키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숨겨둔 물독을 그 자리에서 깨버릴 것입니다.

진곡은 당황해하며 원효를 붙잡았던 하인들을 보내버렸다. 그리고 하인에게 얼른 자신의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원효대사는 밖에 다른 물독을 가져온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진다.

진곡은 돈을 준 것이 아깝긴 했지만, 일단 물독을 받아 행복했다.

진곡 : (물독을 꺼안으며)이물이 바로 그 물이구나.

진곡은 그 자리에서 그 물을 모두 마셔버렸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도 저번과는 달리 물을 마셔도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진곡은 며칠 있으면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으리라 믿는다.

진곡 : (혼잣말로)조금 기다려보면 효험이 있을 게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진곡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다. 진곡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에도 몸이 나아지지 않자 진곡은 진노하고 자신에게 물을 떠다 바친 사내를 잡아오라 명했다.

진곡 : 어찌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단 말이나. 차도가. (큰소리로 밖에 있는 하인에게)나에게 물을 바친 그자를 잡아오너라. 어서!

#14 마을 약재상

원효대사는 진곡의 집에 있었을 때와 달리 다시 승려의 옷차림이다.

원효대사 : 온 몸에 좋은 약재를 두루 적어 담아 주십시오.

약재상 : (장사가 잘되 신이 난 표정으로)웬 약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스님?

원효대사 : 아픈 사람들이 많아 나누어주려 합니다. 효능별로 나누어 주십시오.
약재상 : 네, 알겠습니다.

#15 마을 시장

진곡에게 받은 돈으로 쌀, 조, 콩 등의 곡식과 식재료를 모두 사는 원효대사. 먹을 수 있는 것을 모두 산다. 놀라는 상인들의 모습.

상인 : (역시 장사가 잘되 신이 난 표정으로)이것들을 어찌 많이 사십니까? 스님.

상인이 묻자, 원효대사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물었다.

원효대사 : 혹 이 근처에, 하루하루 먹지 못해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모두 알려주시오.

#16 마을의 외딴집

아픈 조모와 함께 감자 한 개를 나누어 먹는 아이의 집에 원효가 나타난다.

할머니 : (조금은 지쳐있지만 방문을 열며 반가워하며)스님. 이런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이십니까?

원효대사 : (원효는 먹을거리를 한 짐 내려놓으며) 이는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아픈 할머니와 손자는 놀라 포대에 담긴 먹을거리들을 쳐다본다.

원효대사 : (합장을 하며)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효대사는 유유히 그 집을 나선다. 그리고 여러 곳의 집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구매한 약재를 가져다준다. 며칠 밤낮을 마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돌아다닌다.

원효대사가 음식을 나누어주고 허름한 집에서 나오는데, 진곡의 하인들이 원효를 발견한다.

하인 : (원효를 보고 놀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저저자다. 잡아라.

하인들은 원효를 잡아 진곡에게 끌고 간다.

#17 진곡의 집 마당

진곡은 하인을 시켜 원효대사를 포박한 채 마당에 앉혀 놓았다.

진곡 : (화가 나서)네 어찌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냐?

원효대사 :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무슨 말을 하시는지요.

진곡 : 네 정말 말을 똑바로 하지 않을 것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나? 나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승려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냐?

원효대사 : 저는... 자재암의 승려 원효라고 합니다.

진곡 : (눈이 땡그래지며) 무엇이랴? 자재암의 승려 원효? 그 은덕 높다 소문나던 원효스님이란 말이냐. 그런데 네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오호라, 알겠다. 백성에게 덕망 높다 추앙받더니 너의 실상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중생이었던 것이구나.

원효대사 : (꺄꺄 웃으며)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모두 그대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지요.

진곡 : (원효대사가 웃자 노발대발하며)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내가 무슨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단 말이냐.

원효대사 : (잠시 웃다가 멈춰서)그걸 정녕 그대가 모른단 말입니까? (원효 차분하다가 귀가 찢어질 듯 쩌렁쩌렁한 큰소리로) 그대의 그 마음을 정녕 당신이 모른단 말입니까!!

진곡은 원효대사의 호통에 놀라 주저앉는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어간다.

진곡 : 원효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내 건강을 위해 원효정의 물을 떠다 달라 명한 것 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호통을 들을 이유가 없단 말이다.

원효대사 : 정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단지 물을 뜨려하셨던 것입니까? 당신이 담아 달라 했던 것은 혹시 당신의 욕심이 아니었습니까?

진곡 :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단지 나의 건강을 위해..

원효대사 : (진곡의 말을 자르며) 건강이요? 아닙니다. 당신이 견어 올린 것은 당신 욕심입니다. 당신이 부탁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욕심을 사 올린 것이었습니다.

진곡 : (황당해 하며) 무어라 욕심을 사? 네 감히 내 앞에서 무얼 지껄이느냐.

원효대사 : 당신의 욕심으로 당신은 살고 싶었던 게지요. 그래요 살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진곡 : 무어라? 내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네 어찌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양 내게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냐.

원효대사 : 원효정은 멈추지 않는 물줄기였습니다. 당신이 갈취하고 착취하여 먹을 것 없는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유일한 약마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나 살고자 하며 남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 불쌍히 여기고 남의 인생 미천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 탐욕이 독이 되어 낫지 못하는 게지요.

진곡 : 거짓말 하지마라. 처음 원효정을 먹었을 때 나는 분명 몸이 나아짐을 느꼈다. 그 물은 원효정의 영험함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 물이 어찌 독이 되었던 말이냐.

원효대사 : 원효정의 물줄기는 당신이 마르게 했습니다. 그 물은 원효정의 물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을 잃고 그 애 닮은 마음에 굶아 터진 백성의 눈물입니다. 애당초 당신에게겐 약수란 없었던 것이지요.

진곡 :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 내가 남을 해쳤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네가 준 물이 거짓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너의 말을 난 일체 믿을 수 없다. 난 단지 내가 살기 위함...

원효대사 : (진곡의 말을 자르며) 어미를 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께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간악함으로 사내의 땅 또한 사족을 붙여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내는 원효정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께 약수라 불리우는 물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있었습니다. 물조차 마실 수 없었던 사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요. 사내는 아픈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아직도 원효정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진곡 : (조금은 놀랐지만 다시 평정심을 찾으려 애쓰며) 그.. 그게 왜 내 잘못이란 말이냐?

원효대사 : 혹시 승식이라는 자를 아시는지요.

진곡 : 승식... 승식이라.. 알... 안다마다. 그런데 그 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나.

원효대사 : 당신이 그 자에게 고랑을 빼앗았다 들었습니다.

진곡 : (변명 하는 듯한 말투로)그것은 빼앗은 것이 아니다. 빼앗다니 내가 무얼 빼앗았단 말이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내게 빚을 지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들도 조금이나마 댓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마움의 댓가. 난 그 고마움의 댓가를 받은 것뿐이다.

원효대사 : 당신이 승식이라는 자의 고랑을 빼앗자 그 자의 아픈 어머니와 그는 당장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 귀하듯 승식이란 자 또한 제 어머니의 몸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파 신음하는 어머니에게 그 자는 원효정의 물 한 모금이라도 떠다 드리하고자 매일 매일 그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곳은 자신의 욕심을 취하고자 자신 때문에 나오지 않는 물까지도 얻어가려는 누군가의 일꾼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진곡 : (눈동자를 좌우로 흔들거리며).....

원효대사 : 그리고 지금, 그 곳은, 말려버린 물줄기에서 나오는 한 두 방울의 물을 당신에게 바치려는 사람들과 살기위해 물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소.

진곡 : (눈동자 흔들리며) 그래도 믿..믿을 수 없소. 나는 나는 ..깨끗하오. 난 원효정을 더럽힌 적이 없소.

원효대사 : 절 따라오시지요. 내 당신께 보여주겠습니다.

진곡, 하인의 도움을 받아 원효대사를 따라나선다. 원효대사는 발걸음 바빠 소요산을 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원효는 원효정 앞에 선다. 진곡도 원효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인다.

#18 원효정 우물 앞

원효대사 : 이제 보입니까? 당신의 탐욕이.

원효정 앞에는 정말 나오지 않는 물줄기를 보며 통곡을 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얻기 위해 여기저기서 다투고 있었다. 사내는 어머니를 외치며 울고 있었고, 다투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원효정의 물 한 방울을 떠가겠다고 바람소리 지르고 있었다.

원효대사 :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시킨 일들이 당신의 건강이란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켰지만, 그 뒤에 가려진 당신의 참모습은 실은 이것뿐입니다. 이래도 당신에게는 죄가 없고, 원효정의 물이 영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마시고 싶었던 것이 정녕 원효정의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부귀영화 속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었습니까.

진곡은 피골이 상접한 채, 서로들 싸우는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진곡 : (고개를 숙이며) 내 잘못이요. 미안.. 하오. 나는 누리고 살며, 볼 줄 몰랐던 것이요. 오로지 나밖에. 그 것은 아프다는 핑계였을 뿐이요. 실은 내가 만든 이 상황을 보기 싫어 눈을 두지 않았던 것이요. 미안..하오.

진곡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원효대사는 울고있는 승식에게 가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함장을 하고 말했다.

원효대사 :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사내는 원효대사의 위로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뒤이어 원효대사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원효대사 : 원효정의 영험함은 물을 얻는 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은 원효대사를 보고 놀란다.

사내1,2 : 스.. 스님..

원효대사 : 원효정의 물이 영험하다 하는 것은 깨끗한 정신과 경건한 마음으로 물을 받아 마시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서로 다투고, 배려하지 않는 자세는 어차피 그 물을 얻어도 마시는 자에게 효험이 없는 무의미한 행동일 뿐입니다.

원효대사가 그 두 사람에게 말하자,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서로 잡았던 멍살을 놓았다.

원효대사 : 모든 것이 탐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을 진데, 그 마음이 부덕했기 때문이지요.

원효는 손에 지니고 있던 묵탁을 두드린다. 그리고 유유히 사찰로 올라간다. 원효가 간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깨달음에 고개를 떨군다.

다음날 진곡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 땀을 뻘뻘 흘리며 자재암에 올라온다.

#19 자재암 마당

원효대사 : (합장을 하며) 이곳엔 어인일로 올라오셨습니까.

진곡 :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덕한 마음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어 올랐습니다.

#20 자재암 법당

진곡은 원효대사에게 인사를 드린 후, 법당에 들어 하루 종일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그 것은 매일매일 지속된다.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모습으로 불상을 바라보는 진곡.

#21 진곡의 방

진곡 : (밖에 있는 하인을 부르며)여봐라.

하인 : 네. 어르신

진곡 : 그간 내가 가져온 다른 사람들의 땅이 얼마나 되느냐.

하인 : 어림잡아. 마을 절반정도는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는 땅인셈쇼.

진곡 : 모두 주어라.

하인 : (영문을 몰라 놀라며) 예? 모두 주라구요? 누구에게...

진곡 : 모두 주어라. 내가 취했던 그들의 땅을. 그리고 또 주어라.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곳곳에 있는 양식들을.

하인 : 어찌 그러십니까?

진곡 : 다른 사람들이 흘린 눈물로 배를 채워온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는 구나. 이제 모두 놓을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얼마나 먹어보아야 더 배가 부른단 말이나.

하인 : (고개를 끄덕이며) 예. 알겠습니다.

#22 진곡의 마당

하인 : (곳간 창고 쪽을 보며) 여보시게들, 어서 조심히 꺼내 나르게들. 빠지는 곳 없이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한다네.

#23 밤 깊은 원효정

원효정 위에 둥근 보름달이 떠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원효정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내 그 물방울이 소리가 흐르는 샘물 소리로 바뀐다. 원효정의 물이 예전처럼 나오기 시작한다.

#24 한 낮의 원효정

원효정을 마시기 위해 사람들이 한, 두 명 씩 올라온다. 벌레 나온다고 비아냥되는 사람들도 없어졌고,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앞에 있던 사람들도 양보를 한다.

행인1 : 어르신, 먼저 드시지요.

행인2 : 고맙소, 젊은이 아유! 물 맛 시원하구려.

자재암에 오르는 진곡을 보며 행인 2가 말한다.

행인2 : (자신이 마시던 물의 바가지를 주며) 그대도, 보아하니 산에 오르기 힘들 텐데,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목 좀 축이고 가시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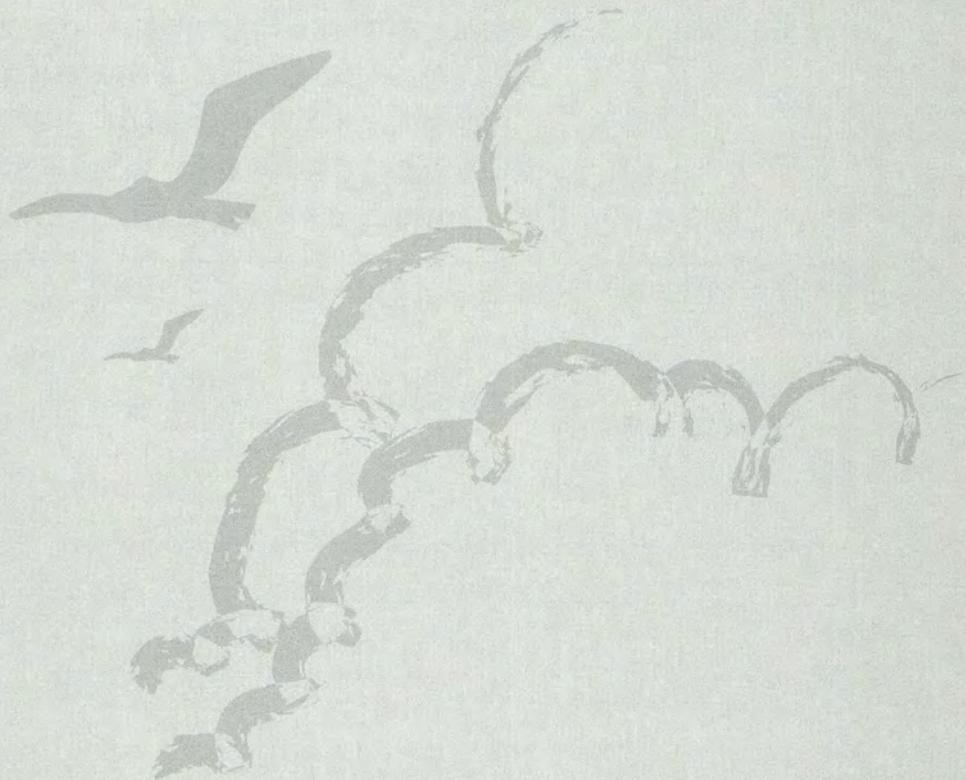
진곡 :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한바가지 받아들며)고맙소.

이내 진곡이 물 한바가지를 마신다. 그리고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운다.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붉은 별

홍민기 · 박주경 · 최선영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p>이야기 소재 (Motive)</p>	<p>소요산의 가을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답다는 점, 또한 자재암이 소요산의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각시켜줄 장치를 만들고자 ‘붉은 별’이라는 소재를 만들어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소요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환상적인 요소임과 더불어,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독립투사 홍덕문이라는 실존인물의 등장을 통해 스토리의 사실성을 부여합니다.</p>
<p>스토리 구성 (Plot)</p>	<p>할리우드 영화의 가장 강력한 플롯인 조셉 캠벨의 영웅서사시의 12단계를 플롯의 기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플롯은 현재에도 널리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대중성과 상업성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극적 긴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플롯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구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상인물 ‘요산’을 그 주인공으로 내세워 한 편의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제강점기와 동두천시를 나타내는 일상세계를 시작으로, 요산이 ‘붉은 별’의 정체를 알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그의 모험과 위기를 다룹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요산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로 원효를 비롯해 홍덕문이 적절히 개입하며, 민족의 혼을 찾는 결말을 통해 그 보상을 획득합니다.</p>
<p>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p>	<p>별지소개</p>

등장인물

요산 (남, 21세, 독립투사)

애국심이 강하지만 미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가슴속의 한이 있다. 한때 조선의 유명한 검사이기도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허무하게 일본군에 의해 숙청된 이후, 김술을 접고 동생 요수와 함께 살아간다.

기무라 (남, 40세, 동두천시 경찰경감)

피도 눈물도 없는 일본 경감. 일본에는 이미 명성이 자자한 뛰어난 수장인 그가 왜 서울지부가 아닌 동두천시로 왔는지 의문인 가운데, 극악무도한 성질로 조선인들을 핍박한다.

원호 (남)

요산을 깨우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신적 스승. 행색이 초라한 떠돌이 노인으로 위장하여 독립 운동가들에게 '붉은 별'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요수 (여, 15세, 요산의 동생)

요산의 여동생. 기무라에 의해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눈을 심하게 다친다. 언제나 오빠인 요산을 믿고 응원해준다.

홍덕문 (남, 25세, 독립투사)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군의 대장을 맡고 있는 청년. 후에 요산이 붉은 별을 찾는 와중 독립운동을 일으켜 요산을 도와준다.

정만순 (남, 21세, 독립투사)

요산의 죽마고우로 독립운동의 주요 소식들을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망. 독립운동이 동두천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 무사히 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요산의 아버지 (남)

조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뛰어난 검술을 바탕으로 일본의 잔악한 태도에 맞서 싸운 조선의 영웅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일본 순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음을 당한다.

시놉시스

구 분	동 선	스 토 리
일상세계	소요산 근처의 동두천시 일대	기무라를 대표로 하는 동두천시의 일본 순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는 요산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지만, 차마 나서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모험에의 소명	소요산 근처의 동두천시 일대	3.1운동에 참여하지 못해 한이 남아있던 요산은 만순으로부터 곧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란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장소로 들어간다.
소명의 거부	서울의 외딴 산 속 오두막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던 중, 의문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 잠시 쉬어갈 것을 요청한다. 그러던 중 '붉은 별'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의 보물이니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고는 요산에게 찾으라고 명한다. 그러나 놀란 요산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한다.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 첫 관문의 통과 / 시험, 협력자, 적대자	동두천 마을 ~ 자재암 ~ 하백운대 ~ 하산	집으로 돌아온 요산은 동생 요수가 일본의 순사들에게 갖은 핍박을 당하고 귀가하자 이에 분노하며 일본 순사들에게 달려간다. 그러나 다수의 힘에 눌린 요산은 철저히 짓밟히고 집으로 돌아온다. 분노로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하는 요산은 서울에서 문득 의문의 노인이 자신이 '붉은 별'을 찾을 수 있는 장본이라 추켜세웠던 일화를 떠올린다. 이에 무력으로는 일본의 순사들을 제압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 '붉은 별'의 정보를 찾고자 소요산으로 들어간다. 자재암에 도착한 요산은 서울에서 우연히 만났던 묘령의 노인과 재회하고, 여기서 노인은 요산에게 끊임없는 조언과 명언으로 요산을 깨우치는데, 흡사 그 모습이 원효와 같다. 그리고 요산은 큰 깨달음을 얻고 하산한다.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소요산 자재암 ~ 하백운대 ~ 정상	원효의 깨우침으로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닌 요산은, 독립운동을 동두천에서 열어 기무라의 눈을 돌리자는 만순의 계획을 실천한다. 서둘러 서찰을 흥덕문에게 전한 만순은 요산에게 아버지의 검을 들것을 요청한다. 아버지의 검을 잡은 요산은 조선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하며 소금산으로 향해 본격적으로 붉은 별을 찾는다.

구 분	동 선	스 토 리
시련	소요산 하백운대	‘붉은 별’을 찾던 요산은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초조해지는데 일본군과 마주친다. 홍덕문의 도움으로 기무라와의 일대일 접전을 펼치던 중 기무라가 아버지의 이야기로 요산을 자극시키고, 요산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기무라가 요산의 검을 날려버린다. 곧 요산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보상	소요산 하백운대 ~ 선녀탕	그 때 난데없이 환한 빛줄기가 일어나고, 눈이 멀어버린 기무라가 칼을 놓친 채 괴로워한다. 요산은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자신에게 깨우침을 주었던 노인의 자리에 사람의 형상을 본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정신을 차리고 기무라의 목을 벤 요산은 동이 틀 무렵 ‘붉은 별’을 찾게 된다.
귀환의 길	소요산 선녀탕 ~ 하산	소중히 ‘붉은 별’을 두 손에 얹고 선녀탕으로 내려온 요산은 독립열사들과 홍덕문이 순사들을 무찌르고 지쳐 쉬고 있는 것을 본다. ‘붉은 별’을 보고 신비로움에 감탄한 홍덕문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묻자,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붉은 별’을 선녀탕에 흘려보낸다. 물줄기를 따라 붉은 별이 흘러가자 놀랍게도 소금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당당히 기무라의 목을 들고 내려온 요산은 몰려있는 사람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요수와 함께 뜨겁게 포옹하며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친다.

해갈(解渴)



아침이 밝았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지 아침공기가 상쾌했다. 그러나 조선팔도 어느 땅에도 상쾌한 아침을 맞는 자들은 없었다. 시장의 한 주막이 북적였다. 그 가운데에는 발발 떨어지고 있는 주모가 있었고, 큰 언성으로 분위기가 험악했다. 허름한 주막은 이미 온통 난장판이었고 깨진 술병과 반찬이 더럽게 짓밟혀있었다. 시장 길목에 위치한 이 주막은 솜씨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일본순사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늙은 주모는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마당에 이마를 짚으며 죽여주십사 눈물로 사죄하기 바빴다.

“반찬이 이게 다 뭐야! 왜 이리 부실하냐 말이야!”

“아이고 순사님 죄송합니다, 때 이른 서리에 농작물이 죄다 얼어 성한 것이 없어서…….”

“뭐야?! 그래서 이 맛대가리 없는 풀 따위를 상에 올렸단 말이나? 갈잡은 변명은 필요 없어! 감히 위대한 일본군을 모욕했겠다.”

“아이고 아이고, 순사님 잘못 했습니다요! 부디 용서를…….”

동두천시에 새로 발령 난 기무라 경감이 온 뒤로, 마을 주민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올해 농사까지 망쳐 먹고살 문제까지 막막한 마당에, 흉악스러운 기무라 경감이 오고서 더욱 살기가 힘들어 진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 치마 뒤로 숨기 바빴고, 사람들은 눈 마주치기도 두려워 집 밖 출입을 삼갔다. 몇몇 용기 있는 사내들이 뛰어들어 순사들을 막아봤지만, 순식간에 꺼내든 몽둥이에 흠씬 두들겨 맞을 뿐이었다.

“하하하하 우스운 조센징들. 어디 또 나와서 몽둥이 맛 한번 보지 그래?”

기세등등한 일본순사가 보란 듯이 모여 있는 마을 사람들을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쪽으로까지 시선이 옮겨지자 청년은 그만 눈빛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래 그렇게 설설 기어야지. 안 그런가? 하하하!”

이내 순사들은 요란하게 웃고 떠들며 만족한 듯이 자리를 떴다. 결국 생트집으로 아침부터 죄 없는 주막을 엮은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서 크게 안타까워했고 고개 숙인 한 청년의 두 주먹이 핏기 없이 짝 쥐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요산은 좁은 방 한 칸에 털썩 주저앉았고, 학교를 가기 위해 가방을 챙기던 여동생 요수가 그런 오빠를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오빠 괜찮아? 또 마을에서 순사들이 행패를 부렸구나.”

“응…….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고개 숙인 겁쟁이 아들을 꾸짖으셨겠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버지는 하늘에서 오빠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오빠 겁쟁이가 아냐. 우리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걸?”

“역시 내편은 요수밖에 없구나. 어서 늦지 않게 학교 가렴. 되도록 순사들 없는 길로 피해 다니고, 알겠지?”

“응, 다녀올게 오빠.”

요산은 요수를 배웅하고는 그대로 부엌으로가 차디찬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언제쯤이면 이 지겨운 갈증이 사라질까. 나는 왜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걸까.

요산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강한 검술을 가진 자였다. 때문에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할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큰 전력을 세웠지만, 강한 자였던 만큼 일제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축출된 사내였다. 그를 친일세력으로 삼키려했지만 어떠한 압력에도 넘어오지 않자 그대로 처형시킨 것이었다.

요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다.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그토록 엄하게 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셨는가. 거대한 산과 같았던 당신은 그리 돌아가실 거면서…….

요산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속 깊숙이 숨겨진 아버지의 흔적을 어루만졌다. 바로 수많은 일본군들을 베어낸 아버지의 검이었다.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던 검. 요산은 검집을 잡고 칼날을 꺼내려 힘을 주다가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는 서둘러 칼을 제자리에 놓았다.

‘나는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난 아버지가 아니야.’

그때 밖에서 요산을 부르는 기척이 났다.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두천시 뿐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곳의 주요 지역의 독립 운동가들의 연락망인 정만순 이었다. 만순은 사뭇 좋은 소식을 전해 주려 왔는지, 두 볼이 상기되어있었다. 바로 3월 1일에 민족 대운동을 성공리에 마친 이후 그 기세를 떨쳐, 빠른 시일 이내에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순간 요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것이면 내 갈증

이 사라질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해 얼마나 한이 되었던가! 그 기회가 한번 더 온다는 사실에, 자신도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부를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요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두천시의 일본 수사대. 의자에 깊게 눌러앉은 기무라의 손가락이 탁탁 일정한 소리를 내며 탁자위에서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다.

똑똑똑. 작은 노크소리가 들리고 한 순사가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보고를 시작한다.

“최근 동두천시 조센징들의 원성이 높아지려합니다. 3월에 일어난 민족 대운동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봐준 탓일 테지. 본보기를 보여 줘야 할 것 같군.”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것’ 에 대한 보고입니다.”

순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던 기무라의 손가락이 멈췄다. 순사의 보고가 계속 되자 가늘게 뜬 기무라의 눈이 순간 빛난 듯 했다.

“……그 부분. 다시 읊어라.”

순사는 기무라가 짚은 부분을 또박또박, 상세히 보고하기 시작했다. 기무라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만족하다는 의미였고 보고를 하는 순사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그 날이 머지않았다.”

날이 지면서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는 요산은 힘겹게 숨을 골랐다. 휴, 여기 어디쯤에 작은 오두막이 있을 텐데. 풀 더미를 헤치고 마른 나무뿌리를 넘자, 보일 듯 말듯 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저기다! 요산은 박차를 가해 오두막으로 다가가고는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다. 곧 자신을 밟은 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오두막에는 여러 독립 운동가들이 앉아있었고, 주변에는 3.1운동의 격동을 생생히 느끼게 해주는 태극기와 머리띠 등이 널려있었다. 요산은 자신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운동군의 대장을 맡고 있는 홍덕문이 위엄 있게 말했다. 홍덕문. 젊은 나이에 애국심이 대단하였고 위엄을 갖추고 있어,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깎듯이 대장으로 모시는 실로 강한 사내였다. 덕문은 잠시 자신을 바라보는 열사들을 한번 눈으로 훑었다. 그 눈빛이 자신까지도 지나쳐 가자 요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흔들림 없는 열사들의 눈빛에 자신까지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기분이다. 괜히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자세를 바로잡은 요산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덕문을 바라보며 자신도 저렇게 강한사람이 되겠다며 다짐했다.

한창 열띤 토론이 계속되던 때였다. 불현 듯 오두막 문이 열렸고, 두터운 담요를 두른 허름한 노인이 들어왔다. 한참이나 어두운 산속을 헤맸는지, 얼굴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어서 늙은 얼굴이 더욱 볼품없어 보이는 형상이었다. 노인은 절실한 목소리로 물 한잔과 잠시 쉬어 갈 곳이 필요하다고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열사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노인이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그저 힘없고 불쌍한 떠돌이 노인이라 생각하고는 자리 한 칸을 마련해 주었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이제 화제는 동두천으로 발령받은 ‘기무라 경감’이었다.

“왜 그자가 서울지부가 아닌 경기도로 발령받은 걸까?”

“아무래도 일본에서 큰 공을 세웠기로서니, 이제는 그도 한물 간 것일 게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홍덕문이 입을 열었다.

“아마 그는 동두천시에 위치한 소금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소.”

“소금산? 소금산이 뭐 어쨌단 말이오?”

“..... ‘붉은 별’을 찾는 걸 테지.”

순간 좁은 오두막이 사람들의 술렁임으로 소란스러워졌다. 요산은 자신의 고향에 위치한 소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깜짝 놀라 되물었다.

“왜 기무라가 ‘붉은 별’을 찾는단 말입니까? 그것이 제 고향인 소금산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아마도 내 추측이 맞다면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전설이자 보물일게요. 어릴 적 할아버지께 전설로 내려오는 보물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소.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조선의 정신 그 자체라고 하더군. 바로 일본군이 붉은 별을 탐내는 이유가 단순한 보물이어서가 아닌, ‘혼’이기때문일거요. 이번 3월1일 민족 대운동에서 우리가 조선의 정신을 보여주지 않았소?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민족성을 억압하고 내리누르려 들 테지.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확실히 짓밟을 장치가 필요한 것이오.”

“그 말은, 우리 민족의 혼을 송두리째 뽑기 위해 ‘붉은 별’을 없애려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소.”

“떠돌이 늙은이가 한 마디 거들어도 되겠는가? 콜록콜록…….”

모두의 시선이 한 구석으로 옮겨졌다. 감쪽같이 기척을 죽이고 있어서 노인의 존재를 순간 잊고 있었던 열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의 반응에는 아랑곳 않고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먼 옛날. 소금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네. 바로 젊은 청년이 말한 것과 같은 우리의 보물이자 100년에 한 번 가을에 나타나는 ‘붉은 별’이지. 이것은 동이 틀 무렵 수많은 단풍나무 중에 가장 먼저, 가장 밝게 빛나는 잎으로 그 신성함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진다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째서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까?”

덕문은 ‘전설’로 알고 있던 이야기가 실재한다는 말에 되짚어 물었다.

“클클클클……. 알려지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 이 ‘붉은 별’은 말 그대로 100년에 한번 나오는 것일뿐 더러 수많은 나무들 틈에서, 수억 개의 나뭇잎중 하나일 터인데. 이 붉은 별이 나타나는 해를 헤아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네. 다만, 한 가지 그 전조가 있지. 가을이 오자마자 느닷없이 ‘서리’가 내린 단 말일세. 바로 사나흘 전의 그것처럼. 하지만 말일세…… 이 붉은 별을 결코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 돼. 그것은 자네 말대로 대대로 내려온 우리조상님들의 정신이자, 민족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야.”

듣고 있던 열사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로 사나흘 전, 난데없는 서리가 내려 농민들의 한숨이 얼마나 깊었던가. 그것이 ‘붉은 별’이 나타날 시기를 알리는 것이었다니.

“요산, 자네가 동두천사에서 왔다고 했나?”

덕문이 빠르게 묻자, 요산은 놀라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기무라가 소금산에 어떤 관심을 갖는다든지 하는 수상한 낌새가 있던가?”

요산은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근래 들어 일본순사들이 소금산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심지어 요 며칠 새는 경비가 강화되어 일반 주민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던 것이 생각났다.

“예 맞습니다, 기무라가 소금산을 봉쇄하고 수색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붉은 별’을 찾는 것이었다니…….”

“음, 거기 젊은 청년. 자네 말일세.”

“저 말입니까?”

요산은 노인이 부르자 놀라 저를 가리키며 물었다.

“자네 마음속에 요동치는 소용돌이가 있군.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레 커져 아주 막강한 태풍이 되겠어. 그 기백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붉은 별’을 찾을 수 있겠나?”

독립열사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요산에게 모아졌다. 그러나 펄쩍뛰며 요산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제가 어찌 그 보물을 찾는다 말씀이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르신께서 잘못 보신 거겠지요…….”

“아직 자신을 잘 모르고 있군. 안타까운 일이야. 콜록콜록…….”

더 이상의 이야기가 힘든 것인지 노인은 한참을 마른기침을 멈추지 못하더니 잠시 몸을 쉬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오두막을 나가버렸다. 요산은 어안이 병병했고, 열사들은 모두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 되었다. 일본군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분명 ‘붉은 별’의 정체를 알고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

다! 서둘러 회의를 마치고 요산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일본군을 주시하라는 임무와 함께 서둘러 발 걸음을 옮겼다.

거의 날이 밝아서 집으로 돌아온 요산은 무척 피곤했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동료인 만순에게 알려야 했다. 서둘러 만순의 집으로 향한 요산은 머리를 맞대고 자신이 서울모임에서 들었던 정보를 이야기했다.

“그게 사실이야? ‘붉은 별’이라니……. 그래서 일본군이 소금산을 이 잡듯 뒤진 거였구나.”

“붉은 별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야. 노인의 말대로라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다름없는 것이겠어. 3.1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 그 기세가 줄어들지 않자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억누르려는 거야. 반드시 막아야만 해.”

“하지만 여전히 일본군의 경비가 삼엄해. 이제는 아예 소금산 출입도 어려운 상황인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일본군 보다 먼저 보물을 찾아야 해.”

만순과 한참을 이야기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요산은 차마 친구에게 노인이 했던 말을 하지 못했다.

‘내 안에 소용돌이가 있다고? 무슨 말일까.’

노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던 요산은 밀려오는 피로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둑어둑해진 방 안에서 눈을 뜬 요산은 요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는 의아해했다. 지금이면 학교에서 돌아오고도 남은 시간인데? 그 때였다.



“오라버니, 요산 오라버니!”

밖에서 다급하게 요산을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요수가 거의 실신하여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요산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 지는 것을 느꼈다.

“오라버니 어서요! 흑흑……이부자리 좀 깔아주세요.”

서둘러 요수를 방에 눕힌 요산의 눈은 벌써 붉게 충혈 되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요수는 얼굴뿐 아니라 온 몸 여기저기에 멍 투성 이었다. 아직 성년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이리 무참히 짓밟은 극악무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어찌, 어찌된 일이야 왜 요수가…….”

“학교에서……흑흑……. 일본남학생이 요수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어요. 요수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요수를 괴롭혔어요. 요수는 정말 대들지도 않고 계속 당하기만 했는데, 그걸 일본 교사가 보고는 되려 요수보고 왜 소동을 피우냐면서 흑흑흑…….”

요수의 친구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일본교사는 요수가 억울해 하며 호소하자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한다며 요수만 마구잡이로 체벌하기 시작 했다고 했다. 학교가 소란스러워 지자 일본순사까지 개입되었고, 순사는 그대로 요수를 끌고 마을 한복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수는 끔찍하게 체벌을 당했다. 광장까지 끌고나와 여학생을 때리는 모습에 질린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요수가 다니는 학교의 조선학생들은 등을 돌려 숨죽여 울고 있을 때였다.

악명 높은 기무라가 중앙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 모습에 주민들이 주춤주춤 길을 비켜주고 있었다. 무릎이 꿇린 채였지만, 요수는 기무라의 모습을 기죽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기무라는 끝까지 굴하지 않는 요수의 얼굴을 폭행하고 억지로 눈을 감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잔인한 행동에 학생들 모두가 벌벌 떨었고, 요수는 얼굴과 특히 눈을 많이 다쳤다.

친구들은 그런 요수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닦아도, 닦아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요산은 엉망이 되어 신음하는 요수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가슴속의 뜨거운 불덩이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한참동안 친구들은 요수의 곁을 지키다 돌아갔고, 요산은 동네의 약방 할아범에게 약초를 얻어와 요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아직 어리기만 한 소녀를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이리 무참히 폭행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지는 요산은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소금산으로 향했다.

역시 만순의 말대로 소금산은 철저히 통제 된 상태였다. 입구를 봉쇄한 순사들은 멀리서 요산이 다가오자 돌아가라며 저지했지만, 이미 악에 바친 요산은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 소란을 듣고 산 입구에서 기무라가 내려왔다.

한낱 애송이를 보는 기무라와 요산의 타오르는 시선이 부딪혔다. 죄 없는 동생을 가차 없이 폭행한 것도 모자라 우리의 보물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요산은 치솟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기무라에게 뛰어들었지만, 순사들에게 막혀 억지로 무릎이 꿇어졌다. 그 모습에 비웃던 기무라가 천천히 요산에게 다가왔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의 요산을 보며 가볍게 순사들에게 신호하자, 순사들의 폭력이 이어졌다.

간신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요산은 짓무르기 시작한 요수의 눈을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주고 눈에 덧댄 천을 새로 갈아주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한 뼘 작은 요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오라버니가 널 지키고 나라를 지킬 거다. 조금만 버텨 요수야…….”

동두천시 일본수사대에서는 열띤 회의가 한창이었다. 긴 테이블의 앞쪽 중앙에 앉은 기무라는 소금산에서 오늘과 같은, 난데없는 조선인들의 출입을 단단히 통제하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을 향해 한껏 눈을 부라린 청년을 생각했다. 그런데 문득 학교에서 소동을 일으킨 여학생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옆에 있던 순사가 이 지역 토박이들로, 학교에서 혼쫓을 내주었던 여학생의 오빠가 소금산 소동의 청년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자’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여자아이를 없애버릴 걸 그랬습니다.”

그래 그 눈빛……. 낮이 익다 했어. 이름난 조선의 검, 그자의 핏줄이란 거였군. 건방진 조센징 주제에.

기무라는 가볍게 코웃음 쳤다. 아버와 똑같이 자신을 향해 눈을 부라리던 청년.

“그래봤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단다 애송이들아. 너희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크크크.”

기무라의 목소리가 더욱 더 싸늘해졌다.

날이 밝자 요산은 만순을 불렀다. 요수의 소식을 듣고 제 일처럼 안타까워하던 만순이었다. 때문에 요



산은 동생 요수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소금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무작정 입구로 향하지 않고, 살짝 돌아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입구가 아닌 산 뒤쪽은 나무가 많고 들풀이 많아 쉽사리 올라갈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요산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억센 가지들을 헤치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힘겹게 뒤쪽으로 산을 올라 입구를 통제하던 순사들을 따돌린 요산은 곧장 자재암으로 향했다.

잠시 자재암의 불상 앞에 서서 부처를 바라보던 요산은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 살펴보았다. 그러자 웬 노인이 제 집인 양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밤 오두막에서 잠시 쉬어가던 노인이었다.

“어르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거처로 삼은 것입니까? 이곳은 원효께서 지냈던 자재암입니다. 신성한 곳이지요.”

“흥 엉덩이 붙이고 눌러앉으면 다 제집이거늘, 어찌 이 좋은 곳을 마다하겠느냐? 흠흠. 너무 오래 잤더니 허리가 다 아프군. 잠시 산보 좀 하겠나?”

되려 당당한 노인을 보고 어안이 병병한 요산은 이상한 노인이라 생각하고는 뒤따라 걷기 시작했다. 떠돌이 노인치고는 좋은 거처를 얻었군.

그리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산보를 시작한 요산과 노인. 요산은 이내 말없이 걷는 노인에게 ‘붉은 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노인은 그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으로 “더 이상은 나도 모르네.”라는 말로 딱 잘라 이야기했다. 이에 요산은 다시금 노인을 뒤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노인이었다. 행색은 초라했으나, 걸음 한자 흐트러짐 없이 거뜰히 산을 오르는 이 기백은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은 하백운대에 서서 경치를 감상하는 듯 했다. 요산도 노인을 보고는, 자신도 옆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겼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자네는 가슴속에 누구보다도 뜨거운 애국심을 가졌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항상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네.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자네의 심지가 굳다면 못할 일이 없지. 내가 임시로 머무는 곳이 자재암이라고 했나? 킁 킁 원효대사님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 있더구만. 이 산속을 헤매며 거처를 찾아다닌 보람이 있지 뭐가. 원효께서는 진리를 얻고자 당에 가려했지만, 전혀 의도하지 않던 곳에서 모든 것을 깨우치셨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당에 가기만 하면 무엇인가가 있을 줄 알았던 게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한날 해골을 보고 깨우치셨다지. 허허허.”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선은 극악무도한 자들로 인해서 울음이 끊이질 않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동생을 지켜주지도 못한 못난 오라비인 걸요.”

“지금 조선의 어지러움 또한 하나로 뭉쳐지리니, 누구는 웃고, 울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자책할 것이다. 허나 곧 그 모든 것들은 하나로 합쳐져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후대는 그것을 원융회통(圓融會通)이라 부를테지. 자신 안에 있는 신념을 믿게. 젊은이가 그리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 어디 이 나라 조선을 구할 수 있겠는가?”

“예? 허면, 제가 조선을 구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자네의 소용돌이는 보통의 것이 아니야. 큰 태풍을 지냈으면서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인가. 망설이지 말고 가슴속의 불덩이를 표출하게. 뜨거운 가슴을 내버려 두지 말란 말일세.”

순간 요산은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요산의 가슴을 두드리고 머리로 깨우치는 말이지 않은가? 어찌서 자신에게 이러한 깨침을 주는지 묻자, 노인은 예의 좋은 웃음을 지으며 한가로이 하백운대의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었다.

“……당신은 원효입니까?”

먼 곳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빠르게 제자리를 찾더니 한낱 떠돌이 노인에게 원효라니, 진짜 원효께서 들었다면 기함할 노릇이 아닌가, 라며 다시금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긴, 돌아가신 분이 자신의 앞에 나타날 리가 없지. 요산은 멧쩍게 웃고는 아직 푸르른 가을 산을 바라보며 붉은 별을 생각했다.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지켜야만 한다!

요산과 노인은 자재암으로 하산했고, 자연스레 자신의 임시거처로 들어가는 노인을 뒤로한 채 요산은 걸음을 빨리하였다. 어서 덕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요산은 먼저 요수의 상태를 살폈다. 만순이 요수의 곁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끽끔 앓던 요수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뭉게 쏜 죽을 삼킬 수 있게 되었다. 요산은 친 오라비 못지않게 곁에서 잘 돌봐준 만순이 고마웠다.

잠이 든 요수의 얼굴을 조심스레 쓸어주며, 요산이 먼저 입을 뗐다.

“일단 소금산의 경계는 이제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아. 아마 붉은 별이 나타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겠지. 확실한 건 일본군의 눈을 돌릴 만한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만순은 요산과의 이야기를 서찰로 옮겨 적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요산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요산은 열심히 적다 말고 자신을 뵈듯 쳐다보는 동료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자, 만순은 별 것 아니라는 싱거운 대답과 함께 다시 서찰로 시선을 옮겨 적기 내려가기 시작했다. 만순은 자신의 오랜 벗이 어딘가 달라진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뒤쪽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던 친구가 어느 새 가장 앞장서있는 것이 아닌가.

요산은 자신의 친구 만순이 묘하게 웃는 표정을 보고 다시 왜 그러하냐며 물었지만, 만순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일단 일본군의 시선을 돌리는 거라면 확실한 방법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지. 하지만 이번엔 서울이 아니라 여기 동두천에서 하는 거야. 사람들을 모아 동두천에서 3.1운동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물결이 인다면, 기무라가 당황하겠지. 많은 순사들이 몰려 진압하는 동안 너는 소금산에서 붉은 별을 찾는 거야. 너만의 임무다 요산. 난 서둘러 서찰을 흥덕문 대장에게 전달해야겠어.”

만순은 요산의 눈빛에서 순간 안타까움을 읽었다. 자신도 친구가 대한독립 만세를 얼마나 외치고 싶어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산은 일순간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할 일을 되새겼는지 전의 굳은 눈빛으로 돌아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요산. 이제 아버지의 검을 네가 잡아야 해.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거다.”

요산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날 믿어줘서 고맙다 만순아.”

요산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아버지의 검을 꺼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을 지켜주세요!’

기무라 경감의 집무실은 사람이 있나 의심될 정도로 싸늘하였다.

“서울과 곳곳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부쩍 동두천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립운동이 다시금 일어나는 건 아닌지…….”

순간 기무라의 손이 책상을 팽하고 내리쳤다. 보고를 채 마치지 못한 순사는 움찔하여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쳤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무슨 소릴 하는 건가! 당장 주동자를 찾아내! 붉은 별이 곧 나타난단 말이다. 조센징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없애 버려야해! 이미 그들의 단결력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조센징의 손에 붉은 별이 들어간다면 그들의 민족성은 우리가 암만 힘을 써서 도려내려 해도 깊게 뿌리내릴 거야. 그렇게 된다면 3.1운동과는 비교도 안 될 운동이 수없이 일어날 테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 없애야 한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한 순사는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집무실을 나와 작게 한숨을 쉬었다. 휴 오금이 다 저리는 구만.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시행할 때가 왔다. 요산은 요수의 눈가리개를 깨끗한 천으로 갈아 주고는 간단하게 짐을 싸며 이야기했다.

“요수야, 이제 오빠가 중요한 임무를 맡으려고 해. 오늘 중으로 여기 마을광장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거야. 넌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정말? 독립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나도 동참하고 싶은걸!”

“약방 할아버지 말씀 잘 들었지? 시력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 천만 다행이라고 하셨잖아. 무리해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 가만히 집에 있어야 해 알았지?”

“으응……. 오빠 그 검은……결심 한 거야? 난 오빠가 반드시 잘 해낼 거라 믿어. 그리고 몸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해!”

요산은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두 손을 움켜쥐었다. 요수는 어딘가 달라진 눈빛의 오라버니의 손을 자신도 꼭 잡았다. 조심해 오빠.

소금산으로 향하던 요산의 발길이 멈추었다. 마을이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차단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무도 서울로 향할 수 없다! 모두 돌아가!

서울로 향하는 자들을 제지한다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자들 또한 길목이 막힌 것 아닌가? 일본군이 이미 눈치 챈 모양이군. 만순의 전보가 한발 빠르게 전달되어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물거품이 될 뻔했어.

이미 곳곳에 열사들은 주민들인 척 동두천에 모여들었을 것이다. 빠르면 오늘 운동이 열리겠지. 오늘 반드시 붉은 별을 찾아야 한다. 요산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는 뒷산으로 소금산을 올라 자재암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새 거처를 옮긴 것일까? 자재암을 꽤 마음에 들어 하는 줄 알았는데.

자재암 위쪽의 낡은 기와에 몸을 숨긴 요산은 간단히 요기를 하고 허리춤에 아버지의 검은 찻다.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빠르게 주변을 훑으며 보물을 찾으려 했지만 쉽사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아……이 많은 나무들 중 붉은 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느 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초조해진 요산이 정상에 서서 숨을 몰아쉬던 중, 마을 쪽에서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기무라 경감님! 큰일 났습니다 혁혁……조, 조센징들이 또 독립운동을…마을로 가서야 합니다!”

“뭐야!”

순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막 소금산 입구에 도착한 기무라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보고하는 이를 무시한 기세로 노려보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크웃, 하필 이런 때에! 소금산을 한 번 쳐다본 기무라는 빠르게 등을 돌려 호령했다.

“지금 즉시 마을로 돌아간다! 빠르게 진압해!”



바로 어제 밤 쉬지 않고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달려온 대한독립군의 대장 홍덕문과 열사들은 만순의 도움을 받아 허름한 폐가에 몸을 숨긴 후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

그리고 대망의 날이 밝자, 덕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사들을 모은 후 열창했다.

“요산이라는 친구가 붉은 별을 찾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조선의 정신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결코 조선은 일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의 정신은 일본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거대한 독립물결이 마을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만순 또한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껏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 마을 곳곳마다 우렁차게 외쳤다.

순간 요산은 온몸에서 뜨거운 전율을 느꼈다. 아래쪽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한시 바빠 붉은 별을 찾아야 한다. 올라왔던 길을 되짚으며 단풍나무를 훑던 요산은 선녀탕으로 향했다. 벌써 한 나절을 산에서 보낸 요산은 순간 다리가 풀림과 동시에 큰 나무뿌리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엉덩이를 타고 찌르르 아픔이 오자 그대로 주저앉아 비 오듯 흐르는 땀을 훔쳤다. 휴, 좀 쉬어야겠다. 자신이 넘어진 나무뿌리에 앉아 그대로 숨을 고르던 요산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 어찌 붉은 별을 찾을 수 있을까?

마을은 이미 열사들과 주민들이 섞여 독립운동에 한창이었다. 급히 도착한 기무라는 서둘러 일본순사들을 모으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폭력과 서러움에 짓밟혀 있던 주민들은 누구하나 겁먹은 눈빛 없이 감정을 폭발시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어 쉽사리 진압이 되지 않았다.

“주동자를 잡아와! 당장!”

기무라의 명령이 떨어지자 순사들이 일사분란하게 흩어졌다.

홍덕문은 마을 중심에 위치한 광장에서부터 곳곳으로 독립운동을 퍼트리던 중이었다.

“저기다! 광장에 주동자가 있다! 잡아라!”

덕문은 순간 몰려오는 순사를 피해 재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런, 순사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든 따돌려야겠는데.’

외곽으로의 도주가 시작되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사들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빠르게 상황판단을 해야 했다. 그리고 덕문은 어두워지는 시점에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저 소금산에 숨어들어야해.’

이미 덕문은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지만 더욱 빠르게 소금산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요산이 나무뿌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붉은 별을 찾으려 할 때였다. 무언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요산은 재빠르게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바로 기무라 였다.

‘기무라가 벌써! 독립운동을 이렇게 빨리 진압했다단 말인가?’

“크윽,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어서 붉은 별을 찾아!”

기무라는 쉬지 않고 산을 뛰어올라온 듯한 거친 숨을 내쉬며 명령하고 있었다. 이 때다!

요산은 빠르게 칼을 뽑고 기무라를 향해 위에서 내리쳤다.

“챙!”

놀란 기무라가 황급히 요산의 칼을 막았지만, 순간 위에서 누르는 힘에 밀려 한쪽 무릎이 꿇려졌다.

“네놈 건방진 조센징! 머리를 잘 썼더구나. 내 시선을 돌릴만한 운동을 일으키다니. 하지만 이제 그 목숨도 끝장이다!”

거의 으르렁 거리는 목소리의 기무라는 무서운 힘으로 요산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고 그 기세에 놀란 요산이 빠르게 검을 떼고 뒤로 쩡충 물러났다.

“내 동생을 무참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조선의 보물을 빼앗으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닥쳐라 이놈! 건방진 조센징 주제에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해? 절대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한번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기무라의 부하들이 빠르게 요산을 둘러싸 포위했다. 순식간에 위기에 처한 요산의 등줄기로 굵은 땀이 주룩 흘렀다.

그 때였다. 빠른 그림자가 순사들의 뒤통수를 내리쳐 쓰러뜨리고 있었다.

“웬 놈이냐!”

“홍덕문 대장님!”

“이곳 순사들은 내가 맡겠다, 넌 어서 붉은 별을!”

빠르게 홍덕문을 훑은 기무라의 눈이 크게 떠졌다. 덕문의 뒤로 독립 운동군이 줄을 지어 올라와 요산을 포위한 순사들을 때려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놈이 독립운동의 주동자구나!”

벌겋게 핏발 선 눈으로 홍덕문에게 달려들던 기무라의 검이 내리쳐지지 못하고 저지되었다. 요산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기무라! 너의 적은 바로 나다. 잊었느냐!”

쫓기던 홍덕문은 빠르게 소금산으로 숨어들었고, 덕문의 뒤를 꼬리처럼 뒤쫓던 순사들을 목격한 열사들이 덕문을 지키려 함께 소금산으로 향한 것이다. 곧 순사들은 순식간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에게 당했고, 위쪽에서 들리는 요산의 목소리를 듣고는 제때에 도움을 준 것이다.

기무라와 요산과의 일대일 접전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하백운대까지 긴 싸움이 이어졌고 수 없이 두 개의 칼이 부딪혔다 떨어졌다. 잠시 거리를 두고 숨을 고르던 요산과 기무라. 그 정적을 사이로 기무라가 입을 뗐다.

“ㅋㅋㅋㅋ……네 아버지란 못 하구나 애송이.”

아버지란 말에 요산의 눈이 커졌다.

“닥쳐라! 네놈이 함부로 지껄일 분이 아니시다!”





“아버의 검을 쓴다고 같아질 줄 알았더냐? 너의 형편없는 칼솜씨를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ㅋㅋ.”

기무라의 도발에 순간 집중을 잃은 요산이 그대로 기무라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일격에 기무라가 요산의 칼을 날려버렸다.

요산의 유일한 무기가 원을 그리며 날아가 나무에 박혔고, 거의 광기에 휩싸인 기무라의 칼끝이 요산의 목을 향했다.

“한낱 조센징 주제에 이만큼 이나 버틴 것도 용하구나. 하지만 네 목숨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아버지를 빌 때가 온 것 같구나!”

기무라의 칼이 크게 휘둘러졌고, 꼼짝없이 요산의 두 눈이 감졌다.

그 때였다. 온통 깜깜했던 주위가 순간 엄청난 빛에 휩싸였고, 기무라는 두 눈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으아악, 내 눈! 어떻게 된 거야!”

조심스레 눈을 뜬 요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평평한 하백운대에서 자신에게 깨우침을 줬던, 먼 경치를 바라보던 그 노인이 서있던 자리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요산이 꿈인지 생시인지 눈을 비비는 사이 빛은 점차 사그러 들었고, 요산의 앞에는 두 눈을 움켜쥐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기무라가 있었다.

‘아버지였을까?’

주위는 다시 어두워졌지만 똑똑히 하백운대를 바라보던 요산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

지금이다! 별떡 일어난 요산이 기무라의 칼을 꺾싸게 집어 들고는 강하게 내리쳤다. 뜨거운 피가 흩뿌려졌고 기무라의 목이 나뉘었다.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 부은 듯한 느낌에 요산이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동안 서서히 날이 밝아왔다.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고 요산은 이대로 다리를 뺀고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동쪽에서 서서히 해가 뜨며 빛줄기가 하백운대를 비추기 시작했는데, 유난히 빛나는 한그루 나무가 보였다. 바로 아버지의 검이 박혀 빛을 반사하고 있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뿌리가 높게 솟아 자신이 엉덩방아를 찧었던 바로 그 나무가 아닌가!

천천히 나무로 다가간 요산은 나무에 박힌 칼을 뺐고, 조심스레 나무를 쓰다듬었다. 그러자 마치 이슬처럼 투명한 단풍잎 하나가 눈에 띄었다. 떨리는 손으로 잎을 따 살펴보니, 정확히 다섯으로 갈라진 잎의 갈래가 예사롭지 않게 반듯했고, 그 모양이 흡사 별과 닮았었다.

“이것이……바로 붉은 별이구나.”

두 손에 정성스레 올려진 단풍잎을 바라보던 요산은 성물을 옮기듯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선녀탕 앞에 멈춰 섰다. 선녀탕에는 열사들과 함께 널부러져 숨을 고르고 있는 홍덕문이 보였다.

“자네가 해냈군. 이것이 바로 붉은 별…….”

“와아……. 보석같이 빛나는 단풍잎이라니.”

사람들은 감히 만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요산의 두 손위에 놓인 붉은 별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어쩔 셈인가 요산?” 덕문이 물었다.

“조선의 보물 ‘붉은 별’은 조선의 숨결로 스며들어 흘러보내질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보물을 빼앗을 수 없도록…….”

요산은 붉은 별을 선녀탕에 조심히 떨어뜨렸다. 맑은 물 위에 떠있는 이슬 같은 단풍잎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이었다. 붉은 별이 선녀탕에서 아래쪽 물줄기로 떠내려가자, 소금산의 단풍이 점차 붉게 물들



고 있었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에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요산은 덕문의 부축을 받으며 기무라의 목을 들고 당당히 내려왔다. 그러자 산 아래쪽에서 숨을 죽이던 사람들이 일순간 크게 환호했고 기무라의 목이 높게 쳐들어졌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사람들의 우렁찬 외침 속에서 요산에게 다가오는 이가 있었다. 눈에 안대를 하고는 만순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걷고 있는 요수였다!

“요수야!”

요산은 요수에게 달려가 강하게 끌어안았다.

“오빠, 그 빛 오빠가 한 거지? 나 지금은 눈을 뜰 수 없지만, 다 보였어!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버지께서도 오빠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뜨거운 눈물이 요수의 볼을 타고 흘렀다. 사람들의 함성은 더욱 커졌고, 요산은 요수를 힘껏 안은 채 자신 또한 목청껏 외쳤다. 그토록 외치고 싶던 “대한 독립 만세!” 를 말이다.

이로써 소금산은 가을경치가 뛰어난 ‘경기 소금강(小金剛)’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소요산이란 이름으로 유명해진 산이 되었다. 또한 동두천 일대에서 투철한 독립운동을 펼친 열사 홍덕문은 홍덕문비가 세워져 소요산 입구에 자리 잡아 그 위엄을 떨치고 있다.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금농굴

황장섭



인물 캐릭터

김판서 (40대) 동인계열에 속하는 이조판서. 세상을 뒤엎을 계획을 진행 중인 사람이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다. 해서, 본처를 소박하였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씨가 없는 것이 원인임을 알고 씨내리를 해서라도 대를 잇기 위해 몰락한 양반가의 딸인 정연희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여 정연희의 혼전 정인인 김진국을 시켜 딸 김송이를 얻는다. 그러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처형당한다.

정 연희 (20)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김진국이라는 소리꾼과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병든 홀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 김판서에게 시집간다. 수일이 지난 어느 날 김판서가 자신은 씨가 없다고 고백하며 씨내리를 받아들이라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해서 강력하게 거부하였지만 그 씨내리의 대상이 사형직전의 위기에 처한 혼전 연인인 김진국이라는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임신이 되면 김진국을 살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씨내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후 딸 김송이를 낳고 김판서의 강요에 의해 자결한다.

김 진국 (30대) 판소리의 달인. 정연희를 김판서에게 빼앗기고 그 울분으로 주막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그만 사람을 죽이고 만다. 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데 김판서가 제안한다. “너의 여자였던 ‘연희’에게 씨를 내리라.” 수일을 정연희와 같이 보내고 임신이 되었지만 김판서는 약속을 저버리고 관아에 처형을 집행하라고 한다. 형장으로 끌려가던 중에 탈출하여 소요산 동굴에 숨어산다.

김 송이 (주인공, 20)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채 김판서의 딸로 살다가 한양 제일의 부자인 송진사의 7대 독자 송민과 사랑에 빠진다. 혼담이 오가던 중에 김판서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효수당하고, 자신은 노비가 되어 지방 관아로 이송되는 중에 한 자객으로 인해 탈출하게 된다. 그 자객은 바로 자신의 생부인 김진국이다. 그러나 탈출 중에 사고를 당하여 기억을 모두 잃는데,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송민이 들려주던 대금의 음률뿐이다. 김진국을 따라 소요산 동굴에 숨어살며 판소리를 배우고 기방에 출입하며 소리기생 해월이 되어 세상에 이름이 높다.

송진사 (60대) 권력을 탐하는 돈 많은 양반. 아들 송민의 연인인 김송이가 권세가인 김판서의 딸임을 알고 기뻐한다. 그러던 중 기묘사화가 발생하여 김판서가 처형되고, 혼담이 오간 자신의 집안에도 화가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사인 이서방을 죽여 방화하여 아들인 것처럼 꾸민다. 곧이어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부인과 함께 자결한다.

송 민 (주인공, 20대) 송진사의 아들로 7대 독자. 사랑하는 김송이의 아버지 김판서가 처형 된 후 아버지에게 의해 목숨을 구하고 한양을 떠나 전국을 유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이름 높은 기생 ‘해월’의 소문을 듣고 동두천으로 향한다.

박 일도 (30대) 죄인들을 쫓는 추격꾼.

처형장으로 가던 중 도망친 김진국과 호송도중에 도망간 김송이의 목에 걸린 상금을 노리며 이들의 행방을 쫓는다. 도중에 또 다른 도망자와 싸우던 중 몸을 다치는데, 마침 지나가던 송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수일을 같이 지내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눈다. 후에 김진국과 김송이를 찾아내고 칼을 겨눈다.

시놉시스

테마스토리 발굴배경 및 의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은 수도권 최고의 명산으로 예로부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설화와 관련된 요석공주 별궁지, 자재암, 원효대, 원효폭포, 원효정약수와 이태조 행궁지 등 많은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있다. 작가는 그 중에서 금송굴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 임진왜란 때 김씨와 송씨가 피난하였다는 -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스토리텔링 하였다.

스토리관련 기초정보

금송굴 - 소요산 자재암에서 남쪽 의상대 쪽으로 오르다 보면 7부 능선 정도에 천연동굴이 있는데 바로 이 동굴이 금송굴이다. 굴의 깊이는 10m, 폭은 5.6m 정도로 장정 30~40명들이 들어가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며 굴 안에 1평 반 가량되는 공간은 방같이 꾸며져 있다. 경주 김씨 이판공파와 여산 송씨 세보를 보면 금송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상촌의 7세손 김륙의 가솔과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송질의 6세손 송명업이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난을 피했다.’고 적고 있다. 그 후부터 이 굴을 김씨와 송씨가 피난한 굴이란 뜻으로 금송굴이라 전하고 있다. 지금 이 굴에는 박쥐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의 휴식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스토리보드의 매력 포인트

소요산은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풍경이 빼어나며, 그에 걸맞은 이야기들이 많다. 특히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애뜻한 사랑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금송굴은 난을 피해온 두 집안의 성씨(김씨, 송씨)에서 유래하여 감성적인 면이 부족하다. 스토리텔링의 제1의 목적은 감성유발이기 때문이다. 하여, 금송굴에 러브 스토리를 가미하여 스토리텔링 하였다.

국내외 유사사례 소개 및 차별성

스토리에 굴이 등장하는 문화원형을 살펴보면, 충남공주 곰굴과 경북봉화 청량산의 김생굴 유래가 비교적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화적인 요소가 많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생산하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다. 반면 금송굴의 경우 스토리의 내용에 판소리를 접목시켜 스토리텔링 하였기에 영화 또는 연극 등의 문화콘텐츠로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테마스토리 틀거리 구성 (사건 전개)

1569년 선조 2년.

한양 남산의 어느 사찰 대웅전에 수수한 옷차림의 여인이 백팔 배를 올리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스물 남짓의 ‘정연희’이며 몰락한 양반가의 무남독녀이다. 병중이신 노모의 완쾌를 빌고 있는데 열려진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20대의 사내가 있으니, 알려지지 않은 판소리 명창 ‘김진국’ 이다. ‘김진국’ 은 과거에 승려였으나 판소리에 매료되어 파계하여 전국을 떠돌며 소리를 익히다 노스님의 병환이 깊다는 소식을 듣고 들린 것이다. 첫눈에 연정을 느낀 두 사람은 급격하게 사랑에 빠져들지만 ‘김진국’ 은 가난한 ‘정연희’ 의 집안에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정연희의 집에 이조판서인 김판서가 보낸 매파가 날아든다.

“김판서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인을 소박 놓아 내 쳤으니, 아들만 낳으면 정실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요.” 하니, 이에 정연희는 병든 노모와 집안을 살리기 위해 김판서와 혼인을 하고, 김진국은 지켜만 봐야 하는 울분에 주막에서 양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만 양반이 죽고 만다. 살인죄로 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는 김진국.

한편, 정연희와 혼인한 김판서는 초야를 만취하여 그냥 보낸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곁에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의원 말에 의하면 내 몸에는 씨가 나오지 않는다 하였소. 내가 부실한 것도 모르고 본처를 소박 맞추었소. 그러나 대는 이어야 하기에 씨내리를 들일 것이니, 따라주시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정연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거부하니, 김판서는 살인죄로 옥에 갇혀있는 김진국의 소식을 전해주며 내 뜻을 따르면 목숨을 살려주고, 처가에 큰 재물을 내릴 것이라고 회유하니 따를 수밖에 없다.

씨내리를 맞는 날 밤.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 서러운 운명에 눈물을 떨군다.

수일을 함께 지낸 두 사람.

김진국은 정연희가 임신하면 자신이 죽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연희 또한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역시 내색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일어 날것이라는 것을 김진국은 모르기 때문이다. 보름 남짓 그들의 아픈 사랑이 흘러가고, 정연희가 임신하자 김진국은 딸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이름을 송이라 지으라 한다.

임신이 확인되자 김진국은 다시 옥사에 갇히고, 이내 사형을 언도받는다. 목숨을 구해주겠다는 김판서의 제안은 술수였던 것이다. 김진국은 사형 집행 날 형장으로 이송 되던 중 탈출을 감행한다. 태어날 자

신의 아이가 보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 죄인이 도망가자 한양 곳곳에 방이 붙고, 김진국은 김판서의 집 주변을 돌며 정연희의 동태를 살핀다.

열 달 후, 정연희가 딸을 낳자 조판서는 안방에 들어 칼을 두고 나온다. 아이는 잘 키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정연희는 딸에게 젖도 한번 물리지 못하고 자결하여 생을 마감한다. 정연희의 무덤을 찾은 김진국은 오열하는데, 뒤이어 포졸들이 들이 닥치자 소요산으로 도망가 숨어 지낸다.

20년 후.(1589년 선조 22년)

김판서의 딸 김송이는 혼기 찬 스무 살의 처녀가 되었다. 김송이는 자라면서 가무에 소질을 보이니, 이 모습을 지켜보는 조판서는 소리꾼인 김진국의 재주를 물려받은 것 같아 씁쓸하다. 그리고 근자에 들어 딸이 한양의 재력가인 송진사의 아들 송민을 만나고 다닌다는 풍문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 김판서는 송진사의 재물을 이용하여 뭔가 일을 꾸며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벼슬을 잃고 낙향한 동인세력과 공모하여 천하를 뒤집어 보려는 것이다.

김송이가 사랑하는 송민은 흰칠한 외모에 여러 악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내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송진사는 권력을 탐하나 마땅한 줄이 없던 차에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김판서의 외동딸임을 알고 기뻐한다. 김판서를 발판으로 자신과 아들의 출세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니 말이다.

김판서와 송진사의 속내를 모르는 두 사람은 점점 사랑에 빠져들고 깊어간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에 비극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기묘사화이다.

기묘사화로 인해 김판서는 처형되고, 집안의 가솔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김송이는 관노가 되어 지방 관아로 이송중이다. 또한 김판서와 혼담이 오갔다는 명분으로 송진사의 집안도 몰락하였는데 아들 송민은 다행히 목숨을 건져 도망을 간다. 송진사가 집안의 마름인 이서방을 살해하고 이틀인 것처럼 꾸밈기에 화를 면한 것이다. 이후 송민은 거지 몰골로 전국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낸다.

한편 동두천에서 기묘사화를 알게 된 김진국은 급히 한양으로 가서 자신의 딸인 김송이를 수소문하여 지방 관아로 이송중임을 알고 자객으로 변장하여 딸 송이를 구해낸다. 그러나 포졸들의 추격으로 딸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자 간신히 구하였지만 딸은 기억을 잃고 만다. 다만 연인인 송민이 연주해주던 대금 음률만 흥얼거릴 뿐이다. 김진국은 딸과 함께 소요산으로 돌아온다.

한편 길거리에 포상금이 걸린 송민과 복면을 한 김진국의 얼굴이 벽보에 붙는데, 한 사내가 유심히 쳐다본다. 바로 죄인들의 목에 걸린 포상금을 노리는 추격꾼 박일도이다.

3년 후.(1592 선조 25)

전국을 유람하다 거지 몰골이 된 송민이 산길을 걷다가 쓰러진 한 사내를 발견한다. 바로 추격꾼 박일도이다. 몸에 칼을 맞아 피를 흘리는 박일도를 구해 치료를 해준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보내며 사랑에 관한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박일도가 추격꾼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는다. 박일도가 건강을 회복해 갈 무렵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난다.

동두천에 도착한 송민은 정자에서 술판을 벌이는 선비들에게 다가가 대금 한 곡조 불어주고 술을 얻어 마시고, 장안에 이름 높은 소리기생 해월을 찾아 매향각으로 향한다. 그러나 남루한 모습이라 문전박대 당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송민은 눈이 휘둥그레진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김송이가 어떤 노인과 함께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송민은 두 사람을 지나치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던만 김송이의 반응이 없다. 분명 자신을 잊었을 리가 없는데 말이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자 두 사람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자꾸만 산중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동굴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굴이 보이는 숲에 숨어 동태를 살피고 있다. 도대체 왜 자신을 몰라볼까? 고개 갸웃하며.....

해월.

해월은 김송이의 기생이름이다. 친부인 김진국은 기억을 잃은 김송이에게 3년 동안 판소리를 가르쳤다. 멍하니 있는 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노래이기에 말이다. 딸은 자신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판소리의 이치를 터득하며 나날이 발전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송이’가 세상에 나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하여 기방을 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굴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발을 쳐놓고 노래만 부르는 기생이 되었는데, 나라 안에 최고로 꼽힐 만큼 명창이었다. 그 소문이 전국에 퍼져 나가니 ‘해월’의 노래를 듣고 싶은 사대부들이 줄을 이었는데, 얼굴을 들어내지 않으니 ‘노래를 좋아하는 대가 집 규수’라느니, 또는 ‘얼굴이 흉악하여 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소문들이 돌아 이름이 더 유명세를 탔다.

한편, 김진국은 동굴 앞까지 미행해온 송민의 존재를 눈치 채고, 밤이 깊어 송민이 숲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제압한다. 행색을 살펴보니 흥한 자는 아닌 것 같아 날이 밝으면 떠나라 이르고 동굴로 들어가 버린다. 송민은 해월이라는 기생에 대해 물어보려 하였지만 말이다.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대금을 꺼내어 예전에 들려주었던 음률을 연주해보는데.....

굴 밖에서 들려오는 대금 소리를 들은 김송이가 그 음률을 따라 흥얼거리더니 이내 머리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더니 혼절하고 만다. 이상한 느낌이 들은 김진국이 송민을 불러들여 대금의 음률과 이야기를 나누다 송진사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김송이는 모든 기억을 되찾고.....

며칠 후.

두 사람이 산속 계곡에서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김진국은 동굴 밖 양지바른 곳에서 북을 고치

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내가 칼을 겨눈다. 바로 추격꾼 박일도이다. 박일도는 김진국을 제압하고, 계곡으로 가 두 사람에게 칼을 겨누다가 깜짝 놀란다. 바로 자신을 구해준 송민이기 때문이다. 박일도는 급히 칼을 숨기니, 송민은 눈짓으로 ‘이 노래가 끝날 때 까지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말한다. 박일도의 정체를 모르는 송이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잠시 후, 노래 소리 끊어지자 박일도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지요. 사랑이라 말하니 사랑이더라! 라고요. 나도 이제 그리 해야겠습니다.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박일도는 미소를 짓더니 돌아서 가고, 두 사람의 노래 소리가 다시 이어진다.

김동굴

#1. 산모퉁이 길 (충청도 인근, 낮)

산모퉁이로 난 길가에 등 굽은 마른 억새가 가을바람에 흔들린다.

포승줄에 묶인 여인네 십여 명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고 지친 표정들이 역력하다.

무리 중에 이목구비 또렷하게 생긴 김송이(20세)의 모습이 보인다.

칼때기를 머리에 쓰고 까치두루마기를 입은 포졸이 육모방망이를 만지며 하늘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어가고 있다.

포졸1 : (죄수들 보며) 서둘러라!

포졸2 : (포졸1보며) 여자팔자 뒤웅박팔자라더니 그 말이 딱이구먼.

포졸1 : 그러게 말일세. 마님, 아씨 소리 듣다가 관노비로 끌려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송이가 리키며)김판서 무남독녀라던데.....

포졸2 : 쫓쫓! 반반하니 수령들 손 타게 생겼구먼.

#2. 숲속 (오후)

숲이 우거진 곳을 지나는 이들.

갑자기 복면 한 자객이 나타나 칼을 휘두르니 포졸 몇이 쓰러지고, 압송되어 가던 여인들은 놀란 눈을 하는데, 자객이 송이를 끌고 도망간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에 우왕좌왕하던 포졸들이 정신을 차리고 추격한다.

자객은 송이를 데리고 결사적으로 도망가고, 송이는 의아해 하면서도 이끌려간다.

잠시 후, 절벽근처에서 뒤 쫓는 포졸에게 화살 맞은 송이가 폭포로 떨어지니,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래로 몸을 던지는 자객.

포졸들이 절벽위에서 아래를 살피다 우회하는 길을 찾았는지 아래로 향한다.

#3. 폭포 (낮)

물속에 가라앉은 송이를 구하여 안고 나오는 자객의 복면이 벗겨지니, 얼굴에 더부룩한 수염이 가득한 김진국 (40대)이다.

어깨에 피가 흥건한 송이를 업고 산길을 헤쳐 나가는 진국.

#4. 한양거리 (낮)

복면한 진국과 송이의 얼굴이 길거리에 붙어있는데, 협객차림의 박일도(30대)가 유심히 살펴본다.
(시간경과)

#5. 소요산 일원 (낮)

단풍이 곱게 물든 소요산을 오르는 송이와 진국이 잠시 멈춰 풍경을 살핀다.

송이 : 온산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진국 : 소요산이나라.

송이 : 소요산?

진국 : 경기도의 소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절경이 많은 곳이지.

송이 : (고개 끄덕).....

진국 : 자, 출발하자꾸나.

#6. 동굴 (소요산, 낮)

굴속에 방이 꾸며져 있고, 장구, 북, 거문고 등의 악기들이 놓여있는데, 진국과 송이가 동굴로 들어선다.

송이 : (주변 살피더니) 방 같습니다?

진국 : (고개 끄덕) 내가 사는 곳이니라. 예서 지내다 보면 네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송이 : (북을 만져보며) 소리꾼이십니까?

진국 : 그냥 가지고 노느니라.

송이 : (북을 잠시 만져보더니) 현대 뭐라 불러야할지?

진국 : 소리선생 이라하면 어떠냐? 너는 송이라 하고.....

송이 : (잠시 생각더니 고개 끄덕이며 혼잣말) 송 이, 송 이.(고개 갸웃) 현대 어찌 이 산중 굴속에?

진국 : 여기 들어 온지도 강산이 두 번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자막 : 20년 전.

#7. 회상 / 사찰 (한양 남산, 낮)

대웅전에서 백팔 배를 올리고 있는 여인(정연희, 20세) 수수한 모습이지만 자태가 곱고 단정하다. 구슬
땀이 흘러내린다.

열려진 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진국(20대). 흰칠한 키에 이목구비 뚜렷하다.

#8. 회상 / 승방 (낮)

승방에 누워있는 노승이 기침하며 일어나 밖을 보니 진국이 있다.

손 뺀어 목침 잡아 던지고, 진국은 피한다.

스님 : 통기 넣은 지 언젠데?

진국 : 기력을 보니 아직 생생하신가 봅니다? 하하하.

스님 : 무심한 놈 같으니.....

진국 : (방에 들어 절 올리고 앉으며) 헌데 (밖 보며)?

스님 : 허드렛일 하는 남자니라. 노모의 병이 깊어 불공을.....

진국 : 모습이 곱던데?

스님 : 소리에 미쳐 파계하더니 이제 계집까지 눈에 들어오느냐?

진국 : 하하하. 뚫린 눈이라!

스님 : 소리는 끝을 보았느냐?

진국 : 세상만사 끝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스님 : 이놈이 제법 도 터진 소리를 하는구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방안에 가득한데, 연희가 내려가겠다고 고한다.

진국이 밖을 나가니 연희가 합장을 하고 간다.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온화하다.

(다음 날)

#9. 회상 / 계곡 (낮)

사찰 인근 계곡 느린 바위에 앉아 북치며 춘향이 판소리하는 진국.

노래를 하는 중에 옆을 보자 연희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얼떨결에 합장하고,

연희 : 소리에 끌려 저도 모르게.....

진국 : 아, 예. (머리 굽적이며)

연희 : 먼 곳에서 소리꾼 한분이 오실 거라 하시더니.....

진국 : (머쓱한 표정)..... 남자도 한번 해 보겠소?

연희 : 저, 저도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진국 : (야릇한 미소 짓더니) 그 그럼 입을 한번 벌려보시오.

연희 : (고개 가웃).....

진국 : (진지한 표정으로 아~ 하는 입모양).....

연희가 의심스러운 듯 고개 갸웃하며 벌린다.

진국 : 더 크게. 아~~~~

입을 크게 벌리자 진지하게 살펴보는 진국.

아~ 하며 그만 다물어도 되겠냐는 표정을 짓는 연희.

진국 : 합격입니다.

연희 : (의심스런 표정) 흠, 저를 놀리신 건지?

진국 : 손사래 치며) 아, 아닙니다. 날벼락 맞을 말씀.....

갑자기 돌맹이가 날아와 진국의 머리에 맞는다.

진국 : 아얏!

웬 놈이야! 하는 표정으로 고개 돌려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님이 손을 털며,

스님 : 날벼락이다. 이놈아! 하하하.

(시간경과)

진국에게 판소리를 배우는 연희의 모습이 흘러가는데, 연희를 바라보는 진국의 눈빛은 사랑이 가득하다. 승방에 누워 연희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진국. 사랑에 빠진 표정이다.

(며칠 후)

#10. 회상 / 사찰 (낮)

49재상이 차려진 법당에서 절 올린 김판서(40대, 이조판서)가 스님 앞에 서니,

스님 : 극락왕생 하실 것입니다. 콜록 콜록.

김판서 : 의원이라도 올려 보낼까요?

스님 : (고개 짓) 순리에 따라야지요.

김판서 : 순리라.....!

스님 : 그렇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김판서가 시종과 산길을 내려가니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11. 회상 / 계곡 (낮)

김판서와 시종이 계곡 근처에 다다르자 진국의 북소리와 함께 연희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좀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을 한동안 지그시 바라보는 김판서. 진국과 눈이 마주치자 김판서는 헛기

침하며 다시 내려가고,

#12. 회상 / 주막 방 (저녁)

의원으로 보이는 40대의 사내가 김판서의 맥을 짚더니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김판서 : 말하시게.

의원 : (안절부절못하며) 송구하오나

#13. 회상 / 승방 (저녁)

스님의 등을 주무르고 있는 진국.

진국 : 낮에 오신 분은?

스님 : 이조판서니라.

진국 : 아! 49재중인 분의 자제?

스님 : 그랬느니라.

스님 : 연희는 어떠냐?

진국 : 재능이 일취월장하여 가르치는 재미가.....

스님 : 데끼 이놈. 니 속을 모르는 줄 아느냐?

진국 : (속마음 들킨 듯 겸연쩍은 표정).....

스님 : 애초에 네놈은 중질할 팔자가 아니었다.

..... 나 죽거든 여기 정리하고, 연희 데리고 떠나거라.

네놈 총각귀신 면해 즐려고 부른 것이니라.

진국 :돌아가시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스님 : (콜록이며 기침 하더니) 세상만사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머칠 후)

#14. 회상 / 계곡 (낮)

연희가 소리를 하다가 진국이 북을 멈추자 고개 갸웃하며,

연희 : 틀린 곳이라도?

진국 : 아, 아닙니다. (겸연쩍어하며) 잠시 쉬시지요.

연희 : (자리에 앉아 눈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 숙인다).

진국 : (대단하다는 듯) 재능이 뛰어나십니다.
 연희 : 가르침 덕분에..... (진국을 뵈며 쳐다보는 연희).....
 진국 : (머쓱해 하는 표정).....
 연희 : (멈칫하며) 저, 저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진국 : (터듬거리며) 가, 가진 것 없는 소리꾼이라.....
 연희 : 겉치레 따지는 사람은 허울에 빠진 자들이나 진배없습니다.
 진국 : (사랑스런 미소를 짓는다.).....

#15. 회상 / 김판서의 사랑채 (밤)

김판서가 침통한 표정으로 술상에 앉아 혼잣말을 한다.

김판서 : 씨가 없다! 씨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술상을 엮어버린다. 울분을 참는 표정. 이때 수하가 들어와 방안 분위기를 살피며 쭈뼛거린다.

김판서 : (시킨 일은 어찌 되었느냐는 표정)

의원이 산길에서 칼 맞아 죽는 모습보이고,

수 하 : 이러신 데로.....

수하가 나가려하자 불러 세운다.

김판서 : 그 여인을 알아보라.

수 하 : (생각난다는 표정) 아, 예, 나오리.

#16. 회상 / 연희의 집 (밤)

초가집 안방에 누워있는 50대의 노모의 병색이 깊어 보인다. 간호중인 연희.

노모 : 나 때문에 고생이.....(눈물짓는다)

연희 : 그런 말씀 마세요.

노모 : 있는 집 같으면 호강하련만. 혼기도 찾는데.....

(시간경과)

달빛이 문에 비치고, 연희는 몸을 뒤척이며 진국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러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짓는 연희.

(다음날)

#17. 회상 / 김판서의 집 사랑채 (밤)

수하가 김판서에게 연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김판서 : 그놈과는?

수 하 : 연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김판서 : 연분이라.....

김판서는 눈을 감고 연희의 노래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다음날)

#18. 회상 / 연희의 집 안방 (낮)

연희 모녀가 앉아있고, 김판서가 보낸 매파가 눈치 살피더니,

매파 :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부인이 소박을 맞았으니,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정실부인이 된다니깐요.

노모 : (단호한) 아니 될 말이네.

매파 : 이려고 살며 무남독녀 고생시키느니.....

노모 : 딸자식 팔아 호강할 생각 없네. 물러가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연희.

노모가 완강히 거부하자 매파는 물러나며 연희에게 눈짓을 한다.

#19. 회상 / 마당 (낮)

매파는 연희가 다가오자 주위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고,

매파 : 청상과부로 고생만한 홀어미 약도 한번 못써보고 돌아가시게 할 꺼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 집안이 필 텐데.....

연희 : (고민하는 표정).....

매파 : 병세가 깊어 보이던데 이대로 보내면 평생 한 될꺼유. 한!

연희 : (고민하더니)..... 잠시만 말미를.....

대문간을 나서는 매파의 뒷모습을 보며 고민하는 표정.

진국의 모습이 떠오르니 고개를 흔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다음날)

#20. 회상 / 계곡 (낮)

너른 바위 위에 북과 북채가 놓여있고, 진국과 연희가 마주서서 바라보고 있다.

연희 : 해서, 이제 뵈을 수 없을 것 같..... 흑흑흑.

진국 : (고통스러운 표정).....

연희 : (눈물 주르륵).....

연희가 돌아서서 가려하자 북을 건넨다.

사라져가는 연희의 모습을 바라보는 진국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 떨어진다.

멀리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김판서의 수하.

(며칠 후)

#21. 회상 / 김판서집의 안방. (저녁)

연지곤지 짙은 연희가 술상 앞에 앉아있고, 김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거푸 술잔을 들이킨다.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희.

잠시 후.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김판서는 깊이 잠들어 있고, 예복차림의 연희는 굳은 듯 앉아 있다.

#22. 회상 / 주막 (저녁)

주막에서 술을 병째 마시는 진국.

술이 떨어지자 비틀거리며 일어나는데 이제껏 아니꼬운 표정으로 바라보던 양반행색의 노인이 혀를 차며 말한다.

양반 : 보아하니 천한 놈 같은데 웬 주정이나? 썩 물러가거라.

진국 : (비틀거리다 양반을 노려보다니).....왜요? 천한 놈은 술도 못 마신답니까? 끼억~

양반 :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네 이놈!

진국 : (히죽히죽 웃는다).....

양반 : (뺨을 때리고) 이놈이 양반을 능멸하느냐?

진국 : (뺨을 만지며 여전히 히죽히죽).....

양반이 다시 진국의 뺨을 때리고 옥신각신 하다가 양반이 평상에서 떨어져 쓰러지며 멧돌에 머리를 짚고 숨진다.

주막손님 : 사, 사람이 죽었다. 저, 저놈이 죽었어. 저놈이!

#23. 회상 / 관아 옥사 (밤)

포박당한 채 옥사에 갇혀있는 진국. 옥사 앞에 있던 포졸이 혀를 차며 말한다.

포졸 : (혀를 차며) 천한 놈이 양반을 죽였으니 네놈 앞날이.....

(며칠 후)

#24. 회상 / 김판서집 안방 (밤)

눈을 지그시 감은 김판서가 앉아있고, 그 앞에 연희가 있다.

연희 : 사흘이 지났으나 한 번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김판서 : 실은, 자손을 보지 못하는 몸이오. 씨가 없다는 말이오.

연희 : (고개 갸웃) 그럼 어찌 저와 혼인을.....

김판서 : 씨내리를 들일 것이오.

연희 : (놀란 표정) 싫, 싫사옵니다.

김판서 : 음. 부인의 소리선생 이었던 김진국라는 자가 만취하여 사람을 죽였소. 그것도 양반을.....

연희 : (깜짝 놀란다).....

김판서 : 내일 효수될 것인데..... 뜻을 따른다면 손을 써보겠소.

연희 : (안타까운 표정 짓더니 눈물 떨군다.).....

(다음 날)

#25. 회상 / 안방 (밤)

연희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한 사내가 들어와 문 앞에 선다.

힘없이 고개를 든 연희의 눈이 갑자기 커진다. 눈앞에 진국이 서있기 때문이다.

연희 : (깜짝 놀란 표정).....

진국 : (와락 달려들어 품에 안는다).....

(시간경과)

연희 : (품에서 나와) 정말 방면시켜 준대 하였습니까?

진국 : 그, 그렇습니다. (애써 그렇다는 표정)

연희 : (안도의 한숨을 쉰다).....

(시간경과)

새벽닭 소리가 들리고 서로 어색해하며 바라보다 연희가 진국에게 다가왔으며,

연희 : 보,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포옹 후 입을 맞추고 방의 불이 꺼진다. 불 끄진 방을 바라보는 김판서의 얼굴은 울분이 가득하다.

#26. 회상 / 안방 (아침)

연희가 눈을 뜨니 진국의 품안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국이 사랑스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27. 회상 / 사랑채 (아침)

술로 밤을 지 낸 듯 술상이 어지럽다.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술을 따르다 병을 집어 던진다. 울분을 삭이는 표정이다.

자막 : 보름 후.

#28. 회상 / 안방 (밤)

연희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의원의 진맥을 받는 모습.

#29. 회상 / 사랑채 (밤)

김판서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곁에 수하가 있다.

멀찌기에 진국이 앉아있는데 의원이 들어와 앉는다.

의원 : 태가가 잡히웁니다.

김판서가 손짓하자 의원 물러가고,

김판서 : (진국보며) 며칠 옥사에 있으면 방면 될 것이니라.

수하가 진국에게 나가자며 신호를 보내니,

진국 : (다급한 목소리) 나, 나으리? 하, 하루만 시간을.....

물끄러미 진국을 바라보는 김판서. 애절한 진국의 표정.

#30. 회상 / 안방 (밤)

안타까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연희 : 이제 날이 새면 영영 못 뵈는 것입니까?

진국 : (침통한 표정).....

연희 : (배를 쓸며 눈물 주르륵).....

진국 : (연희를 끌어안으며) 그래도 우리의 아이가 남을 것이니.....

두 사람의 볼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새벽녘이 되어 진국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가려하자 다급히,

연희 : 아이 이름을?

진국 : 딸이면 ‘송이’라 하시오.

연희는 문을 나서려는 진국의 등 뒤에서 끌어안고 울먹인다.

연희 : 사랑하옵니다. 진정.....

#31. 회상 / 마당 (새벽)

마당에는 수하가 기다리고 있다.

안채의 문을 나서는 진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짓는 연희.

#32. 회상 / 사또 집무실 (아침)

사또가 의자에 앉아있고, 김판서의 수하가 들어간다.

수하 : 집행을 서두르라 하셨습니다.

사또 : (고개 끄덕).....

#33. 회상 / 김판서집 안방 (낮)

김판서가 앉아있고, 연희는 울먹이는 표정.

김판서 : 방면하여 먼 곳으로 보냈으니 아이를 잘 보존하십시오.

(시간경과)

#34. 회상 / 사형집행장 (낮)

포승줄에 묶인 진국이 포졸들에 의해서 끌려간다.
진국의 시야에 멀리 처형장이 보인다. 눈앞에 떠오르는 연희의 모습.
진국은 손에 쥔 사금파리로 포승줄을 끊기 시작한다.
잠시 후 형장에 다다랐을 무렵에 줄을 끊고 도망치는 진국.
포졸 : 죄인이 도망친다. 잡아라!
진국의 얼굴이 그려진 방이 벽에 붙어 있다.

자막 : 10개월 후.

#35. 회상 / 김판서집 마당 (밤)

솥을대문과 양반집 기와지붕이 보이고, 마당에 사대부 복장을 한 김판서(40대)가 안절부절못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
산고의 비명소리가 연이어 들려온다.

#36. 회상 / 안방 (밤)

양반가 안방의 살림살이들이 갖춰져 있는데, 연희가 문고리에 연결된 무명천을 잡고 출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그 곁에는 50대 산파가 여인의 가랑이 앞에서 상황을 살핀다.
고통스러워하는 연희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다.
연희 : 악, 악, 악!
산파 : 조금만 더, 더 힘을.....

#37. 회상 / 마당 (밤)

걱정스럽게 안방 쪽을 바라보는 김판서.
이때, 아기의 울음소리 들려오고 두 눈이 커지는 조 판서.

#38. 회상 / 대문 밖 (밤)

거지 차림의 사내가 주위를 의식하며 김판서의 집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바로 진국이다.
아이의 울음소리 들려오자 눈물 글썽거리는 진국.

#39. 회상 / 안방 (밤)

산파가 아이를 포대기에 싸는데 김판서가 들어선다.
산파 : (김판서 힐끔 보며 아쉬운 표정) 따, 따님입니다요.
김판서 : (굳은 표정으로 신음소리 내더니) 데리고 나가게.
산파가 아이를 안고 나가려하자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연희 : 애절한 눈빛) 얼굴이라도 한번.....(눈물 주르륵)
산파가 멈칫하며 표정을 살피니 김판서 고개를 끄덕한다.
아이를 옆에 뉘어주니 연희가 머리를 쓰다듬는다.
연희 : (슬픔이 뻥 목소리)우리 송이 예쁘구나. 흑흑흑.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산파와 굳은 표정의 김판서.
연희 : (애절한 표정으로 김판서 보며) 젖이라도 한번.....?
김판서가 눈짓하자 산파가 아이를 안고 나간다.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희.
연희 : 송이야, 송이야! 흑흑흑.
연희 곁에 앉은 김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김판서 : 아이는 걱정 마시오.
연희 : (눈물만 흘린다).....
김판서 : 미안하오. 미안하오.
김판서 일어서서 나가고, 연희가 시선 돌리니 은장도가 놓여있다.

(며칠 후)

#40. 회상 / 묘지 (한양인근, 낮)

진국이 조금 전에 만든 듯 새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데 포졸들의 소리 들린다.
(E) 놈이다. 잡아라. 잡아라!
회상에서 깨어나는 진국.

(현실)

#41. 동굴 (소요산, 저녁)

눈물이 글썽해진 진국을 바라보는 송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송이 : 연희라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아이도.....

진국 : (송이 찬찬히 보며 고개 끄덕)

송이 : 그래서 그 아이 생각에 저를 송이라?

진국 : (고개 끄덕).....

#42. 굴 밖 (밤)

북을 치며 흥얼거리는 송이의 소리가 들리는데, 달을 보며 연희를 떠올리는 진국.

진국 : (울컥하는) 송이가 저리 컸구려! 저리.....

(며칠 후)

#43. 계곡 (소요산, 낮)

큰 폭포 앞 느른 바위에 서서 판소리하는 진국을 얼빠진 듯이 쳐다보는 송이. 잠시후, 진국이 소리를 마치자,

송이 : 저도 스승님처럼 되겠습니까?

진국 : (혼잣말) 애미 닮았으면.....

송이 : (고개 갸웃) 예에?

진국 : (당황) 아, 아니다. 아니야. 한 소절씩 따라해 보거라.

진국의 선창에 따라 소리를 하는 송이의 모습 흘러가고,

#44. 길거리 (한양, 김판서 집 앞, 밤)

초췌한 모습의 송민(20대)이 주위를 살피며 김판서의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데, 대문에는 출입을 금하는 표식이 붙어있다.

송민 : (눈물 글썽이며 혼잣말) 송이남자? 흑흑흑.

회상에 젖는 송민.

(회상)

자막 : 몇 달 전.

#45. 회상 / 계곡 (한양인근, 낮)

작은 폭포가 뒤로 보이고 맑은 물이 계곡을 따라 흐른다.

햇빛에 반사된 물줄기 반짝이고, 물위로 단풍잎 떨어져 흐른다.

귀티가 흐르는 외모를 한 송민(20대)이 대금을 연주하고 있고, 김송이(20세)는 흥얼거리며 장단을 맞추다 연주가 끝난다.

송민 : 남자 생각하며 지어보긴 했는데 어떻소?

송이 : 음률이 애절한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송민 : (쓱스러워 하더니 화제 바꾸려는 듯) 새봄에 매파 넣는다 하였으니 몇 달만 지나면.....

송이 : (고개 끄덕).....

#46. 회상 / 김판서의 집 사랑채 (밤)

중인으로 보이는 40대의 사내가 들어와 절을 하고 앉는다.

김판서 : 어찌되어 가는가?

사 내 : 군사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있으나 재물이 부족하여.....

김판서 : (잠시 생각더니 탁자에서 봉투를 꺼내어 주며) 경상의 어음이니 일단 이것으로 진행하라 이르계.

사내 봉투를 받아들고 물러난다.

#47. 회상 / 송진사의 집 사랑채 (밤)

송진사 부부가 마주앉아 있다.

부 인 : 소문에 곧 서인이 득세할 것이라는 말이 도는데.....

송진사 : 권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소.

부 인 : (걱정스런 표정).....

송진사 : 김판서와 사돈이 되면 민이의 출셋길은 따 논 당상이오.

부 인 : 그 덕에서 우리와 선뜻 연을 맺으려 하겠습니까?

송진사 :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하오. 나는 재물이 있고, 김판서는 권세가 있으니 서로 득이 된다는 걸 그도 알 것이오.

이때 송민이 들어와 인사하고 앉는다.

송진사 : 그 규수를 만나고 오는 것이냐?

송민 : 예.

송진사 : 명문세가이니 학문이 부족하면 처신에 부끄러울 것이니라. 하니, 기약은 삼가하고 학문에 전념 하거라.

송민 : 예.

#48. 회상 /김판서의 집 사랑채 (밤)

물끄러미 송이를 살펴보는 김판서.

김판서 : 니 어미를 많이 닮았구나.

송이 : 어떤 분이었습니까?

김판서 : (안타까운) 고운 사람이었다. 나를 만난 것이 화가되어.....

송이 : 어머니가 창을 잘하였습니까?

김판서 : (멈칫).....?

송이 : 다락에 북이 있기에.....

김판서 : 그, 그래. (눈을 감는다.)

송이 : (고개 갸웃).....

#49. 회상 /송민의 방 (밤)

방에 누워 송이를 그리워하는 송민.

#50. 송이의 방 (밤)

대금을 연주하는 송민을 회상하는 송이는 사랑에 푹 빠진 표정이다.

(며칠 후)

#51. 회상 /한양거리 (낮)

파발마가 급하게 달리더니, 곧이어 의금부 병사들이 골목길을 달린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내들.....

사내1 : 이제 동인들은 멸문지화가 되겠구먼.

사내2 : 순서가 그리 될 차례긴 하지.

사내1 : 허구한 날 파당을 지어 싸움질 할 때부터 알아봤지.

사내2 : 나라 꼬라지가 어찌 되련 지.....

사내1 : 서인들이 칼을 쥐었으니 생목숨 여럿 작살나겠네 그려.

사내2 : 그러게나 말일세. 쫓쫓.

자막 : 1589년 선조 22년 동인과 관련된 1,000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 바로 기묘사화이다.

(며칠 후)

#52. 회상 /송진사집 마당 (낮)

안절부절못한 표정으로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송진사 부부.

마름인 이서방(40대)이 급히 들어온다.

송진사 : 어, 어찌되었느냐?

이서방 : 김판서는 궤에서 잡혀 참수 당하였고, 집안 가솔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되어 지방 관아로.....

송진사 : 그, 그럼 그 송이라는 규수도?

이서방 : 예. 삼남지방 어디로 끌려갔다는데 어딘지는.....

부인 : (걱정스런 표정)조금만 연관 있어도 다 잡아 간다는데.....

송진사 : (고심하는 표정 짓더니) 민이는 어디에 있소?

부인 : 송이남자 행방을 알아보겠다며.....

송진사 : (잠시 생각더니) 부인은 들어가 계시오.

부인이 안채로 들어가자.

송진사 : 즉시 가솔들을 풀어 찾아오라 이려고, 자네는 민이 방으로 들게.

이서방 : (고개 갸웃).....

#53. 회상 /송민의 방 (낮)

마름 이서방이 사랑채로 들어서자 문 앞에서 기다리던 송진사가 칼을 휘두른다.

칼을 맞고 쓰러지는 이서방.

이서방 : (숨 헐떡이며) 나, 나오리?

송진사 : 미안하네. (다시 칼을 휘두르니 이서방 숨진다)

#54. 회상 / 사랑채 (밤)

송진사 부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있는데 송민이 들어오자,

송진사 : (봉투를 내놓으며) 모든 가산을 정리한 돈이다.

송민 : (고개 갸웃).....

송진사 : 식솔들이 잠들면 한양을 떠나거라.

송민 :

송진사 : 혼담이 오갔으니 필시 그 화가 미칠 것이니라. 너는 7대 독자이니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송민 : 아, 아버님. 흑흑흑.

부인 :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거라. 별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시 만나면 될 것이니.....

송진사 : 그리고 송이낭자도 참수를 당하였다 하니 찾을 필요 없다.

송민 : (놀란 눈) 그, 그것이 참, 참입니까?

송진사 : 그래, 내가 알아보았느니라.

송민 : (울먹이며) 낭, 낭자. 흑흑흑.

송민은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간다.

(시간경과)

송진사의 집 송민의 방에 불이 난다.

가솔들이 불길을 잡으려 애쓰지만 더욱 세차게 타오른다.

(시간경과)

다음날 새벽,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당에 앉아있는 송진사와 부인.

하인 한명이 불더미 속을 뒤지더니 오염한다.

하인 : 도, 도련님. 도련님! 흑흑흑.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오염하는데 한 무리의 의금부 포졸들이 들이닥친다.

종사관 : 대역죄인 송진사와 그 식솔들은 오라를 받으라.

송진사 : (멍한 표정으로 종사관 앞으로 오더니) 7대 독자를 잃고 무슨 낮으로 조상을.....

갑자기 종사관의 칼을 빼어 들더니 부인을 베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결한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하는 표정의 종사관.

회상에서 깨어난 송민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현실)

#55. 계곡 (소요산, 낮)

진국이 너른바위 위에 북채를 잡고 앉아 송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북채로 북의 모서리를 연속으로 치며 창을 끊는다.

진국 : 그기는 옥에 갇힌 춘향이가 신세타령하며 이몽룡을 그리는 장면이니 슬프고 애절하게 불러야지. 계면조로.

송이가 목을 가다듬고 한 소절을 부르자 진국이 다시 세운다.

진국 : 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온몸으로 내질러야 하느니라.

고개 끄덕 하며 송이가 다시 연습에 열중하는 모습 흘러간다.

#56. 폭포 (전주, 낮)

송이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득음하기 위해 창하고 있지만, 물소리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막 : 3 년후 가을.

#57. 어느 고을 (한양인근, 낮)

거지꼴을 한 송민이 잔칫집 마당에 앉아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는데, 옆자리의 두 선비 목소리가 들린다.

선비1 : 자네 명창 해월의 노래를 들어봤는가?

선비2 : 사람의 목에서 피꼬리 소리가 난다는 소문은 들었네.

송민 : (궁금한 표정) 피, 피꼬리?

선비2 : 한양사람이 아니시오?

송민 : 삼남을 유랑하다 한양 온지 얼마 안 되어.....

#58. 매향각 (동두천, 밤)

한 무리의 선비들이 기방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인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선비1 : (옆의 기생에게) 명창 해월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선비2 : 그러게, 창 한번 들으려고 한양에서 왔거늘.....

기생1 : 소녀와 정답이나 나누며 기다리시면 올 겁니다요, 호호호.

선비1 : 음, 그럼 기다리기 지루하니 통해보거라.

기생1 : 하오시면 소녀부터.....

선비는 헛기침을 하더니 타령조로 희롱하듯 질문을 던진다.

선비1 : 이년아, 네가 명색이 무엇이나?

기생1 : 노류장화, 만인의 꽃 기생을시다.

선비1 : 허허, 네가 기생이라면 이름은 무엇이나?

기생1 : 옥단이라 하옵지요.

선비1 : 나이는 몇 살이나?

기생1 : 열하고도 여섯입지요.

선비1 : 네년의 서방은 누구이나? 이름을 밝히 거라.

기생1 : 옥봉이라는 자도 있고, 자지라는 자도 있고, 조옷이라는 자도 내 서방입지요.

선비1 : 서방이름 한번 고약하다. 내게도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럼 나도 네 서방이나?

기생1 : 성이 같고 이름이 같으니 어찌 내 서방이 아니리오.

기생이 손을 선비의 사타구니에 넣으며 타령조로.

기생1 : 아이고, 내 서방 여기 있었구려!

좌중은 폭소가 터진다.

(시간경과)

옆문이 열리는데 발이 쳐져있고, 발 너머에 송이가 서 있다.

송이 곁에는 북채를 잡은 진국이 있고, 좌중이 조용해지자 송이가 창을 한다.

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소리에 저마다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른다.

선비1 : 과연 명창이라는 말이 헛되지 않았구나.

선비2 : 이제 너를 뛰어넘는 명창이 있다는 소문은 믿지 못하겠구나.

(며칠 후)

#59. 양주 인근 산골 (낮)

거지 몰골을 한 송민이 콧소리 흥얼거리며 산길을 걷는다.

소변이 마려운지 나무 뒤로 가서 불일을 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살펴보니

협객 행색의 30대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 죄인들을 쫓는 ‘박일도’ 다.

송민 : (흔들며) 이보시오, 이보시오.

#60. 동굴 (저녁)

모닥불이 지퍼져있고, ‘박일도’가 뉘어져 있다.

송민이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옷깃을 찢어 상처를 싸맨다.

움짤하며 깨어나는 박일도.

송민 : 정, 정신이 좀 드시오?

박일도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변을 살핀다. 일어나려 하다 통증을 느끼는 표정.

송민 :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오. 겨우 지혈하였으니.....

박일도 : 고, 고맙소.

(시간경과)

송민 : 차림을 보아하니 예사 분은 아닌 듯 한데.....

박일도 :(불편한 심기)

송민 : 아, 곤란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되오.

박일도 : 헌데 선비께서는 어디로?

송민 : 동두천으로 가는 길이라오.

박일도 :?

송민 : 천하 명창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하하하.

박일도 : 행색을 보니.....

송민 : 반 거지나 다름없다 이 말시오? 하하하.

박일도 : (미소 지으며 고개 끄덕).....

송민 : 이 물골로 기방에 들 수는 없겠지만 흠, 아오, 먼발치에서라도 노랫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지.

박일도 : 풍류를 즐기시나 봅시다?

송민 : 휴~ 즐기고 싶어 즐기는 게 아니라..... 음....

박일도 :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송민 : 옳은 말시오. 뜻대로 되었다면.....

송민은 송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운 표정을 짓는다.

송민 : 그쪽 이야기나 함 해보시오. 처자는 없소?

박일도 : 혼인한 적이 없으니.....

송민 : 그럼 사모하였던 여인은?

박일도 :(회상하는 표정) 있었지요.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양반집 규수였고, 저는 그 집의 머슴이었지요.

오랫동안 사모하였지만 아무런 내색도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이웃고을에 시집을 갔었지요.

송민 : 쫓쫓. 말이라도 하시지.....

박일도 :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묘사화 때 멸문지화를.....

송민 : 그, 그럼 그 여인은?

박일도 : 제가 손을 써서 어느 사찰에 모셨는데.....

송민 : 스님이 되었다?

박일도 : 예.

송민 : 그 여인은 알고 있소, 그쪽의 마음을.....

박일도 : 목숨을 걸고 구했으니 아마도.....

송민 : 아마도 그 여인은 기다리고 있을 것ियो. 마음을 표해주기를.....

박일도 : (고개 갸웃).....

송민 : 말을 해야 하오. 물어두면 두 가슴이 문드러진다오.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 되는 법ियो.

박일도 : (혼잣말처럼) 사랑이라 말하면 사랑이 된다!

(며칠 후)

#61. 산중 갈래길 (낮)

수일 후 완쾌한 듯 보이는 박일도가 갈림길에서 서로 작별을 한다.

박일도 : 보답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소만.....

송민 : 마음에 두지 마시오.

박일도 : 그럼.....

서로 목례를 하고 서로의 길로 떠나는 두 사람.

#62. 어느 정자. (동두천, 낮)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정자위에 선비들과 기생들이 어울려 판을 벌였다.

느릿느릿 걸음으로 정자에 다다른 송민.

송민 : 지나는 객이 온데 목 좀 축여주소.

선비1 : (살피더니) 선비에게 말 거는 것을 보니 양반인 듯 한데 술을 주면 그대는 무엇을 주시겠소?

송민 : 보시다시피 상 거지꼴이나 대금을 좀 봅니다.

송민이 대금을 연주하니 모두들 감탄한 얼굴이 된다.

선비2 : (잠시 살펴보더니) 오늘 우리들의 귀가 호사를 누렸소. 어서 올라 한잔하십시오.

정자에 올라 기생 옆에 앉더니 코를 별렁거리며

송민 : 아따 술 냄새도 좋고 계집 냄새도 좋다~ 하하하.

선비1 : (살피보더니) 가만 보니 선비는 풍류객이로세.

송민 : 침어낙안 폐월수화와 노니는 여러분들이 풍류객이지요. 혹, 해월이라는 기생을 본적이 있소.

선비1 :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오. 발을 쳐놓고 노래만 부르니.....

송민 : 노래만?

선비2 : 양반가의 여식이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얼굴이 흉하여 그렇다는 말도 있소.

선비1 : 얼굴 없는 명창이라 이름이 더 높아진 것이기도 하고..... 왜, 궁금하시오?

송민 : 하도 소문이 자자하여.....

(며칠 후)

#63. 저잣거리 (동두천, 저녁)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송민.

송민 :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매, 매향각이 어디요?

행인 : (아래위를 살피더니) 해월의 소리 들으러 왔수?

송민 : 그렇소만?

행인 : 정신없는 양반이구만. 돈 싸들고 줄을 서도 시원찮을 판에 이 꼴을 해가지고.....

송민 : (겸연쩍은 표정).....

행인 : 저기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두 번 돌면 있을거요.

#64. 매향각 앞 (저녁)

문 앞에 건장한 사내가 지키고 있고, 선비들이 그 근처에서 기웃거린다.

문지기 : 오늘은 자리가 없으니 돌아들 가십시오.

선비1 :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삼일 째 들락거리는데.....

문지기 : 열흘 기다린 선비님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만들

선비2 : 벼슬 높은 작자들이 끼어드니 순서가 오겠는가. 그만 돌아 가세나.

선비1 : 죽기 전에는 들을 수 있을는지. 찻~

송민이 문 앞으로 가까이 가자 문지기가 인상을 쓰니, 지나가는 행인처럼 행동하며 골목을 돌아가고.....

(시간경과)

#65. 골목길 (새벽녘)

술 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매향각에서 나와 골목으로 사라지고, 잠시 후 장옷을 걸친 기생 해월(송이)와 진국의 모습이 보인다.

송민은 행인처럼 지나치며 힐끗 기생을 살펴보는데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 송민은 멈칫하며 걸음을 멈춘다.

장옷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바로 송이의 눈이기 때문이다.

골목으로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송민.

#66. 산길 (새벽)

송민이 뒤를 밟는데 자꾸만 산속으로 들어가는 송이와 진국.

산길을 올라 굴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67. 굴속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다.

송이 : 스승님, 웬 사내가 미행을.....

진국 : (고개 끄덕).....

송이 : 난봉꾼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진국 : 두고 보면 알겠지. 얼굴 보려는 자가 한둘이 아니니.....

송이 : (걱정스런 표정) 이곳이 알려지면.....

진국 : 음.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시간경과)

#68. 숲 (저녁)

숲에 숨어 동굴을 살피던 송민이 꾸벅꾸벅 졸다가 섬뜩한 느낌에 눈을 뜨니 목에 칼이 겨누어져 있다.

송민 : (놀라며) 왜, 왜 이러시오?

진국이 칼등으로 뒷목을 치니 송민은 기절한다.

(시간경과)

송민이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뜨니 이미 한 밤중이다.

진국이 요깃거리를 내밀며,

진국 : 흥한 자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로 그쳤으니, 날 밝으면 떠나시오.

송민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진국.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뭘 생각이 난 듯 대금을 꺼내어 든다.

#69. 동굴 안 (밤)

진국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송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이때 대금소리가 들려온다.

진국 : (일어서며) 저놈이

송이 : (급하게 제지하며) 스, 스승님, 잠시만.....

송이의 표정을 살피는 진국.

송이는 뭘까뭘까?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안타까운 표정.

송이 : 어디서, 어디서 들어본 가락인데..... (머리 아파하는 표정)

진국 : (눈 멀뚱)

송이는 뭘가 생각해 내려는 듯 인상을 쓰더니 머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른다.

송이 : 악~~~~!

진국 : (깜짝 놀라며) 왜, 왜 그러느냐?

송이 : 머, 머리가 깨질듯

송이는 잠깐 혼절하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든다.

이때까지도 대금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곰곰이 생각에 빠져있던 진국이 동굴을 나선다.

#70. 굴 밖 (밤)

여전히 대금을 붙고 있는 송민.

진국 : 그 음률은 어디에서 익힌 것이요?

송민 : 제가 지은 것입니다. 현대 왜?

진국 :자네 이름이 뭔가?

송민 : 송민입니다 만,

진국 : 송진사택 송민?

깜짝 놀라며 회상에 젖는 진국.

(회상)

자막 : 20년 전

#71. 회상 / 한양인근 저잣거리 (낮)

포졸들이 뛰어다니고, 여러 사람들이 오랏줄에 묶여 압송중이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40대의 진국.

사내1 : 서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하네.

사내2 : 그게 뭐 죄가 되기에?

사내1 : 야, 이 사람아. 역모라잖은가. 역모. 역모면 삼족이..... 세도가 김판서 집안도 쑥대밭이.....

진국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급히 달린다.

#72. 회상 / 김판서의 집 앞 (낮)

김판서의 집 앞에 도착한 진국.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아낙1 : 혼사 며칠 앞두고 쫓쫓.

아낙2 : 김판서는 참수당하고 송이아가씨는 관노로 끌려갔다는데.....

아낙3 : 혼담 오갔던 송진사 집안도 쑥대밭이.....

회상에서 깨어난 진국이 송민을 뺨히 쳐다본다.

(현실)

#73. 굴 밖 (밤)

진국 : 후, 김송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가?

송민 : (눈 크게 뜨고) 송이낭자. 김판서의 무남독녀 말입니까?

진국 : (놀라는 표정) 그럼 자네가 송진사의 7대독자?

송민 : (고개 끄덕).....

이제까지의 일을 이야기 하는 진국.

진국 : 기억을 잃고, 무료하게 있는 것 보다는 좋을 것 같아 소리를 가르쳤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나가 노래를 불러 보고 싶다 하여 매향각에 나가게 되었지. 얼굴을 들어내지 않는 조건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이 퍼지고..... 내가 생부인 것도 모른다네.

송민 : (고개 끄덕) 빨리 낭자를.....

#74. 동굴 (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송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진국과 송민.

송민 : (눈물 주르륵)

송민이 옛일을 생각하며 대금을 애절하게 부니 불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송이는 그 소리에 꿈결인 듯 생시인 듯 옛 기억을 되찾아가고 잠시 후에 모든 기억을 되찾는다.

송이는 눈을 감고 있으나 송민의 대금 소리임을 알고 차마 꿈일까 하는 걱정엔 눈도 못 뜨고 눈물만 흘린다. 가늘게 흐느끼면서.....

송이의 눈물을 본 송민도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며칠 후)

#75. 계곡 (낮)

계곡물이 보이는 널따란 바위에 앉아 거문고를 타는 송민과 그 음률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송이. 두 사람의 시선엔 사랑이 가득하고 음률은 경쾌하다.

#76. 동굴 밖 (낮)

진국이 양지바른 곳에 앉아 북을 손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일도가 나타나 칼을 겨누고, 진국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비교한다.

박일도 : (알긋은 미소) 이제야 찾았구만.

진국 : (눈치를 살핀다)

박일도 : 허튼짓 않는 게 좋을꺼유. 목짚라 가기는 끔찍하니. 하하하.

순간, 박일도가 목을 겨누는 칼을 북채로 치고 장검을 찾아 뽑는다.

두 사람의 결투가 시작되고, 검에서 불이 번쩍인다.

힘과 기에서 밀리는 진국이 박일도의 발에 차여 나뒹군다.

다시 목에 칼을 겨누는 박일도의 귀에 송이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박일도 : 해월로 숨어사는 년까지 잡게 되었으니 소득이 좋구만.

#77. 계곡 (낮)

두 사람의 연주와 노래는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새 그들에게 다가간 박일도.

칼을 뽑으려다 송민과 눈이 마주치고 순간적으로 칼을 숨기고 바라만 본다.
송민은 박일도가 추격꾼임을 이미 알고, 눈짓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니 박일도가 고개를 끄덕인다.
노래가 끝나고 송민의 표정이 굳어지니 박일도는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박일도 : (번갈아 보더니) 참으로 잘 들었소.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박일도 : 어떤 선비분이 그랬지요. 사랑이라 말하니 사랑이더라! 저도 이제 그리 말해야겠습니
다. 어느 여인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말시오.

(며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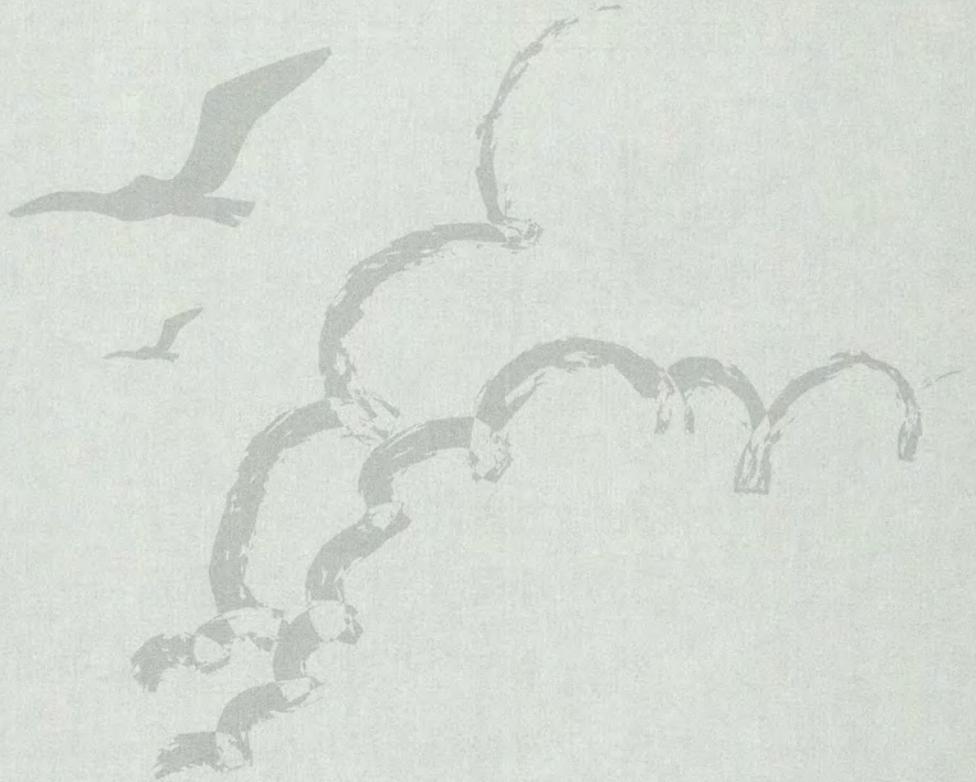
#78. 굴 밖 (아침)

송민은 거문고를 연주하고, 송이는 창을 하는데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다.
그 곁에 흐뭇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는 진국.
소요산의 풍경과 함께 자막 올라간다.
“이후 김송이와 송민이 머물렀다 하여 이굴을 금송굴이라 하였다.”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단풍 누호대

조희경 · 이소윤 · 현효원



단풍세계를 지킨 단이의 대모험!

단풍 수호대

Maple Guardian



조희경
이소윤
현효원



목차

1. 기획배경 및 의도
2. 작품개요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4. 추후전개방안 및 기대효과
5. 시놉시스/시나리오



1. 기획배경 및 의도

1. 기획배경 및 의도

● 동두천의 특징

질고 아름다운
단풍

동두천을 감싸는
동두천 6산

볼거리 먹거리 +
편리한교통



● 동두천의 콘텐츠

▷ 행사 및 축제

- 1) 소요단풍문화제
- 2) 왕방산국제MTB대회
- 3)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 왕방산 국제MTB대회가 명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요단풍문화제**가 가장 유명하다

동두천 행사의 콘텐츠 중,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단풍을
소재로 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



1. 기획배경 및 의도

●동두천의 특징

질고 아름다운
단풍

동두천을 감싸는
동두천 6산

볼거리 먹거리 +
편리한교통

●동두천의 콘텐츠

▷ 주요 콘텐츠: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

-장점: 소요산 아이덴티티 구축

원효를 테마로 한 등산코스 및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소요산 자체는 물론이고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 구축

-단점: 원효와 요석공주에만 한정된 콘텐츠

특정 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동두천시를 대표하는 콘텐츠의 부재
동두천시의 가장 큰 특징인 단풍과 6개의 산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스토리의 부재

원효와 요석공주
이외의 이야기콘텐츠
개발이 필요

Do Dream
33년

1. 기획배경 및 의도

●이야기소재: 6가지 모티브(Motive)

▷ 동두천 시가 갖고 있는 '특징'과 '전설' 활용

1 동두천 6산
소요산, 왕방산, 마차산,
해룡산, 칠봉산, 천보산

4 국사봉
왕방산에 위치한 국사봉
:최고의 절경과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곳

2 단풍
소요단풍문화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단풍의 절경

5 행단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제의 행단제
:동두천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

3 원효정
원효정과 원효정의 물
: 원효관련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심신과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능.

6 이무기
쇠목
: 이무기가 나타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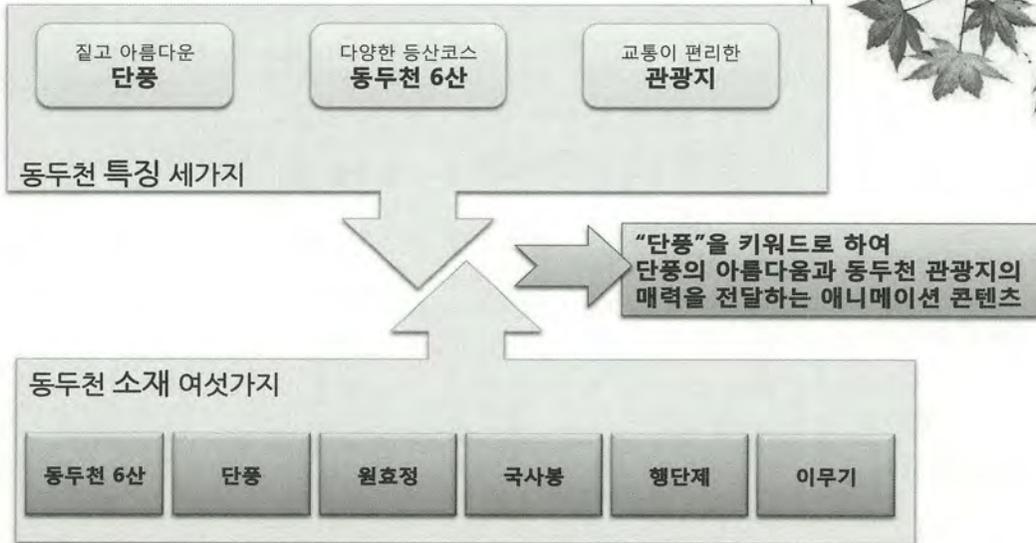
→이러한 요소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

:콘텐츠가 동두천 시의 특징과 연결되어 동두천시 만의 아이덴티티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함

Do Dream
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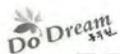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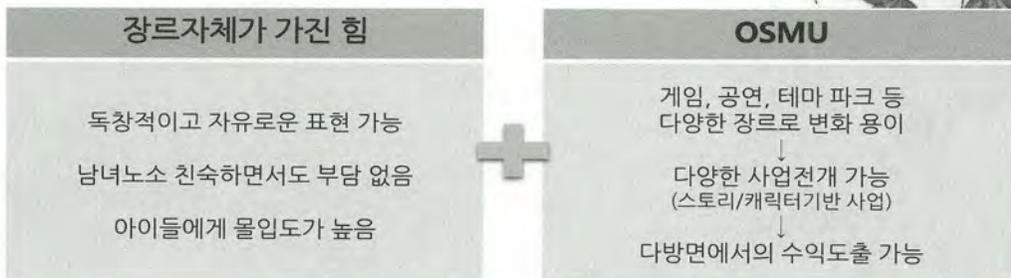
1. 기획배경 및 의도

●기획 중점요소



1. 기획배경 및 의도

●애니메이션 선택이유



동두천시는..

단풍수호대 애니메이션을 통해 동두천시만의 색깔이 담긴 이야기와 캐릭터를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 특화 된 관광지 개발, 관광상품 판매, 지역이미지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기획배경 및 의도

●매력적인 세계관

[신과 인간의 이야기(판타지와 인간세계)]

1.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는 판타지의 세계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장소
2. 대부분의 이야기는 모티브가 되는 지역의 전설이나 신화를 바탕으로 제작됨
(근거가 있으므로 보다 더 신뢰 가고 재미있는 이야기 구성이 가능)

[신과 인간의 이야기_ 성공 사례]



올림포스 가디언(2003)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본축으로 신과 인간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냄
TV용 만화 뿐 만 아니라 책으로 출판되어 큰 성공을 거둠



이웃집 토토로(1988)

한 마을의 신들이 두 명의 주인공을 돕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냄
높은 작품의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 캐릭터를 이용한 OSMU에서 크게 성공함

Do Dream
꿈꾸는



2. 작품개요





2. 작품개요

●스토리구성

1. 액자식 구성

1) 인간세계

현대를 살아가는 주인공 캐릭터 단이

현대적인 인물로 구성함으로써 현재의 동두천 6산의 특징과 모습의 간접적으로 노출 가능
(예. 단이의 취미: MTB타기)

2) 단풍세계 (판타지세계)

주요 캐릭터가 등장하고 메인 스토리가 전개되는 장소

판타지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



인간세계와
단풍세계를 넘나드는
캐릭터 '단이'



Do Dream
주최



2. 작품개요

●스토리구성

2. 선악구조

분명한 선과 악의 대립

권선징악의 구조

선(善)한자는 시련을 겪지만 결국 악을 누르고 승리하게 됨

→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만큼 가장 친근하고 흥미로운 구조



善 동연, 단이(+정령), 단풍여신, 풍호



惡 이무기신, 태소, 대마왕, 공쌍둥이신

Do Dream
주최



2. 작품개요

플롯(PLOT)	
발단 인간 세계	산에서 놀기 좋아하는 왈가닥 단이. 어느날 단이는 단풍세계의 악의기운이 봉인되어 있는 호리병을 열어 봉인을 해제시킨다. 단풍세계로 돌아가게 된 악의기운 덕분에 단풍세계를 장악하려 하는 대마왕이 힘을 얻게 되고 단풍 세계는 위기에 빠진다. 이 때 단풍세계의 전사 풍호가 단이를 찾아와 단풍세계를 구하기 위해 악의기운을 다시 봉인해 줄 것을 부탁한다.
전개 인간 세계	풍호를 통해 단이는 단풍세계에 대해 알게되고 대마왕이 단풍여신을 산에 가두고 단풍세계를 점령하려 한다는 것, 단이의 어머니가 단풍세계의 여신이었던 사실, 그리고 자신이 반신반인의 존재임을 알게된다. 또한 봉인을 해제한 단이 자신만이 악의기운을 다시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고 사명감을 갖고 단풍세계로 떠난다.
위기 단풍 세계	쌍둥이공신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태소가 나타나 위기에 처한 단이를 구해준다. 이를 계기로 태소가 단이일행에 합류한다. 하지만 태소는 대마왕의 충직한 오른팔로 봉인도구인 호리병을 단이로부터 빼앗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스파이다. 이무기신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태소는 본색을 드러내고 단이의 호리병을 빼앗아 달아난다. 설상가상으로 단풍전사 풍호까지 상처를 입어 악의무리를 무찌르는 데 위기에 처한다.
결정 단풍 세계	소요산에서 대마왕과 최후의 결투가 벌어진다. 힘을 비축한 대마왕은 지하세계의 악의세력까지 동원하여 단풍세계를 점령하려 한다. 단이는 단풍피리로 자연정령을 깨워서 악의세력과 맞설 수 있게 되었고 단풍전사 풍호는 상처를 회복하여 단풍술로 악의 무리를 공격한다. 또한 단풍세계의 여신이었던 단이엄마는 감춰있던 단풍여신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고 풀려난 단풍여신은 단풍세계의 빛을 끌어 모아 어둠을 물리치는 데 힘을 보탠다. 단이, 풍호, 단이엄마 동연, 단풍여신은 자연정령들 및 요정의 도움으로 대규모의 악의무리를 무찌르고 봉인하는데 성공한다.
결말 단풍 세계 + 인간 세계	단풍세계는 찬란한 빛을 되찾았다. 단이는 단풍세계를 구한 공을 인정받아 단풍세계의 신으로 임명되고 단풍세계의 대사(大事)인 행단제를 관장하게 된다. 인간세상으로 쫓겨났던 단이엄마도 단풍세계의 신으로 복귀한다. 단이와 풍호는 결혼을 하여 단풍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단풍밭을 통해 인간세상에도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행단제를 정성스레 지낸다. 덕분에 현재 동두천자락의 단풍은 최고로 손꼽히고 있다.

Dream
44년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단 이 (12살)

반신반인 (왕방산의 신 동연이 인간사이에서 낳은 딸)

산을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활동적이며 천방지축.

왕방산의 신이었던 동연이 인간과 사랑에 빠져 낳은 딸로 자신이 반신반인인지 모른 채 "인간세계"에 살고 있다.

악의 기운이 봉인되어 있는 호리병을 실수로 열게 되어 단풍세계와 엄마(왕방산신 동연)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호리병 봉인을 푼 자가 악의 기운들을 다시 봉인할 수 있기에 악을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책임감을 느끼고 단풍세계의 평화와 엄마를 살리기 위해 길을 떠난다.

단풍세계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풍피리를 불어 자연정령을 깨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감과 동시에 출생의 비밀도 함께 알아간다.

그림1. 단이(왼쪽)와 단이가 피리를 불면 깨어나는 정령(오른쪽)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풍 호 (16살)



마차산의 신/ 단풍전사

정의롭고 사리분별이 뛰어나다.

단풍무예가 뛰어나며 단풍잎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복제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단이엄마 동연이 인간세계로 쫓겨난 후 동연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 종종 인간세계에 내려오는데 그때 단이를 보고 짝사랑하게 된다.

단이와 함께 단풍세계의 악의 세력을 몰리치고자 길을 떠나며 단이 옆에서 단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호해 준다.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대마왕

지하세계의 신

욕심이 많고 사악한 신으로 세상의 모든 악의 기운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단풍세계의 신이 되려 하지만 단풍여신의 저지로 무산되자 단풍여신을 왕방산에 가두고 단풍세계를 암흑으로 만든다.

자신의 심복인 '태소'를 통하여 단이 일행을 곤경에 빠뜨린다. 어둠의 세력을 봉인할 수 있는 단이를 죽이고 단풍세계의 지배자가 되려 한다.

Do Dream
꿈꾸는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태소

대마왕의 심복

말수가 적어 무사의 기운이 느껴지는 매력적이며 대마왕이 아끼는 수하로 두 개의 검을 사용하는 쌍검술이 뛰어나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냉정한 인물로 스파이가 되어 일부러 단이에게 접근한다. 이것을 모르는 단이는 공신과 싸울 때 자신을 구해주었던 태소에게 반하게 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소는 본색을 드러내고 단이 일행을 곤경에 빠뜨린다.

결국 단이에게서 호리병을 빼앗아 목적을 달성하고 어둠의 세력에 합류한다.

Do Dream
꿈꾸는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단풍여신

소요산의 신이자 단풍세계의 으뜸신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날아 다닐 수 있다.
빛과 색을 관장하며 단풍세계의 평화를 위해 매년 행단제를 관장한다.

빛의 은행나무를 통해 세상에 빛과 아름다운 색을 전달하지만 대마왕의 공격으로 국사봉에 갇혀있다.
후에 동연의 도움으로 국사봉에서 탈출하여 단이와 함께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데 힘을 보탠다.



동연

왕방산의 산신 / 단이의 엄마

인간과 사랑에 빠져 단이를 임신한 후 단풍세계에서 인간세계로 쫓겨난다.
소리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풍세계에서는 소리를 통해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곤 했으며
후에 그 능력을 발휘하여 단풍여신을 구해낸다.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곰쌍둥이 신: 형(兄), 제(弟)신

천보산과 칠봉산의 산신들

산에 사는 동물들을 대표하는 신이다.

단풍세계 사람들이 산 속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었으나 대마왕의 꾀임에 넘어가
악의 세력이 된다. 그 후, 모든 사물을 뜯고 짓밟아 버리는 포악한 성질로 돌변한다.
꿀을 좋아하여 꿀단지들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것에 꿀을 던져 움직임을 저지시킨다.



이무기신

해룡산의 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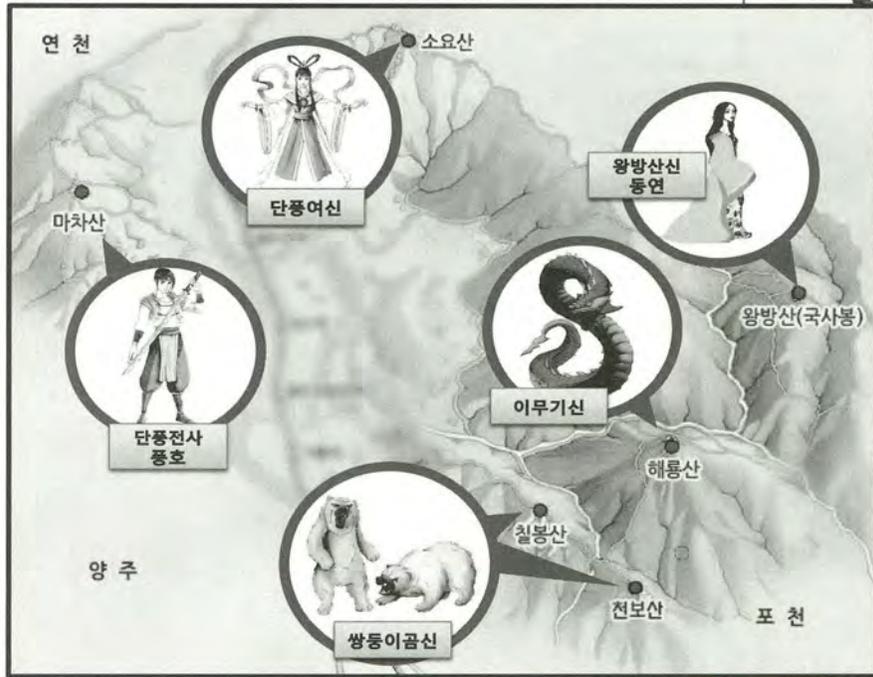
해룡산과 더불어 단풍세계의 강의 물줄기를 다스린다.

단풍여신이 자신을 언젠가 용으로 승천시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마왕의
이간질과 유혹에 넘어간다. 악의 세력이 된 후, 꼬리에서 독을 내뿜어 물을 오염시킨다.
또한 향기 있는 독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을 유인하여 잡아먹는다. 자신에게 대항하는 어떤 것
이든 온몸으로 그것을 감싸서 으스러뜨리는 포악함과 잔인함을 가지고 있다.



3. 캐릭터 및 등장인물

● 단풍세계 6산신(6山神) 위치



Do Dream
작품



4. 추후전개방안 / 기대효과

4. 추후전개방안/기대효과

●추후전개방안

1. 캐릭터를 활용한 머천다이징

-등장인물의 소지품을 이용한 상품제작: 단이의 단풍피리/ 태소의 쌍검
-캐릭터를 이용한 완구류,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OSMU를 통한 상품제작



2.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용 게임

각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능력(예. 단이:단풍피리로 경령을 부르는 능력 / 공쌍둥이신:공공격 능력)을 활용하여 모바일게임 제작 → 무료유포
→애니메이션의 주요타겟인 학생들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단풍수호대'애니메이션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



3. 장르 다변화

뮤지컬, 테마파크, 그림책, 관광 가이드북에 캐릭터 사용 등 다양한 OSMU를 실천할 수 있음



← 뮤지컬, 테마파크 등으로의 확장

Do Dream
주최

4. 추후전개방안/기대효과

●기대효과

1. 동두천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 → 동두천 브랜드/이미지의 강화

2. 동두천의 문화 관광지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높임 → 동두천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관심을 갖게 함

3. 스토리와 캐릭터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지/관광상품 개발
→ 수익창출

Do Dream
주최



5. 시놉시스 / 시나리오

시놉시스

단이는 소요산 자락의 마을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호기심 많고 활발하여 MTB를 타면서 산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단이. 밤에 피리를 불며 별을 바라보는 것이 취미다. 엄마는 이런 왈가닥 단이가 탐탁지 않다. 행여라도 딸이 다칠까 노심초사 하지만 단이가 산에서 노는 것을 말리기가 쉽지 않다.

어느 날, 엄마의 꾸지람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단이는 우연히 창고에서 신비한 빛을 발견한다. 엄마가 창고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하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단이는 신비한 빛이 나는 작은 호리병의 덮개를 연다. 그러자 갑자기 호리병에서는 검은 기운들이 뿜어져 나오고 단이를 공격하려 한다. 단이가 호리병에 봉인 되어있던 악의기운을 깨운 것이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단이의 목소리에 단이 엄마 동연은 한걸음에 달려와 악의 기운들로부터 단이를 보호한다. 하지만 대신 공격을 받은 동연은 크게 상처를 입는다.

이 때, 단풍세계에서 단풍전사 풍호가 인간세계로 단이를 찾아와 단풍세계를 구하고 동연을 살리기 위해 단풍세계로 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단이에게 단풍세계에 대해 이야기 해주기 시작한다.

사실 단이 엄마 동연은 인간세계가 아닌 단풍세계의 사람이었다. 단풍세계의 여섯 개의 산(소요산, 왕방산, 마차산, 해룡산, 칠봉산, 천보산)을 지키는 六神(단풍여신, 단풍전사, 동연, 곰쌍둥이, 이무기) 중 한 명으로 왕방산신(山神)이었다. 하지만 동연은 인간세계를 오가다가 단이를 임신하게 되어 신성함을 잃었다는 이유로 인간세계로 퇴출당하고 이를 계기로 호시탐탐 신(神)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지하세계 대마왕은 동연의 부재로 비어버린 왕방산의 산신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단풍여신의 저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대마왕은 앙심을 품고 단풍세계 六神 중 곰쌍둥이 신과 이무기 신을 피어내어 단풍세계를 차지할 계획을 세운다. 대마왕은 힘을 키우기 위해 단풍여신이 지키고 있는 악의기운이 봉인된 호리병이 필요했는데 대마왕의 계락을 알게 된 단풍여신은 단풍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호리병을 인간세계의 동연(단이 엄마)에게 맡겼다. 하지만 단이가 호리병을 열어서 악의기운이 풀려났고, 힘을 얻은 대마왕이 단풍세계의 빛과 함께 단풍여신을 가두고 암흑세상을 만들었다.

단풍전사는 이 사실과 함께 ‘봉인을 푼 자만이 다시 악의 기운을 봉인할 수 있다’는 것과 ‘열흘 후면 대마왕이 악의기운을 완전히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대마왕이 막강해지기 전에 악의기운을 봉인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원효정의 물만이 다친 동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함께 단풍세계로 떠나자고 한다.

동연(단이 엄마)은 단이의 단풍피리가 힘이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는다. 단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엄마를 살리고 악의기운을 봉인하여 단풍세계를 구하기 위해 봉인도구인 호리병을 챙겨서 풍호와 함께 단풍세계로 떠난다.

단풍세계에 도착한 풍호와 단이는 단풍세계를 배신한 곰쌍둥이 신이 살고 있는 마차산과 칠봉산으로 향한다. 칠봉산으로 간 풍호는 바람의 검을 사용하여 곰 형(兄)신을 무찌르고, 마차산으로 간 단이는 엄마의 말을 생각하며 피리를 불어 곰 제(弟)신을 공격하려하는데 단이의 피리소리는 오히려 곰신을 더욱 사납게 만들었고 곰 제(弟)신은 꿀을 던져 단이를 묶는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단이는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어디선가 태소가 나타나 단이를 구하고 곰신의 봉인을 뚫는다.

사실 태소는 대마왕의 충직한 오른팔로 단이가 지니고 다니는 호리병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단이에게 접근하였다. 하지만 태소는 호리병을 빼앗을 기회를 놓쳤기에 단이의 여정에 합류하여 기회를 노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단이는 자신을 구해준 태소에게 반하게 되고 단이, 풍호, 태소 셋은 함께 악의세력을 무찌르러 나선다.

이무기 신을 찾아 해룡산으로 나서던 날 밤, 단이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단풍 피리로 부는데 이 소리에 단풍 정령이 깨어난다. 이를 본 태소는 단풍정령 때문에 혼자서는 호리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여기고 이무기 신과 힘을 합쳐 호리병을 뺏으려고 마음먹는다.

세 사람은 드디어 해룡산에서 이무기 신과 맞닥뜨린다. 이 때 태소가 본색을 드러내어 이무기 신이 아닌 단이와 풍호를 공격한다. 단이는 피리로 단풍정령을 깨워 이무기를 공격하고, 풍호는 단이를 공격하려는 태소에 맞서 싸운다. 격렬한 싸움 끝에 풍호와 태소는 상처를 입는데 태소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단이의 호리병을 빼앗아 대마왕에게로 돌아간다. 단이와 풍호에게 합동 공격을 당한 이무기는 물길을 타고 소요산 원효정으로 도망간다.

원효정의 물을 마시면 모든 생물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이는 다친 풍호를 치료하고 이무기를 봉인하기 위해 피리를 불어 정령을 깨우고 혼자 힘으로 이무기와 대적한다. 이처럼 친구를 구하고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점점 단풍정령과 혼연일체가 되어가는 단이. 이제 피리를 자유자재로 불며 단풍정령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단이는 이무기를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소요산에 힘을 모으고 있던 대마왕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충분한 힘을 비축하지 못하여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다짐한다. 원효정의 물을 마신 풍호는 기운을 되찾고 원효정의 물을 떠서 인간세상의 단이엄마의 생명을 구하고 동연과 함께 돌아온다.

호리병을 빼앗긴 후의 단풍세계는 더욱 더 짙은 어둠과 악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이엄마 동연은 새 생명을 되찾아 단풍세계로 돌아왔고 단이는 단풍정령을 자유자재로 부리게 되었으며 풍호는 상처를 치료했지만 이제 대마왕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왕방산 어딘가에 갇혀있는 단풍여신을 구해야만 했다. 그 누구도 단풍여신을 갇힌 곳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때, 동연이 능력을 발휘한다.

동연은 인간세계로 쫓겨나기 전까지 왕방산의 신이었기에 왕방산을 꿰뚫어볼 수 있었다. 왕방산 경관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반하여 무작정 산에 오른 사람들이 산세가 험해서 자주 길을 잃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동연은 산메아리를 울려 왕방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곤 했다. 동연은 이러한 메아리 능력을 사용하여 왕방산 속의 '소리'에 귀기울인 후 단풍여신이 갇혀있는 곳을 찾아낸다. 단풍여신은 왕방

산 내에서도 최고의 절경과 험한 산새를 자랑하는 국사봉에 갇혀있다.

동연은 악의 세력을 봉인해야 하는 열흘 중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풍여신을 구하는 것은 엄마인 자신에게 맡기고 단이는 풍호와 함께 대마왕을 무찌르러 갈 것을 권유 한다. 그렇게 하여 단이와 풍호는 대마왕이 있는 소요산으로 떠나고 동연은 소리를 이용하여 국사봉을 지키고 있는 악의 무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틈에 단풍여신을 구한다.

소요산으로 떠난 단이와 풍호는 대마왕과 최후의 결전을 치룬다. 대마왕은 지진을 일으켜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 틈으로 지하세계에 있던 악의 기운들을 불러 모은다. 피리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 단이는 단풍정령뿐만 아니라 자연의 정령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불러 대마왕의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고 풍호는 단풍잎들을 자신의 모습으로 복제시켜 어둠의 세력을 공격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악마와 요괴, 악의기운을 감당할 수 없어 악의세력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 그때 단풍여신이 빛과 색을 모아 세상을 밝히며 동연과 함께 소요산에 나타난다. 단풍여신은 단풍요정들을 불러 모으며 어둠의 세력과 맞서고 동연도 어둠의 세력들이 무서워하는 고음의 소리를 이용하여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방해한다. 이렇게 단이, 동연, 단풍여신, 풍호 네 사람은 단풍정령과 요정, 자연의 신들과 힘을 합쳐 대마왕을 무찌르고 어둠의 세력 모두를 호리병에 봉인한다. 이들은 단풍세계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하는데 성공하고 마침내 단풍세계는 어둠이 거치고 빛을 되찾게 된다.

단풍여신은 자신을 구해준 동연을 다시 단풍세계로 불러들이고, 단풍세계를 구해준 단이를 단풍세계의 신으로 임명하여 단풍세계의 대사인 행단제를 관장하게 한다. 평소에 단이를 특별하게 생각한 풍호는 단이와 결혼하여 인간세계와 단풍세계를 오가며 단풍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단풍여신, 동연, 풍호, 단이는 호리병을 지키며 자연정령과 단풍정령들과 함께 단풍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살게 되었다. 소요산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단이와 풍호가 단풍세계와 인간세계를 잘 수호해주기 때문이다.

단풍세계를 다킨 단이의 대모험 단풍 누호대

동연(단이 엄마): “단아, 또 산에 가니?”

동이 :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늦지 않을게요!”

이른 아침부터 MTB를 끌고 몰래 나오다가 엄마에게 들켜버린 단이.

행여 엄마에게 붙잡힐까 엄마의 물음에 동문서답하며 걱정 말라고 외치고는 황급히 집을 나온다. 오늘은 MTB를 즐기기에 딱 좋은 날이다. 유난히 바람이 선선하고 햇볕도 따뜻하다. 오늘은 꼭 MTB 초급코스를 완주하고 말리라 다짐하며 왕방산으로 향한다.

아직 12살인 단이에게 왕방산의 MTB 초급코스는 아무리 초급이라 할지라도 만만치 않다. 신나게 MTB를 타던 단이는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왕방폭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단이: “우와, 이곳에 이런 폭포가 있다니!!! 우와!!!”

단이는 선선한 바람과 시원한 물줄기에 기분이 좋아서 매일 불던 단풍피리를 꺼내 신나게 연주한다. 단이의 피리연주소리는 너무 예뻐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신나게 피리를 불다가 머리 위로 반짝이는 별들을 발견하고는 피리 부는 것을 멈추고 별을 세어본다. 별자리를 찾으려 하며 즐거워하던 단이는 순간 밤이 된 것을 깨닫고 엄마의 잔소리를 걱정하며 황급히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한다. 어두운 밤, 급하게 산을 내려오다가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흠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단이는 오늘도 엄마의 꾸중을 듣는다.

동연: “어머나 세상에! 단아, 어떻게 된거야, 다친 곳은 없니? 단이, 너!!”

그 다음날, 단이 엄마 동연은 단이가 산에 가지 못하게 하고 집 뒷마당에 MTB에 자물쇠를 채운다. 이를 발견한 단이는 울상을 지으며 엄마에게 떼쳐보지만 동연은 안 된다는 말뿐이다.

단이: “엄마 오늘은 진짜 진짜 일찍 들어올게요. 오늘은 안다칠거예요 조심할게요.. 네? 네? 엄마아아아아아아~~~~~”

동연: “안돼.”

하루종일 산에 가지 못하고 방에 있어야 하는 단이는 답답하기만 하다. 오늘은 별을 보고 있어도, 피리를 불고 있어도 즐겁지가 않다. 그 날 밤, 내일은 꼭 산에 갈 거라고 마음먹은 단이는 엄마가 채워 놓은 자물쇠를 풀기 위해 엄마가 잠 든 틈을 타 뒷마당으로 간다.

엄마가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조심하 가며 MTB에 채워진 자물쇠를 풀려고 할 때, 마당에 있던 창고에서 불그스레한 빛이 나오고 있다. 창고는 엄마가 평소에 못 가게한 곳이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면 엄마가 화를 낼 거라는 걸 알지만 창고 안에서 나오는 불그스레한 빛이 너무 궁금한 단이는 그 빛을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단이: “내가 창고에 들어간 걸 엄마가 아시면 화내시겠지? 아니야,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괜참을 거야. 근데, 저 빛은 도대체 뭘까?”

태어나서 창고에 처음 들어간 단이는 창고 안에 놓인 물건들이 그저 신기하다. 창고라고 하지만 정갈히 정돈되어 있다. 선녀가 입을 법한 예쁜 제복도 있고 색색의 단풍 나뭇잎들도 눈에 보인다. 하지만 단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단상위에 있는 빛을 내고 있는 작은 호리병이다. 빛을 내뿜고 있지만 미묘한 흔들림 때문에 단이는 호리병 안의 내용물이 더없이 궁금해진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던 단이는 호리병을 막고 있던 덮개를 연다. 덮개를 여는 순간 검은 기운들이 뿜어져 나오더니 창고 안의 불빛들이 사라진다.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상한 소리와 함께 음흉한 기운을 느낀 단이는 무서워서 황급히 창고를 빠져 나오려고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 때, 빨간 눈을 가진 검은 무언가가 단이의 몸을 감싸더니 단이를 움짱 달짝 못하게 만든다. 너무 무서웠던 단이는 비명을 지른다.

단이 : “아악!!!!!!!!!!!!!!”

갑자기 방에 있던 램프가 불이 꺼지고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동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이의 방으로 가보지만 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 창고에서 들려오는 단이의 비명소리에 창고로 황급히 뛰어 간다.

동연 : “단이야!!!”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간 동연은 악의 기운들이 단이를 묶어 두고 해하려는 광경을 목격한다. 악의 기운이 사악한 불을 내뿜어 단이를 공격하자 동연은 몸을 던져 단이를 보호한다. 동연은 악의 기운들의 공격으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단이를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높은 소리를 내어 악의 기운을 공격한다. 고음을 듣고 괴로워하던 악의 기운들은 단이와 동연을 내버려 둔 채 사라진다.

악의 기운들이 사라지고 정신을 차린 단이는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자신의 실수가 엄마를 다치게 했다는 생각에 단이는 하염없이 울기만 한다. 그때 창고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온다. 인기척을 느낀 단이는 또다시 악의 기운들이 나타난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주변 물건을 집어 들고 마

구 휘두른다. 하지만 어둠속에서 휘두르던 단이의 손은 누군가의 의해 저지당하고 창고 안에 불이 켜진다. 당황한 단이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자 화려한 복색을 갖춘 전사가 단이의 손을 잡고 있다. 그는 단풍세계의 산신 풍호이다.

풍호는 단풍세계에 있는 여섯 개의 산중 마차산을 수호하는 신이다. 풍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단이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풍호 : “내가 인간 세상에 온 이유는.....”

단풍세상 속 이야기

사실 단이 엄마 동연은 풍호와 같이 인간세계가 아닌 단풍세계의 신이었다.

동연이 살았던 단풍세계에는 여섯 개의 산이 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소요산을 중심으로 하여 왕방산, 마차산, 해룡산, 칠봉산, 천보산이 있다.

6개의 산은 소요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산줄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산마다 산을 지키는 산신이 있다. 산줄기의 중심인 소요산은 단풍세계의 산중에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산이다. 그 곳에는 산신(山神) 중에서도 으뜸신인 단풍여신이 있다. 단풍여신은 하늘의 정기를 받아 단풍세계의 모든 빛과 색을 내려주고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매년 행단제를 관장한다. 그 옆에 있는 마차산은 단풍전사인 풍호가 수호한다. 단풍무술이 뛰어난 단풍전사인 풍호는 마차산의 오색 단풍잎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여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단풍세상을 지킨다. 해룡산에는 단풍세계의 물줄기를 지키는 이무기 신이, 그 밑에 위치한 칠봉산과 천보산은 동물을 대표하는 신인 곰 쌍둥이 신, 형(兄),제(弟) 신이 수호하고 있다. 그리고 단풍세계의 신 중 한명이었던 단이 엄마 동연은 왕방산신이였다. 동연은 세상의 소리를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왕방산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산세가 험해서 아름다운 경관에 반하여 무작정 산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고 대다수가 길을 잃어 산에 갇히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동연은 산 메아리를 울려 왕방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곤 했다. 이렇게 단풍세계의 六神은 힘을 모아 단풍세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화합하여 조화로운 삶을 이루었고, 단풍세계에 머물고 있는 악의 기운을 호리병에 가두어 단풍세계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다.

단풍세계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단풍여신의 주관으로 매년 행단제가 열린다. 행단제는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고 하늘의 정기를 받아 세상의 빛과 색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성스러운 제사 의식이다. 이 행단제는 인간세계에서 열리는 행단제와 같은 날 열리게 되는데 하늘의 정기를 받은 단풍세계의 나무를 통해서 인간세계에 빛과 색을 전달한다. 행단제가 열리는 날, 동연은 단풍여신을 비롯한 나머지 신들이 행단제 준비로 바쁜 틈을 타 인간세계로 나오게 되고 인간세계의 행단제 제사장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단이를 임신한다. 이를 알게 된 단풍여신은 크게 노한다.

단풍여신 : “단풍세계의 신의 규율 상, 인간과의 사랑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연신녀님께서 그 규율을 어긴 것은 물론, 인간의 아이까지 잉태하였으니 그 죄 깊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로, 동연신녀님을 인간세계로 퇴출시킬 것을 명합니다.”

결국, 동연은 인간세계로 쫓겨나고 왕방산의 산신(山神) 자리는 비게 된다.

호시탐탐 신(神)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지하세계 대마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단풍세계로 나와 단풍여신에게 왕방신의 신이 되기를 간청한다. 하지만 단풍여신은 대마왕이 악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풍세계를 수호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의 간청을 거절한다. 신이 되고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대마왕은 단풍여신에게 앙심을 품고 단풍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 대마왕은 六神중 이무기신과 곰 쌍둥이 신을 꺾어내어 자신의 힘의 근원인 악의 기운이 봉인되어 있는 호리병을 찾고자 한다. 자신을 용으로 승천시켜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된 이무기신은 대마왕의 편이 되어 단풍세계의 물줄기에 독을 뿌리고 향기로 사람과 동물들을 유혹하여 잡아먹는다. 사람들과 동물들 간의 조화를 담당하고 있는 곰 쌍둥이 형제도 악의 세력에 합류하여 단풍세계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을을 어지럽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단풍여신과 풍호는 단풍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호리병을 인간세계에 있는 동연에게 맡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단이가 호리병을 열어서 악의기운이 풀려났고, 호리병의 악의 기운을 흡수한 대마왕은 이무기신과 곰 형(兄), 제(弟)신과 함께 단풍여신이 있는 소요산을 점령하고 단풍여신을 가두어 버린다. 이와 더불어 단풍여신의 모든 힘을 차단하기 위해 세상의 빛과 색을 없애고 암흑으로 만든다.

단풍세계와 엄마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된 단이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인다.

풍호 : “호리병의 봉인을 푼 자만이 다시 호리병에 악의 기운을 봉인할 수 있어. 열흘후면 대마왕이 악의 기운을 완전히 흡수하게 될 거야. 그럼 단풍세계는 완전한 암흑으로 뒤덮여버려. 우리에게겐 너의 도움이 간절해. 단이야.”

단풍전사는 단이에게 대마왕이 막강해지기 전에 악의기운을 봉인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다친 엄마를 걱정하는 단이에게 단풍세계에 있는 원효정의 물만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으로 함께 단풍세계로 떠나자고 한다. 단이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풍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다친 엄마를 방에 눕히고 단풍세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단이에게 동연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단이를 다독여 준다.

단이 :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엄마가.. 흑흑...”

동연 : “단아, 엄마는 괜찮아. 네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너의 단풍피리가 너에겐 중요한 힘이 될 거야. 풍호신님, 우리 단이를 부탁드립니다.....”

동연(단이 엄마)은 풍호에게 단이를 부탁하는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는다. 단이는 피리와 악의기운을 봉인하여 단풍세계를 구하기 위해 봉인도구인 호리병을 챙겨서 풍호와 함께 단풍세계로 떠난다.

단풍세계로 떠난 단이

단풍세계에 도착한 풍호와 단이. 단풍세계는 은은한 암흑으로 뒤덮여 있다.

풍호 : “시간이 지날수록 단풍세계는 더욱 더 어두워 질 거야. 그리고 그건 대마왕이 힘이 더욱 커진다는 걸 의미하지. 우리에게겐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단이와 풍호는 먼저 단풍세계를 배신한 곰 형(兄), 제(弟)신을 봉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차산과 칠봉산으로 간다. 마차산과 칠봉산은 곰형제신이 만행으로 엉망이다. 곰형신이 살고 있는 마차산은 나무들이 모두 뽑혀있고 마을은 불에 타고 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불에 타고 있는 자신의 마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탄식뿐이다.

곰제신이 살고 있는 칠봉산은 온천지가 찢든거리는 꿀 천지이다. 집과 나무들은 꿀 속에 파묻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고 사람들은 꿀에 묶여 허우적거리고 있다.

마차산으로 간 풍호는 자신의 주특기인 단풍무예를 이용하여 사나운 동물들을 총동원하여 공격하는 곰형신과 싸운다. 풍호가 단풍잎을 여러 장을 날리며 주문을 외우자 단풍잎들이 풍호의 모습으로 변하고 동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그 틈을 타서 풍호는 검을 꺼내 장풍으로 동물들을 날려버리고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켜 그 속에 곰 형제 신을 묶어둔다.

칠봉산으로 간 단이는 곰제신과 대면한다. 단이는 피리가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엄마의 말을 생각하며 피리를 꺼내 곰제신 앞에서 연주한다. 하지만 그녀의 피리소리는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그 소리를 들은 곰제신의 성질만 돌올 뿐이다. 성질이 더욱 사나워진 곰제신은 단이를 향해 꿀을 던지며 공격한다. 피리를 불던 단이는 승산이 없자 이리저리 피해 보지만 결국 곰제신이 던진 꿀에 몸이 묶여 움직이지 못한다. 곰제신은 묶여 있는 단이에게 다가와 그녀를 해하려고 하고, 단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때 검은 누군가가 나타나 곰제신을 공격하고 단이를 구해준다. 단이를 위기에서 구해준 이는 바로 태소이다.

태소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단이는 주머니 속에서 호리병을 꺼내어 곰신을 봉인한다. 마초같은 성격과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뛰어난 무술실력을 갖춘 태소에게 반한 단이는 자신과 함께 악의 기운들을 봉인하러 함께 갈 것을 제안한다. 태소는 대답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단이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단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소가 대마왕의 충직한 심복이라는 것.

단이가 호리병의 봉인을 해지하고, 또 다시 봉인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고 그녀를 죽이고 호리병을 가지고 오라는 대마왕의 명을 받들어 그녀에게 일부러 접근한 것이다. 태소가 단이를 구해주는 척하며 단이를 없애려고 하던 찰나에 단이가 걱정되었던 단풍전사가 그곳에 나타난다. 태소는 단이 옆에서 단이를 지키고 있는 단풍전사이자 산신인 풍호 때문에 단이를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단이 일행에 합류하여 단이 일행을 도와주는 척하며 호리병을 뺏기 위해 기회를 노린다. 칠봉산에서 곰제신을 봉인하고 풍호와 태소와 함께 마차산으로 온 단이는 소용돌이 바람에 묶여 있는 곰형신도 호리병에 봉인한다.

자연정령을 깨운 단이.

단풍세계의 어둠은 점점 짙어 지고 있다. 단이 일행은 6개의 산을 이어주는 등줄기를 따라 해룡산에 있는 이무기 신을 찾기 위해 발길을 재촉한다. 밤이 너무 깊어, 더 이상의 산행은 무리라고 생각한 단이 일행은 칠봉산 둔턱에 있는 마을의 빈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한다. 모두가 잠든 밤, 태소는 풍호가 잠든 틈을 타 단이를 없애고 호리병을 가져가려고 단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간다. 단이의 방에서는 맑은 피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인간세계에 있는 엄마가 걱정되었던 단이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려고 엄마를 생각하며 피리를 불고 있다. 단이는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생각하며 단풍피리를 연주한다. 눈물을 흘리며 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단이 앞에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무언가가 나타나 말을 건넨다.

정령 : “드디어 절 깨우셨군요. 단이님..”

단이가 단풍피리로 자장가를 불어 ‘자연정령’을 깨운 것이다. 단이 엄마 동연이 말한 ‘단풍 피리의 힘’은 바로 자연정령이었던 것임을 깨달은 단이는 밤새도록 단풍피리를 불며 정령과 교감한다.

이 광경을 모두 보고 있던 태소는 갑자기 나타난 자연정령 때문에 혼자서는 단이를 죽이고 호리병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무기신과 힘을 합쳐 호리병을 뺏으려고 마음먹는다.

본색을 드러낸 태소, 위기를 맞게 된 단이

그 다음 날, 이무기 신이 살고 있는 해룡산에 도착한 단이 일행.

해룡산은 이무기신이 뿌린 독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 있다. 산 곳곳에 있는 강들은 말라서 강바닥은 모두 드러나 있고 물이 있는 웅덩이에는 이무기신의 독 때문에 죽은 물고기들로 뒤덮여 있다. 메마른 물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가지를 축 늘어뜨린 채 힘을 잃어간다. 아름다운 산들이 그들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단이는 마음이 아프다.

봉호 : “남아 있는 물줄기를 따라가자! 이 물줄기를 따라 가면 이무기신을 만날 수 있어. 이 물줄기는 이무기신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거야!”

물줄기를 따라 해룡산을 올라가니 해룡산 정상에 다다랐다. 성한 나무 한그루 없이 황폐해진 해룡산 정상에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는 이무기신이 있다. 단이는 단풍피리로 정령을 깨워 이무기신을 공격한다. 풍호도 바람의 검을 꺼내어 단이의 공격에 힘을 보탠다. 단이와 풍호의 공격으로 이무기신은 공격하지 못하고 단이는 호리병을 꺼내어 이무기신을 봉인하려 한다. 그때 칼을 빼어든 태소가 이무기신을 공격하지 않고 단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태소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낌 단풍전사 풍호는 단이를 향해 소리 친다.

풍호 : “단이야!! 위험해!! 피해!!”

태소는 본색을 드러내어 이무기 신과 함께 단이와 풍호를 공격한다.

단이는 단풍피리로 정령으로 이무기를 공격하고, 풍호는 단이를 공격하려는 태소에 맞서 싸운다. 풍호는 단이를 보호하기 위해 단이를 없애려는 태소와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이무기신은 꼬리에 달린 독주머니를 이용하여 단이에게 한 방울일지라도 몸에 닿으면 온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을 살포한다. 단이는 정령으로 이무기신의 독 공격을 막아내고 이무기신의 꼬리에 있는 독주머니를 막고 이무기신을 봉인하려 한다.

풍호와 격렬하게 싸우던 태소는 이무기신이 단이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단이를 공격하여 이무기신을 도와주고 호리병을 빼앗으려 한다.

풍호 : “단이를 공격하게 놔둘 순 없다! 이얍!!!!!!!”

태소로부터 단이를 지키려던 풍호는 단이를 대신하여 태소의 공격을 받아 큰 상처를 입게 된다. 태소는 풍호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단이의 호리병을 빼앗아 대마왕에게로 돌아간다. 혼자 남게 된 이무기는 단이의 공격으로 독주머니가 막혀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되자 황급히 옆에 있던 강으로 들어가 물길을 타고 소요산에 있는 원효정으로 도망간다.

풍호 : “단이야, 네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군아”

단이 : “그런 말 마세요. 풍호신님, 풍호신님께서 저 때문에 다치셨잖아요...”

이무기신이 도망가고 풍호가 남게 된 단이는 정령에게 풍호의 상처를 살펴보도록 시킨다.

정령 : “풍호신의 상처가 생각보다 많이 깊습니다. 이대로 여정을 계속한다면 풍호신의 목숨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습니다. 풍호신을 살릴 수 있는 건 소요산의 원효정에 있는 물 뿐입니다. 원효정으로 가야 합니다. 단이님.”

정령의 말을 들은 단이는 다친 풍호를 치료하고 도망간 이무기신을 봉안하기 위해 소요산 원효정으로 향한다.

소요산에 있는 원효정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물이 있는 곳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또한, 원효정에 있는 물은 설령 죽어 있는 생명일지라도, 모든 생명을 살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소요산에 도착하여 원효정 입구에 들어선 단이는 원효정에 있는 이무기를 발견한다. 이무기신은 원효정의 물로 원기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탐욕스럽고 사악한 마음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단이는 이무기를 봉안하기 위해 피리를 불어 정령을 깨우고 혼자 힘으로 이무기와 대적한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단풍세계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질수록 정령과 혼연일체가 되어가는 단이. 단풍 피리를 불어 정령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된 단이는 이무기신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

한편, 단풍여신을 가두고 소요산에서 힘을 모으고 있던 대마왕은 이무기신이 죽음 소식을 듣고 분함을 터뜨린다. 대마왕 곁에는 단이에게서 호리병을 빼앗아 온 태소가 있다.

태소 : “대마왕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한 악의 힘을 얻으시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직까지 완전한 악의 힘을 비축하지 못한 대마왕은 분함 마음을 삭히며 때를 기다리며 복수를 다짐한다.

단이는 원효정의 물을 떠서 풍호에게 먹인다. 친구를 생각하는 단이의 고운 마음 때문에 원효정의 물은 더욱 깨끗하고 맑다. 원효정의 물을 마신 풍호는 빠르게 기력을 회복한다. 완전히 기력을 회복한 풍호는 단이와 함께 원효정에 물을 떠서 동연(단이 엄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인간세계로 간다.

원효정의 물을 먹고 상처가 치유된 동연은 왕방산 어딘가에 갇힌 단풍여신을 구하고 단풍세계를 구하기 위해 단이, 풍호와 함께 단풍세계로 돌아온다.

단풍세계를 구한 마지막 전투

호리병을 빼앗긴 후 단풍세계는 더욱 더 짙은 어둠과 악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단풍세계에 빛을 찾고 대마왕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을 다스리는 단풍여신의 힘이 절실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단풍여신이 갇힌 곳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던 때 동연이 능력을 발휘한다.

동연 : “내가 알아볼게 오로로로로~~~~~”

동연은 단풍세계에의 6신(六神)중 왕방산을 수호하던 산신이었기에 왕방산의 지형과 위치를 모두 꿰뚫어볼 수 있다. 동연은 소리를 내고 귀를 기울인다. 산속에 퍼지는 동연의 목소리는 산에 있는 생명체들과 소통하여 작은 메아리들을 만들고 그 메아리들의 폭과 울림을 이용하여 단풍여신이 갇혀 있는 곳을 찾아낸다.

동연 : “국사봉이야!!”

단풍여신이 갇혀 있는 국사봉은 왕방산 내에서도 최고의 절경과 험한 산새를 자랑하는 곳이다. 단풍여신이 있는 국사봉으로 가려는데 단이 엄마 동연이 단이 앞을 막아선다. 악의 세력을 봉인해야하는 열흘 중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연은 단이는 풍호에게 대마왕을 무찌르러 갈 것을 권유 한다.

동연 : “단아,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열흘 중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 내일이 되면 대마왕이 완전히 악의 힘을 회복할 거야. 시간이 없단다. 단아, 단풍여신님은 엄마가 구할게 너는 어서 가서 대마왕을 봉인시키렴! 풍호님, 이곳은 저에게 맡기시고 단이를 데리고 대마왕에게로 가세요. 단이를 부탁드려요. 어서가세요! 어서!”

그렇게 하여 단이와 풍호는 대마왕이 있는 소요산으로 떠나고 동연 왕방산 국사봉에 도착한다. 동연은 이번에는 맑은 고음을 낸다. 이번에 내는 소리는 조금 전 단풍여신이 갇힌 곳을 찾을 때의 소리와는 다르다. 소리는 산속에 있는 나무들 사이사이로 전달되어 음폭이 커진다. 단풍여신이 갇혀 있는 국사봉을 지키던 악의 세력들은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한다.

악의 세력: “으악!!!!!!!!!! 악!!!!!!!!!!!!!!!!!!”

소리를 들은 악의 세력들 중 일부는 땅굴로 숨어 버리거나 물속에 뛰어 들고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던 어떤 이는 자신의 본분도 잊은 채 도망간다. 국사봉을 지키고 있는 악의 무리들을 혼란스러워 하자 그 틈에 동연은 국사봉안으로 들어가 갇혀 있던 단풍여신을 구한다. 동연과 단풍여신은 대마왕과 대적하고 있

단풍여신 : “동연님, 단이님, 나를 구해주고 우리 단풍세계를 구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동연님, 단풍세계로 돌아오셔서 저희 단풍세계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단풍세계의 평화를 위해 동연님의 힘을 제게 보태주세요.”

단풍여신은 자신을 구해준 동연을 다시 단풍세계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단이를 단풍세계의 신으로 임명하고 단풍세계의 대신인 행단제를 관장해 줄 것을 제안한다.

단풍여신 : “단이님, 단이님의 용기 덕분에 단풍세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단풍세계의 산들을 저희와 함께 다스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와 함께 단풍세계에서 사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단이님께서 단풍세계의 행단제를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행단제는 단풍세계에서는 제일 큰 연례 행사로 단풍세계에 있는 제일 큰 은행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 주민의 무병장수,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치르는 제사의식이다. 단이에게 행단제를 맡긴다는 것은 단이를 단풍세계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단이는 단풍여신의 제안을 받아들여 엄마 동연과 단풍세계에서 살기로 마음먹는다.

평소에 단이를 특별하게 생각한 풍호는 이 일을 크게 기뻐하며 단이에게 칭찬을 한다. 동연이 인간세계로 쫓겨났을 당시, 풍호는 단풍세계의 신이었던 동연의 인간세계 삶이 걱정되어 종종 인간세계로 건너와 동연을 지켜보곤 했다. 그때마다 동연의 옆에 있는 단이를 보았고 단이의 피리소리를 듣다 가곤했다. 동연의 안위를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인간세상으로 오가던 풍호에게 활발한 단이의 모습과 그녀의 피리소리는 단풍전사 풍호가 인간 세상에 오는 진짜 목적이었다.

풍호와 결혼한 단이는 인간세계와 단풍세계를 오가며 단풍세계의 신으로서 단풍세계를 지키고 행단제를 치르며 단풍의 아름다움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단풍여신, 동연, 풍호, 단이는 호리병을 지키며 자연정령과 단풍정령들과 함께 단풍세계의 평화를 지키며 살게 되었다. 소요산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단이와 풍호가 단풍세계와 인간세계를 잘 수호해주기 때문이다.

소요산
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선

두드림 패밀리

문준일 · 구인회 · 정우진 · 구영서



작품개요

구 분	내 용
이야기 소재 (Motive)	<p>생각이 유별난 가족! “두드림패밀리”가혼은 ‘하고만다!’하지만 생각대로 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p> <p>그래서 아버지는 무참히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땅 소요산 아래로 가족을 데리고 귀향을 합니다.</p> <p>두드림 동두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p> <p>모든 여건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작은 테마타운까지 완성해내는 두드림패밀리의 입지열전입니다!!</p>
스토리 구성 (Plot)	<p>은행잔고는 0원! 그러나 ‘희망’이라는 광대한 배경과 ‘생각’이라는 뛰어난 자본과 ‘깡’이라는 든든한 친구를 가진 두드림 패밀리!</p> <p>하지만, 마지막 사업 실패 후에 늘 유쾌하던 아버지가 조금씩 우울해지는 것을 보다 못한 아이들의 비범한 활약이 시작됩니다.</p> <p>이 이야기는 유별난 가족의 특별한 사회적기업 “ADD4”가 첫 발을 내딛는 그 과정을 담았습니다.</p> <p>오로지 생각의 재구성만으로 특별하지 않던 평범한 주변의 사소한 것들이 대단한 사업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입니다.</p>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Main)	<p>구수한씨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유쾌한 아빠. 많이는 아시는데, 깊게 알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일지도!</p> <p>아영 동화책을 쓰는 엄마. 아빠가 출판사 사장이라서 결혼했는데 엄마의 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아빠의 회사가 망했다. 한국의 창세신화에 관심이 많고 소요산을 배경으로 재미있는 신화를 쓰고 싶어 한다.</p> <p>구원 이 집안의 구원투수! 고등학생이며 생각의 달인이다. 평범한 것들을 연결해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내는 달인</p> <p>구수해 귀염둥이 막내 딸. 제과제빵사가 되는 것이 꿈인 초딩</p>
캐릭터 또는 등장인물 소개 (Sub)	<p>랜디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밴드를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뒀버려서 종종 집에서 쫓겨난다. 자칭 동두천 기타의 신 지금은 아내가 하는 중국집에서 철가방으로 맹활약</p> <p>니나 & 내나 구수한씨를 찾아온 강아지 형제 늑대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똥개들 험난한 세상에 어쩔수없이 인간에 잠시 의탁해서 사는 자존심 강한 강아지형제다.</p> <p>동자승 신비로운 아이. 어쩌면 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이다. 그 외</p>

구 분	내 용
<p>스토리wa 테마타운 (Theme & Theme Town)</p>	<p>스토리텔러와 함께 만드는 관광프로그램 이야기는 소요산이란 아름다운 자연과 그 자연속에서 나오는 꽃과 과실을 소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아담한 테마타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p> <p>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작은이야기</p> <p>㉠ 이야기속에서 아빠가 만든 북드림 Bar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술을 담으러 옵니다. 갖가지 사연을 담아 술을 담습니다. 하루는 노점장사를 하며 평생을 살아온 할아버지들이국화주를 담아갑니다. 그러면서 노점의 노가 길 노(路)가 아니라 이슬 노(露)임을 말하며 서러웠던 삶을 되새깁니다.</p> <p>㉡ 이야기속 엄마가 운영하는 드림Tea Cafe에서는 잡초란 아직 그 효능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풀이라고 말한 동자승(엄마의 이야기)이야기를 하며 찾아온 애기 엄마들과 차를 만들어 마십니다.</p> <p>㉢ 오빠의 두드림 Come True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명함을 만들고 직접 북아트를 통해서 자신만의 다이어리를 제작합니다. 당연히 생각의 달인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p> <p>㉣ 막내 꽃드림 하우스에서는 늑대라 우기는 강아지 니나 & 내나와 함께 풀어가는 꽃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며 폐병에 담긴 수정식물들이 세상에 보급됩니다.</p> <div data-bbox="793 1325 1307 192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20px;">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북드림 bar</p> <p>소요산에 나는 각종 과실로 담은 술을 파는 출판사 사무실 겸 술집(아빠)</p> </div> <div style="width: 45%;"> <p>드림teacafé</p> <p>소요산을 배경을 한 신화를 쓰는 엄마의 찻집 소요산에서 나는 각종 약자들이 제공된다</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두드림 패밀리</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Do Dream Come True</p> <p>어린이명함,어린이리터십 다이어리 제작하는 곳</p> </div> <div style="width: 45%;"> <p>꽃드림 하우스</p> <p>수정식물을 분양해주는 막내의 화원</p> </div> </div> </div>

시늬시늬

나, 구수해는 오빠(구원)을 잔머리의 대가 또는 품수의 달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오빠의 야비함(?)을 모르고 사람들은 '생각의 달인'이라고 칭찬만 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우리 오빠가 잔머리의 대가인지, 생각의 달인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볼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인 나를 심부름시키는 하인처럼 부리는
오빠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릴 작정이다.

달인의 탄생 : 머리 굴리는 아이

*이것은 엄마의 증언이다. 엄마는 이 사례를 오빠가 천재임을 증명하는 예로 들지만
난 오빠가 애기 때부터 잔머리와 요령을 부린 사례로 생각한다.*

오빠는 애기 때, 기어 다닌 적이 없다고 한다.
보통 애기들은 팔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기어 다니게 된다. 그러다가 힘이 붙으면서 마침내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결코 기어 다닌 적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오빠는 기지 않았다.
오빠는 어디론가 가고 싶으면, 가고자 하는 목표지점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커다란 머리를 돌리면서 몸통을 돌려
굴러서 그 지점에 갔다고 한다.
구르다 중간 중간에 그 큰 머릴 쳐들고 다시 목표지점을 확인한 다음
방향을 수정해서 굴러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오빠를 세계 최초로 기지 않고 일어선 아기라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신다.
어떻게 기지 않고 굴러다녔다고 천재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달인의 성장 : 머리 쓰는 아이

*오빠의 야비한 잔머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오빠 친구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오빠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관람표를 각 반에 20장씩 배당하여 판매하라고 했다.
하지만, 미술이라는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던 당시 중학생들은 50%할인의 싼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그럴 때 울상이 된 반장에게
우리 오빠가 다 팔아오겠다며 티켓을 달라고 했다.
심지어 옆 반에 배당된 티켓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전시관 앞에 가서!
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그 차액으로 돈가스를 당당하게 사먹었다고 한다.
당시에 같이 따라가서 돈가스를 얻어먹은 오빠의 친구는
영화 속의 영웅처럼 오빠를 칭송했다.
하지만, 문화생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학교의 배려를 무시하고, 50%도 아니고 30% 할인해서 팔아먹은
오빠를 사기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빠는 내게 사기를 많이 쳤다!!!

달인의 구원 등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목격한 이야기들이다.
여기서도 나를 이용한 야비한 오빠의 잔머리 돌리기가 시작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유쾌한 우리집안에 불운이 찾아왔다.
아버지 출판사가 망한 것이다.
아버지는 맛집은 아무리 멀고, 간판이 없어도 성공하듯이
좋은 책은 아무런 홍보를 안 해도 성공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셨다.
아빠의 생각은 맞는다고 동의하지만

아빠의 책이 마침내 성공하기까지 기다릴 재력이 우리 집에는 없었다.
아빠는 그 점을 간과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고향집 소요산 아래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껏 보지 못한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불태워버린 아빠의 명함
불꽃처럼 움직이는 오빠의 머리
불나방처럼 오빠에게 이용만 당한 나!

소요산으로 이사 온 날 밤
아빠는 조용히 책들과 명함들을 태우셨다.
그 이유는 짐작이 가지만, 무엇보다 놀란 것은 아빠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신 아빠.
나는 놀란 가슴으로 멍하니 있는데
오빠는 아빠가 태우다만 재들을 유심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게 물었다.

“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지?”

오빠의 갑작스러운 엉뚱한 질문에 당연하게,
“응”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게 내가 오빠에게 이용당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명함의 재발견

오빠는 다음 날부터 어린이 명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빠는 어른들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명함이
아이들의 미래 꿈을 새겨서 만든 어린이 명함으로 만들어지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첫 번째 명함이 되고
아이들은 동류의식에 서로 갖고 싶어 하고
나누며 수집하게 된다면 훌륭한 교육적 장난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두드림 패밀리 (Eepisode 1)

“그렇다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냐? 아빠?”

세 번째 이사를 나는 결사반대했다.

친구들이 생기고, 정들 무렵 아빠는 또 다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제대로 친구 사귄 기회를 아빠는 주지 않으신다.

게다가 아빠는 변명을 아주 잘하신다.

이렇게 이사 가는 것이 다 오빠와 나를 위해서란다.

첫 번째 우리 집은 장례식장 근처에 있었다.

두 번째는 시장 옆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것이 모두다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신다.

“아빠, 그러면 교육환경하면 강남으로 가야 하는 것 아냐?”

아빠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셨다.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맹모삼천지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빠의 주장은 맹자의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장례식장과 시장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살아봐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구나!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게 되고, 또 두 번째 시장에서 살아봐야! 새벽부터 일하는 아줌마와 아저씨들을 보고 배워야! ‘아, 사는 것이 이렇게 짝세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즉,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니란 것을 알면 어딜 가서 살아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장례식장과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되는 것이지! 게다가 소요산이 어디 아무데나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쌀을 품은 꽃, 국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엄마가 긍정적이란 것이다.

사실 너무 긍정적이셨다.

아빠 사업이 실패해도 엄마는 당신의 책을 출판 못한 것만 원망하셨을 뿐!

아빠에게 다른 화를 내지 않으셨다.

마침내, 우리 차가 동두천으로 들어서는데, 여기저기 국화 축제에 대한 플래카드가 보였다.

엄마는 틈만 나면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다.

“옛날 옛날 한 옛날 너희들이 생각하는 옛날보다 딱 1년 더 전에 동두천이 강바닥이 다 말라비틀어질 정도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나서 모두 굶어죽게 된 거야. 그러자, 소요산 자재암의 한 동자승이 농사의 신 ‘자청비’를 찾아갔어! 그래서 자청비가 문제를 맞히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 것이지!”

“어떤 문제를 냈어요?” 오빠가 엄마에게 물었다.

“일단 들어봐! 그 어려운 문제를 아무튼 동자승이 맞히자, 자청비가 꽃을 하나 선물로 줘! 그 꽃을 가져와서 소요산에 심으니, 산을 다 덮을 정도로 흐드러지게 피더니 꽃망울이 터지는데 거기서 마구 쌀알이 쏟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국화인거지!”

“국화와 쌀? 연결이 이상하지 않아?”

이번엔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다.

“국화의 한자를 보면, 감싸다 포(包), 쌀 미(米) 그리고 풀 초(艸)가 합쳐져서 국화의 국이거든! 즉 쌀을 품은 꽃이란 뜻이야! 어때 멋지지? 동두천 입성 기념 스토리야!”

아빠가 살짝 감탄하는 사이, 오빠가 또 무슨 문제를 냈냐고 물었다.

“그건 앞으로 살면서 생각해봐야지!”

엄마는 이럴 때마다 오빠에게 서운해 하셨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다. 오빠는 좋은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빠가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항상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오빠의 큰 단점이 앞으로의 연애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나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한다.

게다가 동화작가가 꿈인 엄마의 새로운 이야기에 오빠가 ‘지적질’을 한 날이면 엄마는 반드시 돌려주셨다.

그날 저녁 반찬으로 우리는 대가를 치르곤 하였다.

엄마는 긍정적인 분이셨지만 뒷끝도 있으셨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봐~”

부모님은 계속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셨다.

우리가 이사 가는 집의 창고는 옛날에 한 밴드의 연습실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노래라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 집에 도착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꼬마 동자승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는데, 예의가 없는 것인지, 겁이 없는 것인지 집주인인 우리를 힐끔 살펴보다니 계속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너는 어디 사니?” 엄마가 물었더니

“저기 위요!”라며 소요산을 가르켰다.

“며칠 사이에 또 잡초들이 이렇게 자랐네요!” 엄마가 아빠를 보고 말하자,

“잡초 아닌데요. 그냥, 음... 아직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지 못한 풀인데요!”

동자승이 느릿느릿하게 말하더니,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동자승의 뒷 모습을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았다.

사실 나는 ‘잡초’라는 말과 ‘이름을 붙여주지 못한 풀’의 차이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니나와 내나”

우리는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주인을 정해주었다.

허름했지만 더 넓은 내 방이 생겼다.

그리고 각자의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물론, 이사할 때 빠질 수 없는 자장면도 시켜먹었다.

룩커의 머리와 복장을 하고 철가방을 들고 자장면을 배달한 아저씨는 자신을 ‘랜디’라고 했다.

아빠와 동갑인 랜디 아저씨는 금세 우리 가족과 친구가 되었고, 다음 주에는 철가방이 아니라 전자기타를 들고 와서 소요산 이사 환영 연주회를 해준다고 약속하셨다.

짐 정리도 끝나고, 청소도 모두 끝난 늦은 밤 우린 삼겹살 파티를 시작했다.

이사 와서 좋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넓어졌고 마당이 생긴 것이다.

우린 그곳에서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다.

아빠가 삼겹살을 구우실 때 진지한 편이다.

하지만 오늘은 더욱 진지해 보였다.

마치 앞으로 오랫동안 고기 구경을 못할 것 같은 비장한 눈길과 손길로 삼겹살을 정성스럽게 구우셨다.

아빠가 고기를 너무 맛있게 구운 탓일까?

집 뒤쪽 산자락에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아지 두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며칠을 굶주려 보이는 초라한 모습!

우린 고기 몇 점을 던져주었고, 그 강아지들은 삼겹살을 흡입하듯 먹어치웠다.

내 어린 시절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나와 반대하는 부모님간의 투쟁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를 키웁시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다.

그때,

“너희들 이름은 ‘니나’와 ‘내나’다!” 아빠가 갑자기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다.

“아빠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나는 예쁜 이름에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다.

‘니나’ ‘와 내나’, 정말 예쁜 이름이었다.

아파트 살 때에는 꿈도 못 꾸던 강아지를, 그것도 두 마리나 가지게 된 기쁨에 이름의 뜻이 뭐냐고 아빠에게 물어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씁쓸한 사연이 있었다.

즉, 산에서 초라하게 내려오는 강아지의 모습에 아빠도 모르게 ‘너희나 나나 다 초라하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사투리로 표현한 것이 ‘니나 내나’였던 것이다.

“창고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한 가족이 된 니나와 내나는 더욱 전투적으로 삼겹살을 흡입했다.

정말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저 창고는 무엇으로 쓸까?”

엄마가 창고의 용도를 아빠에게 물었을 때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빠는 스티브잡스가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창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추자 엄

마는 저 창고에서 글을 쓰면 조앤 롤링 같은 대박 작가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오빠는 별말 없이 삼겹살을 먹고 있었지만, 나는 창고가 니나와 내나의 집이 되기를 원했다.
좀 크긴 하지만!

“일단 내일 창고 안을 정리하면서 생각합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치우기 시작하셨다.
조금 남은 고기들은 모두 니나와 내나의 차지가 되었다.

“첫날밤에 생긴 일”

새로운 곳에서의 첫 날 밤. 그 첫날밤은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웠다.
니나와 내나를 데려다 방에서 같이 자려고 했지만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엄마와 아빠가 반대하셨다.
그래서, 안방에 건너가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고 싶었는데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런지 들어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오빠 방으로 갔다.

“다 큰 게 무섭긴 뭐가 무서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키가 오빠랑 비슷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키 차이가 나면서 오빠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최근엔 부쩍 나를 어린이에 취급을 했다.
내년에는 나도 중학생이 되니까, 다시 오빠 키도 따라잡고 이런 부탁 안 해도 될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내가 잠들 때까지 내 방에 있어달라고 굴욕적인 부탁을 했다.
오빠는 보던 책을 들고 내방으로 함께 와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잠 들 수가 없었다.

“오빠, 니나와 내나를 창고 안에 넣어주고 오자!”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강아지를 키울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니나와 내나가 오늘 엄청나게 고기를 얻어먹은 것을 보면 우리 집에 오랫동안 붙어있을 것이 분명했지
만 그래도 밖에 그냥 두면 다른 맛있는 냄새가 나는 집으로 갈 것만 같았다.
오빠는 기꺼이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불꺼진 안방 문을 살금살금 지나 아직도 밥그릇을 핥고 있는 니나와 내나를 한 마리씩 안고 창고로 향
했다. 그런데, 우리는 창고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앞에서 얼어붙어버렸다.

창고문은 열려있었고, 안에서 도깨비불 같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무서워서 뒤로 숨은 나를 붙잡으면서 오빠는 열린 틈새로 오랫동안 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끌고 문 뒤로 몸을 완전히 숨겼다.
그리고 창고에서 검은 그림자가 불쑥하니 나올 땐,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아빠였다. 그래서 아빠를 부르려는 순간,
오빠가 내 입을 막았다.
그리고 달빛아래 비친 아빠의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슬픈 얼굴이었다.
안방으로 아빠가 들어가자 오빠와 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빠는 무엇인가를 태우고 계셨던 것이다.

“아빠가 태운 것은...”

“밤에 불장난 하면 오줌 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의 내 발언은 그날 밤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빠는 슬픔에 잠겨있었고, 오빠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오빠와 나는 니나와 내나를 내려놓고 아빠가 태워버린 무엇인가의 흔적을 살펴보고 시작했다.

니나와 내나는 창고 안을 뛰어다니기 바빴고 달빛에 비친 창고 내부는 생각보다 아주 넓었다.
창고내부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 나와는 달리 오빠는 잣더미를 계속 살펴보고,
타다 남은 재들을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아빠가 태워버린 것은 몇 권의 책들과 서류, 그리고 명함들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빠는 사업에 실패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셨다. 하지만, 그 분들은 너
무나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심지어는 아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심한 모욕을 주며 아빠의 손을 뿌리친 것이다.
그래서 아빠는 슬픈 마음으로 그 인연의 끈들을 태워버린 것이다.

아빠는 늘 독특한 논리로 우릴 웃게 해주셨고 엄마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두 분은 우리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면서 슬픔을 삼키고 계셨던 것이다.
오빠는 마치 석고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아빠의 재를 보고 있었다.
난 갑자기 모든 것이 무서워졌다.
오빠가 조금만 더 오래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다면 난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런데

“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지?”

그 밤에, 그 창고에서 어울리는 질문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난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리둥절한 나를 데리고 오빠는 방으로 가더니 내가 잠들까지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다 기억나진 않지만, 내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나는 내 꿈들을 차례대로 말해주었다.

액션배우, 가수, 그리고 제빵왕 구수해 등등등

“생각의 달인”

다음 날이 밝았다.

갑자기 오빠가 친절하게 웃는다.

“친구 많이 사귀게 해줄게~”

스스로를 생각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오빠가 저렇게 나올때 나는 불안하다.

내 눈에는 꼼수의 달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엄마와 함께 학교로 전학을 가서 낯선 친구들에 쌓여 수줍게 있었던 그날 오빠는 아주 바쁘게 움직였다.

명절 때마다 수금한 돈을 모아둔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인터넷도 설치하고, 컴퓨터도 프린터와 연결하고 컬러잉크도 새로채웠다.

무엇보다 이해가 어려웠던 것은 문구전문점에서 즉석 명함 용지를 사온 것이다.

그리고 서둘러 자기방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빠는 나에게 명함 100장을 주었다.

“아니 무슨 애에게 명함을?” 하며 이상해하던 부모님은 오빠가 만든 명함을 보시더니, 깔깔 웃으며 좋아하셨다.

보통 명함이란 어른들의 전유물이다.

자신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적어서 나누면서 교류를 한다.

그런데, 내 명함에는 내 미래의 꿈이 적혀있는 것이었다.

나는 분명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오빠는 ‘미래의 제빵왕 구수해’라고 적어서 100장이나 컬러 인쇄를 한 것이다.

“내 동생 수해야! 이제 새 친구들이랑 제대로 사겨야하니까 이 멋진 명함을 친구들에게 나눠줘! 알았지?”

내 꿈을 마음대로 정해버린 것이랑 내 명함임에도 불구하고 허락도 안 받고 상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만든 오빠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정성이 가늠하여 기꺼이 받아들였다.

“무슨 돈이 있다고 애 명함을 100장이나 만들어주니?” 아빠가 말하자

“다 생각이 있어요, 아빠. 한번 지켜보세요!” 오빠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린이 명함”

나는 그날부터 학교에서 최고 인기인이 되었다.

내가 인기가 있는 것인지 내 명함이 인기가 있었던 것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되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난 그날 하루만에 내 명함 100장을 다 나눠준 것이다.

심지어 선생님까지 재밌다고 하시면서 한 장을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는 또 다른 새로운 디자인의 명함을 만들어주었다.

나는 동네를 지나다 인사하는 아줌마와 아저씨들에게도 나눠주었다.

나는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내 짝꿍이 자기 명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명함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빠에게 말해보겠지만, 돈이 좀 들 수 있다고 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얼마정도 드는지 물어봤지만, 오빠에게 물어봐야만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친구랑 실컷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철가방 랜디 아저씨가 우리 집 마당에서 기타를 치고 계셨다.

“왜 혼자 연주를 하세요?”

아저씨가 대답을 하려는 데, 오빠가 방에서 나왔다.

“다 되었어요! 아저씨!”

오빠 손에는 랜디 아저씨의 명함이 있었다.

오빠는 자신의 두 번째 명함으로 랜디 아저씨의 명함을 디자인 한 것이다.

“지금은 즉석 명함 용지에 뽑은 것인데요. 아저씨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인쇄소에 주문해서 이를 뒤면 받으실 수 있어요.”

오빠의 친절한 목소리가 가식적으로 들렸지만 랜디 아저씨는 명함에 대만족하는 중이었다.

“자, 그럼 인쇄비 1만원에 디자인비 1만원? 오케이?”

랜디 아저씨가 내미는 2만원을 오빠는 냅کم 받아챙겼다.

“다음에 인쇄할 때는 디자인 비는 안 들어요!”

‘오늘은 철가방, 내일은 기타리스트 랜디’라고 적힌 샘플 명함을 신나게 들고 랜디 아저씨는 사라지셨다.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식사 시간에

나는 내 절친이 명함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오빠에게 말했다.

“왜 이제야 얘기를 해? 더 만들어 달라는 애들은 없어?”

신나하는 오빠가 약간 알밋기도 했지만 이사 와서 생긴 유일한 절친이 명함을 만들고 싶어하기에 오빠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오빠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

“자, 잘 들어! 이제 친구들이 너나 할것 없이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할거야! 이렇게 멋지게 명함을 디자인해서 명함을 100장 만드는데 2만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빠는 명함신청용지를 내밀었다.

난 울컥했다.

난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것이다.

난 오빠의 돈벌이를 위한 영업사원 역할을 한 것이다.

부지런히 명함을 돌리고, 명함을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주문까지 내가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내 친구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오빠가 죽도록 미워지려는 순간!
오빠는 눈치가 빨랐다.

“자 1명 신청할 때마다, 너한테 5백 원씩 줄게”

“새로운 시작”

잡잘했다.

명함을 만드는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니까 다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까지 주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래의 꿈을 적는다던지 또는 자신의 또 다른 특징을 적는 등 독특하고 코믹한 멋진 명함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 명함들을 수집하는 아이들까지 생겼다.

아빠는 출판사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싼 인쇄소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작은 사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블로그...”

이 작고 단순한 사업아이템은 생각보다 작은 사업이 아니었다.

오빠는 ‘두드림 come true’라는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아이들에게 첫 번째 꿈과 책임감을 주는 블로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드림이란 말이 참 멋진 말 같아. 두드리면 열릴 것 같은 내 꿈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 같거든...”

이렇게 시작한 블로그를 통해서 오빠는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과 개성 강한 명함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명함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였다.(1부 끝)

2부 예고

워렌버핏이라는 꼬마가 콜라병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며 나에게 빈병을 줍는 것을 권한 치사한 오빠와 그 병들을 이용한 오빠의 야비한 또 다른 사업이야기

2011년 소요산스토리텔링 공모전 입상 작품집

2011년 12월 12일 인쇄

2011년 12월 19일 발행

발행처 / 동두천 문화원

동두천시 상패동 122번지(시민회관 내)

TEL. (031) 865-2923

FAX. (031) 863-1020

발행인 / 안 민 규

편집인 / 박 용 철

인쇄처 / 원 애 드

TEL. (031) 862-6814

〈비매품〉

※ 이 책에 수록된 스토리, 캐릭터(이미지포함) 등은 동두천시의 동두천문화원에 귀속된 저작권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전재, 복제를 금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의 표절, 각색, 모방을 금합니다.

※ 이 책은 동두천시의 후원을 받아 홍보용으로 제작된 비매품으로서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거나 작품집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860-2063) 또는 동두천문화원(☎ 865-2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두 천 시



동두천문화원